

국립국어원 2009-01-50

발간 등록 번호

11-1371028-000138-14

2009년 경남 지역어 조사 보고서

■ 연구 책임자 : 김 정 대

■ 연구 보조원 : 김 한 결 · 박 성 미

■ 조사 지역 :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국 립 국 어 원

.... **제 출 문**

국립국어원장 귀하

‘2009년도 경남 지역어 조사 및 전사’에 관하여 귀원과 체결한 연구 용역 계약에 의하여 최종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09년 12월 21일

연구책임자 : **김정대**

연구보조원 : **김한결 · 박성미**

<국문 초록>

2009년 경남 지역어 조사 보고서

이 책자는 2009년도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명촌리에서 조사한 경남 지역어에 대한 조사 보고서이다. 주제보자는 김 할아버지(1931년 생)인데, 그분의 윗대는 450여 년 전부터 이곳에서 생활하셨다고 한다. 김 할아버지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제보자 요건에 상당히 근접한 분이어서, 조사자는 이 분을 통해 좋은 자료를 수집할 수 있었다.

이 보고서는 조사 과정, 전사 원칙, 전사 자료와 같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핵심 내용은 ‘전사 자료’에 들어 있다. ‘전사 자료’는 다시 제1편 구술 발화, 제2편 어휘, 제3편 음운, 제4편 문법과 같이 네 부분으로 하위분류된다. 구술 발화에 들어 있는 내용은 마을 소개, 유기 농법에 의한 논농사, 세시 풍속, 밭농사, 전통 놀이와 같은 다섯 가지이다. 대부분 『지역어 조사 질문지』 제1편에 수록된 ‘구술 발화’ 조사 내용에 따라 조사된 것이지만, 유기 농법에 의한 논농사 부분은 자유 구술 발화에 의해 조사된 것이다.

어휘, 음운, 문법은 질문지에 수록된 조사 항목과 그 순서대로 자료를 조사하여 전사한 것이다. 어휘 부분은 농경, 음식, 가옥, 의복, 민속, 인체, 육아, 친족, 동물, 식물, 자연에 관한 것이고, 음운 부분은 음운 목록, 음운 과정과 관련된 것이며, 문법 부분은 대명사, 조사, 종결어미, 연결어미, 주체 존대, 시제, 부정, 사동과 피동, 보조용언, 부사, 관용적 표현과 관련된 것이다.

주요어 : 경남 지역어, 조사 과정, 전사 원칙, 전사 자료, 구술 발화, 어휘, 음운, 문법

2009년
경남 지역어 조사 보고서

목 차

1. 조사 과정	7
2. 전사 원칙	13
3. 전사 자료	
제 1 편 구술 발화	17
제 2 편 어휘	120
제 3 편 음운	169
제 4 편 문법	209
4. 제출 자료(별첨)	
1) 보고서 100부	
2) 보존용 48,000hz, 전사 파일용 16,000hz 파일 및 전사 trs 파일	
3) 조사된 질문지	
4) 지역어 조사 정보 파일	
5) 제보자 조사표	
6) 지역어 자료 활용 동의서	

1. 조사 과정

1.1. 조사 지점 개관

조사자가 2009년도 경남 지역어 조사 지점으로 선택한 곳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명촌리였다.¹⁾ 그 동안 조사자는 경남의 남부(2004년도 고성), 중부(2005년도 창원), 북부(2006년도 창녕), 서부(2007년도 산청), 남서부(2008년도 남해)를 대상으로 하여 경남 지역어를 조사하였기 때문에, 2009년도는 경남의 동부를 선택했던 것이다.(행정구역상으로 울주군은 울산광역시에 소속되어 있지만, 그 언어는 분명한 경남 지역어에 속한다.)

울주군은 울산광역시의 다섯 구·군(區郡) 가운데 하나이다. 인구는 20여 만 명으로 울산광역시 인구의 18%에 지나지 않지만, 면적은 그 70% 이상을 차지하는 755.07km²에 이른다. 이것은 울주군이 전형적인 농촌 지역으로 형성되어 있음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

상북면(上北面)은 울주군의 4읍, 8면으로 된 행정구역의 하나인데, 13개의 행정마을을 거느리고 있다. 울주군에서는 가장 넓은 123.39km²의 면적을 자랑하는 곳이 바로 상북면이다. 상북면의 동남은 언양읍이고, 서북은 밀양시 산내면과 단장면, 경북 청도군 운문면에 접해 있으며, 남으로는 울주군 삼남면과 양산시 원동면, 북으로는 경주시 산내면과 인접해 있다. 면의 동·서·북쪽은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동남으로 틈여 있는데, 농사짓기에 적당한 강우량과 비옥한 토지로 하여 예로부터 쌀, 보리를 비롯한 오곡의 산출이 풍성하였다.

명촌리(鳴村里)는 면의 서남쪽 3km 지점에 위치해 있는데, 옛날 이 마을 주변에 봄이면 새들이 유난히 많이 모여들었다 하여, ‘鳴村’으로 이름 지었다고 한다. 경주 김씨 집성촌으로 출발한 곳으로, 현재 70여 세대가 살고 있다. 이 보고서 ‘구술 발화’ 편에 소개되어 있다시피, 이 마을은 오리를 이용하여 유기농법으로 쌀을 수확하고 있는 점이 큰 특색의 하나이다. 마을 앞 넓은 벌에 오렌지색으로 칠해진 지붕을 가진 수많은 오리 사육장은 외지인의 눈길을 끌기에 충분하다 하겠다.

이번에 조사 지점으로 선정된 이 지역의 특징적인 음운 현상은 특별히 언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자음 체계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ㅍ’이 발음되지 않아 ‘ㅅ’과 ‘ㅆ’의 대립이 없다는 점이다. 이는 낙동강 오른쪽(남에서 북으로 볼 때)에 위치한 지역이 공통으로 지니는 음운 특색의 하나인데, 이곳 울산도 예외가 아닌 것이다.

단모음 가운데 ‘에/애’와 ‘으/어’의 구별이 없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경남 지역어의 특성을 지니고 있으나, ‘위(wi)’와 ‘외(we)’가 비교적 현저하게 발음되고 있다는 점은 전형적인 경남 지역어의 특성과 거리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장음의 실현, 이와 관련하여 하강조의 성조가 유난히 발달해 있는 점, 상승조 성조도 적지 않다는 점 등도 전형적인 경남 지역어와 구별되는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음조적 특징은 경북 방언과 깊이 연관되는 것이라 하겠다. 제보자 할아버지의 개인적인 특성인지는 몰라도, ‘다섯, 여섯, 무슨’ 등 대부분 지역어에서 ‘ㅅ’으로 발음되는 것이 여기에서는 ‘다서지, 여서지, 무슨’ 등 ‘ㅆ’으로 발음되고 있어, 조사

1) 그러나 조사자는 울주군 안에서 상북면 명촌리 말고도, 언양읍 반천리, 상북면 덕현리 두 지점에서 일부 구술 발화 및 약간의 어휘 조사를 한 바가 있음을 밝혀둔다.

자를 흥분하게 만들었음도 덧붙여 둔다.(경우에 따라서, 이 ‘ㅈ’은 ‘ㅊ’으로까지 들리는 경우도 있었다!)

1.2. 조사 기간

- 울주군 상북면 명촌리 : 2009년 8월 3일 ~ 10월 1일
- 울주군 언양읍 반천리 : 2009년 2월 19일 ~ 2월 20일
- 울주군 상북면 궁근정리 : 2009년 11월 15일

1.3. 제보자

1.3.1. 주제보자

김 할아버지(79세. 농업. 무학. 토박이), 이 할머니(76세. 농업. 무학. 이웃 상북면 장성리 출신) 내외(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명촌리 143번지).

- 김 할아버지 : 윗대로부터 450년 이상 고향 거주. 대전에서 1년 동안 군 생활을 한 것을 제외하면 타지 경험 거의 없음. 한때 고향에서 광산업에 종사한 경력이 있음. 건강, 치아, 발음 모두 좋음. 어휘·음운·문법·대부분의 구술발화 담당
- 이 할머니 : 남편과는 이웃 동네인 상북면 출신으로, 건강, 치아, 발음 다 좋음. 단, 소극적 성격으로 적극적으로 대화에 임하려 하지 않음. 구술발화 가운데 ‘의생활’, ‘음식’ 부분에 응해 주심.

1.3.2. 보조 제보자

- 김 할아버지(78세)
 - 주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 직업 : 농업
 - 학력 : 무학
 - 병력 : 면제
 - 제보 내용 : 마을 소개 및 농사짓는 법에 대한 구술 발화(1시간 17분)
 - 특기 사항 : 몸이 불편한 데가 있으시어, 오래 조사할 수 없었음.
 - 음성적 특징 : 좋은 편임. 속도가 빠른 것이 흠이라면 흠.
- 이 할머니(74세)
 - 주소 : 김 할아버지의 부인
 - 출생지 : 울주군 상북면
 - 직업 : 농업
 - 학력 : 무학
 - 제보 내용 : 밭농사와 의생활에 대한 구술 발화(1시간 13분)
 - 음성적 특징 : 매우 좋은 편임. 그러나 간간히 표준어를 구사하시어 어느 것이 이 지역어인지 알기 어려울 때가 더러 있었음.
- 김 할아버지(86세)

- 주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 직업 : 농업
- 학력 : 무학
- 병력 : 6·25 때 울주군 일대의 험준한 산악을 이용한 빨치산을 토벌한 공로를 인정받아 무공 훈장을 받으심.
- 제보 내용 : 빨치산 토벌과 관련된 구술 발화(31분) 및 주제보자가 기억해 내지 못한 어휘 등 보충(1시간 23분)
- 음성적 특징 : 연세가 많으시어 발음이 분명하지 않음. 빨치산 토벌이라는 흔치 않은 경험담을 들으려고 했으나, 생각한 것만큼의 소득을 얻지는 못함. 그러나 의미 있는 발화를 들을 수 있었음.

1.4. 조사자

이름 : 김정대(경남대학교 교수)/김한결(서울대학교 대학원생)

조사 일시 : '1.2. 조사 기간' 참조

조사 장소 : 주제보자 및 보조 제보자의 집

조사 내용

- ① 구술발화 파일 1, 2, 5, 6, 8, 10, 14, 15, 19, 20, 25, 29, 34, 37
- ② 어휘 파일 3, 4, 7, 11, 12, 17, 24, 27, 28, 31, 32, 33, 35, 38
- ③ 음운 파일 9, 13, 18, 21, 22, 23
- ④ 문법 파일 16, 26, 30, 36

1.5. 조사 파일

<주제보자 파일>

테이프 번호	파일	녹음 시간	조사 항목	제보자	조사자	조사일
1	SGN_US_1	00:01:16	구술발화 간단한 구술 테스트	김	김정대 김한결	8월 3일
2	SGN_US_2	00:30:27	구술발화 마을 들여다보기	김	김정대 김한결	8월 3일
3	SGN_US_3	00:47:00	구술발화 자유 구술	김	김정대 김한결	8월 5일
4	SGN_US_4	01:20:00	어휘 20101 버 ~ 20316 껌질	김	김정대 김한결	8월 5일
5	SGN_US_5	00:47:09	어휘 20401 곡식 ~ 20523 더덕	김	김정대 김한결	8월 10일
6	SGN_US_6	00:43:34	구술 발화 1.3.2. 발농사	김	김정대 김한결	8월 10일
7	SGN_US_7	00:51:01	어휘 20601 쌀밥 ~ 20731 부침개	김	김정대 김한결	8월 10일

테이프 번호	파일	녹음 시간	조사 항목	제보자	조사자	조사일
8	SGN_US_8	01:43:45	음운 31001 테(輪) ~ 32008 감:- (閉眼)	김	김정대 김한결	8월 13일
9	SGN_US_9	01:01:25	구술 발화 1.3.3. 가을걷이와 겨우살이	김	김정대 김한결	8월 13일
10	SGN_US_10	00:48:03	문법 40101 나 ~ 40128 저리	김	김정대 김한결	8월 17일
11	SGN_US_11	00:48:47	문법 40201 -이/가 ~ 40244 -요(높임)	김	김정대 김한결	8월 17일
12	SGN_US_12	00:49:12	구술 발화 1.6.2. 가신과 조상 숭배 신앙 ~ 1.7.1. 각종 질병과 민간요법	김	김정대 김한결	8월 17일
13	SGN_US_13	00:31:30	구술 발화 1.6.1. 집짓기	김	김정대 김한결	8월 24일
14	SGN_US_14	00:56:21	어휘 20801 부뚜막 ~ 20842 개다리소반	김	김정대 김한결	8월 24일
15	SGN_US_15	00:53:95	어휘 21001 지붕 ~ 21221 맡기다	김	김정대 김한결	8월 24일
16	SGN_US_16	00:15:28	구술 발화 자유 발화(소나무 키우기)	김	김정대 김한결	8월 24일
17	SGN_US_17	01:07:??	구술 발화 1.8.1. 세시풍속(전부)	김	김정대 김한결	8월 27일
18	SGN_US_18	01:06:47	어휘 21222 나머지 ~ 21340 절피	김	김정대 김한결	8월 27일
19	SGN_US_19	00:46:16	음운 32009 벗-(脫)[ㅅ] ~ 32090 마르-(裁)	김	김정대 김한결	8월 27일
20	SGN_US_20	01:04:00	어휘 21401 명주 ~ 21528 도깨비	김	김정대 김한결	8월 29일
21	SGN_US_21	00:58:09	어휘 21601 고삐 ~ 21742 도롱이	김	김정대 김한결	8월 29일
22	SGN_US_22	00:54:08	구술 발화 10802 계절별 전통 놀이 ~ 10803 유아 놀이 방법	김	김정대 김한결	8월 29일
23	SGN_US_23	00:39:30	어휘 21801 이마 ~ 21861 먹살	김	김정대	9월 4일
24	SGN_US_24	00:41:41	구술 발화 1.4. 의생활(전부)	이	김정대	9월 4일
25	SGN_US_25	00:31:52	구술 발화 1.5.1. 채소 재배~ 1.5.2. 나물 채취	이	김정대	9월 4일
26	SGN_US_26	00:57:26	어휘 21901 어깨 ~ 22136 잠꼬대	김	김정대	9월 4일
27	SGN_US_27	01:58:33	어휘 22201 입덧 ~ 22379 사투리	김	김정대	9월 10일
28	SGN_US_28	00:50:27	음운 32091 끼-(안개가 ~) 32210 쓰다듬-(撫)	김	김정대	9월 10일
29	SGN_US_29	01:21:52	어휘 22401 물고기 ~ 22736 올가미	김	김정대	9월 18일

테이프 번호	파일	녹음 시간	조사 항목	제보자	조사자	조사일
30	SGN_US_30	01:26:30	음운 32211 사:납(猛) ~ 32362 밖(外)	김	김정대	9월 18일
31	SGN_US_31	00:51:50	어휘 22801 진달래꽃 ~ 23027 마름(菱)	김	김정대	9월 25일
32	SGN_US_32	01:05:07	어휘 23101 산꼭대기 ~ 23441 서풍	김	김정대	9월 25일
33	SGN_US_33	0043:06	문법 40301 -아라 40708 맞잖소?	김	김정대	9월 25일
34	SGN_US_34	00:51:28	문법 40801 살리다 ~ 41116 아니 때 굴뚝에 연기나 랴	김	김정대	10월 1일
35	SGN_US_35	01:25:31	자유 구술 : 만정현과 국일광산	김	김정대	10월 1일

<보조 제보자 파일>

테이프 번호	파일	녹음 시간	조사 항목	제보자	조사자	조사일
36	SGN_US_36	01:17:16	구술발화 마을 소개 및 논농사	김	김정대 김한결	2월 19일
37	SGN_US_37	01:13:00	구술발화 발농사 및 의생활	이	김정대 김한결	2월 20일
38	SGN_US_37	31:21	구술발화 자유 구술(빨치산 토벌 경험담)	김	김정대	11월 15일
39	SGN_US_37	18:55	구술발화를 겸한 어휘 보충 조사	김	김정대	11월 15일
40	SGN_US_37	01:05:14	구술발화를 겸한 어휘 보충 조사	김	김정대	11월 15일

1.6. 전사

1.6.1. 1차 전사(2008년 8월 ~ 12월)

구술발화 : 김한결, 박성미

어휘 : 김한결, 김정대

음운 : 김정대

문법 : 김정대

1.6.2. 1차 점검(2008년 9월 ~ 12월)

구술발화 : 김정대

어휘 : 김정대, 김한결

음운 : 박성미

문법 : 김한결

1.6.3. 2차 점검(2008년 10월~12월)

구술발화 : 김정대, 김한결

어휘 : 김정대

음운 : 김정대

문법 : 김정대

1.6.4. 3차 점검(2008년 11월 ~ 12월)

구술발화 : 김정대

어휘 : 김정대

음운 : 김정대

문법 : 김정대

2. 전사 원칙

첫째, 전사는 한글 약식 음성 전사 방식을 취한다.

둘째, 이 지역어에서는 ‘으/어’의 구별이 없어, 이 음운에 대한 발음이 음성적으로 현저하게 ‘으’에 가까우면 ‘으’로, 현저하게 ‘어’에 가까우면 ‘어’로 적되, ‘으’도 ‘어’도 아닌 어중간의 발음은 해당 어휘의 표준어 어형을 고려하여 그것에 따라 적는다.

셋째, ‘외/위’는 발음대로 적는다.

넷째, 대다수의 경남 지역어와는 달리, 이 지역어는 자음 뒤에 오는 j계 이중모음은 물론, w계 이중모음도 발음되는 경향이 농후하므로, 발음대로 적는다.

다섯째, 성조 표시는 지역어 조사 위원회의 방침에 따라 ‘고(H)-저(L)’ 2단으로 표시하는데, 고조일 경우에는 영문 자판의 작은따옴표 ‘”’로써, 하강조는 ‘^’로써, 상승조는 ‘ˊ’로써 이를 표시한다. 그러나 구술 발화에서는 이를 반영하지 않는다.

여섯째, 이 지역어에는, 중앙어 등 다른 방언에 비해 비의미적인 것이 많긴 하지만, 장음도 존재한다. 장음은 ‘:’로써 표시하고, 부사 등에 얹히는 표현적 장음에는 ‘::’ 표시를 한다.

일곱째, 비음은 ‘~’로써 표시한다.

여덟째, 구술 발화에서 청취가 불가능한 부분 또는 표준어로의 대역이 불가능한 경우는 ‘*’으로써 나타낸다. 구술 발화 이외의 곳에 쓰인 ‘*’ 표시는 해당 어형이 이 지역어에 없다는 뜻이다.

아홉째, 청취나 표준어 대역, 제보자의 제보 내용에서 의심스러운 부분은 ‘?’로써 나타낸다.

열째, 그 밖에 쓰인 기호는 다음과 같다.

- (+ 머) : 어휘 조사에서, 주제보자 할아버지가 기억해 내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주제보자 할아버지의 부인인 할머니 제보자의 발화 내용을 밝힌 것임.
- (+ 보조) : 어휘 조사에서, 김학근 보조 제보자 할아버지의 발화 내용임을 표시한 것임.
- (+ 신)(+ 구) : 신형과 구형.
- @ : 구술 발화에서의 조사자 표시.
- # : 구술 발화에서의 주제보자 표시(대부분의 발화를 혼자서 이끌어 나갈 경우에 표시).
- #1 : 구술 발화에서의 주제보자 표시(발화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기는 하나, 보조 제보자의 역할도 적지 않을 때의 주제보자임을 표시).
- #2 : 구술 발화에서의 보조 제보자 표시.
- 그 밖의 (+) : 필요한 설명 첨가.
- [X X] : 구술발화에서 발화되지는 않았으나 그와 같은 내용임이 틀림없을 때, 그 내용을 표시(표준어 대역 부분에서만 나타남).

3. 전사 자료



제1편 구술발화

1.1. 조사 마을의 환경과 배경

1.1.1. 마을 들여다보기

10101 @ 어르신 저:, 이: 마으른 운제 생겼습니까?{어르신 저, 이 마을은 언제 생겼습니까?}

10101 # 운:제 새깁따커느그그느 난: 정화카게 잘 모르겠서요.{언제 생겼다고 하는 그것은 난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10101 @ 말씀하이소. 아까 말씀, 아까 하싱거처럼네.{말씀하십시오. 아까 말씀, 아까 하신 것처럼요.}

10101 # 예, 그라고, 참 머:, 우리가 여: 정착한지가.{예, 그리고, 참 뭐, 우리가 여기 정착한 지가.}

10101 # 어~어, 십 한대에 삼십너늘 보른:.{어, 십 한 대에 삼십 년을 보면.}

10101 # 식구대쏘~이 낙끼따무네 고오로가 언자 계산을 해야 대충 나오지요.{식구대 손이 낫기 때문에 고것으로 인제 계산을 해야 대충 나오지요.}

10101 @ 예:.{예.}

10101 @ 그라든 한 대가: 삼십너늘 작꼬 십꾸대소이면 근: 머:,{그러면 한 대가 삼십 년을 잡고 십구대 손이면 근 뭐,}

10101 # 오:백 한 육.{오백 한 육.}

10101 @ **오륙십년.{** 오륙십 년.}

10101 # 예:.{예.}

10101 @ 예, 참 오래텐 동넵니다, 그지예?{예, 참 오래된 동네입니다, 그지요?}

10101 @ 그러든 혹씨 엔나레 이 동네가 우째 생긴지를 누가 말씀해 주신 거 드러신 거 인썸니까?{그러면 혹씨 이 동네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누가 말씀해 주신 것 들으신 것 있습니까?}

10101 @ 이 동네가 우째 생겼따.{이 동네가 어떻게 생겼다.}

10101 @ 이를테메는.{이를테면은.}

10101 # 그릉건 잘 몬 들었썸요. (웃음){그런 건 잘 못 들었어요. (웃음)}

10101 @ 그러면 이 동네에 모두 가구수는 모두 맥까구나 템니까?{그러면 이 동네에 모두 가구 수는 모두 몇 가구나 됩니까?}

10101 # 요: 중너네는 한: 십년 저네는 한 삼십오가구.{요 얼마 전에는 한 십 년 전에는 한 삼십오 가구.}

10101 # 이래 살다가 인자:는 객찌에서 드러와끼따무네.{이래 살다가 인제는 객지에서(도) 들어왔기 때문에}

10101 # 오새난 치, 칠십:까우썸 템니다.{요새는 칠, 칠십 가구썸 됩니다.}

10101 @ 예:.{예.}

10101 @ 그러면 삼십 멘까구: 사시썸 때 그때 성씨는 주로 어떠케 구성텐:썸니까?{그러면 삼십 몇 가구 사셨을 때 그때 성씨는 주로 어떻게 구성되었습니까?}

10101 # (마른 기침) 그:올때는 우리 경:주:강가가 마이 사력꼬.{(마른 기침) 그럴 때는 우리 경주김가가 많이 살았고.}

10101 @ 예.{예.}

10101 # 인자:: 이:씨, 김해김씨는 한 서넛쩍 사력쨌요.{이제 이씨, 김해김씨는 한 서너 집 살았지요.}

10101 @ 이 동네: 이름이 아까.{이 동네 이름이 아까.}

10101 # 명촌니.{명촌리.}

10101 @ 명촌니라 그러설쨌예?{명촌리라 그러쨌지요?}

10101 # 예.{예.}

10101 @ 그: 마을 이르메 얼킨 머 이야기 가통기 인쑤니까? 와 명초~이라 카는지.{그 마을 이름에 얹힌 뭐 이야기 같은 것이 있습니까? 왜 명촌이라 하는지.}

10101 @ 혹시 드러싱거 인쑤니까?{혹시 들으신 것 있습니까?}

10101 # 머 발글 명짜를 안하고, 울:명짜를 명초~이라 킨다케네요.{뭐 밝을 명(明)자를 안하고, 울 명(鳴)자를 명촌이라 한다고 하네요.}

10101 @ 예.{예.}

10101 # 그래가 머 새가 머 울고 가고, 가기 따무네 어 울 명짜로 명초~이라꼬 헐따 캡디다.{그래서 뭐 새가 뭐 울고 가고, 가기 때문에 어 울 명자로 했다고 합디다.}

10101 @ 예:.{예.}

10102 @ 어, 명촌 마을 디에 또는 여페 머 큰 산 거통기 인쑤니까?{어, 명촌 마을 뒤에 또는 옆에 뭐 큰 산 같은 것이 있습니까?}

10102 # 잔테는 무진 큰 사~이 엄는데.{결에는 무슨 큰 산이 없는데.}

10102 # 저:, 조: 비:는 조 이 삼, 아~이 저.{저(기), 조기에 보이는 조 산, 아니 저.}

10102 @ (휴대폰 벨소리) 제송함니더, 예, 예.{(휴대폰 벨소리)죄송합니다, 예, 예.}

10102 @ 예, 말씀하이소.{예, 말씀하십시오.}

10102 # 저기 무지 무지 사~이라캔나, 와 갑짜시리 안 새~잉키노?{저게 무슨 무슨 산이라고 했니, 왜 갑작스레 생각이 안 나니?}

10102 @ 예.{예.}

10102 @ 거: 저: 사~이 저기 쨌 큰 사~임니까?{저기 저기 산이 저것이 제일 큰 산입니까?}

10102 # 요: 가, 가까이는 조이 제일 큰 사~인데.{요기 가, 가까이는 조것이 제일 큰 산인데.}

10102 @ 예:.{예.}

10102 # (마른 기침) 조게 보문, 옴:나레 능이 저 인따고예, 능예.{(마른 기침) 조기에 보면, 옛날에 능이 저기 있다고요, 능예.}

10102 @ 예.{예.}

10102 @ 예:, 예.{예, 예.}

10102 # 고: 고 내마근 영판 잘 모르겜꼬예.{그 그 내막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고요.}

10102 @ 저게 능이 인따 그 말씀이지예?{저기에 능이 있다 그 말씀이지요?}

10102 # 예.{예.}

10102 @ 예:.{예.}

10102 # 아:, 조 이르른 상승사~이라꼬 한다, 상승산.{아, 저 이름은 상성산이라고 한다, 상성산.}

10102 @ 예:.{예.}

10102 @ 그러믄 저 상승사~이 인꼬.{그러면 저 상성산이 있고.}

10102 @ 그러면 요 또 주이에 머 강이나 저수지 가튼 걸또 인습니까?{그러면 요 또 주위에 뭐 강이나 저수지 같은 것도 있습니까?}

10102 # 그런건 업쓰예.{그런 건 없어요.}

10102 # 저:네이저네 가:월산 크능기 저기 인자 이름난 사~이 인꼬, 가닐산.{전에 이전에 간월산 하는 것 저기 이제 이름난 산이 있고, 간월산.}

10102 @ 그래 머, 머든지 마 잘` 생각나시는 대로 그 와 저 사네 대해서는 내가 이런 얘기르 드림따.{그래 뭐, 뭐든지 마 저 생각나시는 대로 그 왜 저 산에 대해서는 내가 이런 얘기를 들었다.}

10102 @ 머:든지 조으니까 말쓰를 쫘 하면 해주이소.{뭐든지 좋으니까 말씀을 쫘 한 번 해 주십시오.}

10102 # (웃음) 그러거든 머 내가 구베~이 업써그렇가 기어기 업써 그렇가 잘 모리겐심:더. {(웃음) 그런 거는 뭐 내가 구변이 없어 그런가 기억이 없어 그런가 잘 모르겠습니다.}

10103 @ 주로 그: 마을 사람드른 우쁜 이를 하고 살아가십니까?{주로 그 마을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고 살아가십니까?}

10103 # 주로 여 농사일 하지요, 머.{주로 여(기는) 농사일 하지요, 뭐.}

10103 @ 예:.{예.}

10103 # 탄 부업또 업꼬.{탄 부업도 없고.}

10103 @ 예:.{예.}

10103 @ 그러면 농사 이르믄 어떤 농사가, 어떤 농사를 마이 진습니까?{그러면 농사 일이면 어떤 농사가, 어떤 농사를 많이 짓습니까?}

10103 # 베:농사르 마이 진찌, 베농사.{벼농사를 많이 짓지(요), 벼농사.}

10103 @ 예:.{예.}

10103 # 그, 그러믄 농촌 지역이라서 엔나레 머 서로 일손도 도와주고 안함니까~이?{그 그러면 농촌 지역이라서 옛날에 뭐 서로 일손도 도와주고 하잖습니까이?}

10103 @ 예:.{예.}

10103 @ 그렇 거 할때 머 게:모임 가튼 거 이션습니까? 동네에.{그런 것 할 때 게 모임 같은 것 있었습니까? 동네에.}

10103 # 게모임은 업꼬.{게 모임은 없고.}

10103 @ 예:.{예.}

10103 # 처으메 우리가 에틸 때 우리가 언자 어:, 힘들땔 말뜨하고 우리가 드:레 가가 모네기도 하고 할 그 시기에느.{처음에 우리가 어틸 때, 우리가 인제 어, 힘 들 듯 말 듯하고 우리가 들에 가서 모내기도 하고 할 그 시기에느.}

10103 # 인자 동네서 어불러가 공:도모라꼬 해가저고.{인제 동네서 어울려서 공동모라고 해 가지고.}

10103 # 그래가언자 반바~이 어불러가저고 열치면 열치숙 이래가 한지베 한사람숙 나와가저고.{그래 가지고 인제 반반이 어울려 가지고 열 (명)이면 열 (명)씩 이래 가지고 한 집에 한 사람씩 나와 가지고.}

10103 # 공:동모를 심안찌요, 그래가: 참 농촌생활도 해가 나완습니다. {공동모를 심었지요, 그래서 참 농촌생활을 해서 나왔습니다.}

10103 @ 엔나레 동네에 머 당산제 가튼 고사가통거 동네:고사가통거는 안 지냈습니까?{옛날에 동네에 뭐 당산제 같은 고사 같은 것, 동네 고사 같은 것은 안 지냈습니까?}

10103 # 여 지꿘더 지내고 인쓰예, 당자.{여기 지금도 지내고 있어요, 당제}

10103 @ 고고 말씀 쫘 해주이소.{그것 말씀 쫘 해 주십시오.}

10103 # 당:자에 엔:나레는.{당제에 옛날에는.}

10103 # 참 우리가 한 사를 정애가지고, 보수를 주고.{참 우리가 한 사람을 정해 가지고, 보수를 주고.}

10103 # 이래가지고 맨너늘 이래 지내고 이래헨는데.{이래 가지고 몇 년을 이래 지내고 이래 했는데.}

10103 # 지끄른 다 언자 생화리 다 갠차느~이까네.{지금은 다 인제 생활이 다 괜찮으니깐.}

10103 # 그을텐 쫘 생화리 골라해가주고 도늘 보수를 마이 주~이까네 마 내가 하젠따 이래가 정시를 드리 헐꼬.{그럴 땐 쫘 생활이 곤란해 가지고 돈을 보수를 많이 주니깐 뭐 내가 하겠다 이래가 정성을 들어서 했고.}

10103 # 오세는 금시: 에 얘기한 거와가치 생화리 다 갠차느이까 그렇거 안할라커그등네. {요새는 금방 얘기한 것과 같이 생활이 다 괜찮으니까 그런 것 안 하려고 하거든요.}

10103 # 그래 오세는 동네:서 어:.{그래 요새는 동네에서, 어.}

10103 # 정월 열나은날 지너게 그래 당자르 모시고 인스예.{정월 열 나흘날 저녁에 그렇게 당제를 모시고 있어요.}

10103 @ 어: 지금 동네는네, 어르신이 어리슬 때에 그 받던 동네하고 지금하고 머가 쫘 달라졌습니까? 동네가.{어 지금 동네는요, 어르신이 어렸을 때 그 봤던 동네하고 지금하고 뭐가 쫘 달라졌습니까? 동네가.}

10103 # 마:이 달라졌쪄요 머, 쫘구마 달라징기 아이고.{많이 달라졌지요 뭐, 조금만 달라진 것이 아니고.}

10103 # 농사 진:능기나 모:든 머 사:람 대우하능기나.{농사 짓는 것이나 모든 뭐 사람 대우하는 것이나.}

10103 # 엔나레느:: 우리가 참 어른드리 인는데 아페가가 말또 한마디 묻하고.{옛날에는 우리가 참 어른들이 있는데 앞에 가서 말또 한마디 못 하고.}

10103 # 이래지마 오스 요즈메느: 니나내나 똑가트~이까네.{이랬지만 요새 요즘에는 네나 내나 똑 같으니깐.}

10103 # 그은마 해도 마~이 달라졌꼬.{그것만 해도 많이 달라졌고.}

10103 # 농사 진:는대머 해도 엔나레는: 어불러가지고 아까메에치로 공도모르 해찌마느. {농사 짓는 데만 해도 옛날에는 어울려 가지고 아까(말한) 것처럼 공동모를 했지만은.}

10103 # 지꾸른 기계화가 대:가지고 전부 기계로 하기따무네 마~이 달라졌쪄요 머.{지금은 기계화가 돼 가지고 전부 기계로 하기 때문에 많이 달라졌지요, 뭐.}

10103 ## 그 저네는 머 노네 풀도 싸라 덜러코.{그 전에는 뭐 눈에 풀도 썰어 들여놓고.}

10103 @ 그리구 아까 동네:: 드러온 그 사람들만 해도 야 예지에서 마~이 드론따 말씀 안 하셧습니까?{그리고 아까 동네에 들어온 그 사람들만 해도 이제 외지에서 많이 들어왔단 말씀하셧으셨습니까?}

10103 # 예.{예.}

10103 @ 고견도 한번 말씀해 주이소.{고것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10103 # (웃음) 외지에서 들어오기는 마이 드란:는데:.(웃음) 외지에서 들어오기는 많이 들어왔는데.}

10103 # 그런 답변하긴 조금 골란하네요.{그런 답변하긴 조금 곤란하네요.}

10103 @ 예:.{예.}

10103 @ 알겠습니다. (웃음){알겠습니다. (웃음)}

1.2. 일상 의례

1.2.1. 제보자의 출생과 성장

10201 @ 저 어르신 쩌 요게가 태어난 고향이 만찌예?{저 어르신 저 요기가 태어난 고향이 맞지요?}

10201 # 예.{예.}

10201 @ 예:.{예.}

10201 @ 그럼 어르신 그 저 머: 지금까지 쭉:: 살아오신 그 이야기 가튼거 안하실꺼거덜 빼도 괜찬꼬예, 그냥.{그럼 어르신 그 저 뭐 지금까지 쭉 살아오신 그 이야기 같은 것 안하실 것이면 빼도 괜찮고요, 그냥.}

10201 @ 아이 내가 넘한테 내를 소개할 때는 머 이런 정도는 소개한다 이룬 기부느로 거: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신 그 내력을 한번 말씀해주시메는 고맙겠습니다.{아니 내가 남한테 내를 소개할 때는 뭐 이런 정도는 소개한다 이런 기분으로, 그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신 그 내력을 한 번 말씀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10201 # (웃음) 내력캐바야 머 고생한 내력빼끼 더 인겜습니까?{(웃음) 내력 해 봐야 뭐 고생한 내력밖에 더 있겠습니까?}

10201 # 어: 내가 한 스무나암:살 머얼때는.{어 내가 스물 살 조금 더 먹었을 때는.}

10201 # 머 농초네 그 당시에 다 생활 골란헐따아임니까?{뭐 농촌에 그 당시에 다 생활이 곤란했잖습니까?}

10201 # 그래가 그얼때는: 머: 게묘년보리송녀~이니 머시니 케삼시느:.{그래 가지고 그럴 때는 뭐 게묘년 보리 흥년이니 뭇이니 하면서.}

10201 # 그런: 송녀~이 마이 저가주고 칠기도 마~이 케아 무운썌요.{그런 흥년이 많이 저 가지고 줘도 많이 캐서 먹었어요.}

10201 # 그래 묵꼬:, 송기: 껌찌도 백끼아 묵꼬.{그렇게 먹고, 송기 껌질도 베껴서 먹고.}

10201 # 이래 생활하다가.{이렇게 생활하다가.}

10201 # 지꾸믄 언자 차차 세워리 조아저가주고.{지금은 이제 차차 세월이 좋아져 가지고.}

10201 # 머 오세 머 엔나레 우리가 잘 몬: 사람따크머 오세 머.{뭐 요새 뭐 옛날에 우리가 잘 못 살았다하면 요새 뭐.}

10201 # 손자 솔러드리 엔나레는 나면더 업떠나 커터시로 (웃음).{손자 손녀들이 옛날에는 라면도 없더니라고 하는 것처럼. (웃음)}

10201 # 참 엔나렌 그렇겜또 업석꼬.{참 옛날에는 그런 것도 없었고.}

10201 # 우리가 노력해가 안무:먼 머 물:그런 음:: 싱냥도 업씩꼬.{우리가 노력해서 안 먹 으면 뭐 먹을 그런 음 식량도 없었고.}

10201 # 또 머: 날새고항 기구광계러서 머 참 승녀~이 마~이 저가저고 그리 고생을 마이 헐:써요.{또 뭐 날 새고 하는(?) 기후관계로 뭐 참 흥년이 많이 저 가지고 그렇게 고생을 많이 했어요.}

10201 # 그머 요즈:른 인자 머 온치 세워리 조아가지고.{그 뭐 요즘은 이제 뭐 원체 세월 이 좋아 가지고.}

10201 # 머 목꼬 사능거는 걱쟁업써예.{뭐 먹고 사는 것은 걱정 없어요.}

1.2.2. 결혼하기까지의 과정

10202 @ 지끔 할머~이는 저: 고향이 어디시 친정이 어디십니까?{지금 할머니는 저 고향 이 어디십, 친정이 어디십니까?}

10202 # 연:해 본 뽕랜데.{역시 본 면내인데.}

10202 # 저: 장승크는땀니더, 장승니:.{저 장성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장성리.}

10202 @ 예:.{예}

10203 @ 할머~이하고 우째만나가 계론하셧습니까? (웃음){할머니와 어떻게 만나서 결혼하 셧습니까? (웃음)}

10203 # 그 당시에는 중매:로 가주고, 중매계론헐써예.{그 당시에는 중매를 가지고, 중매 결혼 했어요.}

10203 @ 누가 중매를 헐습니까?{누가 중매를 헐습니까?}

10203 # 아니 머 그거는 우리지반사라미 그 승:바지에 내아페 어::, 장가르 드러가저고.{아 니 뭐 그것은 우리 집안 사람이 그 성반이에 내 앞에 어, 장가를 들어 가지고.}

10203 # 그래 인자 중마라크능거는 연줄로연줄로 안땀니까?{그래 인제 중매라고 하는 것 은 연줄로 연줄로 되잖습니까?}

10203 @ 예:.{예.}

10203 # 그래가주고 어 참, 중매르 해: 가주고 그래 계론헐써요.{그래 가지고 어 참, 중매 를 해 가지고 그래 결혼헐써요.}

10203 @ 거 옛나레 겨런: 할때보모 머: 사성도 보내고.{그 옛날에 결혼할 때 보면 사성도 보내고.}

10203 # 예:.{예.}

10203 @ 또 머: 혼수도 보내고 주고박꼬 이래 안 함니까?{또 뭐 혼수도 보내고 주고 받고 이래 하잖습니까?}

10203 # 예:.{예.}

10203 @ 그래 거중에서 재미익게 지움 기억나능게 인쓰모 함번 말씀해 주이쑤.{그래 그 중에서 재미있게 지금 기억나는 게 있으면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10203 # (웃음) 그 당시 이른 잘기어글 몬헐네요.{(웃음) 그 당시 일은 잘 기억을 못 헐네 요(못 하겠네요).}

10204 @ 그때: 그 저: 그 계론 예물 거툇 거르 준비해오면 그때머 이불도 해 가지오고, 할 무~이가 그지예?{그때 그 저 그 결혼 예물 같은 걸 준비해 오면 그때 뭐 이불도 해 가져 오고, 할머니가 그지요?}

10204 # 네.{예.}

10204 @ 그래 머 그렇길 그때 업석쓰, 그렇거떠 안 인션겐습니까?{그래 뭐 그런 것 그때 없었을, 그런 것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10204 # 이:서서요.{있었어요.}

10204 @ 예:.{예.}

10204 @ 이부레는 어떤 종류가 이션습니까? 그 당시에.{이불에는 어떤 종류가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

10204 ## 우리 시집올찌기는 예저네 니비 이리여가저고.{우리 시집올 적에는 예전엔 누비(이불)를 이렇게 넣어 가지고.}

10204 ## 그거 베 짜가저고 머 맹지:물띠리가 이불하고 썸:문너 소게 요랑하고 그랜치, 머 거한 겐또 엄심:더.{그것 베 짜 가지고 뭐 무명 물들여서 이불하고 솜을 넣어 속에 하고(?) 그랬지, 뭐 대단한 것도 없습니다.}

10204 @ 포즈다~이, 할머~이 울로 울로 오시:소, (웃음) 울로 오시가지고.{포즈다. 할머니 울로 울로 오십시오, (웃음) 울로 오서 가지고.}

10204 ## 아니 나는 모함니더. 안득끼:가.{아니 나는 못 합니다. 안 들려서.}

@ 아니예, 방금.{아니요, 방금.}

10204 # 그래 금.{그래 금.}

1.2.3. 전통 혼례식

10207 @ 어 엔나레 게론할때는 우리 다 전통홀례시그로 안햐겐습니까?{어, 옛날에 결혼할 때는 우리 다 전통 혼례식으로 안 했겠습니까?}

10207 # 예.{예.}

10207 @ 그때 엔나레 어르신 게론하실 그 당시에 전통 홀례식하던 장면중에서 기억나시는 거 함면, 디사람드를 위해서 말씀좀 해주이소.{그때 옛날에 어르신 결혼하실 그 당시에 전통 혼례식하던 장면 중에서 기억나시는 것 한 번, 뒷사람들을 위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10207 @ 생각나시는대로 하심 텨, 이거느 모 꼭: 머 순서가 먼저고 다:고 이견또 피로엍꼬 예, 기억나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텨니다.{생각나시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뭐 꼭 뭐 순서가 먼저고 뒤고 이것도 필요 없고요, 기억나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10207 # 그 당시에:는: 참 머: 오세 거치 여내게론거트면.{그 당시에:는: 참 뭐 요새 같이 연애결혼 같으면.}

10207 # 뽕뽕하지마느 그 당시엔 중매결혼이기 따무네:.{뽕뽕(?)하지만은 그 당시에는 중매결혼이기 때문에.}

10207 # 항상 주지주지해:끼 따무네:.{항상 주저주저했기 때문에.}

10207 # 그 영판 머: 조코나뽕거슬 참 얘기하이가 어렵네요. (웃음){그 아주 뭐 좋고 나쁜 것을 참 얘기하이가 좀 어렵네요. (웃음)}

10207 @ 조코 나뽕고가 아니고예, 그때: 머 이를테면 쪽두리를 썸꼬.{좋고 나쁘고가 아니고요, 그때 뭐 이를테면 족두리를 썼고.}

어, 야.{어, 예.}

10207 @ 사모간대를 햏꼬:, 머: 다리 아페 인써각꼬 꼬꼬택씩꼬 이릉거 아니습니까?{사모

관대를 했고, 뭐 닭이 앞에 있어 가지고 꼬꼬댁 했고, 이런 것 있잖습니까?)

10207 # 네, 아 그렇거예?{네, 아 그런 것이요?}

10207 @ ** 생각나시능거, 조코나뿌고가 아니고예.{생각나시는 것, 좋고 나쁘고가 아니고요.}

10207 # 네.{네.}

10207 # 그렇거는 우:참 옌나레 사모관대 씨고.{그런 것은 우리 참 옛날에 사모관대 쓰고.}

10207 # 참 머: 장딸 암딸 인자 이래 어: 제상우에 올리노코.{참 뭐 수탐 암탐 인제 이래 어 제상 위에 올려 놓고.}

10207 # 그래 언자 참: 실랑신부 겨론하고.{그래 인제 참 신랑 신부 결혼하고.}

10207 # 그래 머 신부는 아너내고.{그래 신부는 안아(서) 내고.}

10207 # 드갈:때도 아너 들로코 (웃음) 이런 야, 옌나렌 그럭케 헐썌요.{들어갈 때도 안아(서) 들여놓고 (웃음) 일은(?) 예, 옛날엔 그렇게 했어요.}

10207 # 장:가드는 총가거느:.{장가 드는 총각은.}

10207 @ 예:.{예.}

10207 # 처으메 그집 앙가고.{처음에 그 집 안 가고.}

10207 # 판지베 정바늘 들어가고:; 정방.{판 집에 정방을 들어 가지고, 정방.}

10207 # 인자 그래가주고 고 언자 시간만대면 인자: 참 처자찌브로 가썌.{인제 그래 가지고 그 인제 시간만 되면 이제 참 처자집으로 가서.}

10207 # 인자: 결혼 인자: 시글 하고 그럭케 댄:서요.{인제 결혼 인제 식을 하고 그렇게 됐어요.}

10207 @ 예:.{예.}

10208 @ 그때: 그 계론식때예 그 음식가통거는 어떻기 이션습니꺼?{그때 그 결혼식 때에 그 음식 같은 것은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10208 @ 계론식나레 구식 옌날 전통: 계론식때 음식글 차린다:임니까?{결혼식 날에 구식 옛날 전통 결혼식 때 음식을 차리잖습니까?}

10208 @ 그러머 기억나시는 엄시기 이습니까?{그러면 기억나시는 음식이 있습니까?}

10208 # 기억나는 음식근 엄는데. (기침){기억나는 음식은 없는데. (기침)}

@ 네:.{네.}

10208 # 그: 천날 저녀게 보먼 야:사~이라꼬 드러오거등네.{그 첫날 저녁에 보먼 야상이라고 들어오거든요.}

10208 @ 예:.{예.}

10208 # 야:상이라고 드러오머 언자: 한잔먹꼬.{야상이라고 들어오면 이제 한잔 먹고.}

10208 # 신부르 귀내보고 신부가 그 마 안들고 이라며 내 혼차만 먹꼬.{신부를 권해 보고 신부가 그 뭐 안 들고 이러면 내 혼자만 먹고.}

10208 # 이래가: 그 이튼날 또 장난친다꼬.{이래서 그 이튼날 또 장난친다고.}

10208 # 그 야:상 그그를 저 내가 묵꼬 남:능건 좀 다머가 어디 승키나야데거등.{그 야상 그것을 저 내가 먹고 남는 건 좀 담아서 어디 숨겨 봐야 되거든.}

10208 # 그래 어찌너 무운능걸 언자 장난친다고 내:노라커머.{그래 엿저녁 먹은 것을 인제 장난친다고 내어놓으라고 하면.}

10208 # 그건 내가 내:나:야텔 그른 장나네 으무가 익끼따무네.{ 그것은 내가 내어놓아야 할 그런 장난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10208 # 그래가 그: 승킨적도 익꼬 머 고롱거배끼 모리켄습니다.{그래서 그 숨긴 적도 있

도 뭐 그런 것밖에 모르겠습니다.}

10208 @ 음.{음.}

10208 #(기침)

1.3. 생업 활동

1.3.1. 농농사

10301 @ 인자는네, 그 농농사 간한 예김니더이, 농농사.{이제는요, 그 농농사(에) 관한 애
깁니다이. 농농사.}

10301 @ 나라기 잉는 저 시기에 따라 저 나락 품종이 안 인습니까?{벼가 익는 저 시기에
따라 저 벼 품종이 있잖습니까?}

10301 @ 일찍 잉능기 익꼬, 중가네 잉능기 익꼬, 늦게 잉능기 안 인습니까?{일찍 익는 것
이 있고, 중간에 익는 것이 있고, 늦게 익는 것이 있잖습니까?}

10301 @ 그러면 그때 당시에 나락 품종에 어떻게 이선는지 한번 말씀해 주이소.{그러면
그때 당시에 벼 품종에 어떤 것이 있었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10301 # 그을때 주로 아끼바리로 마이 해쓰끼야, 아끼바리.{그럴 때 주로 아끼바리를 많이
했을 거야, 아끼바리.}

10301 @ 아끼바리가 우뎡김니까? 절문사람들 모르니까예, 한번 설명을 쏘 해주이소.{아끼
바리가 어떤 겁니까? 젊은 사람들(은) 모르니까요, 한 번 설명을 쏘 해 주십시오.}

10301 # 아끼바리라 크능거는:.{아끼바리라고 하는 것은.}

10301 # 시기적으로 봐서는 옴:나레는, 오세는: 양녀그로가 딱 짜지기 따무네.{시기적으로
봐서는 옛날에는, 요새는 양력으로 딱 따지기 때문에.}

10301 # 머 어느 정도 올:텐 나라기다 어느 정돈 늘텐 나라기 요기 이찌마너.{뭐 어느 정
도 올된 벼다 어느 정도 늦된 벼다 요것이 있지만은.}

10301 # 옴:나레 아끼바리라 크능거너:.{옛날에 아끼바리라 하는 것은.}

10301 # 오세:는 그기 충충베라 캐요, 아끼바리로 갠따가.{요새는 그것을 추정벼라고 해요,
아까바리를 가지고(보고).}

10301 # 그그르 인자 밤:마시 제일 조타고 해가저고 그래 주로 아끼바리로 마~이 햅썌요.
{그것을 인제 밥맛이 제일 좋다고 해 가지고 그래 주로 아끼바리를 많이 했어요.}

10301 @ 그러면 아끼바리는: 일찍 잉는 뽕니까, 우째?{그러면 아끼바리는 일찍 익는 뽕니
까, 어떻게?}

10301 # 중베썌 데썌, 중베.{중벼썌 되썌, 중벼.}

10301 @ 아, 중베라 캄니까?{아, 중벼라고 합니까?}

10301 # 예.{예.}

10301 @ 예:.{예.}

10301 @ 그 또 아끼바리 말고는 머 다룽거는 업선습니까?{그 또 아끼바리 말고는 뭐 다른
것은 없었습니까?}

10301 @ 기억카시기에.{기억하시기에.}

10301 # 그이 나라이 이르미 자란생: 키네요.{그게 벼 이름이 잘 안 생각나네요.}

10301 @ 예.{예.}

10302 @ 그러먼자: 나랑농사르언자 진는 그 과정에 대한 애김니다.{그러면 인제 벼농사를 인제 짓는 그 과정에 대한 애김니다.}

10302 @ 우짬니꺼? 나락농사 지올라카메넌:자 아페 나락 종재 종자르 갠타가 딱:: 그 조응 거 골라가:꼬 썬나라글 만드러야 댈꺼 아임니까?{어쩍니까? 벼 농사 지으려고 하면은 인제 앞에 벼 종자 종자를 가지고 딱 그 좋은 것 골라서 법씨를 만들어야 되잖겠습니까?}

10302 @ 그래가주고 농 비 농사를 진는 그 과정을 함번 쪽 순서대로 그어는 말씀좀 해주 이소.{그래 가지고 농 비 농사를 짓는 그 과정을 한 번 쪽 순서대로 그것은 말씀 좀 해 주 십시오.}

10302 # 아:, 농사를 지올라커머예.{아, 농사를 지으려고 하네요.}

10302 @ 예:{예.}

10302 # 어:, 요즈머는 언자 신나라글 택케가저고.{어, 요즘에는 인제 법씨를 택해 가지고.}

10302 # 인자 일판 소도글 해가.{인제 일단 소독을 해 가지고.}

10302 # 한 일쭈일 무레 당가난:따가.{한 일주일 물에 담귀 났다가.}

10302 # 언자 모파네다가 언자 여: 가주고.{인제 모판에다가 인제 넣어 가지고.}

10302 # 언자: 한 이사밀 인따가.{인제 한 이삼일 있다가.}

10302 # 또 드레 모깡에다 낸다크면 인자 노네 갠따 내거등예.{또 들에 못자리에다 낸다고 하면 인제 논에 가져다 내거든요.}

10302 # 내:가주고 한 사십 오일 내지 사시빌.{내어 가지고 한 사십오 일 내지 사십 일.}

10302 # 고래 대머인자 고이 모내기할 시이가 딱 데거등네.{그렇게 되면 인제 고것이 모내기할 시기가 딱 되거든요.}

10302 # 고래가저고 언자 기계로 가지고 모내기러 합니다.{그래 가지고 이제 기계를 가지고 모내기를 합니다.}

10302 # 그래언자 모내기러 하고, 한 이사밀 후에 또 제:초제를 칩니다.{그래 인제 모내기를 하고, 한 이삼일 후에 또 제초제를 칩니다.}

10302 # 그: 푸를 나지마라꼬.{그 풀을 나지 말라고.}

10302 # 그래 하고, 한 여를만 인씨면 언자.{그렇게 하고, 한 열흘만 있으면 인제.}

10302 # 분녘비료라꼬 언자 포기 좀 마~이 버라꼬 분녘비료르 치고예.{분열 비료라고 인제 폭이 좀 많이 벌라고 분열 비료를 치고요.}

10302 # 고런케 합니다.{그렇게 합니다.}

10302 @ 어르신 지금:자 말씀하신 거는 오세 기계:로 하능거지예?{어르신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은 요새 기계로 하는 것이지요?}

10302 # 아.{그래.}

10302 @ 그거 말고예.{그것 말고요.}

10302 # 아, 그그 옰나레.{아, 그 옛날에.}

@ 옰날 **{옛날.}

10302 # 아아.{아아.}

10302 @ ** 말씀해 **{** 말씀해 **}

10302 # 아.{아.}

10302 @ ** 예, 도우미 데겐습니다.{예, 도움이 되겠습니다.}

10302 # 아.{아.}

10302 # 그 예 함부레 연날거라 켜:씨머. (웃음){그 예 처음부터 옛날 거라고 했으면. (웃음)}

10302 # 야 엔:나레는 약또 옥꼬.{야 옛날에는 약도 없고.}

10302 # 그양 한 일주일 언자 무레 당가날:따가.{그냥 한 일주일 인제 물에 담궈 났다가.}

10302 # 그래가 언자 참 아까 말따나 치 사네가 풀로 비:가 와가.{그래서 이제 참 아까 말한 것처럼 저 산에 가서 풀을 베 와서.}

10302 # 인자 그 그이 언자 마리 갱자리라 크거더, 갱자리.{이제 그 그것이 이제 말이 '갱자리'라고 하거든, '갱자리'.}

10302 # 그래가 언자 노네 갑따 여:가주고 소로 가주고 인자 가:르가 서:리가주고.{그래서 인제 눈에 가져가 넣어 가지고 소를 가지고 인제 갈아서 씨리 가지고.}

10302 # 그래움 매로 문때:가: 언자 고라:가주고 그래가 언자 그 신나라글 소늘가 흘쳐가 주고.{그래서 매로 문질러서 이제 골라 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법씨를 손으로 흘쳐 가지고.}

10302 # 흑 고올때는 흘쳐도 아마 사십오일 내지 오시빌 대:야 모내기가 데거등네, 예.{홀그릴 때는 흘쳐도 아마 사십오 일 내지 오십 일 되어야 모내기가 되거든요, 예.}

10302 # 고래 해 가주고 아까 얘:기 말:따나 언자 그얼때는 손도 억:꼬.{그렇게 해 가지고 아까 얘기한 대로 인제 그릴 때는 (일)손도 없고.}

10302 # 공동모 시자글 헐씨요, 공동모를.{공동모를 시작을 했어요, 공동모를.}

10302 # 그라이면 노블해야데고, 어.{그렇게 안 하면 늙을 해야 되고, 어.}

10302 # 노블 해가저고 한 오세거트먼 천 퍼~이제? 담:마지기를 시물라거모.{늙을 해 가지고 한 요새 같으면 천 평이지? 다섯 마지기를 심으려고 하면.}

10302 # 아:메도 여일고비 노블 해야 데거등네.{아무리 해도 예닐곱 사람 늙을 해야 되거든요.}

10302 # 그러~이까네 그리할라커~이 좀 하다보이까네 그은또 안숙꼬 이래가 언자 공동모르 시야하능기가.{그러니깐 그렇게 하려니 좀 하다 보니깐 그것도 안 쉽고 이래서 이제 공동모를 시작한 거야.}

10302 # 공동모를 씨자가가저고 언자 도넉빠기 오느느 천시가네 누꾸 시먼다 두째시간 누고 시먼다 이래가지고 언자 시간떠기로 시만:씨요.{공동모를 시작해 가지고 이제 ???? 오늘은 첫 시간엔 누구 것 심는다, 둘째 시간 누구 것 심는다, 이래 가지고 인제 시간제로 심었어요.}

10302 @ 그 인자 안 시먼습니까이? 그래 언자 시를때느 일판 모로 언자 또: 그: 찌야대 **. {그 인제 심었잖습니까이? 그래 인제 심을 때는 일단 모를 이제 또 그 찌야 되(쵸)?}

10302 # 예, 찌어*. {예, 찌야(쵸).}

10302 @ 찌 가지고 또 지게지고 눈에 갑따가 또.{찌 가지고 또 지게 지고 눈에 가져다 또.}

10302 # 예, 베루:고. {예. 모를 눈에 던지고.}

10302 @ 예. {예.}

10302 @ 그래고 언자 모숭꼬 모내기 할끼고.{그리고 이제 모심기 그 모내기 할거고.}

10302 @ 예, 예. {예, 예.}

10302 @ 모내기 할때도 줄잡는데 인꼬 몬잡는데 인쓸끼고.{모내기 할 때도 줄 잡는 데 있

고 못 잡는 데 있을 것이고.}

10302 # 예, 예.{예, 예.}

10302 @ 그러면 언자 그야하면 난주게 언자 논 지심 그통거 메야텔까:고.{그러면 인제제 그것하면 나중에 이제 논 김 같은 것 매야 될 것이고.}

10302 # 네, 메야지.{네, 매야지.}

10302 @ 나주~에데면.{나중에 되면.}

10302 # 야.{예.}

10302 @ 언자 비:야 대고.{인제 베야 되고.}

10302 # 야. {예.}

10302 @ 그 고런거 대해서 쪼끔 자세히 말씀을 쫘 더 해 주이소.{그 그런 것 대해서 쪼끔 자세히 말씀을 쫘 더 해 주십시오.}

10302 # (기침) 그는 언자 참 몬 모를 언자 부아가저고 한 오시빌 데면.{(기침) 그래 인제 참 모 모를 인제 부어 가지고 한 오십 일 되면.}

10302 # 참 찌가저고.{참 찌 가지고.}

10302 # 참 금시: 말씀마따나 찌가언자 지기:다머가.{참 금방 말씀마따나 찌 가지고 인제 지게에 답아서.}

10302 # 점부 베라노코 그래 언자 참:.{전부 버려 놓고 그래 이제 참.}

10302 # 인자 고 인자 시르는 과정에 드가지요?{이제 그제 인제 심는 과정에 들어가지요?}

10302 # 머 열키면 열키, 다서이면 다서이 인자 고력케 시무는데 한자리서.{뭐 열이면 열 명, 다섯이면 다섯 명 인제 그렇게 심는데 한자리에서.}

10302 # 고리 시무다가 안 창 그기: 잘 안대:가주고 공동모르 시:맡거든네.{그렇게 심다가 안 참 그것이 잘 안 돼 가지고 공동모를 심었거든요.}

10302 # 그래언자 공동모 시무고 나면 머 오세거치 야기 인나 마 소누로 가져고 언자 풀 또 매:고.{그렇게 인제 공동모 심고 나면 뭐 요새같이 약이 있나 뭐 손을 가지고 이제 풀도 매고.}

10302 # 그렇 김:맨다거지요? 그으로.{그걸 김맨다 하지요? 그것을.}

10302 # 그래가주고 언자 그글 다 하고 또 아까 마따나 머 저:.{그래 가지고 인제 그것을 다 하고 또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저.}

10302 # 한 시보일쫘 대면 또 분널비로도 치고.{한 십오 일쫘 되면 또 분열 비료도 치고.}

10302 # 분널비로 다: 치고 나면 요시 요정도 데면 언자 또.{분열 비료 다 치고 나면 요새 요 정도 되면 인제 또.}

10302 # 언자 이삭비로라 커녕거 또 치거등네.{이제 이삭 비료라고 하는 것 또 치거든요.}

10302 # 고리도 치고.{그렇게도 치고.}

10302 # 그러그러그루하다 그만 칠파웁데면 언자 나락 피고달코하면 언자 가실러 드러가지요.{그래 그러구러하다 그만 칠팔월 되면 인제 벼 패고 어찌고 하면 인제 가을로 들어가 지요.}

10302 @ 아까 저 말씀 도중에예, 베라:노코가능거는.{아까 저 말씀 도중에요, '베라 놓고' 라고 하는 것은.}

10302 @ 지게 지고갸따.{지게 지고 갔다.}

10302 # 네.{네.}

10302 @ 모르갸따 무레 편지능거로.{모를 갖다 물에 던지는 것을.}

10302 # 예예, 편지능거르, 예, 베롭.{예예, 던지는 것을, 예, '베롭'.}

10302 @ 베란다 캄니까? {'베란다'고 캄니까?}

10302 # 예, 예.{예, 예.}

10302 @ 예.{예.}

10302 @ 그러 아까 모깡이란 마를 쓰는데, 모깡에.{그리고 아까 '모깡'이란 말을 쓰셨는데, 모깡에.}

10302 # 야.{예.}

10302 @ 모깡이 됩니까?{모깡이 됩니까?}

10302 # 모깡이라 커능거는 인자 신나라 갠따 혼는 그 자리가 모깡이지.{'모깡'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법씨를 갖다 혼는 그 자리가 모깡이지.}

10302 # 신나라가.{법씨를.}

10302 @ 그러모 모판는 됩니까? 그러모.{그러면 모판은 됩니까? 그러면.}

10302 # 모판는 오새: 여게 언자 그그로 모판~이라커쥬?{모판은 요새 여기 인제 그것을 모판이라고 하쥬?}

10302 # 여 오새 그 저 요래: 기계모 시물라꼬 고고로 언자 모판~이라 커그마느.{여 요새 그 저 요래 기계모를 심으려고 고것을 인제 모판이라 하건마는.}

10302 @ 예, 그 모깡은 모판하고 좀 달라지**.{예, 그래 모깡은 모판하고 좀 달라지(네요).}

10302 # 야, 달라지쥬요.{예, 달라지쥬.}

10302 @ 예:.{예.}

10302 # 오새:도 노네는 모까~이라커고.{요새도 논에는 모깡이라고 하고.}

10302 # 고: 가주가능 고오는 모판~이라쿠고.{그 가져가는 그것은 모판이라고 하고.}

10302 # ?? 오새:나 옰나라나 모까~아는 똑가태요.{?? 요새나 옛날이나 모깡은 똑 같아요.}

10302 @ 예:.{예.}

10303 @ 그라머 언자 그 그: 나락 모를 승글라카면 언자 밀테 머 머 씨리야텔꺼 아임니꺼 이?{그러면 인제 그 그 벼 모를 심으려고 하면 인제 밀에 뭐 뭐 씨려야 될 것 아넵니까이?}

10303 @ 모판는 따로 인꼬, 모내기 할라카모, 그라모.{모판은 따로 있고, 모내기 하려고 하면, 그러면.}

10302 # 예, 예.{예, 예.}

10303 @ 머 그 언자 쓰리고 이래야 텔꺼 아임니꺼, 그지예?{뭐 그 이제 쓰리고 이래야 될 것 아넵니까, 그지요?}

10303 @ 개서 고고 우찌헐는지 함번 쫌 말씀 함 해주이소. {그래서 그것 어찌헐는지 한번 쫌 말씀 한 번 해 주십시오.}

10303 # 그거는 머 소느 소로가 언자 가러가주고.{그것은 뭐 소를 소를 가지고 인제 갈아가지고.}

10303 @ 예:.{예.}

10303 # 인자 참 아까지 그그 머 서:리크능거 거 인데요, 서:리로가 쓰:리가지고.{인제 참 아까 전에 그것 뭐 씨레라고 하는 것 그것 있데요, 씨레를 가지고 씨려 가지고.}

10303 @ 예.{예.}

10303 # 언자 이래 문때능거를 매문땀다커거등뇨, 수굼포로 가지고 고루능구로.{이제 이래

문지르는 것을 '매문땀다'고 하거든요, 삽을 가지고 고르는 것을.}

10303 # 그래 언자 매르 문때가저고.{그래 인제 매를 문질러 가지고.}

10303 # 고:다가 언자 한 한 이사밀 인따가 고 무를 대:가저고 인자 신나라글 흔지요, 신 나락.{거기다가 이제 한 한 이삼 일 있다가 거기에 물을 대서 인제 법씨를 흔지요, 법씨.}

10303 @ 그러면 고:는 썬나라글 흔는거는 인자 모를 키알라꼬.{그러면 그것은 법씨를 흔 는 것은 이제 모를 키우려고.}

10303 # 글치요, 야.{그렇죠, 예.}

10303 @ 그다메 언자 말고 물로네다가 모 승구는 논 안인습니까?{그 다음에 인제 말고 무 논에다가 모 심는 논 있잖습니까?}

10303 # 예.{예.}

10303 @ 모판 몬 몬 **{모판 모 모 **.}

10303 # 모판 말고.{모판 말고.}

10303 @ 예, 인자 요서 찌와각꼬 요 언자.{예, 이제 요기서 찌 와서 요기 이제.}

10303 # 야.{예.}

10303 @ 베라 날코 언자 숭굴라카는 논 안인습니까?{모를 던져 놓고 인제 심으려고 하는 논 있잖습니까?}

10303 # 예.{예.}

10303 @ 거 노는 우찌합니까?{그 논은 어찌합니까?}

10303 # 그은또 역시 소로가 가러가저고 여:네 모판하드시로 또 쓰:리가저고.{그것도 역시 소를 가지고 갈아 가지고 역시 모판하듯이 또 써려 가지고.}

10303 # 그래가 언자 그 모를 찌다가 언자 그 시무지요쫘쫘쫘쫘이제 그 모를 찌서 인제 그 심지요.}

10303 @ 예:.{예.}

10304 @ 그러면 농사지일 때 농기구들도 여러가지 안 인습니까?{그러면 농사 지을 때 농 기구들도 여러 가지 있잖습니까?}

10304 @ 농사 진:데 피로한 연장.{농사 짓는 데 필요한 연장.}

10304 # 예.{예.}

10304 @ 그 연장드레는 어떻게 이설습니까?{그 연장들에는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10304 # 흘찌~이.{극쟁이.}

10304 # 수굼포.{삽.}

10304 # 서:리.{써레.}

10304 # 인자 모내기 하는 못줄.{이제 모내기 하는 못줄.}

10304 # 고거백끼는 엄썰깅데요.{그것 밖에는 없을 건데요.}

10304 @ 그이까 또 언자 머 이는 논농사진는데 드러가끼고, 반농사 직꺼나 머 할때 또 머 호메~이 이렇거거.{그러니까 또 이제 뭐 이것은 논농사 짓는 데 들어갈 것이고, 밭농사 짓 거나 뭐 할 때 또 뭐 호미 이런 것.}

10304 # 예, 그:는 반농사에.{예, 그것은 밭농사에.}

10304 @ 예:.{예.}

10304 @ 방금 말씀하** 논농사든 반농사든 그런 거 연장을 우째 쓰는, 어디에 쓰는지 말 씀 쫘 해주이소.{방금 말씀하신 논농사든 밭농사든 그런 것 연장을 어떻게 쓰는(지), 어디에 쓰는지 말씀 쫘 해 주십시오.}

10304 # 머디 씨다이요?{어디에 쓰다니요?}

10304 @ 이를테메는 그: 수굽포는 땅 판데 썰끼고.{이를테면은 그 삼은 땅 파는 데 쓸 것이고.}

10304 # 어어어.{어어어.}

10304 @ **{**.}

10304 # 아, 글:치, 수굽포는 땅파는데 씨고.{아, 그렇지, 삼은 땅 파는 데 쓰고.}

10304 # 호메~이라커능거는 받테만 씨고.{호미라고 하는 것은 밭에만 쓰고.}

10304 # 글:쵸, 머.{그렇쵸, 뭐.}

10304 @ 그라머 홀치~이는.{그러면 극쟁이는.}

10304 # 농가는 데 씨고.{논 가는 데 쓰고.}

10304 @ 예.{예.}

10304 @ 홀치~이도 인꼬, 쟁기*.{극쟁이도 있고, 쟁기*.}

10304 # 쟁기.{쟁기.}

10304 # 여내: 쟁기나 홀찌~이나 똑같습니다. {역시 쟁기나 극쟁이나 똑 같습니다.}

10304 # 쟁기라 커능거넌: 아까또 그: 받찌마는.{쟁기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그 봤지만은.}

10304 # 쟁기는 이래이래 제끼든 제끼느대로 이 베풀~이 너머가능기: 한쭈글 너머가고.{쟁기는 이래 이래 제끼면 제끼는 대로 이 흙덩이 넘어가는 게 한쪽으로 넘어가고.}

10304 # 홀찌~이는 한차메 양쭈그루 다 너머가두루 대익꺼등네.{극쟁이는 한번에 양쪽으로 다 넘어가도록 돼 있거든요.}

10304 # 복파~이 도또로하고.{가운데가 도드라지고.}

10304 # 쟁기라 커능거 곱신:해가주고 요쭈: 제끼든 흐리 요쭈글 너머가고.{쟁기라고 하는 것은 곱어서(?) 요쭈를 제끼면 흙이 요쭈글(요쭈으로) 넘어가고.}

10304 # 요쭈 제끼면 요쭈: 너머가고 고리 데익꺼등네.{요쭈를 제끼면 요쭈글(요쭈으로) 넘어가고 그렇게 돼 있거든요.}

10304 # 그러~이 고기:인자 과거~이 조금 틀리쵸.{그러니 그것이 이제 과정이 조금 틀리지요.}

10304 # 인저 홀찌~이는 요레 대 익꼬 익끼 따무네.{이제 극쟁이는 요렇게 돼 있기 때문에.}

10304 # 마 바로 드가든 머 내가 어: 베풀~이로 이쭈글 누피게테면 이쭈글가고.{뭐 바로 들어가면 뭐 내가 어 흙덩이를 이쭈글 눅히면 이쭈글 가고.}

10304 # 이쭈: 누필쪼 이쭈가저마는 쟁기랑 틀리쵸.{이쭈를 눅힐 때는 이쭈를 가지만은 쟁기와 틀리지요.}

10304 @ 예:.{예.}

10305 @ 엔나레 언자 노네 무를 델라카면 언자 우게서 내려오는 그 도랑물가통거또 널치마는, 어떨때는 밭에 인는 물로 거 위로 퍼다:씨고도 이렇거 안 인션습니 밭에 웅둥이 인꼬 이라모 그렇거느 업션습니까?{옛날에 인제 눈에 물을 대려고 하면 이제 위에서 내려오는 그 도랑물 같은 것도 넣지만은, 어떨 때는 밭에 있는 물을 그 위로 퍼다 쓴 이런 것도 있었습니(까)? 밭에 웅둥이 있고 이러면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10305 @ 그:니까 무리 밭에 인꼬, 웅둥이 인꼬, 우게 인자 노네 무리 업쓰모 퍼가지고 이래.{그러니깐 물이 밭에 있고, 웅둥이 있고, 위에 이제 눈에 물이 없으면 퍼가지고 이래.}

10305 # 예, 예. 그.{예, 예. 그.}

10305 # 그거는 이 우리능 그렇길 사용을 안해바나잉까네.{그것은 이 우리는 그런 것을 사용을 안 해 보니깐.}

10305 @ 예:.{예.}

10305 # 그거루 바가치라 크는지: 머시* 그근 잘 모리겐네요.{그것을 바가치라고 하는지 뭔지 그것은 잘 모르겠네요.}

10305 # 예, 그래 푸는데 이습디다.{예, 그렇게 퍼는 데 있습디다.}

10305 @ 예:.{예.}

10305 @ 그러면 요 이 동네에서는 노네 무를 땔땔: 우째 땔습니까? {그러면 요 이 동네에서는 논에 물을 땔 때는 어떻게 땔습니까?}

10305 # 항상 우에 물로 밭틀 내려가지요.{항상 위에 물로 밭을 내려가지요.}

10305 @ 그래도 머 볼또랑거통거 이션*****?{그래도 뭐 붓도랑 같은 건 있었(을 것 아십니까)?}

10305 # 예, 인지요. 왜 볼또랑으로 해가.{예, 있지요. 왜 붓도랑으로 해서.}

10305 @ ** 한번 설명해 주이소.{(그것)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10305 # 여 볼또라~이 일씨가저고 우에 저수지가 인시모.{여 붓도랑이 있어 가지고 위에 저수지가 있으면.}

10305 # 그 볼또랑으로 인자 내려오도로 하기위해서.{그 붓도랑으로 이제 내려오도록 하기 위해서.}

10305 # 점:부 아 볼데먼 도 도라~을 참:부.{전부 봄 되면 도 도랑을 전부.}

10305 # 그 논 주인드리 어불러가저고.{그 논 주인들이 어울려(힘을 모아) 가지고.}

10305 # 인자: 볼또랑을 치는데 그글 머여, 보역사한다 이리대이서, 보역사.{이제 붓도랑을 치는 데 그것을 뭐라, 보 역사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 보 역사.}

10305 # 그래가주고 언자: 그에 무르 인자 내려오며 언자 지쭈 술통을 여러가저고.{그래 가지고 인제 거기에 물을 이제 내려오면 이제 지금 술통을 열어 가지고.}

10305 # 인자 노네 물드가더럭 하능기: 이르미 술통이라, 술통.{이제 논에 물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이름이 '술통'이라, '술통'.}

10305 # 그래가 언자: 거게도 채김자가 한사람 인서가저고 오느른 니 술통을 여러라.{그래서 인제 거기에도 책임자가 한 사람 있어 가지고 오늘은 누구 술통을 열어라.}

10305 # 내:이른 니 술통을 여러라.{내일은 누구 술통을 열어라.}

10305 # 그라~이모 오후에는 누 술통을 여러라, 이력키 인자.{그게 아니면 오후에는 누구 술통을 열어라, 이렇게 이제.}

10305 # 그 채김자가 익끼 따무네 고력케: 순서대로 해가 나가.{그 책임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순서대로 해서 나가(쥔).}

10306 @ 자 노네 모내기르 헐습니다이, 모도 잘 큼니더이.{자, 논에 모내기를 했습니다, 모도 잘 큼니다.}

10306 @ 밭테 언자 풀도 안 큼니까이?{밭에 이제 풀도 크잖습니까이?}

10306 # 예:.{예.}

10306 @ 요즘 가트먼 언자 제초제를 뿌리면 대지마는.{요즘 같으면 이제 제초제를 뿌리면 되지만은.}

10306 @ 엔나레는 멘빨씩 안 땔:습니까? 고고 한번 말씀해 주이소.{옛날에는 몇 번씩 땔잖습니까? 그것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10306 # 아, 고올때 땀 때는:, 고올때 언자.{아, 그럴 때 땀 때는, 그럴 때 인제.}

10306 # 두:레커능기 인서가지고.{두레라고 하는 것이 있어 가지고.}

10306 # 근 노블할라거면 다 골란하거등네.{그 뉘을 하려고 하면 다 곤란하거든요.}

10306 # 그레 언자 두:레: 커능거리 어불러가지고.{그레 인제 두레라고 하는 것을 공동으로 만들어 가지고.}

10306 # 인자 참 머 오:저네는 내논맨다.{인제 참 뭐 오전에는 내 논 맨다.}

10306 # 오후에는 니논맨다 이래가지고 여남:서서 어불러가지고.{오후에는 네 논 맨다 이래 가지고 여남은 (사람)씩 어울려 가지고.}

10306 # 인자 두레노~이라커거등네, 그으로 .{이제 두레논이라 하거든요, 그것을.}

10306 # 고래가: 저저: 푸를 매고 고러치.{그렇게 해서 풀을 매고 그렇지.}

10306 @ 푸를 함분만 맹거느 아일꺼 아입니까?{풀을 한 번만 맨 건 아닐 것 아십니까?}

10306 # 예, 글:치오.{예, 그렇죠.}

10306 # 한 두:불 매야텐, 두:분.{한 두벌 매야 된(다), 두 번.}

10306 @ 그러면 처음 매는 풀을 머머 아시맨다 캄니까, 초벌맨다 캄니까?{그러면 처음 매는 풀을 아시맨다고 합니까, 초벌맨다고 합니까?}

10306 # 초벌맨다캐, 초불.{초벌맨다고 해, 초벌.}

10306 @ 그면 두번째 매는 거는예?{그러면 두번째 매는 것은요?}

10306 # 망:시.{망시.}

10306 @ 두분만 매고 맴니까?{두 번만 매고 맴니까?}

10306 # 야.{예.}

10306 @ 아, 예.{아, 예.}

10306 # 망:시.{망시.}

1.3.2. 밭농사

10307 @ 어르신 저: 반농사로진은 곡시게는 이동네에서어떻기 이써씀니까? {어르신 저 밭농사로 짓는 곡식에는 이 동네에서 어떤 게 있었습니까?}

10307 쿡, 쫄, 머파치라큰다, 판, 쿡, 판. {쿡, 팔, 뭇 팔이라고 한다, 팔, 쿡, 팔.}

10307 @ 또머 머보리도이써쓸끼고. {또 뭇 뭇 보리도 있었을 것이고.}

10307 @ 여러가지 아니. {여러 가지 아니.}

10307 # 예.{예.}

10307 @ 생각나시는대로 종뉴를 함 말씀해주이소.

10307 # 예.

10307 @ 생각나시는 대로 종류를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10307 # 판, 쿡, 보리, 밀, 여내 아까 매:물. {팔, 쿡, 보리, 밀 역시 아까 메밀.}

10307 # 머 예나렌기타등등 거 모카, 깨, 점부다 이써찌예머. {뭇 옛날엔 기타 등등 그 목화, 깨, 전부 다 있었지요 뭇.}

10308 @ 그러믄네, 음, 지금 여러가지르 말쓰매 주션는데예.{그러면요, 음, 지금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10308 @ 그: 언자 이농사진은건또 시저레따라서 쫄 안달랴겠습니까? {그 이제 이 농사 짓

는 것도 시절에 따라서 좀 달랐잖겠습니까?)

10308 @ 게:서 시저레 마차서 농사 반농사진는. {그래서 시절에 맞춰서 농사, 밭농사 짓는.}

10308 @ 그 머 절차, 방뺨, 이렁겔쫘 얘기를 쫘해주이소. {그 뭐 절차, 방법, 이런 거를 쫘 얘기를 쫘 해 주십시오.}

10308 @ 먼저 아까 파치라 쫘쫘니까, 포치라쫘쫘니까, 이 동네에서는? {먼저 아까 '팔'이라고 했습니까, '폴'이라고 했습니까, 이 동네에서는?}

10308 # 팔.{팔.}

10308 @ 그람: 파튼 운제 승거서 우터케 해가꼬 거다 우째 거다드린다 요거함번 말씀쫘 해주이소. {그러면 팔은 언제 심어서 어떻게 해서 거두어 어떻게 거두어 들인다 이거 한 번 말씀 쫘 해 주십시오.}

10308 # 파튼 예. {팔은 예.}

10308 # 그기 영 그이 기어기안나네. 그 머꼬. {그게 영 그게 기억이 안 나네.}

10308 # 유월팔 너머가지고 시마가. {유월달 넘어 가지고 심어서.}

10308 # 가을처레 거다드립니다. {가을철에 거두어 들입니다.}

10308 네, 파튼 그러코. 그라몬 보리는 우쫘니까? {네, 팔은 그렇고. 그러면 보리는 어떻게 합니까?}

10308 # 보리는 동진파레 가라가주고 내년 유월파레 인자 타자글하고 거다드리지요. {보리는 동짓달에 갈아 가지고 내년 유월달에 이제 타작을 하고 거두어 들이지요.}

10308 @ 그러몬 또아까 아 또 콩도인따 그래쥔쥔예? {그러면 또 아까 아 또 콩도 있다 그러쥔쥔지요?}

10308 # 콩.{콩}

10308 @ 예.{예}

10308 # 콩은 오월 콩이인자 쫘쫘다는 쫘쫘 땡겨시마야 데~이까. {콩은 오월 콩이 이제 팔보다는 쫘쫘 당겨 심어야 되니까.}

10308 # 콩은 한오:월 십오일 고정도 대가주고 시므른역씨 포치나콩이나 어 거다디릴때는 열추가치 거다드립니다. {콩은 한 오월 십오일 그 정도 돼 가지고 심으면 역시 팔이나 콩이나 어 거두어들일 때는 열추 같이 거두어 들입니다.}

10308 @ 예, 그럼 모카는 우쥔쫘겔쫘니까? {예, 그럼 목화는 어떻게 심었습니까?}

10308 # 모카는 초봄에 시마가주고. {목화는 초봄에 심어 가지고.}

10308 # 유월 칠월팔 데몬 인자차:차 모카가피:가주고. {유월 칠월달 되면 인제 차차 목화가 피어 가지고.}

10308 # 결국 이래가언자 버러지몬언자 그결따가주고. {결국 이래 가지고 이제 벌어지면 이제 그결 따 가지고.}

10308 # 이라고 언자 남:치기 나뭇거는 결국 나리쫘 기우가쫘 치버지면 결국인자 망그러지기 따무네. {이러고 이제 나머지 남은 거는 결국 날이 쫘 기후가 쫘 추워지면 결국 이제 망가지기 때문에.}

10308 # 머주로 오월유월파레 그 모카 저 마이땀니다. {뭐 주로 오월 유월달에 그 목화 저 많이 땀니다.}

10308 @ 아까 쫘쫘도 쫘겔따 말씀하쥔쥔예? {아까 수수도 심었다 말씀하쥔쥔지요?}

10308 # 쫘시는 여게 저:바테 시므능거는 여네 모카바테 그른데 드문드문 쫘저논능기지.

{수수는 여기에 저 밭에 심는 것은 역시 묵화 밭에 그런 데 드문드문 던져 놓는 거지.}

10308 # 머 모카시르든지 보리시르든지 밀시르든지 이렇광게거치 머 이리 안시무고. {뭇 묵화 심든지 보리 심든지 밀 심든지 이런 관계같이 뭇 이리 안 심고.}

10308 # 그저 드문드문드문 어데 곡식째에다 너어노으른 그기언자 주로언자 빈짜리한다꼬 해가주고 하기 따무네. {그저 드문드문드문 어디에 곡식 사이에다 넣어 놓으면 그게 이제 주로 이제 빗자루 한다고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10308 # 고래 드문드문 시므지 마이그리 시무고 안해요. {그리 드문드문 심지 많이 그렇게 심고 안 해요.}

10308 @ 고구마농사는 그람 우찌 진썸니까? {고구마 농사는 그러면 어떻게 짓습니까?}

10308 # 고구마농사도 역씨 유월따래 시마가주고 이자 가을처레 거다들로치요. {고구마 농사도 역시 유월달에 심어 가지고 이제 가을철에 거두어 들여다 놓지요.}

10308 @ 고구마는언자 줄로내야 뭇꺼 아임니까? {고구마는 이제 줄을 내야 뭇 것 아덱니까?}

10308 # 줄로언자 싸 예 우리가 여:재배로 바로 할라꼬하므 고구마로 무더노으므 거게서 싸기 나와가주고. {줄로 인제 싸 예 우리가 여기 재배를 바로 하려고 하면 고구마를 묻어 놓으면 거기서 싹이 나와 가지고.}

10308 # 그래가언자 그 싸글 꼬너가주고 그:다 줄로언자 두글 모아노코 거:다언자 쭈욱 시므지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싹을 끊어 가지고 거기다 줄로 이제 독을 모아 놓고 거기다 이제 쭈욱 심지요.}

10308 @ 그러믄 감자는 우쨌썸니까? {그러면 감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10308 # 감자는 언자초보메 이월따래 언자감자씨로 사가 와가주고. {감자는 이제 초봄에 이월달에 이제 감자씨를 사서 가져와 가지고.}

10308 # 그라이믄 지베 저장: 해놓지베는 지베꺼로 하고. {그게 아니면 집에 저장해 놓은 집에는 집의 걸로 하고.}

10308 # 요래언자 칼로가 눈 누~이라꼬 요언자 축올로는 고부분인능거를 뚝뚝뚝 따:가주고 고래가 시므니다. {이리 이제 칼로 눈이라고 여기 이제 축 올라오는 그 부분 있는 것을 뚝뚝뚝 떼 가지고 그렇게 해서 심습니다.}

10308 @ 꼬치농사도 지으썸찌예? {고추농사도 지으셨지요?} 예.{예.}

10308 # 고추는 머 옼나레는 고추를 기양 가라가주고 이래가주고 시마가주고 이래헨는데. {고추는 뭇 옛날에는 고추를 그냥 갈아 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심어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10308 # 오새:비저나믄 옼나레는머 고추고 머시고 머 오새비저 몬하지요. {요새 비하여(?) 놓으면 옛날에는 뭇 고추고 뭇고 뭇 요새 비하여(?) 못하지요.}

10308 @ 예:, (웃음) 잘 드림썸니다. {예, (웃음) 잘 들었습니다.}

10308 @ 음, 이버네는네, 그 보리 종뉴에 대해서 여쭙보겠썸니다. {음, 이번에는요, 그 보리 종류에 대해서 여쭙보겠습니다.}

10308 @ 보리종뉴는 어떻거시 이썸썸니까? {보리 종류는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10308 # 쌀보리, 그저보리, 또머 오새머 맥주보리 크능겉또 인 나오던데? {쌀보리, 그저 보리, 또 뭇 요새 뭇 맥주보리하는 것도 있 나오던데?}

10308 # 이머. (이 뭇.) @ 옼나레 농사 직쩍지으썸썸때 보리를 중시므로해서 말썸썸 해주이소. {옛날에 농사 직접 지으셨을 때 보리를 중심으로 해서 말썸 좀 해 주십시오.} # 쌀보리. {쌀보리.}

10308 # 이머. {이 뭐.} @

10308 @ 그러니까 쌀보리. {그러니까 쌀보리.} # 밀보리, 동보리, 깻동보리, 네종뉴인찌요. {밀보리, 동보리, 깻동보리, 네 종류 있지요.}

10308 @ 그러며는 쌀보리: 이기 다 파종시기가 다른니까? {그러면은 쌀보리 이기 다 파종시기가 다른니까?}

10308 # 파종은 또까지 해요. {파종은 똑 같이 해요.}

10308 @ 늘보리는 머:를 늘보리라 그러니까? {늘보리는 뭐를 늘보리라고 그러니까?} # 수여미가 파악: 길게 내놓기 늘보리고. {수염이 짝 길게 나온 게 늘보리고.}

10308 # 쌀보리는 아까 애기맨치로 살캐~이 이기: 아지매~이가 툭툭 티:나오능기 살보리고. {쌀보리는 아까 애기처럼 살이 이것이 알맹이가 툭툭 튀어 나오는 게 쌀보리고.}

10308 # 깻동보리라커능거는 아까: 말씀하드시 잘떠러지고 수염도짜리고 고인제 깻동보리고. {깻동보리라고 하는 거는 아까 말씀하듯이 잘 떨어지고 수염도 짧고 그게 이제 깻동보리고.}

10308 @ 금또 쌀보리, 늘보리, 깻동보리 말고 또하나. {그러면 또 쌀보리, 늘보리, 깻동보리 말고 또 하나.} # 동보리.{동보리.}

10308 @ 그:는멈니까? {그것은 뭘니까?} # 동보리느: 이삭꺼리가 굴:꼬 역씨 깻동보리맨치로 수어른 업꼬예.{동보리는 이삭이 굵고 역시 깻동보리처럼 수염은 없고요.}

10308 @ 예:, 아 종뉴가 만네예.{예, 아 종류가 많네요.} # 예.{예.}

10308 @ 어, 여기 길뽀리란거느 업썸습니까? {어, 여기 길보리란 거는 없었습니다?}

10308 # 길뽀리라크능기 판데가면 여:내 그저저 늘보리크능거 그길건데? {길보리라고 하는 게 판 데 가면 역시 그 저저 늘보리라고 하는 거 그길 건데?} @ 아 그래예? {아 그래요?}

10308 @ 그러믄네, 그 보메 송구는보리 봄뽀리라칸건 여:서 안썸습니까? {그러면요, 그 봄에 심는 보리 봄보리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안했습니다?}

10308 # 이양판 잘뜨런찌 여:는 봄뽀리는 아넬썸요. {이야기만 잘 들었지, 여기는 봄보리는 안했어요.} @ 예:. {예.}

10308 @ 그러믄 어르신저:, 밀 아넬썸니까? 요:는 보리고예. {그러면 어르신 저, 밀 있잖습니까? 이거는 보리고요.} # 예.{예.}

10308 @ 미래는 머 또 미래도 머 종류가 이썸습니까? {미래에는 뭐 또 미래도 뭐 종류가 있었습니다?}

10308 # 미렌 여: 항가지배게 업썸썸예. {미래에는 여기에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 예. {예.}

10308 @ 이번엔네, 아까 그건자 보리 또는 밀 그종뉴에 대항기고. {이번에는요, 아까 그거는 이제 보리 또는 밀 종류에 대한 거고.}

10310 @ 이버네는 그 농사진은 방뽵 절차를 쫓자세하게 쫓말썸해 주셔야 땀니다이. 생각나시는대로예. {이번에는 그 농사 짓는 방법 절차를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이. 생각나시는대로요.}

10310 @ 먼저 보리농사 아까 며월파레 하신다고 그랜썸니까? 동진파레? {먼저 보리농사 아까 몇 월 달에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동짓달에?}

10310 # 동진파레. {동짓달에.} @ 예:, 그러믄, 동진파레 보리농사 그 보리지:가지고. {예, 그러면, 동짓달에 보리농사 그 보리 지어 가지고.}

10310 @ 그래가꼬 인자 다음머 거되디릴때까지예 그러믄 한 제법 오래 안걸립니까이? {그

래 가지고 이제 다음 뭐 거두어들일 때까지요, 그러면 한 제법 오래 걸리겠습니까?)

10310 @ 게:서 보리 파종부터 거다디릴때까지가 제법머 반년이상 시가니 안걸립니까? {그래서 보리 파종부터 거두어들일 때까지가 제법 뭐 반 년 이상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 예.{예.}

10310 @ 고걸 생각나시는대로 말씀좀 해주이소. {그거를 생각나시는대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10310 # 동지선따레 언자 씨를 뿌리가주고. {동지선달에 이제 씨를 뿌려 가지고.}

10310 # 언자 뿌리노으른 내년 봄대른 언자 사:살 커오리그는데. {이제 뿌려 놓으면 내년 봄 되면 이제 살살 커 오는데.}

10310 # 언자고기: 비료칠때가 춘분추부~이, 춘부~이라크지예? 봄춘짜 춘분 춘부네 비료로 쳐노으므. {이제 그게 비료칠 때가 춘분 추분이, 춘분이라고 하지요? 봄춘자 춘분. 춘분에 비료를 쳐 놓으면.}

10310 # 머인자 쳐노코나른 그머 웅간 잡초가 올라오기따무네 풀로 또 함번 호미로가 매:주고. {뭐 이제 쳐 놓고 나면 그 뭐 온갖 잡초가 올라오기 때문에 풀을 또 한 번 호미로 가지고 매 주고.}

10310 # 이래 하고나른 이자 양녀그로 한사월 말쯤대른. {이래 하고 나면 이제 양력으로 한 사월 말쯤 되면.}

10310 # 이자 보리가 누르키 누른바물(?) 드러가주고 언자 그들: 이시기가 다 대:요. {이제 보리가 누렇게 누른 색깔이(?) 들어 가지고 이제 거들 이 시기가 다 돼요.}

10310 # 그래가언자 그거를언자 거두고난뒤에 거:다가 모를 시르고 주로 이래하지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거두고 난 뒤에 거두어다가 모를 심고 주로 이렇게 하지요.}

10310 @ 그 숨굴라크며는 일판또 노니나 바들 가라야 안댐니까? {그 심으려 하면은 일단 또 논이나 밭을 갈아야 되겠습니까?} # 아예.{아 예.}

10310 @ 옴나레는 소로가 가란쓸킨데. {옛날에는 소를 가지고 갈았을 건데.} # 소로가 가란쪼요. {소를 가지고 갈았지요.}

10310 @ 고고팔려내서. {그것 관련해서.} # 어. {어.}

10310 # 그언자 소로 가주고 흘찌~이로 매아가. {그 이제 소를 가지고 극쟁이를 매어서}

10310 # 인자 함번가라 가주고 또 그 디~이 보드랍도록 하능거시 개~이서리라 개~이서:리. {인제 한 번 갈아 가지고 또 그 흙덩이 보드랍도록 하는 것이 팽이썰레라, 팽이썰레리.}

10310 # 개~이썰리로 해가주고 디~이로 깨:가주고. {팽이썰레를 해 가지고 흙덩이를 깨 가지고.}

10310 # 다시또 또 소에다 흘찌~이로 가주고 가능거시언자 골선다이래, 골:선다고. {다시또 소에다 극쟁이를 가지고 가는 것이 이제 골 쓴다 이래, 골 쓴다고.}

10310 # 그래언자 골로서:가주고 디~이가 보드라브른 거다가언자 씨야씨로뿌리고. {그래 이제 골을 썬 가지고 흙덩이가 보드러운 것에다가 이제 씨앗을 뿌리고.}

10310 # 참 그:다가 오새그치 머 비료가 음씨~이까네 거르를 깔고. {참 거기다가 요새같이 뭐 비료가 없으니깐 거름을 깔고.}

10310 # 그래가 또 다부 개~이서리로나 다부또 문때능기라. 무치라고. {그래서 또 다시 팽이썰레로 다시 또 썰리는 거야. 묻히라고.}

10310 # 그래가언자 참 나:도노으른 내년 한 이월딸 사월딸 대른언자. {그래서 이제 참 놓아 두면 내년 한 이월달 삼월달 대면 인제.}

10310 # 언자저저 땅내서 땅냄새도 막꼬 날씨도 따뜨타니까~이 조금 자라날때 고를때인자

비료로 한번 살: 처노코나몬. {인제 저저 땅 내서(?) 땅 냄새도 맡고 날씨도 따뜻하니깐 조금 자라날 때 그럴 때 이제 비료를 한 번 살짝 쳐 놓고 나면.}

10310 # 인자 골:때는 비료하고 언자 보리밭 한번매:주능거 하고. {이제 그럴 때는 비료하고 이제 보리밭 한 번 매 주는 거 하고.}

10310 # 고 두가지만 해노코나몬 언자 거되들롤 준비만하면 대. {그 두 가지만 해 놓고 나면 이제 거두어들여 놓을 준비만 하면 돼.}

10310 @ 엔나레 그 거되드릴때는 그 전부다 사라미 일리리 비가: 소느로 나들가고 비:가꼬. {옛날에 그 거두어들일 때는 그 전부 다 사람이 일일이 베어 손으로 낫을 갖고 베 가지고.}

10310 @ 지고와서 타자글 해쓸꺼 아십니까? {지고 와서 타작을 했을 것 아십니까?} # 네. {네.}

10310 @ 그 타작하고나몬 모메 온:전시네 까끄래기거통기 무더가지고. {그 타작하고 나면 몸에 온 전신에 까끄래기 같은 것이 묻어 가지고.}

10310 @ 근지럽꼬 쏘고안그랬습니까? 거 참: 더울텐데. {가렵고 쏘고 그랬잖습니까? 그 참 더울 텐데.}

10310 # 그러~이까네 글때는 참머 나술가바:고 인자: 느 마리므언자 손수로무까가. {그러니깐 그럴 때는 참 뭉 댕으로 베고 인제 느 마르면 손수 묶어서.}

10310 # 요 인자 달개타작한다고 해가 잔자:콍하~이 요래언자 무까가주고. {요기 인제 자리개질한다고 해서 자그마하게 이렇게 인제 묶어 가지고.}

10310 # 참 소가 인는집 부자찌베는 소로가언자 시리들로코. {참 소가 있는 집, 부자집에는 소로 인제 실어 들여놓고.}

10310 # 인자 소웁는 지베는 지게로 저들라:가주고. {이제 소 없는 집에는 지게로 저서 들여와 가지고.}

10310 # 그래참 저 지베가: 와가주고언자 달개타작. {그래 참 저 집에 가져와 가지고 이제 자리개질.}

10310 # 달개타작 그하고나몬 상당히 꺾겨릅쪼요. 달개타작 마~이 해쪼요. {자리개질하고 나면 상당히 꺾끄립쪼요. 자리개질 많이 했어요.}

10310 @ 아 도리께 타자근 마이 아넌쪼니까? {아 도리께 타작은 많이 안했습니까?}

10310 # 달개타작하고 난디 인자 몽구릴때 인자 돌기타자기 드가지요. {자리개질하고 난 뒤 이제 몽그릴 때 이제 도리께 타작이 들어가지요.}

10310 # 주로 달개타자글 마~이하고. {주로 자리개질을 많이 하고.}

10310 # 인자 그 쉼미 몽그러지라꼬:. {인제 그 수염이 몽그러지라고.}

10310 # 고거 해난뎡 웅:꼬타리 떠러저가 이씨몬 고거 깨:지고. {그거 해 났던 온이삭 떨어져 있으면 그거 깨지고.}

10310 # 이래 하라꼬 인자 도리께질로 쫘 해쪼요. {이렇게 하려고 이제 도리께질을 쫘 했쪼요.}

10310 @ 예:. 어 쪼끔저네 말씀하신건예, 자 보리농사 진능거 보리가라 가지고 타자카는 이렇거 하고예. {예. 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건요, 자 보리농사 짓는 거 보리 갈아 가지고 타작하는 이런 거 하고요.}

10310 @ 밀농사는 또머 비스탄 시기라고 그래 말씀하셧는데. {밀농사는 또 뭐 비슷한 시기라고 그렇게 말씀하셧는데.}

10310 @ 쫘더 자세하게 밀농사는 우째 지언는지 그 씨를뿌릴때 그 고를 타가지고 씨뿌리고 그래그래 지내가꼬 나중에 거다드릴때까지. {쫘 더 자세하게 밀농사는 어찌지었는지 그 씨를 뿌릴 때 그 골을 타 가지고 씨뿌리고 그래그래 지내 가지고 나중에 거두어들일 때까지.}

10310 @ 밀농사 짓는 방빠베 대해서 말씀좀 해주이소. {밀 농사 짓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10310 # 역시 밀롱사도 동진딸 여내 보리농사나가지 이래 어 씨를 뿌리는데. {역시 밀농사도 동짓달 역시 보리 농사같이 이렇게 어 씨를 뿌리는데.}

10310 # 역시 흘찌~이로 가라가 개~이씨리로 문때가지고. {역시 극쟁이로 갈아서 팽이씨레로 씨려 가지고.}

10310 # 또다시 골:로 서 여내 다시 가능기 여내 골:선다 켜능교? {또 다시 골을 쓰 역시 다시 가는 게 역시 골 쓴다고 했던 거지요?}

10310 # 그래 골:로 서가주고 인자 미를 흐쳐노코 그위에다가 거르를 흐쳐가주고 다시 개~이씨리로 문때가. {그래 골을 씨 가지고 이제 밀을 흘쳐 놓고 그 위에다가 거름을 흘쳐 가지고 다시 팽이씨레로 씨려서.}

10310 # 이래가주고 역시 참 보메대든 언자 비료는 역시 보리나가지 비료를 인자이래. {이래 가지고 역시 참 봄에 되면 이제 비료는 역시 보리같이 비료를 이제 이렇게.}

10310 # 추부네치고 이래하고. {추분에 치고 이렇게 하고.}

10310 # 역시 그건또 손수로 비:가주고. {역시 그것도 손수 베어 가지고.}

10310 # 참 머 달개타작할라꼬 하이~까 장자:쿠마~이 무까야 데기 따무네 그래무까가. {참 뭐 자리개질하려고 하니까 자그마하게 묶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 묶어서.}

10310 # 역시 보리가치 소음는 사라문 지게지고 드리오고 소인는사람 식:꼬 드리와가주고. {역시 보리같이 소 없는 사람은 지게 지고 들어오고 소 있는 사람 싣고 들어와 가지고.}

10310 # 역시 그건또 달개타자글 하 합니다. {역시 그것도 자리개질을 합니다.}

10310 # 역시 달개타작 해가주고 그래 하는데. {역시 자리개질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10310 # 그거는인자 알매~이가 쭉쭉쭉쭉 빠지기따무네 저 도리깨지른 별시리 아내도대:요. {그것은 이제 알맹이가 쭉쭉쭉쭉 빠지기 때문에 저 도리깨질은 별스레 안 해도 돼요.}

10310 # 그 머 꼬타리도 안묵꼬 마 때리든 고거는 알매~이만 쭉쭉쭉 빠지가 그래언자 풍개:다 디라가주고 그래가: 가마네: 당:고 이랍니다. {그 뭐 이삭도 안 묵고 뭐 때리면 그거는 알맹이간 쭉쭉쭉 빠져서 그래 인제 풍구에다 (쭉정이 등을)날려 가지고 그래 가지고 그 가마니에 담고 이립니다.}

10311 @ 예. 그 해동하고나면 인자 보리나 밀가통거는 인자 발끼도 하지예? {예, 그 해동하고 나면 이제 보리나 밀 같은 거는 이제 밟기도 하지요?}

10311 # 여:는 발찌는 아내요. {여기는 밟지는 않아요.} @ 아 그 머. {아 그 뭐.}

10311 # 예. @ 여:나리 따시서 그림. # 예.{예. @ 여기는 날이 따뜻해서 그림. # 예.}

10311 @ 운찌방에는 씨릴빨 가통게 서서 그 보리알 그그그 뿌레~이내링거 들뜬다꼬 불 발끼도 하고 이랬는데. {윗지방에는 서릿발 같은 게 서서 그 보리알 그그그 뿌리 내린 거 들뜬다고 밟 밟기도 하고 이랬는데.}

10311 @ 아 여:는. # 여:는 발찌는 아내요. @예:. {아 여기는. #여기는 밟지는 않아요. @예.}

10311 # 연: 추운데가 아니기 따무네. @ 예:. {여기는 추운 데가 아니기 때문에. @ 예.}

10312 @ 음 그럼 반농사의 경우에 그 바테인자 지심 안남니까이? 풀도 매야 안담니까?

{음 그럼 발농사의 경우에 그 밭에 이제 김이 나잖습니까? 풀도 매야 되잖습니까?}

10312 @ 고거는 한 땀빼니나 매고 우째땀미까? 받찌심매능거. {그거는 한 몇 번이나 매고 어찌 땀니까? 밭 김매는 거.}

10312 # 반농사에는 주로 호미로가 여:는 매는데. {발농사에는 주로 호미로 여기는 매는데.}

10312 # 호미로가 역시 반농사나 논농사나 한 세버른 매야땀니다. 세벌. {호미로 역시 발농사나 논농사나 한 세 벌은 매야 땀니다. 세 벌.}

10312 # 또 한번매고 또 쪼밧따가 그 논 농사매능거는. {또 한 번 매고 또 쪼 밧 있다가 그 논농사 매는 거는.}

10312 # 망시 바지가 인꼬 중바지가 익꼬 역시그건또 일:아내그런치 반농사도 역시 김매는 거는 향가지래요. {망수받이가 있고 중받이가 있고 역시 그것도 일을 안해서 그렇지 발농사도 역시 김매는 것은 한가지예요.}

10312 # 호미로가 매능거하고 소느로가 매능거하고 틀리그러치. {호미로 매는 거 하고 손으로 매는 거 하고 달라서 그렇지.}

10312 @ 그러믄 반 그 반매는건또 땀마지마게 매는걸 가따가 머 머 망씨기라 켜썸니까? 그런 이르미 인썸니까? {그러면 밭 그 밭매는 것도 땀 마지막에 매는 것을 갖다가 뭐 뭐 망수라고 했습니까? 그런 이름이 있습니까?}

10312 # 그런얘기는 몬뜨러 받는데요. (웃음) @ 예.{그런 얘기는 못들어봤는데요. (웃음) @ 예.}

10313 @ 인자 쪼끔 인자 다른 내용인데예. {인제 조금 인제 다른 내용인데요.}

10313 @ 옼나레 미리나 콩 이렇거 살짝 너머지베 가가 쪼끔 이 비:가지고 친구들끼리, 어릴때입니다. {옛날에 밭이나 콩 이런 거 살짝 남의 집에 가 조금 이 베 가지고 친구들끼리, 어릴 때입니다.}

10313 @ 그 부레 꼬실라목꼬 이렇거 머한다 켜썸니까? 그걸갈따가. {그 불에 그을려 먹고 이런 거 뭐 한다고 했습니까?}

10313 # 밀사리. @ 사리한다 그랜찌예? # 예. {밀서리. @ 서리한다 그랬지요? # 예.}

10313 @ 그라모 또 겨울데모 달도 자바다가:꼬 살짝 너무 지베 달도 자바가꼬 마 이렇거 또 더러 초네 어떤텐 익긴 했는데. {그러면 또 겨울 되면 닭도 잡아 가지고 살짝 남의 집에 닭도 잡아서 뭐 이런 거 또 더러 촌에 어떤 데는 있긴 했는데.}

10313 @ 머 달근 나:뚜고라도 그 밀하고 콩사리항거. {뭐 닭은 바 두고라도 그 밀하고 콩서리 한 거.}

10313 @ 그때그 어르신 어릴때 그런 추억기 그런 생가기 기어기 이쓰모 거 재믹게 함번 얘기썸 해주이소. {그 때 그 어르신 어릴 때 그런 추억이 그런 생각이 있으면 그거 재밌게 한 번 얘기 쪼 해 주십시오.}

10313 # 그 그런 장나으는 밀사리니 콩사리라 크능그는. {그 그런 장난은 밀서리니 콩서리 나고 하는 거는.}

10313 # 머 옼나리나 오새나 혼차 하믄 도둥노미 데고. {뭐 옛날이나 요새나 혼자하면 도둑놈이 되고.}

10313 # 인자 여러키 어불러가 장난사마 그래 머참 어불러가 콩사리도 하고. {이제 여럿이 더불어 장난삼아 그래 뭐 참 더불어 가서 콩서리도 하고.}

10313 # 또 저 밀로 한다부리 꼬너가가주고 어디 구저게 가가주고. {또 저 밀을 한 다발 끊어 가지고 어디 구석에 가 가지고.}

10313 # 엔나레 인자 농사지올라커문 저 대풀커능기 사네가 풀비다가 나:둥게 이꺼등네. {옛날에 이제 농사 지으려고 하면 저 대풀 하는 게 산에 가 풀 베다가 놓아둔 게 있거든요.}

10313 # 그거언자 구저게 가가 빼쩍말른넘 이씨문 그거를 쪼끔또 그건또 인자 도리켜 와가주고. {그거 인제 구석에 가서 비쩍 마른 넘 있으면 그것을 조금 또 그것도 인제 도둑질해(?) 와 가지고.}

10313 # (웃음) 도둑질 와가저고 거어다 인자 불로썰러가 밀로 거:언저가주고. {(웃음) 도둑질해(?) 와 가지고 거기에다 인제 불을 질러서 밀을 거기 없어 가지고.}

10313 # 인자 미리 반통 꼬지러지문 그그를 인자 비비 몽는거를 밀사리라꼬하고, 예 여러키 어불러 그래합니다. {인제 밀이 반쯤 그을러지면 그것을 이제 비벼 먹는 것을 밀서리라고 하고, 예 여럿이 더불어 그렇게 합니다.}

10313 @ 그 콩도 그래가꼬 한번 사리 콩싸리가통걸 해보신 기어기 인썸니까? {그 콩도 그래 가지고 한 번 서리 콩서리 같은 걸 해 보신 기억이 있습니까?}

10313 # 콩은 밀사리맨치로 머 데:기 그리이미인께 그러케는 아내묵쥬요. {콩은 밀서리처럼 뭐 대개 그리 의미 있게 그렇게는 안 해 먹쥬요.}

10313 # 콩은 좀 귀하고 그당시에는: {콩은 좀 귀하고 그 당시에는.}

10313 # 미른 들파네 마~이 가~이까. {밀은 들판에 많이 가니까(경작하니까).}

10313 # 다가치 머 장나네 장나~이라도 좀 귀향거는 소늘 덜때고. {다 같이 뭐 장난에 장난이라도 좀 귀한 거는 손을 덜 대고.}

10313 # 호난거는 좀마이 땀쥬요. (웃음) @ (웃음) 예. {흔한 거는 좀 많이 땀쥬요. (웃음) @ (웃음) 예.}

10313 @ 그 그러문 고구마서리 가통거는 안하썸썸니까? {그 그러면 고구마 서리 같은 거는 안 하썸썸니까?}

10313 # 역시 고구마도 다 해받쥬요. 어? {역시 고구마도 다 해 봤어요. 어?}

10313 # 고구마도 그 엔나레 우리가 어불러가주고 놀때 참 어데 고구마를 마이 시마노마. {고구마도 그 옛날에 우리가 어울려 가지고 놀 때 참 어디 고구마를 많이 심어 놓으면.}

10313 # 모리곤 도둑질 몬하거등네. 바:야 도둑쥬를 하지. 어데가면 고구마를 마~이 시마난:파. {모르고는 도둑질 못 하거든요. 봐야 도둑질을 하지. 어디 가면 고구마를 많이 심어 왔다.}

10313 # 또 그 중에서도 나만사람도 익꼬 절문사람도 이시이~까네 아:들또 익꼬 하이~까. {또 그 중에서도 나이 많은 사람도 있고 젊은 사람도 있으니깐 아이들도 있고 하나까.}

10313 # 어 나이마는 사암드리 그 유경험자라고 겨~어미이 이씨가주고. {어 나이 많은 사람들이 그 유경험자라고 경험이 있어 가지고.}

10313 # '야 느그 저: 고구마 도둑질 해갈라커머 장갑찌고 가야텐데이.' {'야 너희 저 고구마 도둑질해 가려고 하면 장갑 끼고 가야 된다이.}'

10313 # 어, 고구마는 지~이 나와 소네무드문 안진다커능기라. {어, 고구마는 진이 나와 손에 묻으면 안 진다고고 하는 거야.}

10313 # 그러기 따무네 대사리 고구마 일거뿌리고 내려지기 손 조사하문 대사리 들통난다. {그렇기 때문에 대변에 고구마 잃어 버리고 내일 아침에 손 조사하면 대변에 들통난다.}

10313 # 그러~이간 장가블 찌고 가가거래이 캐가. {그러니깐 장갑을 끼고가거라고 해서.}

10313 # 그래가 우리가 다 장갑찌고 다 간 사시리 이서서요. {그래서 우리가 다 장갑 끼고 다 간 사실이 있었어요.}

10313 @ (웃음) 예.{(웃음) 예.}

10314 @ 그 보리타작 밀타작 다하고나쁜 지피 안나옴니까, 그지예? @ 보릿찹밀찹. {그 보리 타작 밀 타작 다 하고 나면 짚이 나오잖습니까, 그렇지요?} #예 {예.}

10314 @ 그: 그걸 가지고인자 옐나레 아:드른 머 여러가지 장 그머 만드러가지고 장난도 하고 이랬는데예. {그 그걸 가지고 이제 옛날에 아이들은 뭐 여러 가지 장(난) 그 뭐 만들어 가지고 장난도 하고 이랬는데요.}

10314 @ 예를드러서머 곤충집또 만들고. {예를 들어서 뭐 곤충집도 만들고.}

10314 @ 그 :니까 보릿찌비나 밀찌블 가지고 머 만드러본 그런 기어기 이쓰십니까? {그러니까 보릿짚이나 밀짚을 가지고 뭐 만들어 본 그런 기억이 있으십니까?}

10314 # 땅거는 엄는데 고게 저 밀찌불가주고 여러 머 가재~이로 딱째 찌가주고. {판 것은 없는데 그게 저 밀짚을 가지고 여러 뭐 가를 딱 찌가지고.}

10314 # 어 대가리 여: 딱 더퍼씨아가주고 고:다가머 그:. {어 대가리 여기다 딱 덮어 씌워 가지고 거기다가 뭐 그.}

10314 # 머꼬, 나락 저쪽 휘:기 고고로 고:다 꼬버가 요리 올리른 올라갈따 내려갈따 하든요 날감지가 마리지 똑.{뭇니, 벼 저쪽 새뻬기 그것을 거기다 꽃아서 이리 올리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여기 지느러미가 말이지 똑.}

10314 # 여 양쭈 머리가 딱인꼬 요 팔거치 이래가 올라갈따 내려갈따 여 허재비라 크고 고래한 사시리 이썰요. @ 아 예. {여기 양쪽 머리가 딱 있고 여기 팔같이 이렇게 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여기 허수아비라고 하고 그렇게 한 사실이 있어요.} @ 아 예. {아 예}

10315 @ 저 여게 담배농사도 지었습니까? {저 여기에 담배 농사도 지었습니까?} # 담배농사 안 지얏서요. {담배 농사 안 지었어요.}

10315 @ 마느른네? {마늘은요?} # 마느른 마~이 하고 인썰요. {마늘은 많이 하고 있지요.}

10315 @ 그라모 아까 인제머 고치나 머 이렇거는 잘 말씀드려꼬예. {그러면 아까 이제 뭐 고추나 뭐 이런 거는 잘 말씀 들었고요.}

10315 @ 마늘농사 진는 방빠베 대해서 말씀해 주이소. {마늘 농사 짓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315 # 마늘또 역시 그 당시만 해도. {마늘도 역시 그 당시만 해도.}

10315 # 어 여내 동진파래 동진말 정도에 인자 시므는데. {어 역시 동짓달에 동짓달 정도에 인제 심는데.}

10315 # 역시 그건또 보안 보리농사나 비스태:요. {역시 그것도 ?? 보리농사나 비슷해요.}

10315 # 저 훌찌~이로 가라가주고 디~이가 씨~이까네 언자 개~이썰리가 문때가. {저 극쟁이로 갈아 가지고 흙덩이가 세니깐 팽이썰레로 썰려서.}

10315 # 그래 가주고 언자 디~이가 보드라부른 거:다언자 골로 타가 거:다언자 마늘로 시마가주고. {그래 가지고 인제 흙덩이가 보드라우면 거기에다 인제 골을 타서 거기에다 인제 마늘을 심어 가지고.}

10315 # 여: 그이듬해 한 사월말쭈: 대머 캐고. {어 그 이듬해 한 사월달쭈 되면 캐고.}

10315 # 거기다가 또 모를 시무고 이리 마~이 해썰요, 그당시에. {거기다 또 모를 심고 이리 많이 했어요, 그 당시에.}

10315 @ 예. 그라든 강내~이는 우썰 송굽니까? {예. 그러면 옥수수는 어썰 심습니까?}

10315 # 강내~이는 주로 보메 시마 가주고. {옥수수는 주로 봄에 심어 가지고.}

10315 # 그러니까네 요즘 아~이가, 요이 머 칠파뤄레 꼬너무꾸. {그러니까네 요즘이잖아, 이

뭐 칠팔월에 끓어 먹고.}

10315 @ 강내~이는 건:또 바테 골로파서 송굽니까, 아이~며는 머 그냥 어디마 편지노:문
템니까? {옥수수는 그것도 밭에 골을 파서 심습니까, 아니면 뭐 그냥 어디 그냥 (씨를) 던
져 놓으면 됩니까?}

10315 # 우 머 판데 점문저그로 하는덴 몰라도 우리거튼 여 이 이지방에는 강내~이는 그
저. {뭐 다른 데 전문적으로 하는 데는 몰라도 우리 같은 여기 이 지방에는 옥수수는 그저.}

10315 # 참 보메 마 율따리까 드문드문 이래 바뚜게 이런데 시마날:따가. {참 봄에 뭐 율
타리가에 드문드문 이렇게 밭둑에 이런 데 심어 놓았다가.}

10315 # 머 그래가 머 그거는 별시리 켄롱도 안하고 마 이래가 열고 이라든 머 끄너묵찌
요. {뭐 그래서 뭐 그거는 별시리 권농도 안 하고 뭐 이래서 열고 이러면 뭐 끓어어 먹지
요.}

10315 @ 예. 저 도라지도 함번 시머 보쉴씀니까? {예. 저 도라지도 한 번 심어보셨습니까?}

10315 # 여: 도라지도 시마 받썰요. 돌개 돌개. {여 도라지도 심어 봤어요. '돌개 돌개'.}

10315 @ 아 돌개라 캄니까? {아 '돌개'라고 합니까} #여는 돌개. {여기는 '돌개'.} @ 아
아까 돌가지라 카시능 가타가지고. {아 아까 '돌가지'라고 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

10315 # 아 돌개. {아 '돌개'.} @ 돌개지예? 예. {'돌개'지요? 예.}

10315 # 아까 도라지크덩가? 돌개. {아까 '도라지'라고 하던가? '돌개'.} @ 아까 '돌가지'라
고 하던데예. {아까 '돌가지'라고 하던데요.}

10315 @ 그러든 돌개 심는, 돌개 그거는 잔손 마:이 같긴데예. {그러면 '돌개' 심는, '돌개'
그거는 잔손 많이 같 건데요.}

10315 @ 올라올때 머 예 돌개농사 진는 방뻘 좀 해 말쑹좀 해주이소. {올라올 때 뭐 예,
도라지 농사 짓는 방법 좀 말쑹 좀 해 주십시오.}

10315 # 우리는 머 농사거치 이리 쥘또 아막꼬 우리가 무울만침 진는데. {우리는 뭐 농사
같이 이리 짓지도 앓고 우리가 먹을 만큼 짓는데.}

10315 # 돌개는 별 전문저그로 하는데는 어떻고 몰라도 그저우리 무올라꼬 하든 그저 한
서너평 이래 가라가지고. {도라지는 별 전문적으로 하는 데는 어떻는지 몰라도 그저 우리
먹으려고 하면 그저 한 서너 평 이렇게 같아 가지고.}

10315 # 마 거게: 데기 쏘문거는: 뽀버내베리뿌고 그저 고대로 키아가주고. {뭐 거기에 매
우 손 거는 뽀아 내버려 버리고 그저 그대로 키워 가지고.}

10315 # 머: 내가 무올라크든 이년내지 삼년 대:야 오른 그기 나오지요. 당너네는 문몽꼬.
{뭐 내가 먹으려고 하면 이 년 내지 삼 년 돼야 그게 나오지요. 당년에는 못 먹고.}

10315 @ 그 꼬치 타악 피며는 처으며 탁 오무려 안인씀니까? {그 꽃이 탁 피면 처음에 탁
오무려 있잖습니까?} # 예. {예.}

10315 @ 어릴때 먼모르고 그냥 그거 툭툭터잔: 기어기 익꺼든네 제가. {어릴 때 몇 모르
고 그냥 그거 툭툭 터트린 기억이 있거든요, 제가.} # 음. {음.}

10315 @ 터자노면 아네 열매가 꼬치 도중에 상해버린다입니까? {터트려 놓으면 안에 열매
가 꽃이 도중에 상해버리잖습니까?}

10315 @ 고기: 나중에 버러지야 거 씨가될킨데. {그게 나중에 벌어져야 그 씨가 될 건데.}
예, (웃음) 마자요. {예, (웃음) 맞아요.}

10315 @ 흑씨 머 주위에 돌개를 키우는데 아:드리 장난친다고 툭툭 머. {흑씨 뭐 주위에
도라지를 키우는데 아이들이 장난친다고 툭툭 뭐.}

10315 @ 꼬치파:썰, 봉우리 매전썰때 트자: 가지고 머한 이런 그머 경험 업습니까? {꽃이 피었을, 봉우리 맺었을 때 터트려 가지고 뭐 한 이런 그 뭐 경험 없습니까?} # 그언 몬빨서요, 여:는. {그건 못 봤어요, 여기는.}

10315 # 저 판데 매:치로 저 돌개 농사를 마니 안직끼 따무네. {저 다른 데처럼 저 도라지 농사를 많이 안 짓기 때문에.}

10315 # 자기네들 무울만치백끼 안하기 따무네, 여:혼차네요. {자기네들 먹을 만큼밖에 안하기 때문에, 여기는 혼치 않아요.}

10315 @ 예.{예.}

10316 @ 저 어르신 저 수박또 함번? # 그런건아해받썌요. @ 예. {저 어르신, 저 수박도 한 번?} # 그렇건 아내 받서요. {그런 건 안 해 봤어요.} @ 예.{예.}

10316 @ 차매는네? {참외는요?} # 차매도 안해박:받꼬. {참외도 안 해 보았고.} @ 차매도 안해보석꼬. {참외도 안 해 보셨고.}

10316 @ 여게서 머 우리 요지방에 고조게 미량만 하더라도 사가가 마니 데는데. {여기서 뭐 우리 이 지방에 그쪽에 밀양만 하더라도 사과가 많이 되는데.}

10316 @ 여게도 사가가 텨니까? {여기도 사과가 됩니까?} # 사과? {사과?} @ 예.{예.} # 아내요. {안 해요.}

10316 @ 요기는 사과안합니까, 예, 복숭아는네? {요기는 사과 안 합니까, 예, 복숭아는요?}

10316 # 복숭아 사과거통 그렇거는 아내요. {복숭아 사과 같은 그런 거는 안 해요.}

예.{예.}

10316 # 주로 감나무 이거배께 업썌요, 옛날감나무. {주로 감나무 이거밖에 없지요, 옛날 감나무.}

10316 @ 그:모 옛날 감나무 저거는 머 송거나몬 지질로 열림따 떠러질꺼 아임니까? 인자. {그러면 옛날 감나무 저것은 뭐 심어 놓으면 저질로 열렸다 떨어질 것 아닙니까? 인제.}

10316 # 예.{예.} @ 예:.{예.}

10316 @ 그라몬:자 아까는 인자 그렇거고, 지금인자 과일인데예. {그러면 인제 아까는 인제 그런 거고. 지금 인제 과일인데요.}

10316 @ 과일농사는 그러몬 감나무 말고는 또다름기 머 업썌니까? {과일 농사는 그러면 감나무 말고는 또 다른 게 뭐 없습니까?} # 업서예. {없어요.} @ 예:.{예.}

10317 @ 받뚜기나 들 또는 사네 여러:가지 풀 안 납니까이? 풀. {밭독이나 들 또는 산에 여러 가지 풀 나잡습니까? 풀.}

10317 @ 그머 풀 아네는 농사한테 안조은머 그렇거 우리가 캐내:야될 이잡초도 인꼬 여러 가지 이썌긴데. {그 뭐 풀 안에는 농사한테 안 좋은 뭐 그런 거 우리가 캐내야 될 이 잡초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건데.}

10317 @ 어디든 조썌니다. 노니든 바치든 사니든. {어디든 좋썌니다. 논이든 밭이든 산이든.}

10317 @ 어디라도 조웅께네예, 그 풀 이르메 대해서 생각. # 역씨여:는 잡초아임니까? {어디라도 좋으니까요, 그 풀이름에 대해서 생각. # 역시 여기는 잡초 아납니까?}

10317 @ 예, 그런 여러:가지 풀 이르미 이썌꺼 아임니까? {예, 그런 여러 가지 풀 이름이 있을 것 아닙니까?}

10317 @ 머 이를테면 사네가머는 머 역썌가 안이썌니까? 여:하면 소니 비:능거. # 어어 역썌. {뭐 이를테면 산에 가머는 뭐 역새인가 있잡습니까? 여기 하면 손이 베이는 거. # 어어 역새.}

10317 @ 억새라 켜썌니까? # 억새. @ 억새. {억새라고 했습니까? # 억새. @ 억새.}

10317 # 아~이. 아 오새 억새지. @ 옼나레는네? {아니. 아 요새 억새지. @ 옼날에는요?}

10317 # 옼나레는. @ 예. {옼날에는. @ 예.}

10317 # 가마이서, 그개 퍼뜩 안새~잉키네. {가만히 있어. 그개 퍼뜩 생각이 안 나네.}

10317 @ 새라 그랴썌니까? # 새. {새라 그랴썌니까? # 새.}

10317 # 새. @ 새라 켜썌니까? # 새. {새. @ 새라고 했습니까?}

10317 @ 어 항새라, 항새비기라 그랴. # 아~이. {어 '항새'라, '항새비기'라 그랴(썌니까)? # 아니.}

10317 @ 그냥 새라 켜썌니까? # 예. {그냥 새라고 했습니까? # 예.}

10317 @ 그랴 새에 그거 대해서 말썰해주이소. {그랴 새에 그거에 대해서 말썰해 주십시오.}

10317 # 새:는 왕:새가 인꼬 밀새가 인꼬 어: 노새가인서요. {새는 왕새가 있고 밀새가 있고 어 노새가 있어요.}

10317 # 왕새는 굴근새가 왕새고. {왕새는 굼은 새가 왕새고.}

10317 # 노새라 커능거느 논쩰깁매:치로 가능기노새고. {노새라고 하는 건 늦것가락처럼 가는 게 노새고.}

10317 # 밀새라커능거느 또 종류가 또 틀리지 밀새라커능그느. {밀새라고 하는 거는 또 종류가 또 틀리지. 밀새라고 하는 거는.}

10317 # 곧:뚜 역시 논새보다 더야카고 고큰기인자 그 새:서 세가지종류가 이서예. {그것도 역시 노새보다 더 약하고 그랴 게 이제 그 새에서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10317 # 왕새 노새는 다가튼새고 밀새라커능거느 좀 종류가 틀리고. {왕새, 노새는 다 같은 새고, 밀새라고 하는 거는 좀 종류가 다르고.}

10317 @ 예. 그소네 이파리그 데이몬 손 비:가고 피나고 그라지예? # 예. {예. 그 손에 이파리 거기 데이면 손 베여서 피 나고 그렇지요? # 예.}

10317 @ 그라몬 그 썰는 비:가지고 어디에 썌니까? {그러면 그 새는 베 가지고 어디에 썌니까?}

10317 # 옼나레 우리가 사용할때는 그거를 비:가 와가주고. {옼날에 우리가 사용할 때는 그거를 베어 가져와 가지고.}

10317 # 여 초갸찌부에 지불인자 옼나레 초갸찢 그걸 그당신:데 주로인자 지불 마~이 인:찌요, 지불. {여기 초가집 위에 집을 인제 옼날에 초가집 그걸 그 당시인데, 주로 이제 집을 많이 이지요, 집을.}

10317 # 그 인자 비:가와가 참 아까 얘기마따나 지개에 다 비:가 와가:. {그 인제 베어 가져와서 참 아까 얘기마따나 지개에다 베어서 가져와서.}

10317 # 또 머 비가온다고 해서 다라가 영는걸또 아이~고. {또 뭐 베어 가져 온다고 해서 달아서 엮는 것도 아니고.}

10317 # 또 뽕까리 가리날:따가 거인자 '얼추 요건만하머는 집 함 이:지젠나?' 시폴때 인자 또 손수로 여겨가. {또 뽕가리를 가려 났다가 거기 이제 '얼추 요것만 하면 집 한 번 이어지겠나?' 싶을 때 이제 또 손수 엮어서.}

10317 # 그래 가주고인자 지불이:가 사용해서요. {그래 가지고 인제 집을 이어서 사용했어요.}

10317 # 지빌:때 아~이른 노새 머 왕시 굴근새니 이거다 피료엿꺼등네. {집 이를 때 아니면 노새 뭐 왕새 굼은 새니 이거 다 필요 없거든요.}

10317 @ 볼때도 잘 안부썌니까? # 아이구, 볼뽕끼야 머 그꺼정 저:태사네 가야인는데요?

{불 때도 잘 안 붙습니까? # 아이구, 불 땔 거야 뭐 거기까지(잘 필요 있나요?) (억새를 구하려면) 저 태산에 가야 있는데요?}

10317 # 태사네 안가든 업서요, 거기. @ 썰가? # 네. {태산에 안 가면 없어요, 그제. @ 썰가? # 네.}

10317 # 음. @ 그라든 그건 썰고예. {음. @ 그러면 그건 새고요.}

10317 @ 그람 썰말고 또 썰매:쿠로 이파리가 녀땀:카~이 그건또 옛나레 초가집 이알때쓰는 그런 이르미 이썬썬 낀데예. {그럼 새 말고 또 새처럼 이파리가 녀적하게 그것도 옛날에 초가집 이을 때 쓰는 그런 이름이 있었을 건데요.}

10317 # 천접또 이:고. @ 예, 집 이알때 이파리 크모 이만:함니더, 그건또. {첫집도 이고.

10317 @ 예, 집 일 때 이파리 크면 이만 합니다, 그것도.

10317 @ 썰는 가운데 보든 이기 통통항게 대가 올라오고 여페서 이파리가 안올라옴니꺼이? 그기 썰아~임니꺼이? # 썰. {새는 가운데 보면 이계 통통한 게 대가 올라오고 옆에서 이파리가 올라오잖습니까? 그제 새 아닙니까? # 새.}

10317 @ 그 인자 집 지금 말씀드리능거는 압 가운데 대는업꼬, 풀만 주욱 올라가꼬 이만:침 커가지고. {그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앞 가운데 대는 없고, 풀만 주욱 올라 가지고 이만큼 커 가지고.}

10317 @ 그런데 손거통거지 머 안비지만 근데도 빠빠테 가지고 그건또 비:가꼬 옛나레 비운그 옛나레 만들고 만들때. {그런데 손 같은 것까지는 안 베지만 그런데도 땃땃해 가지고 옛날에 비웃 그 옛날에 만들고 만들 때.}

10317 @ 도롱이라 캐습니까? 요거 이거 우장 안이썬니까? # 우:장. {도롱이라고 했습니까? 이거 이거 우장 있잖습니까? # 우장.}

10317 @ 네 우장할때 고 우장하는 풀 그그는 분명이그 썰는 아일끼고 집또 아이~다임니까? {네 우장할 때 그 우장하는 풀 그거는 분명히 그 억새는 아닐 거고 짚도 아니잖습니까?}

10317 # 우리는 여:주로 지풀가 해썬요. 주로. {우리는 여기 주로 짚으로 했어요. 주로.}

10317 @ 감: 여게머 띠:라는건 업썬습니까? 띠풀. # 띠로가도 아넌꼬. {그럼 여기에 뭐 띠라는 건 없었습니까? 띠풀. # 띠를 가지고도 안 했고.}

10317 @ 아 띠라능게 인끼는 이썬썬니까? # 아 띠가 여기는 드물거드네. {아 띠라는 게 있기는 있었습니까? #아 띠가 여기는 드물거든요.}

10317 # 띠로 가:도 안하고 주로 우리는 지풀가 해썬요. 지풀가. {띠를 가지고 안 하고 주로 우리는 짚으로 했어요.}

10317 @ 그러든 저 반농사 지으실때예 제:일 그 애를 메깁던 그 잡초가 먼지 기억하시면 함번 말씀해주이쇼. {그러면 저 밭농사 지으실 때에 제일 그 애를 먹였던 그 잡초가 뭇지 기억하시면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10317 @ 반농사할때 기차는 풀들 안이썬니까? {밭농사할 때 귀찮은 풀들 있잖습니까?}

10317 # 썰비름 크능기 인는데 썰비름. {쇠비름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쇠비름.}

10317 # 썰비름 크능그기 뽀바나도 잘안죽꼬 하나떠러저도 고기 다시또 바리부터가 생기고. {쇠비름이라고 하는 그제 뽀아 놓아도 잘 안 죽고 하나 떨어져도 거기에 다시 또 발이 붙어서 생기고.}

10317 # 그 썰비르미라고해 썰비름. 고기 제일 바테서는 제일. {그 쇠비름이라고 해. 쇠비름. 그제 제일 밭에서는 제일.}

10317 # 주이기가 힘드는 푸리라요. {죽이기가 힘드는 풀이에요.}

10317 @ 그거말고또 이파리가 이파리가연한, 소가잘:묵끼는한데 이너미 한번건너뛰모 거
또뿌리또 내리고, 그 칠기처럼. {그거 말고 또 이파리가 이파리가 연한, 소가 잘 먹기는 한
데 이눔이 한 번 건너뛰면 거기도 뿌리 또 내리고, 칠처럼.}

10317 @ 이래마 하고 그런 풀 안이써씀니까? {이렇게 뭐 하고 그런 풀 있었잖습니까?}

10317 @ 이파리는 연해 가꼬 잘:자랍니다이. # 그~이 머. {이파리는 연해 가지고 잘 자랍
니다. # 그게 뭐.}

10317 # 마디푸리라카나? 멀 모르젠는데. @ 요기 쓰던 말 업써씀니까그거? {마디풀이라고
하나? 멀 모르겠는데. @여기 쓰던 말 없었습니까 그거?}

10317 # 머 무진 푸리라캅니까 그걸? @ (웃음) {뭐 무슨 풀이라고 합니까 그걸? @ (웃음)}

10317 @ 그 어쨌든 그런 푸리인긴 이쨌찌예? # 여 인찌요, 예. {그 어쨌든 그런 풀이 있
기는 있었지요? # 여기 있지요, 예.}

10317 @ 그:머 쏘 나쭈면 지가머. # 예예. {그 뭐 좀 놔두면 제가가 뭐. # 예예}

10317 @ 건니가꼬 마디마디마다 뿌리. # 올치올치, 마디마디 뿌리내리능기 일따고. @ 예
예. {건너가지고 마디마디마다 뿌리. # 옳지 옳지. 마디마디 뿌리 내리는 게 있다고. @ 예예.}

10317 # 그이 나는 머 마디푸리라 카능가 잘 모르젠네. {그게 나는 뭐 마디 풀이라고 하던
가 잘 로르쨌네.}

10317 @ 여:서 부르던 이르미 어쨌든 고런 푸리 이써가지고. {여기서 부르던 이름이 어쨌
든 그런 풀이 있어 가지고.}

10317 @ 거 머 반맬때 좀 그 헨찌예? {거 뭐 밭 맬 때 좀 그 했지요?}

10317 # 주로 그기 바테 마~이 나능기 아이~고. @ 예. # 주로 그기 노네 마~이 나는데.
{주로 그게 밭에 많이 나는 게 아니고. @ 예. # 주로 그게 논에 많이 나는데.}

10317 @ 노네도 납니까? # 예, 노네 우리가 마디마디머 한마디한마디에 머 뿌래 뿌리가
나고 이리 데거등. {논에도 납니까? # 예, 논에 우리가 마디마디 뭐 한 마디 한 마디에 뭐
뿌리 뿌리가 나고 이리 되거든.}

10317 @ 음 노네도 나건네예. # 예. @ 예. {음 논에도 나쨌네요. # 예. @ 예.}

10317 # 그: 보통 노네나는거 대지미라예, 대:짐. {그 보통 논에 나는 거 대짐이에요, 대짐.}

10317 # 대가 인자 마디마디 생긴 이씨~이까네 고 마디마디 바리 나오이~까네 우리가 보
통 대지미라 이래. {대가 이제 마디마디 생겨 있으니깐 그 마디마디 밭이 나오니깐 우리가
보통 대짐이라 이래.}

10317 @ 그라믄 대지미는 우찌 생깁건지 함번쭈 그냥 제가 아라드를수 인또록 그냥 함번
말쓰믄 해주이소. 설명을 해주이소. {그러면 대짐이는 어찌 생긴 건지 한 번 쭈 그냥 제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냥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설명을 해 주십시오.}

10317 # 역시 금씨 애기항거와가치 여:내 하나 딱 생기믄 고기: 함마디 나가믄 바리 생기
고 함마디 나가믄 바리 생기기 따무네. {역시 금씨 애기한 거와 같이 역시 하나 딱 생기면
그게 한 마디 나가면 밭이 생기고 한 마디 나가면 밭이 생기기 때문에.}

10317 # 우리는 보:통 머 풀이름 모리고 대거치 함마디에 하나씩 생기고 함마디에 하나씩
생기~이까 대지미다 이러케 부르고 이씨예. {우리는 보통 뭐 풀이름 모르고 대같이 한 마
디에 하나씩 생기고 한 마디에 하나씩 생기니까 대짐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10317 @ 그람 대지미는 노네도 나고 바테도 납니까? {그럼 대짐이는 논에도 나고 밭에도
납니까?}

10317 # 예. 바테도 나고 노네도 나요. {예, 밭에도 나고 논에도 나요.}

10317 @ 그 이파리가 연해가지고 소가 잘 먹습니까? {그 이파리가 연해 가지고 소가 잘 먹습니까?}

10317 # 예, 소가 잘 먹습니다. {예, 소가 잘 먹습니다.}

10317 @ 예. 그라운 보메예, 건뚜 소가잘뭉능긴데 쪽 올라와가고 나주~에 노:란 그 꼬치 피고 독새라크는 그런 푸른 업썸습니까? 독새라카능거. {예. 그러면 봄에요, 그것도 소가 잘 먹는 건데 쪽 올라와 가지고 나중에 노란 꽃이 피고 독새라고 하는 그런 풀은 없었습니까? 독새라고 하는 거.}

10317 # 아 독새 인지요. 독새. 건 보리바테. @ 예. # 예, 보리바테 독새 커능기 이썸요. {아 독새 있지요. 독새. 그건 보리밭에. @ 예. # 예, 보리밭에 독새라고 하는 게 있어요.}

10317 @ 그래도 소가 잘 묵썸예? # 예. {그래도 소가 잘 먹지요? # 예.}

10317 @ 그러믄 그:는 또 어떤 꼬치인자 요고는 인자 거의 이불로 키우기도 하는데 꼬치 좀 발가무리하~이 해가지고 그 요 풀씨라 썸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또 어떤 꽃이 이제 이거는 이제 거의 일부러 키우기도 하는데, 꽃이 좀 발그무레해 가지고 그 이거 풀씨라고 했습니까?}

10317 # 거:는 풀씨. @ 예, 고거 말썸 좀 해주이소. {그거는 풀씨. @ 예, 그거 말썸 좀 해주십시오.}

10317 # 풀:씨는 저 오새 여:도 옰나레는 거름한다꼬 마~이핵꼬. {풀씨는 저 요새 여기도 옛날에는 거름한다고 많이 했고.}

10317 # 여즘도 그래 에 하는 사람도 더러 인는데 역시 그건또. {요즘도 그래 에 하는 사람도 더러 있는데 역시 그것도.}

10317 # 하여튼 가실하기 저네 어 나락비기 저네 고:를 인자 노네 땡기므 흐쳐논능기라요. {하여튼 수확하기 전에 어 벼 베기 전에 그거를 이제 논에 다니며 흘쳐 놓는 거예요.}

10317 # 흐쳐노으믄 내년 그러~이 모시무기 저네 어 한 사월딸썸 대므 그기 참 꼬치피고. {흘쳐 놓으면 내년 그러니 모 심기 전에 어 한 사월달썸 되면 그제 참 꽃이 피고.}

10317 # 이리하므 거게언자 옰나레는언자 머 비료도 업꾸 하~이까. {이리하면 그제 이제 옛날에는 이제 뭐 비료도 없고 하니까.}

10317 # 주로 그렇거로 가지고언자 참 저모깁에 거름도하고 모깁에 거르믈하믄 갱자리라크~이까네. {주로 그런 거로 가지고 이제 참 저 못자리에 거름도 하고 못자리에 거름을 하면 갱자리라고 하니까.}

10317 # 그래언자 모깁에 거름도 하고 남:는건언자 소 사로도하고 그래 마~이 해썸요. @ 예. {그래 이제 못자리에 거름도 하고 남는 것은 이제 소 사료도 하고 그래 많이 했어요. @ 예.}

10317 @ 그 요계선언자 바래기란 거 푸른 업썸습니까? 바래기라능거. {그 여기선 이제 바래기란 거 풀은 없었습니까? 바래기라는 거.}

10317 # 바래기도 인썸예. @ 그바래기 하고 아까 대지미 하고는 어째 가통깸니까, 다룽깸니까? {바래기도 있지요. @ 그 바래기하고 아까 대집이하고는 어째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10317 # 바래기는 저. {#바래기는 저.}

10317 # 대집매:치로 마디마디 바리 안나가고 그양 마 뻘뻘타~이 올라갈라 카믄 올라가고 누버가 갈라카믄 가고 이리대애지. {대집이처럼 마디마디 바로 안 나가고 그냥 뻘뻘하게 올라가려고 하면 올라가고 누어가려고 하면 가고 이리 되야지.}

10317 # 대지미라커능거는 우애끼는 마 함마디함마디씩뿌리를 바그~이까. {대짐이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뭐 한 마디 한 마디씩 뿌리를 박으니까.}

10317 @ 바래기도 지나가면. # 그그그는. {바래기도 지나가면. # 그 그거는.}

10317 # 머 허리 가까부튼부 바리 나오고, 허리 양가까:문 바리 안나와요. {뭐 허리 가까우면 발이 나오고, 허라 안 가까우면 발이 안 나와요.}

10317 # 대지미라커능 그그는 반다시 흘캉 가깝게 가이~까 바리나오고. @ 예. {대지미라고 하는 그거는 반드시 흘과 가깝게 가니까 발이 나오고. @ 예.}

10317 @ 그러믄:저 지베서 인자 일부러 가꼴라꼬 승구는 쏜 말고예. {그러면 인제 집에서 이제 일부러 가꾸려고 심는 꽃 말고요.}

10317 @ 그 담메 인제머 받뚜기나 사네 지질로나는 꼬다닐쑤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발독이나 산에 저질로 나는 꽃 있잖습니까?}

10317 @ 주로 꼬창께 봄쳐레 마~이 피겐찌예. {주로 꽃이니까 봄철에 많이 피겠지요.}

10317 @ 예를 드러서 어 요기는 민들레라 캄니까, 머라 캄니까? {예를 들어서 어 여기는 민들레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10317 @ 그렇거 머 썬냉이라든지 온간쑤뉴 쏜뜰 안 들쑤가통거 안이쑤쑤니까? {그런 거 뭐 썬냉이라든지 온갖 종류 꽃들 안 들쑤 같은 거 있었잖습니까?}

10317 @ 그 쏜니름 가통거 생각나능거 이쓰며는 말쑤쑤 해주이소. {그 꽃이름같은 거 생각나는 거 있으면 말쑤 쑤 해 주십시오.}

10317 # 오새는 여 그거를 민들레라고도 하고 옴나레 우리는 신 썬따고 해가: 썬내~이라고 헨나? {요새는 여 그거를 민들레라고도 하고 옛날에 우리는 쓰다고 해서 썬냉이라고 헨나?}

10317 @ 썬내~이라고 민들레는 쑤 다르? # 어 틀리지요. @ 예. {썬냉이라고 민들레는 쑤 다르(지 않나요)? # 어 틀리지요. @ 예.}

10317 # 어. @ 민들레는 노:라~이 꼬치 이리. # 으음. {어. @ 민들레는 노랑게 꽃이 이리. # 으음.}

10317 # 오새 여: 민들레라커지. @ 아 예. # 민들레라커고 머 그 약초하니 머 어떻게 하지 고 그저네 우리는 썬내~이배께 몰랐서요. {요새 여기 민들라고 하지. @ 아 예. # 민들레라고 하고 뭐 그 약초(로) 하니 뭐 어떻게 하고 그 전에 우리는 썬냉이밖에 몰랐어요.}

10317 @ 썬내~이는 꼬치 히기. # 이예. @ 히기 핑거익꼬 노락케피능기익꼬. {썬냉이는 꽃이 희게. #예. @ 희게 핀 게 있고 노랑게 피는 게 있고.}

10317 # 아니 썬내~이가 안그러치요. 빨게 불그리하~이 안핍니까? {아니 썬냉이가 안 그렇지요. 붉게 불그리하게 피잖습니까?}

10317 # 썬내~이는 참말로 썬꼬. @ 예. # 그거는 사라물, 뭉는기 아~이고. {썬냉이는 참으로 쓰고. @ 예. # 그거는 사람을, 먹는 게 아니고.}

10317 # 그 오새 그 머 아까 머라켄노, 그거는 약초에도 드:가고 오새 머. {그 요새 그 뭐 아까 뭐라고 헨니, 그거는 약초에도 들어가고 요새 뭐.}

10317 @ 민들레. # 어 민들레 그거는 아나픈사람도 묵꼬 이러트마는. {민들레. # 어 민들레 그거는 안 아픈 사람도 먹고 이렇더만.}

10317 # 그당시에 우리는 민들레 몬 몰랐서예. 썬내~이 고고만. {그 당시에 우리는 민들레 몰랐어요. 썬냉이 그거만.}

10317 @ 예. {예.}

1.3.3. 가을걷이와 겨우살이

10318 @ 이버네는 어르신 저기인자 그 가시레인자 농사은자 거두드리능거 요:팔런텅김니다이. {이번에는 어르신 저기 이제 그 가을에 이제 농사 이제 거두어 들이는 거 여기에 관련된 겁니다이.}

10318 @ 엔나립니다, 요새 말고예, 기계타작할때, 요즘 말고. {옛날입니다, 요새 말고요, 기계타작할 때, 요즘 말고.}

10318 @ 엔나레 그 탈곡하던 곡식 알맹이 떠러내는 방뻘 탈곡하던 방뻘. {옛날에 그 탈곡하던 곡식 알맹이 떨어내는 방법 탈곡하던 방법.}

10318 @ 고거 대해서 우선 말씀, 엔나립니다, 먼저 나라글 우째 터런씀니꺼? {그거 대해서 우선 말씀, 옛날입니다, 먼저 벼를 어째 털었습니까?}

10318 # 엔나레 처음에는 역시 참 처:으메 우리는 몰라도. {옛날에 처음에는 역시 참 처음에 우리는 몰라도.}

10318 # 우리가 알기시른 탈구: 탈구기에 해꺼든. {우리가 알기 시작한 것은(?) 탈곡(기) 탈곡기에 했거든.}

10318 # 그 기계 그기 도옥끼라캐타 탈구기가 아이~고 도:옥끼라캐나? {그 기계게 그게 '도옥기'라고 했다. 탈곡기 아니고 '도옥기'라고 했나?}

10318 # 발로 디디능거 탈구기라커나? @ 모르겐씀니다. {발로 디디는 거 탈곡기라고 하나? 10318 @ 모르겠습니다.}

10318 @ 거 표준탈로는 탈곡기다 그럼니다. # 탈곡끼 표준너지요? @ 예. {거 표준탈로는 탈곡기다 그럼니다. # 탈곡기 표준어지요? @ 예.}

10318 # 도 도옥끼라 캐나? 도옥끼는 일본 마린테? {'도옥기'라고 했니?. '도옥기'는 일본 말인데?}

10318 @ 저흰 예나레 그 소리가. # 오와릉와릉와릉나능기. {저흰 옛날에 그 소리가. #와릉와릉 나는 게.}

10318 @ 가아동이라그랜씀니다. 가:동가:동. # 기아동? {그'가:동'이라고 그랬습니다. '가:동가:동'. # '기아동'?}

10318 # 아기아동이라캐습**? @ 우리 기아동이라 캐는데 이름따라서. {아 '기아동'이라고 했습(니까)? @ 우리는 '기아동'이라고 했는데 이름 따라서.}

10318 @ 그럼마 예, 예 거건뚜 뒤에 나왓쓸꺼 아임니꺼? {그럼 위 예, 예 그것도 뒤에 나왔을 것 아닙니까?}

10318 # 글:치, 처음부터는 우리가 우리는 나락또 달개타작헐파터지, 아~이 달개타작해 본 사실업꼬. {그렇지, 처음부터는 우리가 우리는 낱알도 자리개질했다고 하지, 아니 자리개질해 본 사실 업고.}

10318 # 주로언자 우리는 그 와릉와릉크능 그거인자 응? 그글로 헐꼬드네? {주로 이제 우리는 그 와릉와릉하는 그거 이제 응? 그걸로 했거든요?}

10318 # 그거로가인자 해가주고 인자 두:리는 그그로 홀꼬. {그거로 이제 해가지고 이제 둘은 그거로 홀고.}

10318 # 한사라문인자 빈쩔한다쿠고 이래가주고인자 디에다가 그뻑띠기 나오문인자 뻑띠기를 가:스로 착: 홀치내:뿌고. {한 사람은 이제 비질한다고 하고 이래 가지고 이제 뒤에다가 그 북데기 나오면 이제 북데기를 가장자리로 착 쓸어내 버리고.}

10318 # 이래 가지고 하루정도로 타작해가주고. {이래 가지고 하루 정도를 타작해 가지고.}

10318 # 이자 저너기 다대:간다 시프른 꼬러모아가주고. {이제 저녁이 다 되어 간다 싶으면 끌어모아 가지고.}

10318 # 인자 그래가주고인자 그 풍:개 풍개라커지, 풍개. {이제 그래 가지고 이제 그 풍구 풍구라고 하지, 풍구.}

10318 # 풍개에 그:다가 디라가주고 언자말로가 대:가. {풍구에 거기다가 날려 가지고 이제 말로 대어서.}

10318 # 그래가언자 머 서메도 역코 가마니에도 열코. {그래서 이제 뭐 섬에도 넣고 가마니에도 넣고.}

10318 # 두:지커능게 이서요, 두:지. 두:지에 머 부잔찌베는 두지로하고. {뒤주라고 하는 게 있어요, 뒤주. 뒤주에 뭐 부자집에는 뒤주로 하고.}

10318 # 머 그저 부잔찢 아인지베는 주로마 가마니 아이면 서메 이래 여:가주고. {뭐 그저 부자집 아닌 집에는 주로 가마니 아니면 섬에 이리 넣어 가지고.}

10318 # 어 가실로 꼬틀 땀쨌요. @ 예. {어 추수를 끝을 땀쨌요. @ 예.}

10318 @ 이기인자 옰나레항거 아임니까, 그지예? # 예. {이게 이제 옛날에 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 예.}

10318 @ 그러믄. {그러면.}

10318 @ 요새는 우찌합니까? 나라글. {요새는 어찌합니까? 벼를.}

10318 # 오새는머 탈고글 해가주고 머 바로 가리두와 겨웅기 식꼬 드라가 머 창꼬에 갇따 연는사람 열꼬머. {요새는 뭐 탈곡을 해 가지고 뭐 바로 ?? 들어와 경운지 싣고 들어와서 뭐 창고에 갇다 넣는 사람은 넣고 뭐.}

10318 @ 아 요즘 그래 탈곡하능거는 이제 기계가 할꺼아임니까? # 예. @ 예. {아 요즘 그래 탈곡하는 거는 이제 기계가 할 것 아닙니까? # 예. @ 예.}

10318 @ 그거는 아네서 머 지질로 기계가 바로바로? # 예. {그거는 안에서 뭐 저절로 기계가 바로바로? # 예.}

10318 # 그러믄 탈곡해노:믄 노불해가 탈곡 언자 가지인는사람 자기가 엄:시믄 탈고글 노불해가 해야 데거등네. {그러면 탈곡해 놓으면 낟을 해서 탈곡(기) 이제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바로 하고) 없으면 탈곡을 낟을 해서 해야 되거든요.}

10318 # 그레이칸 인자머 경운기에 식:꼬드러와가 자기머 창꼬에 갇따열코 이래하지요. {그러니깐 이제 뭐 경운기에 싣고 들어와서 자기 뭐 창고에 갇다 넣고 이리 하지요.}

10318 @ 그:니깐 옰나레인자 보리타작 해가지고 이걸 우찌 그 아까 나라근 두지에 담는다 앙그랜썸니까? {그러니깐 옛날에 이제 보리타작해 가지고 이걸 어찌 그 아까 벼는 뒤주에 담는다 그랬잖습니까?}

10318 # 예. @ 그라믄 인자 보리는 우찌헬썸니까, 그라믄? {예. @ 그러면 이제 보리는 어찌 했습니까, 그러면?}

10318 # 보리:는 두지그튼데 열: 그 야~이 안마느니까 역시 가마니에 열쨌요. 주로 가마니. {보리는 뒤주 같은 데 넣을 그 양이 안 많으니까 역시 가마니에 넣지요. 주로 가마니.}

10318 @ 그라믄 미른네? {그러면 밀은요?}

10318 # 역시 밀또 그럭코. 미른 더 보리보다 더 양이 적쨌요. {역시 밀도 그렇고. 밀은 더 보리보다 더 양이 적지요.}

10318 @ 예. 그라믄인자 콩하고 포튼 또또 다 안다름니까이? {예. 그러면 이제 콩하고 팔

은 또 다 다르잖습니까이?}

10318 @ 그래 그 승거날쓰면 작든 만든 거다:가지고 그걸또 수하글 해야 텔꺼 아임니까?
예. {그래 그거 심어 났으면 적든 많은 거두어 가지고 그것도 수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 예.}

10318 @ 수확해가지고 또 우째 또 겨우레 또 아니그 어째 또 팔리를 갈무리를 우째합니까? {수확해 가지고 또 어떻게 또 겨우레 또 아니 그 어떻게 또 관리를 갈무리를 어떻게 합니까?}

10318 # 역시 그 콩이나 팥 포치나 파치나 역시 갈 가으레 해야 데거등네. {역시 그 콩이나 팥 풀이나 팔이나 역시 가을 가을에 해야 되거든요.}

10318 # 가으레 해야데~이까네 이자 나슬가 끄너나:따가. {가을에 해야 되니깐 이제 낫으로 끊어 났다가.}

10318 # 인자 그그를 참 한테다가 인자 동개든지 썩우든지 이래노코. {이제 그거를 참 한테다가 이제 포개든지 썩우든지 이렇게 해 놓고.}

10318 # 나라기 위주이~까 나락부텨 타작 머이~해노코 난디에 언자 콩이나 파치나 이자 타자기 드러가는데. {벼가 위주니까 벼부터 타작 먼저 해 놓고 나중에 이제 콩이나 팔이나 이제 타작이 들어가는데.}

10318 # 주로언자 옌나레는 도리깨로가 마~이 두들릴쪼요. 콩으로 풀또그러 팥또 그러코. {주로 이제 옛날에는 도리깨로 가지고 많이 두르렸지요. 콩으로 풀도 그러(하고) 팥도 그렇고.}

10318 # 도리깨 두들려 가주고 역시 그걸또 마 저장하는 방빠븐 가마니에 헐쪼요. {도리깨 두드려 가지고 역시 그것도 뭐 저장하는 방법은 가마니에 했지요.}

1.8. 세시 풍속과 놀이

1.8.1. 세시 풍속

10801 @ 저 어르신 그: 절기에 따른 세시 풍속에는 어떤 거시 인는지를 제가 하나씩 여쭙보는대로 따라서 그 말씀해 주시믄 고맙겡습니다.{저 어르신 그 절기에 따른 세시 풍속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제가 하나씩 여쭙보는 대로 따라서 그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예.}

10801 @ 먼저 정월파래, 정월파래 이 동네에서는 어떤 그 풍속드리 이선는지 생각나시는 대로 쯔 들려주이소.{먼저 정월달에, 정월달에 이 동네에서는 어떤 그 풍속들이 있었는지 생각나시는 대로 쯔 들려 주십시오.}

10801 # 정월 천 초하룻날에는 참 머 어데업시 다 저 세배 디리로 땡긴다커능기.{정월 첫 초하룻날에는 참 뭐 어디없이 다 저 세배 드리러 다닌다고 하는 것이.}

10801 # 어른들 인자 새해 인사 드리러는 머 새해 복 마이 바드세요 쿠든지, 새해 건강하세요 쿠든지 이렇거를 하기위해서 자 이래 다닌꼬.{어른들 인제 새해 인사 드리러는 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하든지, 새해 건강하세요라고 하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인제 이렇게 다녔고.}

10801 # 또 둘:채로서는 으:, 대:쏘가 대:쏘가 언자 어불러 가져고 인자 제사도 모시고.{또,

두 번째로서는(두 번째 할 일은) 으, 대소가 대소가 인제 어울려 가지고 인제 제사도 모시고.}

10801 # 인자 우리 큰지베는 종간쩍인데, 신:주라꼬 해가지고 신주를 모시는 집에는 제:일 끈티~이에 우리 큰지비 제일 끈티~이에 지내고.{인제 우리 큰집에는 종가집인데, 신주라고 해 가지고 신주를 모시는 집에는 제일 끝에 우리 큰집이 제일 끝에 지내고.}

10801 # 인자 갈래갈래:버텨 머~이 지내고, 신주 제사는 언자 우리 온때 예: 조상드리 다 그 모시나:싱까네.{인제 갈래갈래부터 먼저 지내고, 신주 제사는 인제 우리 윗대 예 조상들이 다 거기 모셔 놓았으니깐.}

10801 # 우리가 모시는 제사는 지방을 써죽꼬 어: 제사를 모시고.{우리가 모시는 제사는 지방을 써 놓고 어 제사를 모시고.}

10801 # 신주:, 언자 큰지베서는 신주르 모신다 커능거는.{신주, 인제 큰집에서는 신주를 모신다고 하는 것은.}

10801 # 그 신주를 함부레 파가지고와, 나무에다 파가지고 그 언자 모시노코 사당에다가.{그 신주를 처음부터 처음부터 파 가지고 와, 나무에다 파 가지고 그 인제 모셔 놓고 사당에다가.}

10801 # 언자 모시노코 제사 때든 제사 때 모시 나와가 제사르 지내고.{인제 모셔 놓고 제사 때면 제사 때 모셔 나와 가지고 제사를 지내고.}

10801 # 그라이머 미:이레는 대소가 언자 우리 점:부가 다 가가주고 언자 그: 어르늘 제사르언잠 모시고 그런케 합니다.{그렇지 않으면 명일(?)에는 대소가 인제 우리 전부가 다 가지고 인제 그 어른을 제사를 모시고 그렇게 합니다.}

10801 @ 예, 그러면 그 신주제사 그이 상다~이 큼기네예.{예, 그러면 신주 제사 그건 상당히 큰 것이네요.}

10801 # 예, 우리 저 머~이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여 온지가 한 오백오십년 이래 대가는데.{예, 우리 저 먼저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여기 온 지가 한 오백오십 년 이렇게 되어가는데.}

10801 # 그 오백오십년 대:가는 그 어 큰 한 지베 인는 큰지비 우리.{그 오백오십 년 되어가는 그 어 큰 한 집에 있는 큰집이 우리.}

10801 # 우리는 인자 참 가닥가대이 지차로서 내려왔꼬, 인자 큰지비라 크면 항상 그 사당에다 신주를 모시구 일씨~이까네.{우리는 인제 참 가닥가닥이 두 번째로서 내려왔고, 인제 큰집이라고 하면 항상 그 사당에다 신주를 모시고 있으니깐.}

10801 # 머: 우리 어: 대한민국 풍소그는 참 제스 땅거는 다 완따갠따 해도 제사는 완따갠따 안하지요?{뭐 우리 어 대한민국 풍속에는 참 제사 딴 것은 다 왔다 갔다 해도 제사는 왔다 갔다 안하지요?}

10801 # (웃음) 큰지베서 항상 모시야 데고 그러기 따무네.{(웃음) 큰집에서 항상 모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10801 # 그래 언자 우리가 후손드리 큰지베 가가주고 제엘: 늑께 이래 지내고 나쁜 한 마 열한시 내지 열두시 가까이대요. 큰집제사로 모시고 나면.{그 인제 우리의 후손들이 큰집에 가 가지고 제일 늦게 이래 지내고 나면 한 뽕 열한시 내지 열두시 가까이 돼요. 큰집 제사를 모시고 나면.}

10801 @ 예, 그러면 거 사당은 어디에 일쫘니까? 큰지비 인는데가.{예, 그러면 그 사당은 어디에 있습니까? 큰집 있는 데가.}

10801 # 사다~으는 사랑이 아니고 신주로 모시는 지비 사당이거등냐, 사당.{사당은 사랑이 아니고 신주를 모시는 집이 사당이거든요, 사당.}

10801 @ 아.{아.}

10801 @ 아, 예, 벨또로 ***{아, 예, 별도로 ***.}

10801 # 야, 사다~이라꼬.{예, 사당이라고.}

@ ** 큰지베 인네예, **.{** 큰집에 있네요, **.}

10801 # 예, 큰지베.{예, 큰집에.}

10801 # 큰지베 언자 어 정치미 여페 정치미 여페 인자 사당이라꼬 벨또로 지아가주고.{큰집에 인제 어 정침 옆에 정침 옆에 인제 사당이라고 별로도 지어 가지고.}

10801 # 신주만 모시고 제사만 지내는 데가 사당이고.{신주만 모시고 제사만 지내는 데가 사당이고.}

10801 # 사랑으는 손님받꼬 인자 그 주이니 그 거치하고 그는 사랑이고.{사랑에는 손님 받고 인제 그 주인이 거기 거처하고 그곳은 사랑이고.}

10801 @ 예.{예.}

우린 고로케 대: 인서요.{우린 그렇게 되어 있어요.}

10801 @ 그라머 어르신 저: 그날 대소가네 다 모인다고 말씀을 하셧는데예,{그러면 어르신 저 그날 대소간에 다 모인다고 말씀을 하셧는데요,}

10801 # 예.{예.}

10801 @ 그러면 보통 한 얼마나 모이십니까?{그러면 보통 한 얼마나 모이십니까?}

10801 # 그 당시에 우리 애:릴때 제사 지내러 댕기보면 한 이십명 내지 한 이십오명.{그 당시에 우리 어릴 때 제사 지내러 다녀 보면 한 이십 명 내지 한 이십오 명.}

10801 # 인자 갈래갈래가 다: 지내고 언자 그 큰지베 가~이까.{인제 갈래갈래가 다 지내고 인제 그 큰집에 가니깐.}

10801 # 그 예:를 디리가 우리 갈래에도 머 자소~이 좀 마이 난씨면 머 여남:씨 녁끼데고.{그 예를 들어 우리 갈래에도 뭐 자손이 좀 많이 났으면 뭐 여남은 명 넘게 되고.}

10801 # 또 저쪽 갈래에도 머 자소~이 적:끼 난씨마 한 대여서시 데고.{또 저쪽 갈래에도 뭐 자손이 적게 났으면 한 대여섯 명 되고.}

10801 # 또 그 출또하는 사람 인씨면 또 출또해야데고.{또 그 출근(?)하는 사람 있으면 또 출근해야 되고.}

10801 # 그렁키 따무네 그 머 정화칸 인위는 아 안데지요.{그렁기 때문에 그 뭐 정확한 인원은 (계산이)안 안 되지요.}

10801 @ 예.{예.}

10801 @ 그: 이거는 설랄 풍속이지예? 그렁께네.{그 이것은 설날 풍속이지요? 그러니깐.}

10801 # 예, 정월 초하린날.{예, 정월 초하룻날.}

10801 @ 초하린날.{초하룻날.}

10801 # 예, 설랄 풍속.{설날 풍속.}

10801 @ 예, 그라모 언자 그 설:랄 지내고 나모 언자 또 큰 멧절이 정월대보름입니까?{예, 그러면 인제 그 설날 지내고 나면 인제 또 큰 멧절이 정월대보름입니까?}

10801 # 네, 대보름.{네, 대보름.}

10801 @ 금 대보름 대머는 머 또 여러가지 그때 그 머 달집도 직꼬 참 먼저 그 머니까 오곡밥 해묵꼬 그 다메 머 복쫄리 가지고 또 머 밥또 어드러 댕기고 또 머 기발기술도 마시고

이렇기 인솔길 가는데.{그럼 대보름 되면은 뭐 또 여러가지 그때 그 뭐 달집도 짓고 참 먼저 그 뭇니까 오곡밥 해 먹고 그 다음에 뭐 복조리 가지고 또 뭐 밥도 얻으러 다니고 또 뭐 귀밭이술도 마시고 이런 것이 있을 것 같은데.}

10801 # 예.{예.}

@ 이 동네에서는 어떻게 하시는지 말씀 좀 해주이소.{이 동네에서는 어떻게 하셨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10801 # 예.{예.}

10801 # 그러~이 정월 대보름머는 언자 머 이거는 저 동네 어른도 아~이고 주로 언자 대보름이라 크면 참 머 달집도 직:꼬 걸림도 놓고: 오 이렇 기타등등이 마이 일스~이까네.{그래 정월 대보름에는 인제 뭐 이것은 저 동네 어른도 아니고 주로 인제 대보름이라고 하면 참 뭐 달집도 짓고 걸림도 놓고 뭐 이런 기타 등등이 많이 있으니까.}

10801 # 그 주로 언자 일꾼드리 마이 예 인자 그런 행사르 하는데.{그 주로 인제 일꾼들이 많이 예 인제 그런 행사를 하는데.}

10801 # 참 정월 대보름날 아치메 밤 머 아옥끄룩 묻꼬 나물 아우짬 하라커능기 인:데.{참 정월 대보름날 아침에 밥 뭐 아홉 그릇 먹고 나무 아홉 짐 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10801 # 그 언자 나무르 마이 해가 소까불 해가 와야 달찌불 언자 크게 지우~이까, 그래.{그 인제 나무는 많이 해서 술가지를 해 가지고 와야 달집을 인제 크게 지으니깐, 그래.}

10801 # 이:는 우리 애틸텐데 나도 그를때 나무를 마이 속까불: 마이 헐서예.{이것은 우리 어릴 텐데 나도 그럴 때 나무를 많이 술가지를 많이 했어요.}

10801 # 주로 인자 여 속까부르 해가주고 언자 달찌울 이래 진는데.{주로 인제 여 술가지를 해 가지고 인제 달집을 이렇게 짓는데.}

10801 # 그래 언자 다 한쪽 머리에 속까부하러가고 한쪽머리에는 인자 지풀 거다가주고 언자 영기도 역꼬 새끼도 꾸고.{그래 인제 달(집) 한편에 술가지하러 가고 한편에는 인제 짚을 거뒀어 가지고 인제 이영도 엮고 새끼도 꼬고.}

10801 # 이래 해야 인자 저: 대로 가주고 언자 상자를 맹그르 가주고 그:다가 언자.{이렇게 해야 인제 저 대를 가지고 인제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인제.}

10801 # 속까불 짝: 간따 꼬버가주고 그 우에다가 인자 영계를 역, 여꾼 영계를 덮퍼가주고 새끼르 묵까가주고 이렇게 언자 달찌불 진꼬.{술가지 가득 갖다 쏘아 가지고 그 위에다가 인제 이영을 엮, 엮은 이영을 덮어 가지고 새끼로 묶어 가지고 이렇게 인제 달집을 짓고.}

10801 # 그: 참 그래가주고 언자 해 뜰 때 참 달이 뜰 때 그래 언자 달찌불 인자 잠 그래 불을 켜리고 이러 하는데.{그 참 그래 가지고 인제 해 뜰 때 참 달이 뜰 때 그래 인제 달집을 인제 참 그래 불을 지피고 이렇게 하는데.}

10801 # 그 머: 그 당시에 보면 참 오곡 작꼭 이리 밥을 해:가주고 어 밥을 여럿집 바불 무우면 존타꼬 해가주고.{그 뭐 그 당시에 보면 참 오곡 잡곡 이렇게 밥을 해 가지고 어 밥을 여럿집 밥을 먹으면 좋다고 해 가지고.}

10801 # 그 우리는 그래까지는 안댕길찌마는 버 바가지로 가지고 이지베도 가가 얻꼬 저 지베도 어드잉까네, 그거는 업스 언능기 아~이까.{그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안 다녔지만은 뭐 바가지를 가지고 이 집에도 가서 얻고 저 집에도 얻으니깐, 그것은 없어서 얻는 것이 아니니깐.}

10801 # 참 주는 지베도 기분 조키 주고, 어 얻는 사암도 기분 조케 어더가주고 그:는 어

불러가 무:먼 그 해 조타고 해가주고 그런 장난을 마~이 헐서예.{참 주는 집에서도 기분 좋게 주고, 어 얻는 사람도 기분 좋게 얻어 가지고 그것은 어울려서 먹으면 그 해 좋다고 해 가지고 그런 장난을 많이 했어요.}

10801 @ 그때 머 북조리 만들고 이러거는 업썸습니까?{그때 뭐 북조리 만들고 이런것은 없었습니까?}

10801 # 북조리 만등거는 업는데 언자 북조리 만드러가주고 팔로 오는 사람 인썸요.{북조리 만드는 것은 없는데 인제 북조리 만들어 가지고 팔려 오는 사람 있지요.}

10801 # 그래 언자 팔로 오면 북조리르언자 사 가주고 참 살가네다가.{그래 인제 팔려 오면 북조리를 인제 사 가지고 참 살강에다가.}

10801 # 살간 우에다가 언자 갑따가 언저노코.{살강 위에다가 인제 가져다 없어 놓고.}

10801 # 또 그라이면 조양우에 소두에 그: 저: 조리도 가: 걸기도 하고 이래 마이 하고.{또 그렇지 않으면 조왕 위에 술 위에 거기 저 조리도 가져다 걸기도 하고 이렇게 많이 하고.}

10801 # 그래 참 언자 아까 말파나 달찌블 지아가주고.{그래 참 인제 아까 말했듯이 달집을 지어 가지고.}

10801 # 언자: 다리 뜰 뜨면 언자 그가 언자 마실 절문 사암드리 정폰물로 가주고 불찔러 노코 걸림도 놀고.{인제 달이 뜰 뜨면 인제 거기 인제 마을 젊은 사람들이 ?풍물을(?) 가지고 불을 피워놓고 걸림도 놀고.}

10801 # 언자 그래 마이 뚜디리고 놀다가 또 부자찌베 가가주고 술또~오나 내 노으며 그 지베가 또 술또 묵꼬 또 그:가 놀고 이런 사시리 마이 인션서예.{인제 그렇게 많이 두드리고 놀다가 또 부자집에 가 가지고 술동이나 내 놓으면 그 집에 가서 또 술도 먹고 또 거기 가서 놀고 이런 사실이 많이 있었어요.}

10801 @ 저: 달집 꼬실때 그 콩 뽕까묵꼬 머 이래 안헐습니까? 엔나레 그 다리비에다가 콩가서 뽕까가꼬 무:먼 조타산꼬 이러거는 업썸습니까?{ 저 달집 태울 때 그 콩 볶아 먹고 뭐 이렇게 안했습니까? 옛날에 그 다리미에다 콩 가서 볶아 가지고 먹으면 좋다 쌓고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10801 # 그러거는 잘 모리겐습니다.{그런 건 잘 모르겠습니다.}

10801 @ 그러머는 그 대보름나레 동네사람드리 모여가저고 줄맹기기 이런건또 업썸습니까?{그러머는 그 대보름날에 동네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줄다리기 이런 것도 없었습니까?}

10801 # * 혹시 그러건 인썸요, 혹시.{* 혹시 그런 건 있지요, 혹시.}

10801 @ 검: 줄맹기기는 우째 헐썸습니까?{그럼 줄다리기는 어떻게 했습니까?}

10801 # 여:는 머 중맹긴다 크면 그 당시에도 바니 이션는데.{여기는 뭐 줄다리기한다 하면 그 당시에도 반이 있었는데.}

10801 # 읍빔 아립빔 캐가주고 반별로 언자 맹긴지요.{윗반 아랫반 해 가지고 반별로 인제 당겼지요.}

10801 # 밤벌로 언자 맹기고 이리케 마~이, 그근또 머 장나~이고 이래가.{반별로 인제 당기고 이렇게 많이, 그것도 뭐 장난이고 이래서.}

10801 # 어떤 데는 그래 맹기면 우에 빠~이 이길 때가 인고 어떤 데는 맹기면 밑에 빠~이 이길 때가 인고, 그런 사시리 좀 인션심니*.{어떤 때는 그렇게 당기면 위에 반이 이길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당기면 밑에 반이 이길 때가 있고, 그런 사실이 좀 있었습니다.}

10801 @ 줄 그거넌 또 받쥬 * 머 저 크:게 만들어야 텔꺼 아임니까, 뚜꼭께.{줄 그것은 또 밧쥬 뭐 저 크:게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두껍게.}

10801 # 예.{예.}

10801 @ 우째 만들었습니까?{어떻게 만들었습니까?}

10801 # 그거를 언자 만들때 언자 집 아서 주는 사라미 둘.{그것을 인제 만들 때 인제 짚 건네주는 사람이 둘.}

10801 # 인자 거:서 어: 받쫄 맹근다꼬 트는 사람 인자 지불 세에 여:가 자우 푹푹푹 마려야 대~이까네 그 사라미 둘.{인제 거기서 어 받쫄 만든다고 트는 사람 인제 짚을 사이에 넣어 자꾸 푹푹푹 말아야 되니깐 그 사람이 둘.}

10801 # 언자 디:에서 땡기내머 또 자꾸 돌리야 데~이까네 안돌리면 풀리기 따무네 거게 한 도오사람 데고.{인제 뒤에서 당겨 내면 또 자꾸 돌려야 되니깐 안 돌리면 풀리기 때문에 거기에 한 두어 사람 되고.}

10801 # 고래가주고 한 여:선 사라미 주를 만드러 가주고.{그래 가지고 한 여섯 사람이 줄을 만들어 가지고.}

10801 # 그래가 인자 머 줄 머 대가리카커무시나 구무를 인자 뜨 이래 맹그러 가지고 묵까:가주고.{그래서 인제 뭐 줄 뭐 머리라고 하면서 구멍을 인제 그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묶어 가지고.}

10801 # 그래가 언자 머 암쫄 숙쫄 크면 그 언자.{그래서 인제 뭐 암줄 수줄 하면 그 인제.}

10801 # 거테 드가는 거는 숙쫄리고, 거테 나오는 거는 암쫄린데, 거:다 인자 꺽가:가주고 마 다:가치 암쫄거치 해도 그 아네 연는 거는 숙쫄리고.{겉에 들어가는 것은 수줄이고, 겉에 나오는 것은 암줄인데, 거기다 인제 끼워 가지고 뭐 다같이 암줄같이 해도(만들어도) 그 안에 넣는 것은 수줄이고.}

10801 # 거테 인능거는 암쫄린데 그래 언자 꼬쟁이를 꼬버가주고 그럭케 해가 암쫄 숙쫄 그럭케 포시도 하고 그래가 헐서예.{겉에 있는 것은 암줄인데 그래 인제 꼬챙이를 꼽아 가지고 그렇게 해서 암줄 수줄 그렇게 표시도 하고 그래 가지고 했어요.}

10801 @ 아, 어르신 방검 암쫄쭈쭈리라는 말씀하신텐데예.{아, 어르신 방금 암줄 수줄이란 말씀하셨는데요.}

10801 # 예.{예.}

10801 @ 고거 한번마 쭈더 설명을 더 해주이소, 쭈 못뻔던 이름이네예.{그것 한 번만 쭈더 설명을 더 해 주세요, 쭈 못 들던 이름이네요.}

10801 # 아~이, 그 주를 만들때 하나틀 망그능기 아이고, 두나틀 만드는데.{아니, 그 줄을 만들 때 하나를 만드는데가 아니고, 두 개를 만드는데.}

10801 # 대가리는 역시 돌방:하~이 구무가 인뚜루 맹그러가주고.{머리는 역시 동그랗게 구멍이 있도록 만들어 가지고.}

10801 # 하나튼 구무 아네다 역코 구무 아네 연능거는 숙너미고.{하나는 구멍 안에다 넣고, 그멍 안에 넣는 것은 수놈(수줄)이고.}

10801 # 구무 언자 그래가주고 구무 아네 여:가주고 언자 꼬쟁이러가 콕 이래 비네 쭈뜨시 쪼저노으면 기암 암벽거지그등네.{구멍 인제 그래 가지고 구멍 안에 넣어 가지고 인제 꼬챙이를 가지고 콕 이렇게 비네 쭈뜨듯이 꼽아 놓으면 그냥 안 벗겨지거든요.}

10801 # 그래가: 언자 아네 드:가기 쭈쭈리고 그 거태끼 암쫄리고.{그래서 인제 안에 들어간 것이 수줄이고 그 겉에 것이 암줄이고.}

10801 @ 그러머는 어 틀머는 그이 튼튼한데 구멍이 우째 남니까?{그러면은 어 틀머는 그

것이 튼튼한데 구멍이 어떻게 납니까?)

10801 # 아니, 다 땡그러가주고 인자 마칠때 고 언자 구녀~을 여:를 땡글그등네.{아니, 다 만들어 가지고 인제 마칠 때 그 인제 구멍을 여기를 만들거든요.}

10801 # * 땡그능거는 여래 다: 줄로 땡그러노코 언자 꺾치가주고 목꾸~이까네 구무가 데 지요.{만드는 것은 이렇게 다 줄은 만들어 놓고 인제 굽혀 가지고 묶으니깐 구멍이 되지요.}

10801 @ 예:, 그리고 정월대면 엔나레 머 용왕 민:다 이런말 안 인썰습니까? 그렇거는 업 썰습니까?{예, 그리고 정월 되면 옛날에 뭐 용왕먹인다(용왕먹이기) 이런 말 있었잖습니까?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10801 @ 물까 가가지고.{물까 가 가지고.}

10801 # 그으는 그거는 머 마실에서 다 미:능기 아이고.{그것은 그것은 뭐 마을에서 다 먹이는 것이 아니고.}

10801 # 그거는 머 개인사정으로서 머 요왕미:는 지븐 미기고 안미:는 지븐 안 미:고, 그런 치요.{그것은 뭐 개인 사정으로서 뭐 용왕 먹이는 집은 먹이고, 안 먹이는 집은 안 먹이고, 그렇지요.}

10801 @ 예, 그 대보름이나 또 설라레 내나 정월달입니다. 동네에서 윤노리는 안했습니까?{예, 그 대보름이나 또 살날에 역시 정월달입니다. 동네에서 윷놀이는 안 했습니까?}

10801 # 와 윤노리 그통건또 마이 하지요.{왜 윷놀이 같은 것도 많이 하지요.}

10801 @ * 윤노리는 우째 행는지 쫘 말씀해 주이소.{윷놀이는 어떻게 했는지 쫘 말씀해 주십시오.}

10801 # 윤노리,엔날 윤노리는.{윷놀이, 옛날 윷놀이는.}

10801 # 으: 더옥스 덕씨~이게 덕씨~에다가 말꾸녀~을 땡그러 노코.{으 명석 명석 명석에다가 말구멍을 만들어 놓고.}

10801 # 거게다가 언자 패를 갈러가주고 네사람씩 인자 두사람 두사람만 함 짝께가 대:가 주고.{거기다가 인제 편을 갈라 가지고 네 사람씩 인제 두 사람 두 사람씩 한 짝이 되어 가지고.}

10801 # 어: 그러니 두사라를 양끼는 마주안저도 놀기는 석깔리기 노러야데거등네.{어 그러니깐 두사람을(이) 앉기는 마주 앉아도 놀기는 섞어서 놀아야 되거든요.}

10801 # 고래가주고 인자 한패가 대:가주고 그래가 장난사:마 놀고.{그래 가지고 인제 한편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장난삼아 놀고.}

10801 # 그래가: 머 그그는 말: 하기대로 가고 내긴 내기대로 가는데.{그래서 뭐 그것은 말하기대로 가고 내기는 내기대로 가는데.}

10801 # 그 머 도늘 지문 머 배권이라도커든지 처년이라커든지 내기로 하고.{그 뭐 돈을 지면 백원이라고 하든지 천원이라고 하든지 내기를 하고.}

10801 # 머 이기는 사암 따묵기로 하고 그래가 어불러 가주고 온찌너 멀 해묵짜커고 이런 그럭케 노는 사시리 쫘 인찌요.{뭐 이기는 사람 따먹기로 하고 그래서 어울러 가지고 오늘 저녁은 뭘 해 먹자 하고 이런 그렇게 노는 사실이 쫘 있지요.}

10801 @ 그 언자 말을 안쫘니까?{그 인제 말을 쓰잖습니까?}

10801 # 예.{예.}

10801 @ 말로 썰때예 그 머 하나 어퍼지면 머 도라 카든지 때라 카든지 이런 말들 안인쫘니까?{말을 쓸 때 그 뭐 하나 엮어지면 도라고 하든지 때라고 하든지 이런 말들 있잖습니까?}

10801 # 예.{예.}

10801 @ 고거 한번 말씀해 주이소.{그것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10801 # 인자 하나치 디비지면 또고.{인제 하나가 뒤집어지면 또고.}

10801 # 두나치 지비지면 개고.{두 개가 뒤집어지면 개고.}

10801 # 세:나치 디비지면 유:치고.{세 개다 뒤집어 지면 웃이고.} @ 예?(예?)

10801 # 세나치 디비지면 거리고.{세 개가 뒤집어 지면 걸이고.}

10801 # 네나치 디비지면 유:치고.{네 개가 뒤집어 지면 웃이고.}

10801 # 그러~이 다: 어퍼지면 모:고, 고래.{그리고 다 얹어지면 모고, 그래.}

10801 @ 예, 그리고 부너드론 또 따라:드론 그때 엔나레 서리나 이래 보름테면 널떠기도 헐슬꺼 간는데, 그거 한번 보신 기어기 일릅니까?{예, 그리고 부너자들은 또는 딸애들은 그 때 옛날에 설이나 이래 보름 되면 널뛰기도 했을 것 같는데, 그것 한번 보신 기억이 있습니까?}

10801 # 예, 본 사실 인썬요.{예, 본 사실 있어요.}

10801 # 인자 그으는 머 어 아가씨들만 떠는겄또 아이고.{인제 그것은 뭐 어 아가씨들만 떠는 것도 아니고.}

10801 # 그으는 머 절른 사암도 띠고 나만 사암도 띠고 그거 떠는 띠면썬 그을때 머 드 른 바 이해긴데.{그것은 뭐 젊은 사람도 띠고 나 많은 사람도 띠고 그것 띄는 띠면서(?) 그 럴 때 뭐 들은 바 이야긴데.}

10801 # 그을때는 참 사네 산나물 캐러 간다꼬 부인들또 마이 가고 아가씨들또 마이 땡긴 기 따무네.{그럴때는 참 산에 산나물 캐러 간다꼬 부인들도 많이 가고 아가씨들고 많이 다 녀기 때문에.}

10801 # 느:를 정월 초승에 마이 띠면 산에 가면 저 끝티~이가 안썰린다 이런 유래가 인 썬요.{널을 정월 초순에 많이 띠면 산에 가면 저 그루터기가 안 썰린다 이런 유래가 있지 요.}

10801 # 그래서 어: 너를 띠다 크는 애기도 하데, 오새 그트면 그기 건강을 위해서 띠다 크지마는.{그래서 어 널을 띠다 하는 애기도 하데, 요새 같으면 그것이 건강을 위해서 띠다 하지만은.}

10801 # 그저네는 글띠~이게 안 썰린다꼬.{그전에는 그루터기에 안 썰린다고.}

10801 @ 예, 그다메 머 또 보름테메는 엔나레 요:는 멀카노 메구친다캅니까? 썬친다 캅니 까?{예, 그 다음에 뭐 또 보름 되면 옛날에 여기는 뭐라고 하니 메구친다고 캅니까? 썬친다 고 캅니까?}

10801 # 쇠친다, 쇠.{쇠친다, 쇠.}

10801 @ 썬도 썬도 마이 철썬예?{쇠도 쇠도 많이 썬썬요?}

10801 # 어 글치 인자: 달집 지아노코버텀 시자가:느 그 놀:다가 머.{어 그렇지 인제 달집 지어 놓고부터 시작해서는 그 놀다가 뭐.}

10801 # 참 그으는 머 초군드리라커지, 일꾼들.{ 참 그것은 뭐 초군들이라고 하지, 일꾼 들.}

10801 @ 예.{예.}

10801 # 일꾼드리 어불리 가주고 언자 우리가 이를끼 아이고 우리가 어불리 가주고 저 장 난사마 누구 지배 땡기면 걸리를 놀자.{일꾼들이 어울려 가지고 인제 우리가 이럴 것이 아

니고 우리가 어울려 가지고 저 장난삼아 주구 집에 다니면(서) 걸림(지신밟기)을 놀자.}

10801 # 그래 인자 그래가주고 걸리물 노는거는 땅기아니고.{그래 인제 그래 가지고 걸림을 노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10801 # 아래두 이애기했찌마는 언자 주인지베 드러갈때는 언자 '삽작꾸틀 대장군'쿠고 인자 '주인 주인 문여소'꼬 인자 쇠를 그리 치면.{그저께도 이야기했지만은 인제 주인집에 들어갈 때는 '삽작꾸틀 대장군'이라 하고 인제 '주인 주인 문여소' 하고 쇠를 그렇게 치면.}

10801 # 주이니 드로라커먼 드가고 아무 머: 반응이 없으면 안 드가고.{주인이 들어오라고 하면 들어가고 아무 뭐 반응이 없으면 안 들어가고.}

10801 # 이라는데 그 주이니 드로라꼬 하면 참 삽작꾸틀: 드가면 삽작꾸틀 대장군쿠고 인자 그 지신 좀 밟고.{이러는데 거기 주인이 들어오라고 하면 참 사립문 들어가면(서) 삽작꾸틀 대장군리고 하고 인제 그 지신 좀 밟고.}

10801 # 언자 그래가 마다~아 드와가: 조왕을 언자 조왕지신을 놀리자 커먼 그 언자 살하고 머 물하고 짜다라 떠다노코.{인제 그래서 마당에 들어가서 조왕을 인제 조왕지신을 놀리자고 하면 그 인제 쌀하고 뭐 물하고 많이 떠다 놓고.}

10801 # 그래가지:언자 참 걸리물 놀고.{그래 가지고 인제 참 걸림을 놀고.}

10801 # 머 정기에 가면 머 조왕지신 무진 지신 캐사머 머.{뭐 부엌에 가면 뭐 조왕지신 무슨 지신 하면은 뭐.}

10801 # 장뚜:까네 가면 또 장뚜칸 지신 쿠고 마구까네 가면 마구칸 지신 커고 이래가주고.{장독간에 가면 또 장독간 지신이라고 하고, 마굿간에 가면 마굿간 지신이라고 하고 이래 가지고.}

10801 # 언자 그 사를 어데라도 가는데마정 사를 다 한사발씩 떠 노커등네.{인제 그 쌀을 어데라도 가는데마다 쌀을 다 한사발씩 떠 놓거든요.}

10801 # 그거르 언자 모와가주고 언자 청년드리 참 으 무진 모임 인쥬때 삼월 산젠나리거나 언제 모아가주고.{그것을 인제 모아 가지고 인제 청년들이 참 으 무슨 모임 있을 때 삼월 삼짇날이나 언제 모아 가지고.}

10801 # 그걸로 가주고 언자 경비도 써고 오새 그트면 경 경비도 써고 언자 노는날 머 잡비도 써고 이렇게 마이 하지요.{그것을 가지고 인제 경비도 쓰고 요새 같으면 경 경비도 쓰고 인제 노는 날 뭐 잡비도 쓰고 이렇게 많이 하지요.}

10801 @ 그 대보름날 기발가라고 머 술도 한빠~알씩 막 마시고 안그랬습니까?{그 대보름날 귀 밝아라고 술도 한 방울씩 마 마시고 그랬잖습니까?}

10801 # 예, 그 기발게라꼬 귀발기라꼬 참 그 해에 보르메 머 수를 마시면 너므말 잘뜯는다, 그기: 언자 귀발게다.{예, 그 귀밝이(술)라고 귀밝이(술)이라고 참 그 해에 보름에 뭐 술을 마시면 남의 말 잘 듣는다, 그것이 인제 귀밝이(술)이다.}

10801 # 이래가주고 참 술또 먹꼬 또 머.{이래 가지고 참 술도 먹고 또 뭐.}

10801 # 정월 초스~에 물:라꼬 박상그통거 머 열그통거 해논:근또 역씨 그기 그건또 기발게고.{정월 초순에 먹으려고 튀밥(한과) 같은 것 엇 같은 것 해 놓은 것도 역시 그것도 귀밝이고.}

10801 # 술만 기발게 아이고 그:머 그래 마이 내:논썸니다.{술만 귀밝이가 아니고 그 뭐 그래 많이 내 놓습니다.}

10801 @ 혹씨 그 또 정월따래 아:드리 깡통에 불 다마가지고 이래 뱅뱅 돌리고 집 지불노리라 캔는데, 혹씨 그렇거는 업썸습니까?{혹시 그 또 정월달에 아이들이 깡통에 불 담아 가

지고 이렇게 뱅뱅 돌리고 지불 지불놀이라고 했는데 혹시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10801 # 그러거는 잘 모리젠네요.{그런 것은 잘 모르겠네요.}

10801 @ 예.{예.}

10801 @ 그러면 또 설날 아치메는 그 떡꾸글 끼리가: 안 잡삼습니까?{그러면 또 설날 아침에는 그 떡국을 끓여서 잡수셨잖습니까?}

10801 # 아침: 매 떡꾸글 먹지요.{아침에 떡국을 먹지요.}

10801 # 떡꾸글 명는 그그는 벨:, 나는 거게 대한걸 벨 이미는 모르젠네데.{떡국을 먹는 그것은 벨, 나는 그것에 대한 걸 벨 의미는 모르겠네데.}

10801 # 그저네 머 어른들 말쓰미 아 머 여 떡꾸으는 와 이레 몽노커먼.{그 전에 뭐 어른들 말씀이 아 뭐 여 떡국은 왜 이렇게 먹느냐고 하먼.}

10801 # 인자 금녀게 한살 더 몽는다, 언자 이레가주고 떡꾸글 먹꼬 떡꾸또 어 제사에 차리노코.{인제 금년에 한 살 더 먹는다, 인제 이레 가지고 떡국을 먹고 떡국도 어 제사에 차려 놓고.}

10801 # 이력케하고 머 우리가 어드루 가더라도 정월 초하린나른 떡꾸글 마이 줍니다.{이렇게 하고 뭐 우리가 어디를 가더라도 정월 초하룻날은 떡국을 많이 줍니다.}

10801 @ 예, 어르신 저 지금까지 말쓰문언자 정월달 얘기고예.{예, 어르신 저 지금까지 말씀은 인제 정월달 이야기고요.}

10801 # 예.{예.}

10801 @ 인자 이월따릅니다이. 이월달 대면 동네에서 어떤 그 세시풍속 가튼거시 이션습니까?{인제 이월달입니다. 이월달 되면 동네에서 어떤 그 세시풍속 같은 것이 있었습니까?}

10801 @ 예를 드려서 머 영등할뫼: 머 바람 올린다 삭코 머 여러가지 언자 그렇게 쭈 이월따레 이션썰꺼 가튼데예?{예를 들어서 뭐 영등할머니 뭐 바람 올린다 하고 뭐 여러 가지 인제 그런 것이 좀 이월달에 있었을 것 같은데요?}

10801 # 예, 여:도 머 영:등잉가 영도~잉가 우린 보통 영동이라캔는데 영동할때 머 올린다 쿠고.{예, 여기도 뭐 영등인가 영동인가 우린 보통 영동이라 했는데 영동할머니 뭐 올린다고 하고.}

10801 # 언자 하느래서 내려온다커능가 올라간다커능가 그그는 내 올라간다거그지.{인제 하늘에서 내려온다 하는지 올라간다 하는지 그것은 내 올라간다고 하지.}

10801 # 비가 저 으 정월 초하린날 비가 마~이 오면 메느리가 올라간다 디예, 하늘로.{비가 저 어 정월 초하룻날 비가 많이 오면 며느리가 올라간다고 하데요, 하늘로.}

10801 # 비가 안오거 나리 조:으면 따리 올라간다커고.{비가 안 오고 날이 좋으면 딸이 올라간다고 하고.}

10801 # 그:는 왜 그런냐하~이 씨어마시가 월래 즈 엔나레: 좀 머라쿠꼬? 심청굳따커까? {그것은 왜 그런가 하니 시어머니가 원래 저 옛날에 좀 뭐라고 할까? 심술궂다고 할까?}

10801 # 이렇기 익끼 따무네 자기 따른 조투러하고.{이런것이 있기 때문에 자기 딸은 좋도록 하고.}

10801 # 어 언자 비가 오면 메늘로 올라가라커니까네, 언자 참 오세 얼롱지라꼬 그런 으 애이도 마~이 인꼬.{어 인제 비가 오면 며느리를 올라가라 하니깐 인제 참 옷에 얼룩지라고 그런 으 얘기도 많이 있고.}

10801 # 언자 그 이월 언자 딸 그 초하린날 보면 새벽게 언자.{인제 그 이월 인제 달 그 초하룻날 보면 새벽에 인제.}

10801 # 한 천씨에 가 나아가주고 무를 뜨가: 장두까네 나아두거등네.{한 첫 시에 가 나와 가지고 물을 떠서 장독간에 놓아두거든요.}

10801 # 그:는 와그라노 이라면 금년 농사 진는데 자원하라고 농사 잘때라꼬.{그것은 왜 그런고 이라면 금년 농사 잘 돼라고 자원하라고 농사 잘 돼라고.}

10801 # 그래가주고 우물가에 가가주고 체 쳐:으메 물 떠가주고 장독까네다가 나아두노:면 농사 자원한다.{그래 가지고 우물가에 가 가지고 쳐 처음에 물 떠 가지고 장독간에다가 놔 뒤 놓으면 농사 자원한다.}

10801 # 이래가주고 언자 서로 물 무에 뜰라크고 이런 사실뚜 이선은 모양이더라꼬예.{이래 가지고 인제 서로 물 먼저 뜰라 하고 이런 사실도 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10801 @ 농사 자원 농사 자원한다 말은 그기 무슨 뜨십니까?{농사 자원 농사 자원한다는 말은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10801 # 논사 자원이라커능거느 땅기 아니고 그해 농사를 지우면 으 아무 재가 업씨 그. {농사 자원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니고 그해 농사를 지으면 어 아무 재앙이 없이 그.}

10801 # 머라쿠꼬? 풍:재도 익꼬 조:재도 익꼬 인자 바람도 불고 새도 까묵꼬.{뭐라고 할 까? 풍재도 있고 조재도 있고 바람도 불고 새도 까먹고.}

10801 # 이렇기 업씨지라꼬 언자 그런케 한다커능 그런 이미지요.{이런 것이 없어 지라고 인제 그렇게 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지요.}

10801 @ 예, 그러고 또 그 이월따레 그 영동할때 올리능거 말고 머 또 다른 풍소근 업선 습니까?{예, 그리고 또 그 이월달에 그 영동할머니 올리는 것 말고 뭐 또 다른 풍속은 없었 습니까?}

10801 @ 머 당사네 머 이런 당산제, 당사네 머 제사지내고 동네부라게서 하는 그는 정월 따레 합니까, 이월따레 합니까?{뭐 당산에 뭐 이런 당산제, 당산에 뭐 제사 지내고 동네 부락에서 하는 그것은 정월달에 합니까? 이월달에 합니까?}

10801 # 우리는 이월따레 합니다.{우리는 이월달에 합니다.}

10801 @ 당산제가 이설습니까?{당산제가 있었습니까?}

10801 # 예.{예.}

10801 @ 고거 함 들리주이소.{그것 한번 들려 주십시오.}

10801 # 그저네는 저 당:제를 모시는데.{그전에는 당(산)제를 모시는데.}

10801 # 어 마이 즈 골목어르~이라꼬 해 가지고 어 부인네들또 그게 참석 안하고 남자들 만 이래 참서글 해가주고 하기 따무네.{어 많이 저 골목어른(?)이라고 해 가지고 어 부인네 들도 그곳에 참석 안 하고 남자들만 이래 참석을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10801 # 음식또 읍시근 아매도 부인네드리 해야지요, 부인네들 하는데 아:주 깨끗한 사람 그다메 절문 사람또 안 씨이고.{음식도 음식은 아무래도 부인네들이 해야지요, 부인네들 하는데 아주 깨끗한 사람 그 다음에 젊은 사람도 안 시키고.}

10801 # 나이가 한 한 오륙십 텐 사람들 지베다가 언자 마키 가주고.{나이가 한 한 오륙십 된 사람들 집에다가 인제 맡겨 가지고.}

10801 # 그래 음식할 때버텀 시야가: 모욕을 하고.{그래 음식할 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목욕을 하고.}

10801 # 그 읍시글 인자 다 해노코 바메 아 열뚜시:쫘 대면 으 당자 모시러 갈 때도 모요 글 하고.{그 음식을 인제 다 해놓고 밤에 아 열두시쫘 되면 어 당신(동신) 모시러 갈 때도 목욕을 하고.}

10801 # 이래 언자 가가주고 내우가네 인자 지내는데.{이렇게 인제 가가지고 내외간에 인제 지내는데.}

10801 # 언냐 참배는 남자마 하고 음식은 언자 가치 가주가야 데기따무네 내우가네 이래 행는데.{인제 참배는 남자만 하고 음식은 인제 같이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내외간에 이렇게 행는데.}

10801 # 요즈른 그을때는 고래 하능거는 생화리 조금 골란한 사라므로 택케가주고 보수를 마~이 주고.{요즘은 그럴 때는 그렇게 하는 것은 생활이 조금 곤란한 사람으로 택해 가지고 보수를 많이 주고.}

10801 # 그래 좀 해두와 이래하이까네 그래 핵:꼬.{그래 좀 해주라 이렇게 하니깐 그렇게 했고.}

10801 # 또 어 당자를 모실:때는 보면 다 그른켄지요, 호수를 따지이 가지고.{또 동신을 모실대는 보면 다 그렇겠지요, 호수를 따져 가지고.}

10801 # 그래가주고 언자.{그래 가지고 인제.}

10801 # 크:르 머라크노, 소지 종~이로 그 여게 한 오십포 대면 종~이로 오십짱을 맹그러가.{그것을 뭐라고 하니, 소지종이를 그 여기에 한 오십 호 되면 종이를 오십 장을 만들어서.}

10801 # 그래 오십짱으로 언자 마시레 참 편안하~이 해줄라꼬 이래 인자 이야글하고.{그래 오십 장으로 인제 마을에 참 편안하게 해 달라고 이렇게 인제 이야기를 하고.}

10801 # 그래 언자 소진쫑~이로 올리고.{그래 인제 소지종이를 올리고.}

10801 # 또 당:사에 가면 어: 그언자 원자배이 저 주를 새끼르 꼬와가주고.{또 당사(당집)에 가면 어 그 인제 왼쪽잡이 저 줄을 새끼를 꼬아 가지고.}

10801 # 저 주를 칠때 그 새끼에는 소~니 아만: 어 지레는 물끼가 업써도 물로 떠다노코 소늘 적씨가면 새끼를 꼬와도 추므른 암박꼬예.{저 줄을 칠 때 그 새끼에는 손이 아무리 어 길에는 물기가 없어도 물로 떠다 놓고 손을 적씨가면(서) 새끼를 꼬아도 침은 안 뵈고요.}

10801 # 추무른 안조으~이까네 추무른 안박꼬 올치, 무를 언자 떠다가 소늘 적씨가면 이래 꾸고.{침은 안 좋으니깐 침은 안 뵈고 옳지, 물을 인제 떠다가 손을 적씨가면(서) 이렇게 꼬고.}

10801 # 그래가주고 인자 그 어 주를 인자 한 서너분 당:자낭게에다가 거머노코.{그래 가지고 인제 그 어 줄을 인제 서너 번 당자나무에다가 감아 놓고.}

10801 # 그 금:바~에도 탄 기 범지 문타드록 그어다가 또 대를 꼬버가주고 주를 처노코.{그 근방에도 탄 것이 범하지 못하도록 거기다가 또 대를 꽂아 가지고 줄을 쳐 놓고.}

10801 # 그게다가 역씨 아까 소진쫑~이 그그를 또 드문드문 갈따 아 꼬부노코.{거기다가 역시 아까 소지종이 그것을 또 드문드문 갖다 아 꽂아 놓고.}

10801 # 그러니까네 벨또르 그 꼬블 종~이는 별또로 사가오고.{그러니깐 별도로 그 꽃을 종이는 별도로 사서 오고.}

10801 # 그라고 인자 당자를 다 모시고 나면 머 탄 데는 으뎌케하는그 몰라두 우리 고장에는.{그리고 인제 동신을 다 모시고 나면 뭐 탄 데는 어떻게 하는가 몰라도 우리 고장에는.}

10801 # 명태를 두:바리를 씨그등네.{명태를 두 마리를 쓰거든요.}

10801 # 두:바리를 씨는데 그 명태를 하:주 깨뜨탄 백지에다가 사가주고 그.{두 마리를 쓰는데 그 명태를 아주 깨끗한 백지에다가 싸 가지고 그.}

10801 # 그 낭계에 인자 새끼가며 논:데 그:다가 인자 그 투나 꼬부 논심:더.{그 나무에 인제 새끼 감아 놓은 데 거기다가 인제 거기 둘을 꽃아 놓습니다.}

10801 # 꼬부 노:면 거게 인자 이야기는.{꽃아 놓으면 거기 인제 이야기는.}

10801 # 거게 백지를 가주고 와가주고 공부하는 학생드리 거게 그를 씨고 이라면 아주 조타고 해가주고.{거기에 백지를 가지고 와 가지고 공부하는 학생들이 거기에 글을 쓰고 이러면 아주 좋다고 해 가지고.}

10801 # 거서 그근또마 서로 빼가 갈라쿠고 이런 사실또 어 이선은 모양입따다.{거기서 그것도 뭐 서로 빼서 갈라고 하고 이런 사실도 어 있었던 모양입디다.}

10801 @ 예, 또 며 정월 어 다오메 음력 이월따레 동네에서 또 며 행사항거 그은 또 혹시 기억나시능거 더인습니까?{예, 또 뭐 정월 어 다음에 음력 이월달에 동네에서 또 뭐 행사한 것 그것 또 혹시 기억나시는 것 더 있습니까?}

10801 # 열따래요?{열달에요?}

10801 @ 이월따레.{이월달에.}

10801 # 이월따레?{이월달에?}

10801 @ 요그 말고 영 영 영동할매 바람 올리능거 하고 당 당채 지냉거 말고 또 며 이월따레 행사가 더 이선쫌따까?{요것 말고 영 영 영동할머니 바람 올리는 것 하고 당 당채 지낸 것 말고 또 뭐 이월달에 행사가 더 있었습니까?}

10801 # 그근 잘 모리젠**{그것은 잘 모르겠(는데요).}}

10801 @ 예, 그라모 인자 사멸따립니더이.{예, 그러면 인제 삼월달입니다이.}

10801 # 예.{예.}

10801 @ 삼을팔 대머는 인자 며 삼얼삼지리라 그래가주고 며 그림 또 며 이선꼬 삼을팔 나름대로 또 여러가지 먼 노리가 안인쓰 세시풍속이 안이선쫌쫌니까?{삼월달 되면은 인제 뭐 삼월삼질이라 그래 가지고 뭐 그런 또 뭐 있었고 삼월달 나름대로 또 여러 가지 뭘 놀이가 있잖 세시풍속이 있었잖습니까?}

10801 @ 어떻게 이선습니까? 삼을따레 주로 하는 세시풍속 말입니다.{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삼월달에 주로 하는 세시풍속 말입니다.}

10801 # 삼얼따레는 며 벨시리 그근또 옥꼬 삼얼따레는 여네 삼얼삼젠날.{삼월달에는 뭘 별로 그것도 없고 삼월달에는 역시 삼월삼진날.}

10801 # 삼얼삼젠날 며 화전노리 한다꼬와.{삼월삼진날 화전놀이 한다고 왜.}

10801 # 언자 그으는 마실 전체: 할쭈두 익꼬.{인제 그것은 마을 전체에서 할 수도 있고.}

10801 # 그으는 며 각까기 예 언자 뎡치석 뎡치석 어불러가 우리* 화전하자꾸 이래가주고 언자 어불러가주 이래 하는데.{그것은 뭘 각각이 예 인제 몇이서 몇이서 어울려서 우리 화전 하자고 이래 가지고 인제 어울려서 이렇게 하는데.}

10801 # 우리가 그저네 그 당시에 화전할 때는 미나리 크 저 미나리하고 마림 즈저 멧태.{우리가 그 전에 그 당시에 화전 할 때는 미나리 그 저 미나리하고 마른 저저 멧태.}

10801 # 그을때넌 오새그치 며 대지고기가 인나 소고기가 인남, 며 멧태 그기 제일 조웅기라고 해가주고.{그럴 때는 요새같이 뭘 돼지고기가 있나 소고기가 있나, 뭘 멧태 그것이 제일 좋은 것이라고 해 가지고.}

10801 # 멧태 인자 좀 사고 저 미나리 좀 사고.{멧태 인제 좀 사고 저 미나리 좀 사고.}

10801 # 이래가주고 즈 꼴짜게 가가주고 물 조코 정자 조은테 가가 안저가주고 이래 묵꼬.{이래 가지고 저 골짜에 가 가지고 물 좋고 정자 좋은 데 가서 앉아 가지고 이렇게 먹고.}

10801 # 또 꿀짜게 가면 그 당시에 그 까재크능기 인서요, 까재.{또 꿀짜에 가면 그 당시에 그 가재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가재.}

10801 # 까지를 자버가주고 언자 그 찌지고.{가재를 잡아 가지고 인제 그 지지고.}

10801 # 인자 찌지는 데는 멀 연능가 하면 아까 즈 마다~아 저메 제피: 이파리릴 따가주고 이래 연코.{인제 지지는 데는 뭘 넣는가 하면 아까 저 마당에 저기 제피 이파리를 따 가지고 이렇게 넣고.}

10801 # 이래 노:면 마시 조아요.{이렇게 해 놓으면 맛이 좋아요.}

10801 # 그라고 머 화전도 여러가지지요.{그리고 화전도 여러가지죠.}

10801 # 동네 어불러가 하는 화저~이 익꼬 참 멘치 머 뜨슬 마차:가 하는 화전도 익꼬.{동네 어울려서 하는 화전이 있고 참 몇이 뭐 뜻을 맞춰서 하는 화전도 있고.}

10801 # 그러~이 동네 어불러가 한다커면 참 큰 화저~이고.{그러니 동네 어울려서 한다고 하면 참 큰 화전이고.}

10801 # 그을때는 머 징풍물또 가주가고 머: 그 당시에는.{그럴 때는 뭐 징풍물도 가져가고 뭐 그 당시에는.}

10801 # 오새는 카세또지마는 그을때는 그 유싱가라고 유싱가 유징가릴 다 가주고 가가 인자 트러노코.{요새는 카세트지만은 그을때는 그 유성기라고 유성기 유성기를 다 가지고 가서 인제 틀어 놓고.}

10801 # 그래 놀고 머 뛰디리고 이래 마이 핸서예.{그렇게 놀고 뭐 두드리고 이렇게 많이 했어요.}

10801 @ 화전카능게 내나 전, 부침개 그거 말씀 하시능기지요? 화전.{화전하는 것이 내나 전, 부침개 그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화전.}

10801 # 화전.{화전.}

10801 @ 전 부치는 거 아임니* 부쳐서 몽는 거.{전 부치는 것 아닙니까? 부쳐서 먹는 것.}

10801 # 아잉, 화전 크능거는.{아니, 화전 하는 것은.}

10801 @ 예.{예.}

10801 # 여네 삼월삼짇날 어불러가 하는 것이 화전.{역시 삼월삼짇날 어울려서 하는 것이 화전.}

10801 # 언자 그:는 부침개는 파저지면 파저, 정구지저시몬 정구지전 그기 인자 부침개고.{인제 그것은 부침개는 파전이면 파전, 부추전이면 부추전 그것이 인제 부침개고.}

10801 @ 예.{예.}

10801 # 화저~이라 크면 인자 다 마리 다 틀리니까네.{화전이라 하면 인제 다 말이 다 틀리니까.}

10801 # 언제이나 삼월삼짇날 어불러가 노능 거시 삼 언자 화저~이지 화전.{언제나 삼월삼짇날 어울려서 노는 것이 삼 인제 화전이지 화전.}

10801 @ 아.{아.}

10801 @ 그라머 그게 머 쏜 이파리 거통 거 따서 저를 부치 꾸몽는다 이게 화저~이 아~이고.{그러면 그것에 뭐 쏜 이파리 같은 것을 따서 전을 부쳐 구워 먹는다 이것이 화전이 아니고.}

10801 # 아~이고.{아니고.}

10801 @ 아.{아.}

10801 # 어불러가주고 언자 훼손가능기 화저~이라.{어울려 가지고 인제 회식하는 것이 화전이야.}

10801 # 오새 그트면 훼손이지.{오새 같으면 회식이지.}

10801 @ 예, 아 그런썸니까?{예, 아 그렇습니까?}

10801 # 야.{예.}

10801 @ 저는 그게 그 저네 이르메 언자 쏜 꼬출 따가지고 엔나레 보면 머 사 음력 삼 삼 어리면 양녀그로 사월아입니까?{저는 그것이 그 전의 이름에 인제 꽃 꽃을 따 가지고 옛날에 보면 뭐 사 음력 삼 삼월이면 양력으로 사월 아십니까?}

10801 # 야.{예.}

10801 @ 언자 다른 동네하면 진달래 꼬통거 이런.{인제 다른 동네하면 진달래 같은 것 이런.}

10801 # 아이, 그런치요.{아니, 그렇지요.}

10801 @ 그래안꼬 언자 전을 부쳐 묶는 이런 풍속이 익꺼등네.{그래 가지고 인제 전을 부쳐 먹는 이런 풍속이 있거든요.}

10801 @ 아, 그럼 요게는.{아, 그럼 여기는.}

10801 # 화전.{화전.}

10801 @ 예, 그 화전이라 그랜썸니까?{예, 그 화전이라 그랬습니까?}

10801 # 예.{예.}

10801 @ 예.{예.}

10801 @ 또 삼월따레는 머 또 다른 머 노리나 머 이런 풍소기 업션습니까?{또 삼월달에는 뭐 또 다른 뭐 놀이나 머 이런 풍속이 없었습니까?}

10801 # 음, 음신대.{음, 없는데.}

10801 @ 자 그러면 이자 사월따릅니더이.{자 그러면 인제 사월달입니다이.}

10801 @ 어 사월따카면 언자 제일 생각나능기 초파이런데.{어 사월달하면 인제 제일 생각나는 것이 초파일인데.}

10801 # 초파일.{초파일.}

10801 @ 그 사월 초파이른 머 동네에서 어째 보낸는지 또 머 어르시는 어:께 보내셨는지 생각나시는대로 좀 들리주소.{그 사월 초파일은 뭐 동네에서 어떻게 보냈는지 또 뭐 어르신은 어떻게 보내셨는지 생각나시는 대로 좀 들려 주십시오.}

10801 # 요 우리그통 경우에는 머 사월초파일랄 캐바야.{여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뭐 사월 초파일날 해 봐야.}

10801 # 참 머 저레 여 근:방에서는 체고 여 큰저리 통두사 아입니까?{참 뭐 절에 여기 근방에서는 최고 여 큰 절이 통도사잖습니까?}

10801 # 통두사 저레 마~이 놀러가지요.{통도사 절에 많이 놀러 가지요.}

10801 # 부인네뜨른 완전 으 참 범땅에 기도하러 가시고.{부인네들은 완전 으 참 범당에 기도하러 가시고.}

10801 # 어: 남자드르는 그거는 둘채문제하고 거:가면 웅간 놀이러 마~이 하고 익거등네.{어 남자들은 그것은 둘채 문제하고 거기 가면 온갖 놀이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10801 # 유까치 노리니 머 화토 노리니 머시니 캐사면 마~이 인서니까네.{웃놀이니 뭐 화투놀이니 뒤틀이니 하면(서) 많이 있으니깐.}

10801 # 머 검사게메 머 유까치도 노능갑따 가면 우리두 함 노리 볼수두 익겐따.{뭐 검사
검사 뭐 옷도 노는가 보다 가면 우리도 한 번 놀아 볼 수도 있겠다.}

10801 # 이래가주고 머 화토도 치면 함면 쳐볼쑤 익겐능가 그렇기나 두고.{이래 가지고 뭐
화투도 치면 한 번 쳐 볼 수 있겠는가 그런 것이나 두고.}

10801 # 또 머 탄 모이미 머 오새그치 머 열짱수가 와가주고 머 켜개~이 치고 머 이래가
그렇건또 구경하고.{또 탄 모임이 뭐 요새같이 뭐 옛장수가 와 가지고 뭐 썰과리 치고 뭐
이래서 그런 것도 구경하고.}

10801 # 그래가주고 우리그튼 남자드레는 그런테가가 그런 구경이나 하고 그래 오지머 벨
탄 그렇 기 업선서예.{그래 가지고 우리 같은 남자들은 그런 데 가서 그런 구경이나 하고
그래 오지 뭐 별 탄 그런 것이 없었어요.}

10801 @ 그러모 이 동네에 사시는 분드른 저레 마~이 가십니까? 아이믄 또 다른 종교도
머 입습니까? 어떤습니까?{그러면 이 동네에 사시는 분들은 절에 많이 가십니까? 아니면 또
다른 종교도 뭐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10801 # 여는 주로 불교가 만치요, 여는.{여기는 주로 불교가 많지요, 여기는.}

10801 @ 예, 그러면 그 그때도 그 등 다는 거 저레.{예, 그러면 그 그때도 그 등 다는 것
절에.}

10801 @ 요새드 보면 초파일 전우로 해서 등을 마이 안 담니까?{요새도 보면 초파일 전후
로 해서 등을 많이 달잡습니까?}

10801 # 네.{네.}

10801 @ 그때도 그런 풍속이 이션습따까?{그때도 그런 풍속이 있었습디까?}

10801 # 머 안 이션겐능교, 우리는: 그런 그 아까 내 얘기마:따나.{뭐 안 있었겠지요, 우리
는 그런 그 아까 내 이야기마따나.}

10801 # 부인네드레는 그 참 저레 공디리러 가능기 위주고.{부인네들은 그 참 절에 공 들
이러 가는 것이 위주고.}

10801 # 우리는 그저 만 놀러가능기 위주기 따무네 그렇거는 벨 남자드른 별 관시미 업꺼
등네.{우리는 그저 마 놀러가는 것이 위주기 때문에 그런 것은 별 남자들은 별 관심이 없거
든요.}

10801 # 그 머 남자드레는 부인네드리 어테가가 머 필요인다커면 도~이나 주고.{그 뭐 남
자들은 부인네들이 어디에 가서 뭐 필요 있다거고하면 돈이나 주고.}

10801 # 머 부인네드리 다: 가정을 위해간 다 하지요, 머 남자드른 그저 머 땡기면 도~이
나 써고.{뭐 부인네들이 다 가정을 위해선 다 하지요, 뭐 남자들은 그저 뭐 다니면서 돈이
나 쓰고.}

10801 @ 예, 인자 음녀그로 오올따립시다.{예, 인제 음력으로 오월달입니다.}

10801 @ 오올카면 언자 엔나레 큰 풍소기 그 단오나리 이션는데 그 단오날 이 동네에서
특베리 헨편 머 행사가통기 이션는지 좀 말씀해 주이소.{오월 하면 인제 옛날에 큰 풍속이
그 단오날이 있었는데 그 단오날 이 동네에서 특별히 했던 뭐 행사 같은 것이 있었는데 좀
말씀해 주십시오.}

10801 # 머 별 형사는 응:꼬 오올 단오크면 주로 부인네드리 단오를 마이 찬찌.{뭐 별 행
사는 없고 오월 단오하면 주로 부인네들이 단오를 많이 찾지.}

10801 # 역씨 남자드레는 머 오올 단오이까네 머 농사처리 어떤케덴다, 그능 그렇거마 생각
하고.{역시 남자들은 뭐 오월 단오니깐 뭐 농사철이 어떻게 된다, 그런 그런 것만 생각하고.}

10801 # 언자 단오 나레는 부인네드르 땅기아니고 쟁피 궁게~이.{인제 단오 날에는 부인네들은 딴 것이 아니고 창포, 궁쟁이(궁궁이?).}

10801 # 이거슬 인자 살머가주고 머리를 까르마 머리로 질또 조코.{이것을 인제 삶아 가지고 머리를 감으면 머리로 질또 좋고.}

10801 # 머리로 언자 잘 내린다 잘 조아진다 이래가주고 언자.{머리로 인제 잘 내린다 잘 좋아진다 이래 가지고 인제.}

10801 # 오을 단오날 쟁피 궁게~이를 살머가주고 어 머리를 깡고.{오을 단오날 창포, 궁쟁이를 삶아 가지고 어 머리를 감고.}

10801 # 역씨 언자 머 단오날또 그래가 언자 모이기 데고.{역시 인제 뭐 단오날도 그래서 인제 모이게 되고.}

10801 # 머 단오라 크면 다 머 줌 깨뜨단 오을 익꼬 역시 나와가주고 널또 띠고 이래가주고 마이 놓고 이라지요.{뭐 단오라 하면 다 뭐 줌 깨끗한 옷을 입고 역시 나와 가지고 널또 띄고 이렇게 해서 많이 놓고 이랬지요.}

10801 @ 거 부인네드리 머리감는데 그 쟁피하고 궁쟁~이라 켜듭니까?{그 부인네들이 머리 감는데 그 창포하고 '궁쟁이'라고 했습니까?}

10801 # 궁게~이.{궁쟁이.}

10801 @ 궁쟁~이가 먼:지 함 말씀해 주이소.{궁쟁이가 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10801 # 궁게~이라 크능거는 모리는 사람인텐: 이야기해가:도 잘 모리는데.{궁쟁이라 하는 것은 모르는 사람한텐 이야기를 해도 잘 모르는데.}

10801 @ 그래도 설명을 좀 해주이소.{그래도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10801 # 생기기로 위떡케 생긴능고 하모.{생김새가 어떻게 생겼는가 하면.}

10801 # 그: 그:는 대가 아올러가고 저 이파리는 오새 그이 저 당근이파리메치로, 당근.{그것은 대가 안 올라가고 저 이파리는 요새 그것이 저 당근 이파리처럼, 당근.}

10801 # 당근이파리메치로 쫄치쫄치쫄치 향기 요래가주고 또 당근 쫄기메치로 요래가주고 인는 고인 쟁피 저저 궁쟁~이이파리입니다.{당근이파리처럼 쫄쫄쫄쫄한 것이 요래 가지고 또 당근 쫄기처럼 요래 가지고 있는 그것이 창포 저저 궁쟁이 이파리입니다.}

10801 # 궁게~이.{궁쟁이}

10801 @ 거는 주로 어디 이릅니까?{그것은 주로 어디에 있습니까?}

10801 # 그저네는 그으로 단오날 인자 사용할라코 주로 쟁피 궁게~이는 장두까네 장두칸 가에다가 시마논심:더.{그 전에는 그것을 단오날 인제 사용하려고 주로 창포, 궁쟁이는 장독대에 장독대 가에다가 심어 놓습니다.}

10801 # 그따무네 누집 가정이라도 가면 장뚜까네 보만 오새는 머 점부 장두까니 옥상 올라가고 전부 이럴치마는.{그 때문에 누구 집 가정이라도 가면 장독간에 보면 요새는 뭐 전부 장독대가 옥상(에) 올라가고 전부 이렇지만은.}

10801 # 옴나레는 점부 집 가에다가 이래 한쪽 진데다가 장뚜칸을 멩그러 노코 그 머 잘하는 집은 울타리도 해 노코 이래 하지마는.{옛날에는 전부 집 가에다가 이렇게 한쪽진 데다가 장독대를 만들어 놓고 그 뭐 잘하는 집은 울타리도 해 놓고 이렇게 하지마는.}

10801 # 그저 머 이래 머 받 가:세 그치 이래가주고 그: 장뚜까늘 해가주고 마 집판저그로 라아 장판지 나아 놓기 장뚜까인데.{그저 뭐 이렇게 뭐 받 가에 같이 이래 가지고 그 장독대를 해 가지고 뭐 집단적으로 놓아 장단지 놓아 놓은 것이 장독대인데.}

10801 # 그어다가 언자 쟁피 궁계~이는 엄는 집이 업쓰예.{거기다가 인제 창포, 궁쟁이는 없는 집이 없어요.}

10801 # 그언 다: 마~이 인나 적기 인나 크능 그기 그기지며 점부 부인네들 다 그 가꾸~이까.{그건 다 많이 있나 적게 있나 하는 그것이 그거지 뭐 전부 부인네들 다 그 가꾸니까.}

10801 @ 그러며는 궁쟁~이는 꼬치 뽕니까?{그러면은 궁쟁이는 꽃이 뽕니까?}

10801 # 난 쏜 피는그 몬 뽕서요.{난 쏜 피는 것은 못 봤어요.}

10801 # 아매도 머 언제 머이라도 꼬치 일서야 씨가 인는데.{아무래도 언제 뿔이라도 꽃이 있어야 씨가 있는데.}

10801 # 그 나는 쏜피능건 몬받꼬 머 뿌리로 캐:가지고 번식을 하고 나는 이렇건만 받:서예.{그 나는 쏜 피는 것은 못 봤고 뭐 뿌리를 캐가지고 번식을 하고 나는 이런 것만 봤어요.}

10801 @ 거 쟁:피는 언자 꼬치 안 뽕니까?{그 창포는 인제 꽃이 피잖습니까?}

10801 # 예.{예.}

10801 @ 그라도 언자 궁계~이는 그러면 이파리로 뜨더가지고 합니까? 아이먼 뿌레~이로.{그러면 인제 궁쟁이는 그러면 이파리를 뜯어가지고 합니까?. 아니면 뿌리를.}

10801 # 아이여, 뿌리지로.{아니요, 뿌리로.}

10801 # 뿌리지로.{뿌리로.}

10801 @ 아, 뿌리지로.{아, 뿌리로.}

10801 # 예.{예.}

10801 @ 예, 아.{예,아.}

10801 @ 그 엔나레 단온날 대머는 그 우리나라 인자 즈 주로 온찌방이지마는 중부지방에서는 요:는 머 그네편다 캄니까? 군데편다 캄니까?{그 옛날에 단오날 되면은 그 우리나라 인제 주로 윗지방이지만은 중부지방에서는 여기는 뭐 그네 편다고 합니까? 분대(그네) 편다고 합니까?}

10801 # 엔:나레는 군데편다 캔는데 우리 클때는 군데편다.{옛날에는 군데 편다고 했는데, 우리 클 때는 군데 편다.}

10801 @ 그러면 저 단온날 군데띠고 이래진 안했습니까? 씨름하고 하는 이렇거.{그러면 저 단오날 그네뛰고 이러진 안 했습니까? 씨름하고 하는 이런 것.}

10801 # 그런 노리는 별시리 안했서요.{그런 놀이는 별로 안 했어요.}

10801 @ 예.{예.}

10801 @ 예 언자 그러면 어르신 언자 유월팔로 너머감니더, 인자 오을팔도 지내갠씀니더, 인자 덩씀니더이.{예 인제 그러면 어르신 인제 유월달로 넘어 갑니다, 인제 오을달도 지나갔습니다, 인제 덩습니다.}

10801 @ 어 유월따레는 그때 유월 머 유둔날카능게 좀 큰 행사연는데 또 음력 유월팔 대머는 삼복더우도 언자 인꼬 음너지니까예, 이렇기 이션는데 이 동네는 어떤 풍소기 이션습디까?{어 유월달에는 그때 유월 뭐 유둔날 하는 것이 좀 큰 행사였는데 또 음력 유월달 되면은 삼복 더위도 인제 있고 음력이니까요, 이런 것이 있었는데 이 동네는 어떤 풍속이 있었습디까?}

10801 # 우린 유월따렌 더버가주고 무진 머 저 유둔날커능 이양만 드린찌 그를때는 무진 행사는 별시리 업션심니더.{우린 유월달에는 더위 가지고 무슨 뭐 저 유둔날 하는 이야기만

들었지 그럴 때는 무슨 행사는 별로 없었습니다.}

10801 @ 음 그래도 유월달까며는 그래도 기억나는 머 그런 풍속 학 머 하나도 업썸니까?
그러면 기억나시는 게.{음 그래도 유월달 하면은 그래도 기억나는 뭐 그런 풍속 학 뭐 하나
도 없습니까? 그러면 기억나시는 것이.}

10801 # 머 머 행사는 업썸꼬.{뭐 뭐 행사는 없었고.}

10801 @ 예.{예.}

10801 # 어:른들 말쓰메 인서가지오 유월 윤달또 인따 캡떠다. 유울 윤달.{어른들 말씀에
있어서 유월 윤달도 있다고 합디다. 유월 윤달.}

10801 # 그 유울 윤다른 유월 한다리라도 더버 몬쥌디는데 유월 윤달 윤다리 이시니깐 유
어리 두달인데.{그 유월 윤달은 유월 한 달이라도 더워서 못 건디는데 유월 윤달 윤달이 있
으니깐 유월이 두 달인데.}

10801 # 그러이 윤달 드는 해는 처블 파러가주고 부채산다커능 이양만 드런서예.{그러니
윤달 드는 해는 첼을 팔아 가지고 부채 산다 하는 이야기만 들었어요.}

10801 # (웃음.)

10801 @ 그 처블 파러가꼬 부치산다능거 고 말씀을 좀 더 해주이소, 재민네예.{그 첼을
팔아 가지고 부채 산다는 것 그 말씀을 좀 더 해 주십시오, 재미있네요.}

10801 # 그 윤다리 한다리라도 더운데.{그 윤달이 한 달이라도 더운데.}

10801 # 윤다리 두다리기 따무네 너무 더워서 그래가 처블 파러가주고 부채를 사가주고
부친답니다.{윤달이 두 달이기 때문에 너무 더워서 그래서 첼을 팔아 가지고 부채를 사 가
지고 부친답니다.}

10801 @ 그러다가 나중에 썬썬한 바람 드로고 추우면 첼 생가기 나서 우썸니까, 그러면
(웃음){그러다가 나중에 선선한 바람 들어오고 추우면 첼 생각이 나서 어썸니까, 그러면.
(웃음)}

10801 # (웃음) 야, 그은또 첼***.{예, 그건 또 ***.}

10801 @ 예, 인자 그 치털에는네, 음 음녀 치털 치리를 인자 칠서기라 앙그람니까?{예, 인
제 그 칠월에는요, 음 음력 칠월 칠일을 인제 칠석이라고 하잖습니까?}

10801 # 예.{예.}

10801 @ 그라고 언자 치털 보름나를 백중이라 그래가지고 엔나레 참 큰 멧절로 친똥거 가
튼데 이 동네에서는 우썸습니까?{그리고 인제 칠월 보름날은 백중이라 그래 가지고 옛날
에 참 큰 멧절로 쫘던 것 같은데 이 동네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10801 # 머 이큰 치털 유워른 우리는 머 벨 행사는 업서예.{뭐 이 크 칠월 유월은 우리는
뭐 벨 행사는 없어요.}

10801 # 웅꼬, 머 머이 어른들 이야그는 머 치털 칠성날 어제 아십니까? 어제, 어제가 치
털 칠씩일킨데?{없고, 뭐 뭐 어른들 이야기는 뭐 칠월 칠석날 어제 아십니까? 어제, 어제가
칠월 칠석일 것인데?}

10801 @ 아, 그런썸니까?{아, 그렇썸니까?}

10801 # 그 머.{그 뭐.}

10801 @ 아, 어제 아래으 그러네예, 예, 예.{아, 어제 그저께 그렇네요, 예, 예.}

10801 # 그 머 머 이 머 이애이가 만터마는 마내도.{그 뭐 뭐 이 뭐 이야기가 많더니만 많
아도.}

10801 # 그 이야글 내가 여:서 다 몬하게 북또칠썸하고 또 머하고 만넨다커더노?{그 이야

기를 내가 여기서 다 못하게 복두칠성하고 또 뭐하고 만난다고 하더냐?)

10801 @ 머 개:누 징녀.{ 뭐 건우 직녀.}

10801 # 어 , 개:누 지* 야.{어, 건우 직(녀) 예.}

10801 # 거 그래 만난다커는 이양만 이선희. 그 머 그런 머 별따른 행사는 업선서예.{그 그렇게 만난다고 하는 이야기만 있었지 그 뭐 그런 뭐 별다른 행사는 없었어요.}

10801 @ 칠성날 데면 머 여르미 더버가지고 마 땀 땀때기도 나 엔 나고 이래서 무를 마저 러가고 머 이렇겠또 업선습니까?{칠석날 되면 뭐 여름이 더워가 지고 뭐 땀 땀때도 나 에 나고 이래서 물을 맞으러 가고 뭐 이런 것도 없었습니까?}

10801 @ 그러든 백중날은 우찌했습니까?{그러면 백중날은 어떻게 했습니까?}

10801 # 백중날도 우리는 머.{백중날도 우리는 뭐.}

10801 @ 조상 신을 모시고 머 어뜩케 저레가서 머 빌고 이렇거 부인들도.{조상 신을 모시고 뭐 어떻게 절에 가서 뭐 빌고 이런 것 부인들도.}

10801 # 그렇거는 음쓰.{그런 것은 없어.}

10801 @ 네.{네.}

10801 @ 예 그라면 언자 파털임니더이, 파털카며는 아머래도 제일 쿵게 인자 추숙아임니까?{예, 그러면 인제 팔월입니다. 팔월 하면은 아무래도 제일 큰 것이 인제 추석 아납니까?}

10801 # 예.{예.}

10801 @ 엔나레 동네에서는 추서기라 켜습니까? 머 가배라 켜습니까? 가이라 켜습니까? 이름이 안인썸습니까?{옛날에 동네에서는 추석이라고 했습니까? 뭐 가배라 했습니까? 가위라 했습니까? 이름이 있었잖습니까?}

10801 # 추석이라썸서, 우리 여는 추숙.{추석이라고 했어, 우리 여기는 추석.}

10801 @ 추석행사가 마 클깁니다. 생각나시는대로 아침부터 밤까지 어찌 에 일이 이선은 지 썸 기억해 주이소.{추석 행사가 아마 클깁니다. 생각나시는 대로 아침부터 밤까지 어찌 에 일이 있었는지 좀 기억해 주십시오.}

10801 # 역씨 머 추석또 우리 여게 이예기는 그 금년 햅곡식이라 해가주고 추씨게 주로 햅곡씨기 마~이 안납니까?{역시 뭐 추석도 우리 여기 이야기는 그 금년 햅곡식이라 해 가지고 추석이 주로 햅곡식이 많이 나잖습니까?}

10801 # 햅곡씨기라 해가주고 햅꼬씨글 조상인:데 대저블 한다.{햅곡식이라 해 가지고 햅곡식을 조상한테 대접을 한다.}

10801 # 이래가주고 참 머 밤, 대추 머 이거 머 사과, 배 거통거 이그 전부 햅곡씨아임니까?{이래 가지고 참 뭐 밤, 대추 뭐 이거 뭐 사과, 배 같은 것 이것 전부 햅곡식이잖습니까?}

10801 # 그래가 언자 쯡 나:노코 이래 제사를 인자 모시고.{그래서 인제 쯡 놓아 놓고 이렇게 제사를 인제 모시고.}

10801 # 이래 먹꼬 이래 지내지.{이렇게 먹고 이렇게 지내지.}

10801 # 인자 서:른 언자 새해를 마지한다고 해가언자 명저리고.{인제 설은 새해를 맞이한다고 해 가지고 인제 명절이고.}

10801 # 그운데 머 별판: 그언또 업꼬 역씨 머 참 모이가주고 머 먹꼬 노눔그기지.{그런데 뭐 별다른 그것도 없고 역시 뭐 참 모여 가지고 뭐 먹고 노는 그것이지.}

10801 # 그뤼타고 해가지 머 별따기 머 으 행사라커눔그는 벨시리 업석꼬.{그렇다고 해 가

지고 뭐 별다른 뭐 으 행사라 하는 것은 별로 없었고.}

10801 # 그 이 이 중년에는 참 머 어 행사라커능그는 우리가 머 마을 행사가 아~이고.{그 이 이 이전에는 참 뭐 어 행사라 하는 것은 우리가 뭐 마을 행사가 아니고.}

10801 # 머 군:행사라커까, 멘:행사라커까, 그: 씨름한다커고.{뭐 군 행사라고 할까, 먼 행사라고 할까, 그 씨름한다고 하고.}

10801 # 이래가주고 언자 마~이 나가고 구경하러도 가고.{이래 가지고 인제 많이 나가고 구경하러도 가고.}

10801 # 우리 부라게도 힘께나 좀 씨는 사라문 씨름:, 해:나 등에 걸릴랑가 시퍼가주고.{우리 부락에도 힘 꽤나 쓰는 사람은 씨름, 행여나 등수에 걸릴까 싶어 가지고.}

10801 # 이래 인제 참 나아가 씨름파네 나아가주고 추잠 걸리는 사라문 수거~이라도 하나 타가 오고.{이렇게 인제 참 나가서 시름판에 나가 가지고 추첨 걸리는 사람은 수건이라도 하나 타서 오고.}

10801 # 그래 언자 우리부라게서 멘치 나아가주고 추자메 머 이훼전 올라간따 삼훼전 올라간따커면 우리는 머 그 그 사람들 걸릴팔끄지 따라댕기야 데~이까네.{그래 인제 우리 부락에서 몇이 나가 가지고 추첨에 뭐 이훼전 올라갔다 삼훼전 올라갔다 하면 우리는 뭐 그 그 사람들 걸릴 때까지 따라다녀야 되니깐.}

10801 # 그래가주고 그래 노는 그런 행사는 인서도 마시레는 벨판 그 행사는 업설습니다.{그래 가지고 그렇게 노는 그런 행사는 있어도 마을에는 별다른 그 행사는 없었습니다.}

10801 @ 그래도 그때데먼 언자 일가친척드리 또 조은나리라꼬 모이고 이래 안합니까?{그때도 그때되면 인제 일가친척들이 또 좋은 날이라고 모이고 이렇게 하잖습니까?}

10801 # 아, 그으는 머 다 모이쥬.{아, 그것은 다 모이쥬.}

10801 @ 예, 낫제사 인자 그러머는 아까 그 신주 모시능거 그거는 설라레만 합니까? 추서게는 안합니까?{예, 낫제사 인제 그러머는 아까 그 신주 모시는 것 그것은 설날에만 합니까? 추석에는 안합니까?}

10801 # 와예? 다해요, 그으는.{왜요? 다 해요, 그것은.}

10801 # 글:키이 즈 조상을 여네 아까 모신다 크능거는 연에 핵곡씨글 가주고 역씨 조상을 모시~이까.{그러니까 저 조상을 역시 아까 모신다고 하는 것은 역시 핵곡씨를 가지고 역시 조상을 모시니깐.}

10801 # 조상을 모시능거는 역씨 이 정월 초하린날 똑가테예.{조상을 모시는 것은 역시 이 정월 초하룻날과 똑 같아요.}

10801 # 그 우리 각 가정에 대소가에 지내고.{그 우리 각 가정에 대소가에 지내고.}

10801 # 아까 이예기와 가치 큰지베는 신주를 모시기 따무네.{아까 이야기와 같이 큰집에는 신주를 모시기 때문에.}

10801 # 거게 언자 가가주고 늑께 언자 이래 지내고 그러~이.{그곳에 인제 가 가지고 늦게 인제 이렇게 지내고 그러니.}

10801 # 머 역씨 파러레나 서레나 어 다.{뭐 역시 팔월에나 설에나 어 다.}

10801 # 참 머라쿠꼬? 머 명저리라커까? 이릉기 인끼 따무네 그.{참 뭐라고 할까? 뭐 명절이라고 할까?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

10801 # 각 가정에 딸래기나 머 며늘레기나 다 그래 와가주고 역씨 정월 제사나 파럴 제사나 행사는 똑가치 해요.{각 가정에 딸래기나 며늘애기나 다 그렇게 와 가지고 역시 정월 제사나 팔월 제사나 행사는 똑 같이 해요.}

10801 @ 예, 파럴에는 군대를 떠쉴꺼 가튼데예?{예, 팔월에는 그네를 뛰었을 것 같은데
 요?}

10801 # 여게는 주로 널:로 마이 떠:쨌.{여기는 주로 널(뛰기)을 많이 뛰었지.}

10801 @ 파러레도 널:땀니까?{팔월에도 널을 땀니까?}

10801 # 야.{예.}

10801 # 널로 마~이 떠지 군 군데는 잘 안탄서예.{널로 많이 뛰지, 그네는 잘 안탔어요.}

10801 @ 아.{아.}

10801 # 주로 널로 마~이.{주로 널을 많이.}

10801 @ 늘 그근또 그 머 부녀드리 더 잘알겐씀니다마는 그 함부로 안떠:지는 모양이데
 예?{널 그것도 그 뭐 부녀(자)들이 더 잘알겠씀니다만은 그 함부로 잘 안 뛰어지는 모양이
 데요?}

10801 @ 그냥 보기는 요래 떠면 폴짝 ** 요래하면 떠모 폴짝 올라오고 수운것처럼 보이도
 실제해봉게 그 안습때예.{그냥 보기에는 요렇게 뛰면 폴짝 ** 요렇게 한번 뛰면 폴짝 올라
 오고 쉬운 것처럼 보여도 실제 해 보니까 그것 안 쉽데요.}

10801 # 그게 언자 그으르 꿀린다커는데.{그것이 인제 그것을 꿀린다고 하는데.}

10801 # 언자 처으메는 두리 스러 언자 여 씨들씨들 참 이래 예 떠다가.{인제 처음에는 둘
 이 서로 인제 여 시들시들 참 이렇게 예 뛰다가.}

10801 # 여:네 즈 군데타드시로 처으:메는 살짝 살 타다가 낸주:인자 머 바라미난따커까
 아래가 마~이 인자 올라가고 마~이 흔들리드시로.{역시 그네타듯이 처음에는 살짝살(짝)
 타다가 나중에는 인제 뭐 바람이 났다고 할까 이래 가지고 많이 인제 올라가고 많이 흔들리
 듯이.}

10801 # 어 늘떠는 건또 처으메 쪼끔씩 쪼군싰 예 인자 올라가다가.{어 널뛰는 것도 처음
 에 조금씩 조금씩 예 인제 올라가다가.}

10801 # 낸주 언자 서로가 히믈 내:가주고 꿀리라 꿀리라커면 그기 인자.{나중에 인제 서
 로가 힘을 내 가지고 굴러라 굴러라 하면 그것이 인제.}

10801 # 아 저쪽서이 용을 볼끈볼끈 서주면 올라가는 사라미 마~이 올라가고 마~이 올라
 간 사라미 또 내려오면 이직사람 마~이 올라가고 인자 그래가주고 으 노르미이 데고.{아
 저쪽에서 용을 볼끈볼끈 썬 주면 올라가는 사람이 많이 올라가고 많이 올라간 사람이 또 내
 려오면 이쪽 사람이 많이 올라가고 인제 그래 가지고 으 놀이가 되고.}

10801 # 그 언자 마이 올라가~이 기부~이 조코 이래데지요.{그 인제 많이 올라가니 기분
 이 좋고 이렇게 되지요.}

10801 @ 그 그때 그 부녀드른 처~이드른 요게 머리도 땅꼬 이래안햐십니까?{그 그때 그
 부녀들은 처녀들은 여기에 머리도 땅고 이렇게 햐햐십니까?}

10801 # 예, 땅안쨌요.{예, 햐햐지요.}

10801 # 땅꼬 하머는 그 널떠모는 머리가 출랑출랑하고 이렇거는 그런 기어근 업습니까?
 머리가 나풀나뿔하고.{땅고 하머는 그 널뛰머는 머리가 찰랑찰랑하고 이런 것은 그런 기억
 은 없습니까? 머리가 나풀나풀하고.}

10801 # 그 머 오새그치 단발머리고 푸러노으면 나풀나풀하지만 근데 따애노응기 때무네.
 {그 뭐 요새같이 단발머리고 풀어 놓으면 나풀푸나풀하지만은 근데 땡아 놓은 것이기 때문
 에.}

10801 @ 예, 그러모 그 인자 파럴도 참 그라고 그 파러레 그때 머 송편이렇거 안만드러습

니까?{예, 그러면 그 인제 팔월도 참 그리고 그 팔월에 그때 뭐 송편 이런 것 안 만들었습니까?}

10801 # 주로 파월에는 떡으는 송편을 하지요.{주로 팔월에는 떡은 송편을 하지요.}

10801 @ 예, 고공 우찌 했습니까?{예, 그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10801 # 떠글 송편을 하는데.{떡을 송편을 하는데.}

10801 # 주로 엔나레는 오새는 기계 인싸가주고 즈 뽀아와가주고 지베서 송편하지마는.{주로 옛날에는 오새는 기계 있어 가지고 즈 빵아 와 가지고 집에서 송편을 하지만은.}

10801 # 그저네는 송편할라캐도 역씨 시레서 찌거가주고 방앗까네 인자 둘이찍꼬 항키 시러역코 이래가지 서이서러 인자 찍꼬.{그 전에는 송편하려고 해도 역시 ?에서 찢어 가지고 방앗간에 인제 둘이 찢고 한 명 쓸어 넣고 이래 가지고 서로서로 인제 찢고.}

10801 # 어불러가주고 언자 찍꼬 전체르 찍고잉 그언또 테~이까네.{어울려 가지고 인제 찢고 전체를 찢고 있는 그것도 힘드니깐}

10801 # 이리해가주고 언자 참 무레 당가날:따 찌그가 가리가 대머 또 채에 치고.{이렇게 해 가지고 인제 참 물에 담가 놓았다 찢어 가지고 가루가 되면 또 채에 치고.}

10801 # 채에 치고 또 나뭇거는 무거리라커니까네 무거리 그그를 또 다부여:가 또 찌그면 또 다 찌기면 또 채에 치믄.{채에 치고 또 남은 것은 무거리라 하니깐 무거리 그것을 또 다시 넣어서 또 찢으면 또 다 찢으면 또 채에 치면.}

10801 # 또 무거리가 언자 만팅기 조금 저거지고 자꾸자꾸 그래가주고 인자 가리러 땡그러가주고.{또 무거리가 인제 많던 것이 조금 적어지고 자구자꾸 그래 가지고 인제 가루로 만들어 가지고.}

10801 # 언자 집에 가정지베 가져와가주고 그에다 인자 또 반주글 해 가주고.{인제 집에 가정집에 가져와 가지고 거기다가 인제 또 반죽을 해 가지고.}

10801 # 야 떠근 땡글때는 반주글 해가주고 아네 소:는 콩꼬물로.{인제 떡을 만들때는 반죽을 해가지고 안에 속은 콩고물로.}

10801 # 언자 방까네가 또 역씨 방까네 가 찌거가주고 뽀아가 역씨 언자 콩꼬물로 언자 아네다 여:가주고.{인제 방앗간에 가 또 역시 방앗간에 가 찢어 가지고 뽀아서 역시 인제 콩고물을 인제 안에다 넣어 가지고.}

10801 # 그기 인자 아네 연능얼 소라커지예.{그것이 인제 안에 넣는 것을 '소'(속)라고 하지요.}

10801 # 인자 소를 여:가 이래 콩꼬무를 소를 여:가 그래 만드러가 인자 찌가주고.{인제 소를 넣어서 이렇게 콩고물 소를 넣어서 그렇게 만들어서 인제 찌 가지고.}

10801 # 그래 파러레는 제사로 다 얼추 다.{그래 팔월에는 제사를 다 얼추 다.}

10801 # 요즘:도 어: 뽀편안하고 파월에는 전부 생펜할걸료.{요즘도 어 ?? 안 하고 팔월에는 전부 송편할 걸요.}

10801 @ 예, 그러 그 핵까일도 마이 안날쎈쎈니? 아까 말쓰를 하셧습니다마는.{예, 그리(고) 그 햏과일도 많이 낫쎈쎈습니(까)? 아까 말쑤를 하셧습니다만은.}

10801 @ 이 동네에서 나는 핵까이른 어떻게: 이셧습니까?{이 동네에서 나는 햏과일은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10801 # 햏까일.{햏과일.}

10801 @ 예, 햏까일.{예, 햏과일.}

10801 @ 과일도 새로 언자 나는 과일 안인습니? 이 동네에서 나능거.{과일도 새로 인제

나는 과일 있잖습니까?)? 이 동네에서 나는 것.)

10801 # 아.{아.}

10801 # 이 동네에서는 주로.{이 동네에서는 주로.}

10801 # 아 이기 **지니까네 글라.{아 이것이 ** 지니까 그렇나.}

10801 @ 이기 머 워낙 그 예민해가지고 예, 예, 말씀하이소. {이것이 뭐 워낙 예민해 가지고 예, 예, 말씀하십시오.}

10801 # 여게는 주로 과일 캐바:야 그 당시에 우리 애일때만해도 대추나무는 심악꼬, 땅거는 별시리 업선서예.{여기는 주로 과일 해 봐야 그 당시에 우리 어릴 때만 해도 대추나무는 심었고, 딴 것은 별로 없었어요.}

10801 # 감, 대추, 밤, 요거 세가지는 우리 마실에서 낙꼬.{감, 대추, 밤 요것 세 가지는 우리 마을에서 났고.}

10801 # 사과, 배는 밀감 이릉거는 우리가 사다가 했서예.{사과, 배는 밀감 이런 것은 우리가 사다가 했어요.}

10801 @ 예, 그리고 밤에 언자 보름다리 안땀니까?{예, 그리고 인제 밤에 보름달이 뜨잖습니까?}

10801 @ 주로 그 부녀드리 다른 지방에서는 그 했습니다마는 강강수올레 사면서 이런 행사는 이 동네는 업선습니까?{주로 그 부녀들이 다른 지방에서는 그 했습니다마는 강강술래 하면서 이런 행사는 이 동네는 없었습니까?}

10801 # 우리 동네는 그 당시에 양바니기 따 양바늘 هنگ기 따문네 절때로 늘:외에는 몬헐서예, 노리로.{우리 동네는 그 당시에 양반이기 때 양반을 했기 때문에 절대로 널(뛰기) 외에는 못했어요, 놀이를.}

10801 # 놀뛰는 노리 외에는.{널뛰는 놀이 외에는.}

10801 @ 예.{예.}

10801 # 그라고 언자 오새그트먼 경:강을 위해서커능그 인는데.{그리고 인제 요새 같으면 건강을 위해서라고 하는 것 있는데.}

10801 # 그 다리를 발른데 자기 나대로.{그 다리를 밟는데 자기 나이대로.}

10801 # 인자 머 서른살 무:먼 서른부늘 완다간따가, 오십살 무:먼 오십부늘 완따간따가 그 인자 다리 발릉거는 헐서예.{인제 뭐 서른 살 먹으면 서른 번을 왔다갔다, 쉰 살을 먹으면 쉰 번을 왔다갔다 그 인제 다리 밟는 것은 했어요.}

10801 # 발:령은 해도.{밟는 것은 해도.}

10801 @ 오, 요 다리가 어디인습니까?{오, 요기 다리가 어디있습니까?}

10801 # 아, 머 큰 다리가 아~이고 작은 다리라도.{아니 뭐 큰 다리가 아니고 작은 다리라도.}

10801 # 다리를 자 그저 머 똑따리는 아이라도 고래 쪼매쿠만 다리는 이석거등네.{다리를 인제 그저 뭐 큰 다리(?)는 아니라도 그렇게 조그만 다리는 있었거든요.}

10801 # 그저 오새드 글치만 이,삼매:다 요런 다리는 이션끼따문 고오를 인자 완따가 간따가 인자 자기 나대로 요래 핵꼬.{그저 요새도 그렇지만 이, 삼미터 이런 다리는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인제 왔다가 갔다가 인제 자기 나이대로 이렇게 했고.}

10801 # 참 익꼬하면 줌 으 잘못이지마는.{참 잇고 하면 줌 으 잘못이지마는.}

10801 # 우리 마시레는 머 상부면뿐아이라 어데라도 다 디 디 디떨어전서예.{우리 마을에는 뭐 상복면뿐 아니라 어디라도 다 뒤뒤 뒤떨어졌어요.}

10801 # 그 우리거통 경우에는 그얼때 클때 절때 여 집아페 지가 자기 삼찌글 외에는.{그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럴 때 클 때 절때 여기 집 앞에 자기가 자기 사립문 집 주위 외에는.}

10801 # 아네서는 어특케해도 몰라도 삼찌글 베거테 나아가는 지침도 크게 문헿서요, 어른들 따무네.{안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사립문 밖에 나와서는 기침도 크게 못헿어요, 어른들 때문에.}

10801 # 그러케 고 당시에는 요게 한 삼십포가 살었는데 우리 외에는 김가들 외에는 그저 외썸~이 한지비 인식꼬.{그렇게 그 당시에는 여기에 한 삼십호가 살았는데 우리 외에는 김가들 외에는 그저 외손이 한 집이 있었고.}

10801 # 머지 여네 체가기: 인서야 외소~이 인찌마는 체가그이 한집인식꼬 여 두집빼기 업선서요.{뛰지 역시 처객이 있어야 외손이 있지만은 처객이 한 집 있었고 여 두 집밖에 없었어요.}

10801 # 그외에는 점부 우리 강가들만 이선끼 따무네.{그 외에는 전부 우리 김가들만 있었기 때문에.}

10801 @ 예.{예.}

10801 # 그래 머 판 노리 그 노리 거통거는 그 당시엔 저녁게 모이서 그으는 날:떠는 거는 부인네드리 그 다 떠~이까네.{그래 뭐 판 놀이 그 놀이 같은 것은 그 당시엔 저녁에 모여서 그것은 널뛰는 것은 부인네들이 그 다 뛰니깐.}

10801 # 그거는 아만 떠고 펄럭꺼리도 어 마를 안하고.{그것은 아무리 뛰고 펄럭거려도 어 말을 안하고.}

10801 # 땅거 머 강가술레거통거 이렇거는 함부레 문헿서예.{판 것 뭐 강강술래 같은 이런 것은 애초부터 못 헿어요.}

10801 @ 자 어르신 이제 그 구어립니다.{자 어르신 이제 구월입니다.}

10801 @ 구어레 음녁 구어레 엔날그트먼 언자 음녁 구월 구이리 중양저리라 캐각꼬 큰 행사가 인킨 이선는데, 머 중양절이든지 아니든지 이 동네에서 음녁 구어레 어떤 세속 풍소기 이선는지, 일췌다면 어떻게 이선는지 말씀 좀 해 주이소.{구월에 음력 구월에 옛날 같은면 인제 음력 구월 구일이 중양절이라고 해서 큰 행사가 있기는 있었는데, 뭐 중양절이든지 아니든지 이 동네에서 음력 구월에 어떤 세시 풍속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떤 것이 있었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10801 # 우리는 구월파레 머 판 그능거는 업석꼬.{우리는 구월달에 뭐 판 그런 것은 없었고.}

10801 # 언자 음녁 구월라레는 구월 구일라레는 어 흑씨나 조상을 날 세상베린 나를 모리는 사람으는 모리는 조상어는 구월 구일랄로 우리가 지내거등예.{인제 음력 구월날에는 구월 구일날에는 어 흑씨나 조상을 날 세상 버린 날을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조상은 구월 구일날로 우리가 지내거든요.}

10801 # 머 그나리 아머 조은나린 모양이지요.{뭐 그날이 아마 좋은 날인 모양이지요.}

10801 # 그라고 구일구일랄 지낼때도 역씨 내 부모거트먼 내 우리 대소가에서 다 그날 와가주고.{그리고 구일(구월) 구일날 지낼 때도 역시 내 부모 같으면 내 우리 대소가에서 다 그날 와가지고.}

10801 # 역씨 파럴 으 멩저리나 선팔 에 추서기나 아 다가치 이에 행사를 똑가치 하고.{역시 팔월 으 명절이나 선달 으 추석이나 어 다 같이 이렇게 행사를 똑 같이 하고.}

10801 # 그래 언자 지내는 고으마 아련찌 머 판 그:는 엄썸니다.{그래 인제 지내는 그것만 알았지 뭐 판 그것은 없습니다.}

10801 @ 그러몬 그제 그 구일제라 그럼니까? 머라 이르미.{그러면 그것이 그 구일제라고 그럼니까? 뭐라(고) 이름이.}

10801 # 머 제라커능거는 잘 모리계꼬 머 구일 구일랄 어 존타 이래가주고 주로 이 부라 계도 구일 구일랄 지내는 제사가 마이 인썸깁니다.{뭐 제라 하는 것은 잘 모르겠고 뭐 구월 구일날 어 좋다 이래 가지고 주로 이 부락에도 구월 구일날 지내는 제사가 많이 있을 겁니다.}

10801 @ 예.{예.}

10801 @ 그영게 돌아가신 날짜를 모르는.{그러니깐 돌아가신 날짜를 모르는.}

10801 # 모리고.{모르고.}

10801 @ 조상님들 제사 지낸다 그 말쓰미지예?{조상님들 제사 지낸다 그 말썸이지요?}

10801 # 예, 예.{예, 예.}

10801 # 그러~이 조상을 모리는 거는 우에서 모리능고 하면.{그러니 조상을 모르는 것은 어째서 모르는고 하니.}

10801 # 어데 출타 해가주고 어 언자 세상을 베린는지 안베렌는지.{어디 출타해 가지고 어 인제 세상을 버렸는지 안 버렸는지.}

10801 # 그어는 맨썸년 홀러가가주고 어: 열라기 어씨모 세일 베린따고 보고.{그것은 몇 십 년 홀러가 가지고 어 연락이 없으면 세상 버렸다고 보고.}

10801 # 그래 인자 구일 구일랄 제사를 모십니다.{그래 인제 구월 구일날 제사를 모십니다.}

10801 @ 그라몬 그 이 구월 구일랄 모시는 제사 방식하고 다른 기제사 그 모시는 방식하고 같썸니까, 다릅니까?{그러면 그 이 구월 구일날 모시는 제사 방식하고 다른 기제사 그 모시는 방식하고 같썸니까, 다릅니까?}

10801 # 그기 아까도 이야기 행찌마는 여네 멧절 추석 제사나 머 음식 장만해 노코 지내 능거는.{그것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역시 멧절 추석 제사나 뭐 음식 장만해 놓고 지내는 것은.}

10801 # 그덜타고해가: 추석 멧절 메:치로 머 조:케 이리 지내, 그 날로 뉁기능기 아이고. {그렇다고 해서 추석 멧절처럼 뭐 좋게 이렇게 지내(지는 았고), 그 날을 넘기는 것이 아니 고.}

10801 # 행사마 고런케 똑가치 고래 하고 으 .{행사만 그렇게 똑 같이 그렇게 하고 으.}

10801 # 인자 모이는 글또 역씨 제싸이~이까 대소가는 다 고래 다 모이기가 대가 인썸 **. {인제 모이는 것도 여기 제사니깐 대소가는 다 그렇게 다 모이기로 되어 있습니다.}

10801@ 예, 인자 그 음녁 시월따립니다.{예, 인제 그 음력 시월달입니다.}

10801 @ 시월따레는 머 농사 언자 거다 디린다고 머 또 머 다으메 농사 준비한다고 바쁘 긴 핵겐지마는 풍속도 안 이션겐썸니까.{시월달에는 뭐 농사 인제 거뉘들인다고 뭐 또 뭐 다음에 농사 준비한다고 바쁘긴 했겠지만은 풍속도 있었잖썸습니까?}

10801 @ 시월따레는 어떤 풍소가 이션썸니까?{시월달에는 어떤 풍속이 있었썸니까?}

10801 # 시월따레는 여 머 아무 그으또 음꼬 참 금시 말썸따나 머 농사 거들 준비한다 꼬 그렇거마 인썸찌.{시월달에는 여기 뭐 아무 그것도 았고 참 금방 말썸따나 머 농사 거들 준비한다고 그런 것만 있었지.}

10801 # 시월파렌: 머 판 머 벨 판 행사는 업선서예.{시월달에는 뭐 판 뭐 별다른 행사는 없었어요.}

10801 @ 예, 그러면 동진파레는 우쨌습니까?{예, 그러면 동짓달에는 어쨌습니까?}

10801 # 동진파레는: 머 판 행사는 업서도 동진날 팔쭈근 끼리 무:서예.{동짓달에는 뭐 판 행사는 없어도 동짓날 팔죽은 끓여 먹었어요.}

10801 # 그기 팔쭈 우리아 그전에는 팔쭈깨꺼등네.{그것이 팔죽 우리가 그 전에는 팔죽했거든요.}

10801 # 팔쭈글 끼리 몽:테 역씨 아까 이야기마따나 생핀 멩그는 거와 가치.{팔죽을 끓여 먹는데 역시 아까 이야기처럼 송편 만드는 것과 같이.}

10801 # 참 사를 부라 날:따가 방앗가네 찌거가주고 여네 채에 처가 그래가 지배 가오가주고.{참 쌀을 불려 놓았다가 방앗간에 찧어 가지고 역시 채에 처서 그래서 집에 가져와 가지고.}

10801 # 참 물로 부아가지고 동 그 머라커노, 수지비를 비비가주고.{참 물을 부어 가지고 동 그 뭐라고 하니, 수제비로 비벼 가지고.}

10801 # 그래가 폰 녀코 그래 언자 팔쭈글 끼리 가주고.{그래서 팔 넣고 그래 인제 팔죽을 끓여 가지고.}

10801 # 여:느 와이래 하노꼬 하~이까, 머 시는 팔쭈글 조아 안한다케 안한다꼬.{여기에서는 왜 이렇게 하느냐고 하니까, 뭐 신은 팔죽을 좋아 안 한다고 해 안 한다고.}

10801 # 그래가주고 머 팔쭈 끼리가 무:먼 조타구 이래가주고 팔쭈 인자 동서남북으로 줌 가정에 이래 뿌리고 이래 몽는거만 받서예.{그래 가지고 뭐 팔죽 끓여 먹으면 좋다고 이래 가지고 팔죽 인제 동서남북으로 줌 가정에 이렇게 뿌리고 이렇게 먹는 것만 봤어요.}

10801 @ 그 수지비 비비가지고 팔쭈 끼리고 또 무을때 머 여러가지 머 형제가니나 부모자식 까네 머 주고 받는 얘기들도 안이선겐습니까?{그 수제비 비벼 가지고 팔죽 끓이고 또 먹을 때 뭐 여러 가지 뭐 형제 간이나 부모자식 간에 뭐 주고 받는 이야기들도 있었잖겠습니까?}

10801 # 머 별판 얘기는 업쨌꼬.{뭐 별다른 이야기는 없었고.}

10801 # 역시 머 무러봐야 그 말라꼬 그 현노커머.{역시 뭐 물어봐야 그 왜 흘느냐고 하면.}

10801 # 그 여네 이거머 흐치면 금녕게 내잉게 조으라꼬 해가주고 이래 혼는다.{그 역시 이것을 흘치면 금녕에 내한테 좋으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흘는다.}

10801 # 이렇기 머 오고가그 이선찌 단 별판얘기는 업선서예.{이런 것이 뭐 오고가고 있었지 다른 별다른 이야기는 없었어요.}

10801 @ 이거 모:먼 나:한살 더 몽는다 이런 얘기는 안했습니까?{이것 먹으면 아이 한살 더 먹는다 이런 이야기는 안 했습니까?}

10801 # 그으는 위시게 그런 얘기는 일쑤요.{그것은 우스개 그런 이야기는 있지요.}

10801 # 일쑤마는 머 무그나 안무으나 예 나는 똑가치 올라가~이.{있지만은 뭐 먹으나 안 먹으나요 나이는 똑 같이 올라가니.}

10801 # 그러~이 위시게로서는 이 마이 무:먼 마이 이 나가 마이 올라간데 안무먼 아올러 간데 그런 위시게 이야기는 일서예.{그러니 우스개로서는 이 많이 먹으면 많이 이 나이가 많이 올라간다 안 먹으면 안 올라간다 그런 우스개 이야기는 있어요.}

10801 @ 예, 그러고 동진파레 머 노니나 바테 독 논뚝 받뚝 머 태아고 하는 이렇거는 안

했습니까?{예, 그리고 동짓달에 뭐 논이나 밭에 독 논둑, 밭둑 뭐 태우고 하는 이런 것은 안했습니까?}

10801 # 그렇거는 안했서요.{그런 것은 안 했어요.}

10801 # 우리는 주로 논둑 받뚜그는 정월 대보름날 뭐 아까 그 얘기 빠졌겐찌마는.{우리는 주로 논둑 밭둑에는 정월 대보름날 뭐 아까 그 이야기 빠졌겠지만은.}

10801 # 정월 대보름날 달집 직꼬 이래 해살:때 인자 그 불로 가주고 장난사마 들파네 땡기먼 여도 찌르고 저도 찌르고 마 글:때 마~이 찢러서요.{정월 대보름날 달집 짓고 이렇게 할 때 인제 그 불로 가지고 장난 삼아 들판에 다니면(서) 여기도 지르고 저기도 지르고 막 그럴 때 많이 질렀어요.}

10801 # 오새는 그리 몬찌그로 하~이까네 그런치마는 그 우리 클때만 하면 정월 대보름날 주로 마이 찢러지*.{요새는 그렇게 (불을)못 지르도록 하니깐 그렇지마는 그 우리 클 때만 하면 정월 대보름날 조로 많이 질렀지요.}

10801 @ 예, 인자 일러네 마지막 다릅니다. 섣파릅니다.{예, 인제 일년의 마지막 달입니다. 섣달입니다.}

10801 @ 섣파레는 머 또 머 단 새해를 마지하기 직찌니라서 여러가지 행사가 이섣쓸 가튼 데 어떻게 이섣쓸디까?{섣달에는 뭐 또 뭐 단 새해를 맞이하기 직전이라서 여러 가지 행사가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것이 있었습디까?}

10801 # 섣파레는 머 인자 정유위레 잘 물:라꼬 점부 인자 가실해가 들라가주고 다독거리능 그능거 뺨끼 업선지예.{섣달에는 뭐 인제 정이월에 잘 먹으려고 전부 인제 가을해서 들여놓아서 다독거리는 그런 것밖에 없었지요.}

10801 @ 예를드러서 어 섣딸 그무암 대머는 잠자면 머 눈썹비 허여진다 캐가:꼬 잠 몬자게 하고 머 이런 내려오는 말그통 건또 안이섣쓸니까?{예를 들어서 섣달그믐날 되면은 잠자면 뭐 눈썹이 허여진다 해서 잠 못자게 하고 뭐 이런 내려오는 말 같은 것도 있었잖습니까?}

10801 # 아, 예 그런 이야근 들언서예.{아, 예 그런 이야기는 들었어요.}

10801 # 그 섣딸 그음날 지너게 에 자면 눈썹신:다.{그 섣달그믐날 저녁에 에 자면 눈썹 썬다.}

10801 # 이래가주고 그 안자고 인파가 마 우야다 잠이 살 들면 밀가리릴 눈썹베 간따 약금 발러노코.{이래 가지고 그 안자고 있다가 뭐 어찌다 잠이 살 들면 밀가루를 눈썹에 갖다 약간 발라 놓고.}

10801 # 봐:라 자지마라캥게 똑 자가: 눈썹 안 신:나 커고 그렇건또 익꼬.{봐라 자지 말라고 하니깐 그렇게 똑 자서 눈썹 세잖았니 하고 그런 것도 있고.}

10801 # 섣딸 그음날 지너게는 으 방방이 부를 다 케 논코 어 소 마구간까지도 부를 다 케아수 커서요.{섣달그믐날 저녁에는 으 방 방에 불을 다 켜 놓고 어 소 마구간까지도 불을 다 켜서 켜어요.}

10801 @ 그때 부를 키는 이유는 뭡니까?{그때 불을 켜는 이유는 뭡니까?}

10801 # 가저음 머 벨 그어는 잘 모리젠는데 가정을 밝킨다꼬 해가주고 그러케 안했겐습니까?{가정 뭐 별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가정을 밝힌다고 해 가지고 그렇게 했잖겠습니까?}

10801 @ 그람: 그때 케논 부른 머 등잔뿌립니까, 아이먼 촛뿌리나 어떤 부리엎습니까?{그러면 그때 켜 놓은 불은 뭐 등잔불입니까, 아니면 촛불이나 어떤 불이었습니까?}

10801 # 주로 등장부리쥌. 등잔빨 주로 등장뿌리고.{주로 등잔불이지요, 등잔불 주로 등잔불이고.}

10801 # 우리가 등장뿌리라도 지르물 가지고 여네 서규로 가지고 때는 집또 인선실끼고.
{우리가 등잔불이라도 기름을 가지고 역시 석유로 가지고 때는 집도 있었을 것이고.}

10801 # 나무 기르물 가지고 어 그 언자 심지를 다려가주고 그리 때는 집또 인꼬 그런치
요.{나무 기름을 가지고 어 그 인제 심지를 달아 가지고 그렇게 때는 집도 있고 그렇지요.}

10801 @ 나무기르믄 우째 만드려각꼬 땀니까, 그러모.{나무 기름은 어떻게 만들어 가지고
땀니까, 그러면.}

10801 # 나무기르믄 머 사노자나무니 아구다리나무니 머 저 제피나무니.{나무 기름은 뭐
산호자나무니 아구다리나무니 뭐 저 계피나무니.}

10801 # 제피 저: 저걸또 지름짜면 나오테, 알맹이.{계피 저 저것도 기름 짜면 나오테, 알
맹이.}

10801 # 저거를 언자 참 그저네는 저 우애하능고 하먼.{저것을 인제 참 그전에는 저 어떻
게 하는가 하먼.}

10801 # 오새는 머 즈 어디 시장꺼리에 가면 기계로 가지고 뽀꺼가지고 짜주지마는.{요새
는 뭐 저 어디 시장꺼리에 가면 기계를 가지고 볶아 가지고 짜주지만은.}

10801 # 가정에서 점부 준비를 해가주고 여네 방아까네다가 뚜덜러가주고.{가정에서 전부
준비를 해 가지고 역시 방앗간에다가 빵아 가지고.}

10801 # 어 그 언자 소테 찌가 이래가주고.{어 그 인제 술에 찌서 이래 가지고.}

10801 # 지름 지름 짜는 그기 트리 인서요, 지름 지름트리라꼬.{기름 기름 짜는 그것 틀이
있어요, 기름 기름틀이라고.}

10801 # 지름 짜는 틀로 함부레 멩그려 낙:꺼등네.{기름 짜는 틀로 처음부터 만들어 놓았
거든요.}

10801 # 머 이 부락그트머 한 너더대액께가 인는데.{뭐 이 부락 같으면 한 네다섯 개가 있
는데.}

10801 # 그얼또 다 살리미 그저 제복 부자 커능 지베 목꼬 사는 지베 인자 다 멩그려 낙:
꺼등네.{그것도 다 살림이 그저 제법 부자라 하는 집에 먹고 사는 집에 인제 다 만들어 났
거든요.}

10801 # 멩그려 나안데 인자 그거를 어 준비만 해 노으면 어불러 가지고.{만들어 났는데
인제 그것을 어 준비만 해 놓으면 어울려 가지고.}

10801 # 우리 오늘 지르물 어불러 좀 짜자.{우리 오늘 기름을 어울려 좀 짜자.}

10801 # 그라먼 그 기 나무 지름 짜는 트른 그 빌리 주거등네.{그러면 그 기 나무 기름 짜
는 틀은 그 빌려 주거든요.}

10801 # 그래가지 인자 어불러가주고 그래 들깨지르미니 난두지르미니 머 제피지르미니.
{그래 가지고 인제 어울려 가지고 그래 들깨기름이니 난두기름이니 뭐 계피기름이니.}

10801 # 이래 점부 그래 어불러 짜가주고 그 지르물 가지고 목끼도 하고 불또 켜고 그래
가 마~이 헨서예.{이렇게 전부 어울려 짜 가지고 그 기름을 가지고 먹기도 하고 불도 켜고
그렇게 많이 했어요.}

10801 @ 예, 아까 그 나무가주고 한다카는 그 나무이름 중에예 사노자라웁습니까?{예, 아
까 그 나무가지고 한다고 한 그 나무 이름 중에요 사노자라고 했습니까?}

사노자.{산호자.}

10801 @ 사노자가 땀니까?{산호자가 땀니까?}

10801 # 사노자 나무라 커능거는 여 가정에 기르는 나무가 아~이고 저 사네 가면 사노자 나무라고 별또로 인서예.{산호자 나무라고 하는 것은 여기 가정에 기르는 나무가 아니고 저 산에 가면 산호자나무라고 별도로 있어요.}

10801 # 그 가면 알메~이도 국꼬 그런 나모를 따가 와가주고 지르믈.{거기 가면 알맹이도 꺾고 그런 나무를 따 와 가지고 기름을.}

10801 @ 그러면 열매에서 지르미 나옵니까?{그러면 열매에서 기름이 나옵니까?}

10801 # 예, 역시 며 아무끼라도 다 열매에서 나옵니다.{예, 역시 뭐 아무 것이라도 다 열매에서 나옵니다.}

10801 # 제피나무 이거또 조 알맹이가 스 나오고.{제피나무 이것도 저 알맹이에서 나오고.}

10801 # 난두나무도 알맹이서 나오고.{난두나무도 알맹이에서 나오고.}

10801 @ 무슨나무예?{무슨 나무요?}

난두나무.{난두나무.}

10801 # 난두나무라 커능거는 제피나무 메치로 며 사촌간쭈템니더, 마.{난두나무라고 하는 것은 제피나무처럼 뭐 사촌간쭈 됩니다, 뭐.}

10801 # 그:는 제피는 아이고 고오는 지름만 목찌.{그것은 제피는 아니고 그것은 기름만 먹지.}

10801 @ 예.{예.}

10801 # 껌띠~이는 안무: 이거는.{껌테기는 안 먹어 이것은.}

10801 @ 예.{예.}

10801 @ 그러면 아까 또 며 아구다리라 했습니까?{그러면 아까 또 뭐 아구다리라 했습니까?}

10801 # 예, 아구나무.{예, 아구나무.}

10801 @ 야.{예.}

10801 @ 아구다리는 먼데 아구다리가 아구나몐니까?{아구다리가 뭇데 아구다리가 아구나 무입니까?}

10801 # 예.{예.}

10801 @ 그으는 뭇니까?{그것은 뭇니까?}

역시 그걸또 사네 나능기라.{역시 그것도 산에 나는 거야.}

10801 @ 아구다리 카능 이게 아주까리하곤 다르지예?{아구다리 하는 이것이 아주까리하곤 다르지요?}

10801 # 아이다 그으는 아주까리는 그저네 우린: 아주까리커지, 오새는 피마자라커지요? {아니다 그것은 아주까리는 그전에 우리는 아주까리라 하지, 요새는 피마자라고 하지요?}

10801 @ 며 며.{뭐 뭐.}

10801 # 예.{예.}

10801 @ 둘 다 씹니다마는.{둘 다 씹니다만은.}

10801 # 예.{예.}

10801 # 아주까리 우올도 아주까리라 커거등네, 예 그을강 다 틀립니다.{아주까리 우리도 아주까리라 하거든요, 예 그것이랑 다 틀립니다.}

10801 @ 아, 그러면 사노자도 나무고.{아, 그러면 사노자도 나무고.}

10801 # 예.{예.}

10801 @ 아구다리**. {아구다리도.}

10801 # 아니 그르켄 낭게에 열기 따무네. {아니 그러니깐 나무에 열기 때문에.}

10801 @ 예. {예.}

10801 # 나무라켄찌. {나무라고 했지.}

10801 # 그 알맹~이는 전부 다 알맹이 인서야 그 지르미 나오거등네. {그 알맹이는 전부 다 알맹이 있어야 그 기름이 나오거든요.}

10801 @ 예, 그웅께 쓰 그러면 사노자랑거는 열매 이르밍니까? 나무 이르밍니까? {예, 그러니깐 그러면 산호자라는 것은 열매 이릅입니까? 나무 이릅입니까?}

10801 # 나무이름. {나무이름.}

10801 @ 아구다리도 나무이르미고. {아구다리도 나무 이릅이고.}

10801 # 나무이름. {나무 이릅.}

10801 @ 제피도 나무이르미고. {제피도 나무 이릅이고.}

10801 # 야. {예.}

10801 @ 난두나무도 **. {난두나무도 **}

10801 # 나무이르미고. {나무 이릅이고.}

10801 @ 예. {예.}

10801 @ 요게서 다 지르미 나고**. {여기에서 다 기름이 나고**}

10801 # 나 예, 예. {아 예, 예.}

10801 @ 그래 지르믈 짜면 지름 마~이 나옵니까? {그래 기름을 짜면 기름 많이 나옵니까?}

10801 # 마~이 나오지는 안하지요. {많이 나오지는 안 하지요.}

10801 # 그러두 사용할라크니깐 그렇거 아이고는 지름도 업석꼬. {그래도 사용하려고 하니깐 그런 것 아니고는 기름도 없었고.}

10801 # 그라이면 머 들깨 창깨 이러머는 지베서 머올라고 하고. {그렇지 않으면 들깨, 참깨 이런 것은 집에서 먹으려고 하고.}

10801 @ 예, 그 지금까지 그 열두달 일련 열두달 세시풍소게 대한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 지금까지 그 열두달 일련 열두달 세시풍속에 대한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0801 # 예. {예.}

1.8.2. 전통 놀이

10802 @ 저 어르신 이버네는네 그 옛날부터 우리:내려오던 노:리노능거 거기대해서 좀여쭙보겜습니다. {저 어르신 이번에는요, 그 옛날부터 우리 내려오던 놀이 노는 거 거기 대해서 좀 여쭙보겠습니다.}

10802 @ 어 남자드리 하는노리드리또 여자들하고 다르게 쫘마~이 이썸썸꺼 가튼데예. {어 남자들이 하는 놀이들이 또 여자들하고 다르게 좀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10802 @ 그런 노리를 제가 하나하나씩 여쭙보겜습니다. {그런 놀이를 제가 하나하나씩 여쭙보겠습니다.}

10802 @ 어릴때 어르시니 어터케 노셨는지 또는 누가 주위에누가 놀:던걸 기억하시는그대로 말쓰를 해주시면 고맙겡습니다. {어릴 때 어르신이 어떻게 노셨는지 또는 누가 주위에누가 놀던 걸 기억하시는 그대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802 @ 어 정월파레 노는노립니다, 정월파레:. {어 정월달에 노는 놀입니다, 정월달에.}

10802 @ 그 연은 주로 정월파레도 마~이 날린찌예? # 예. {그 연은 주로 정월달에도 많이 날렸지요? # 예.}

10802 @ 우선 연날리기를 우찌했는지 여늘 만들고 그다:메 실그또 뭐 머 끄너지지마라고 머 머 메기고 안이래삼씀니꺼이? {우선 연날리기를 어찌했는지 연을 만들고 그 다음에 실그 또 뭐 뭐 끊어지지 말라고 뭐 뭐 먹이고 이렇게 했잖습니까이?}

10802 # 사기미기고. (웃음) @ 예. {사기 먹이고. (웃음) @ 예.}

10802 @ 그렇거 이씨쓸건데 우서는 연 만드러서 우찌 노란는지 고:말씀쫘 해주이소. {그런 거 있었을 건데 우선은 연 만들어서 어찌 놀았는지 그거 말씀 쫘 해 주십시오.}

10802 # 칠째언자 여늘 만드러가주고언자 대로가주고언자 이라:가주고 여늘 만드는데. {첫째 인제 연을 만들어 가지고 인제 대를 가지고 인제 이루어(만들어) 가지고 연을 만드는데.}

10802 # 그 연도언자 구무여~이 익꼬 가 가부리여~이 인는데. {그 연도 이제 방패연이 있고, 가오리연이 있는데.}

10802 # 구무여느느: 구무로언자 사가케~이 대:가주고 구무로 복파네 뜰봉게언자 구무여~이고. {방패연은 구멍을 이제 사각형이 돼 가지고 구멍을 복판에 뚫은 게 이제 방패연이고.}

10802 # 이자아까 아까도 구무연하고머 무진여나라캔노? @ 가부리연. {인제 아까 아까도 방패연하고 뭐 무슨 연이라고 했니? @ 가오리연.}

10802 # 가부리여는 쫘지가 인능기 가부리여~인데. {가오리연은 꼬리가 있는 게 가오리연인데.}

10802 # 그언자 우리가 그걸언자 구무연하고 가부리연하고언자 지쫘 나름대로 만드러가주고. {그 인제 우리가 그걸 이제 방패연하고 가오리연하고 이제 각자 나름대로 만들어 가지고.}

10802 # 그래참: 언자 저 들복파네 정뉴워레는언자 머하~이 곡씩또업꼬 그리언자 머보리바테 저런데 가가주고 이제 여늘 띄우는데. {그래 참 인제 저 들 복판에 정이월에는 인제 뭐 하니 곡식도 없고 그리 이제 뭐 보리밭에 저런 데 가 가지고 이제 연을 띄우는데.}

10802 # 그 참 여늘 띄우다보며 니여~이 마~이 올라가니 내여~이 마~이 올라가니 캐삼: 서로가언자 어 음. {그 참 연을 띄우다 보면 네 연이 많이 올라가니 내 연이 많이 올라가니 라고 해 쫘으면서 서로가 이제 어 음.}

10802 # 머 지쫘 여니 마~이 올라가도록언자 이리하고 이래싼는데. {뭐 각자 연이 많이 올라가도록 이제 이리하고 이래 쫘았는데.}

10802 # 그래참 우예띄우다보믄 머 바라미나 우예 잘몬뽕고하믄 머 니연하고 내연하고 머 갱기가주고. {그래 참 어찌 띄우다 보면 뭐 바람이나 우찌 잘 못 불고 하면 뭐 네 연하고 내 연하고 뭐 엉겨 가지고.}

10802 # 이래가주고 서로 인자 어 연자새에다가 실로언자 가마부치믄. {이래 가지고 서로 이제 어 열레에다가 실을 이제 감아 붙이면.}

10802 # 시:리 떠러지고 이런사실또 이서서요. 이선는데. {실이 떨어지고 이런 사실도 있었어요. 있었는데.}

10802 # 그러구러하다가언자 꺾이 느러가주고 시:레다가언자. {그러구러 하다가 인제 꺾이 들어 가지고 실에다가 인제.}

10802 # 머 미:인다캔노? {뭐 먹인다고 했니?}

10802 @ 새금파리. # 아 새금파리하고 유리하고 깨:가주고. @ 예. {사금파리. # 아 사금파리하고 유리하고 깨 가지고. @ 예.}

10802 # 거:다가 풀칠로 해:가주고 거:다언자 시:레다가언자 사기미:인다캐 그거로언자. {거기다가 풀칠을 해 가지고 거기다 인제 실에다가 인제 사금파리를 먹인다고 해. 그걸로 인제.}

10802 # 사기르 이리 땡:미기노오므 그래가주고 상대바~아 연날린 사라문 사기미인줄또 모리고. {사기를 이리 떡 먹여 놓으면 그래 가지고 상대방 연날린 사람은 사기 먹인 줄도 모르고.}

10802 # 이래가언자 가치 이래가주고 머 연자새로 이래가 획:편지가주고. {이래서 인제 같이 이래 가지고 뭐 연 열레로 이래서 획 던져 가지고.}

10802 # 저쪽사람연 주레거:다가 걸치가주고 이래 땡기가주고 이리가언자 바람씨:게 불때마 우리저 니썰내실 싸암하자 이래가주고. {저쪽 사람 연줄에 거기다 걸쳐 가지고 이래 당겨 가지고 이래서 이제 바람 세게 불 때 뭐 우리 저 네 실 내 실 싸움하자 이래 가지고.}

10802 # 마 우예가 미련따가 땡긴따가 이래함 마 저쪽 상대바~아 저 시리 끄너저뿌리거등네. {뭐 어찌해서 밀었다가 당겼다가 이리 하면 뭐 저쪽 상대방 저 실이 끊어져 버리거든요.}

10802 # 그래머 끄너저뿌림: 마 지 맘대로 머 떠러저가뿌리고 허 이:케 마~이 해:서요. {그래 뭐 끊어져 버리면 뭐 제 마음대로 뭐 떨어져 가 버리고 허 이렇게 많이 했어요.}

10802 # 마~이하고 음 머 그런 장나~이고 머 모든거슨 머 보통이지요머. {많이 하고 음 뭐 그런 장난이고 뭐 모든 것은 뭐 보통이지요 뭐.}

10802 @ 그럼 아까 여:니 구무연하고 가부리여~이라고 말씀하셧는데예. # 예. {그럼 아까 연이 방패연하고 가오리연이라고 말씀하셧는데요. # 예.}

10802 @ 먼저: 아마 가부리여니 만들기가수어릴줄꺼 각꺼등네. # 글:치요. {먼저 아마 가오리연이 만들기가 쉬웠을 것 같거든요. # 그렇지요.}

10802 @ 가부리여늘 우찌 만드런는지 설명쫘 해주이소. {가오리연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설명 쫘 해 주십시오.}

10802 # 가부리여느느언자 고기. {가오리연은 이제 그게.}

10802 # 머라크꼬? @ 가부리연말썸. # 사 상가경이고. {뭐라고할까? @ 가오리연 말썸. # 사 삼각형이고.}

10802 # 가부리매:치로 상가경이 데 데:가 이서끼따무네. {가오리처럼 삼각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10802 # 가부리여는 맹글때 인자 대를 가부리맨치로 요리 도랏:타~이 요래 맹그러가주고. {가오리연은 만들 때 이제 대를 가오리처럼 이리 두렛하게 이리 만들어 가지고.}

10802 # 고:다가 귀달고 요래언자 고 복파네하고 가:새하고 요 언자 심드:가능거는 똑가치하고언자 요 웅가글 널때언자 도론타~이 해가주고. {거기에다가 귀 달고 이리 이제 그 복 판에하고 가장자리하고 여기 이제 심 들어가는 거는 (방패연과) 똑 같이 하고 이제 여기 윤곽을 널 때 이제 또렛하게 해 가지고.}

10802 # 고언자 쫘지하고 대가리하고 고고는 질구로해가: 쫘뻘:타~이 쫘지지도 쫘뻘타~이 나오고. {거기 인제 꼬리하고 대가리하고 그거는 길게 해서 뽕족하게 꼬리도 뽕족하게 나오고.}

10802 # 대가리도언자 쫘뻘, 영: 어 가부리맨치로 고로케 대:가익꺼등네. {대가리도 인제

뽕죽, 영 어 가오리처럼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10802 # 고래가언자 양쪽귀에는 언자 귀단다커고시는언자 종이로언자 쭈뼛쭈뼛하~이 그래가언자귀거치 요래가 나풀나풀하~이 하고. {그래서 인제 양쪽 귀에는 인제 귀 단다고 하고서는 인제 종이를 이제 쭈뼛하게 그래서 인제 귀같이 이래 가지고 나풀나풀하게 하고.}

10802 # 인자 대가리는 인자 고 저 그 살로 쪼:금 질게빠가주고 켈쫘:하~이 요래가뚝 조:디매:치로 가부리조디매~치로 요로케 딱 멩글고. {인제 대가리는 인제 그 저 그 살을 조금 길게 빠 가지고 길쭉하게 이래서 딱 주둥이처럼 가오리 주둥이처럼 이렇게 딱 만들고.}

10802 # 꼬랑대~이도언자 고러케 멩그러가언자 고래 쫘지를 부쳐노~이까네 고 쪼뽕탕게 벨 포가 안나고 고로케 멩글고. {꼬리도 이제 그렇게 만들어서 이제 그렇게 꼬리를 붙여 놓으니깐 뽕죽한 게 별 표가 안 나고 그렇게 만들고.}

10802 # 구무여~이라커능거느 딱 사가경을 해가주고. {방패연이라고 하는 거는 딱 사각형을 해 가지고.}

10802 # 뚝:까치 요래가주고 어: 사가경을 해가: 네모재비 요래 딱 멩그는데 항:뜨언자 구무여~이라커능기 복파네 구무를 떨어가주고 고래가언자 구무여~이라 크고, 고러케 대:요. {뚝 같이 이래 가지고 아 사각형을 해서 네모잡이 이리 만드는데 ?? 인제 방패연이라고 하는 게 복판에 구멍을 뚫어 가지고 그래서 이제 방패연이라고 하고. 그렇게 돼요.}

10802 @ 연 만들라카면 연사리 피로 안합니까? # 예. {연 만들려고 하면 연살이 필요하잖습니까? # 예.}

10802 @ 연사를 주로 머:가꼬 만드런썬니까? {연살을 주로 뭐 가지고 만들었습니까?} # 주로 대로가: 만들거등네. {주로 대를 가지고 만들거든요.}

10802 @ 대도 그냥 대가익꼬 그다:메 시늬:때 시늬:때라 쟁거 안인썬니까? 참때라캄니까? 머:라. {대도 그냥 대가 있고 그 다음에 식대 식대라고 하는 게 있잖습니까? 참대라고 합니까? 뭐라(고 하는지).}

10802 @ 그냥대하머는 여:좀 뽕뽕타고 시누릴때 시늬:때카능고거. # 시누릴때. @ 시누릴때예. {그냥 대하면은 여기 좀 뽕뽕하고 식대 식대라고 하는 그거. # 식대. @ 식대요.}

10802 @ 고거는언자 마디가자가가꼬. # 예. 주로시늬때가 마~이헐쥬요. @ 예. {그거는 이제 마디가 작아 가지고. # 예. # 주로 식넛대로 많이 했쥬요.}

10802 # 요:는 참대도 이썬꼬 시늬때도 이썬끼따무네. {여기는 참대도 있었고 식대도 있었기 때문에.}

10802 # 주로마 크참 머 금시 마랜파나 누~이 참대는 누~이 좀 마~이 불거지고 굴끼 따무네. {주로 뭐 참 뭐 금시 말했던 것처럼 눈이 참대는 눈이 좀 많이 불거지고 굽기 때문에.}

10802 # 시누릴때는 가늘기 따무네 누~이 덜 불거졌따고 해가주고 주로 시누릴때로가 마이해쥬요. 사르느. {식대는 가늘기 때문에 눈이 덜 불거졌다고 해 가지고 주로 식대로 많이 했쥬요. 살은.}

10802 @ 그라고연사:리 구무연하고 가부리연하고 살갱쭈가 다르지예? {그러면 연살이 구무연하고 가오리연하고 살 갯수가 다르지요?}

10802 @ 가부리연은 호아능거 하나하고 요:함 두개만 하면안 됩니까? {가오리연은 휘는 거 하나하고 요기 한 번 두 개만 하면 안 됩니까?}

10802 # 두개로가도 안대: 가부리연은. 아, 가부리연은:. @ 두개만 하면 되고? {두 개를 가지고도 안 돼. 가오리연은. 아, 가오리연은. @ 두 개만 하면 되고?}

10802 # 세개: 해야데지예. {세 개 해야 되쥬요.}

10802 # 요래 지:나래 하나하고. @ 예. {요렇게 긴 살(?) 하나 하고. @ 예.}

10802 # 후:능거 하나하고. @ 예. {휘는 거 하나 하고. @ 예.}

10802 # 요요 또 요기하나 나가야 그 빠빠타~이 기도 달고 이라지. @ 아 가운데 하나더 인네예? # 네, 드리 가야지. {여기 또 여기 하나 나가야 그 뽕뽕하게 귀도 달고 이리. @ 아 가운데 하나 더 있네요? # 네, 들어가야지.}

10802 @ 근데 구무여는 사리마늘깎니다, 아마. {그런데 방패연은 살이 많을 겁니다, 아마.}

10802 # 구무여느는. {방패연은.}

10802 @ 구무여는 이 구무가 익꼬 요래하나 일찌예? {구무연은 이 구멍이 있고 이리 하나 있지요?}

10802 # 부래 하나익꼬 요래 하나익꼬. {?에 하나 있고, 요래 하나 있고.}

10802 # 예. {예.}

10802 @ 요:도 하나익꼬 우게. 요:래 실 매:야 땔꺼아임니까? # 예. {여기도 하나 있고 위에. 이리 실 매야 땔 거 아십니까? # 예.}

10802 @ 구무여네도 여게 여게 쑤지답니까? {구무연에도 여기 여기 꼬리 답니까?}

10802 # 다능견또 익꼬 그:는머 찹업서예. 달고저부른 달고. {다는 것도 있고 그거는 뭐 찹 없어요. 달고 싶으면 달고.}

10802 # 오:새보른 저 연떠우는데 보른 요로케 쑤지를 다라가주고 요래가 마~이 하더라꼬 예. {요새 보면 저 연 띄우는 데 보면 이렇게 꼬리를 달아 가지고 이리 많이 하더라구요.}

10802 # 그당시에 우리가 맹글때는 안다랴서예. {그 당시에 우리가 만들 때는 안 달았어요.}

10802 @ 안달고도 잘듭니까? # 예. {안 달고도 잘 땡니까? # 예.}

10802 @ 저는 어릴때 (웃음) 구무연 이노무 함번 만드러가꼬 떠아능게 소원인데. {저는 어릴 때 (웃음) 방패연 이놈을 한 번 만들어 가지고 띄우는 게 소원인데.}

10802 @ 제소느로 만드러가꼬 성공한저기 업써예, 이라모 축쳐바키뿌고. {제 손으로 만들어 가지고 성공한 적이 없어요. 이렇게 하면 축 쳐박혀 버리고.}

10802 # 아~이 쳐바키능거는 실 인제 요:조정하기 대로가는데. {아니 쳐 박히는 거는 실 이제 여기 조정하기대로 가는데.}

10802 # 요:개무꾸고 요:개 무꾸고 요래 내나트로 무꾸는데. {여기 묶고 여기 묶고 이리 네 가닥으로 묶는데.}

10802 # 고:서 내나트로 딱 무까가주고언자 그 연실로 다래야 데거등. {거기서 네 가닥으로 딱 묶어 가지고 이제 그 연실을 달아야 되거든.}

10802 # 고기 압시리 대:이 짜리든 올라가든 아푸로 수거지고. {그게 앞실이 되게 짧으면 올라가면 앞으로 숙여지고.}

10802 # 압시리 질:든 디로 재저지고. {앞실이 길면 뒤로 젖혀지고.}

10802 # 그래~이까네 그 조종을 자래야 구무여~이거나 가부리여~이거나 거기 시:레 고게 조정이 이써가주고 올라가고 드롤러간데 고: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깐 그 조종을 잘 해야 방패연이나 가오리연이나 거기 실에 거기에 조정이 있어 가지고 올라가고 땔 올라가는 데 거기 차이가 납니다.}

10802 @ 그 아까도 윤노리 말씀 하셧는데예. {그 아까도 웃놀이 말씀 하셧는데요.}

10802 @ 그 윤노리 인제 노는 연나래 노란 노라보셧편 경험담 아닌쑤니까? 어릴때. {그 웃놀이 이제 노는 옛날에 놀았 놀아 보셧던 경험담 있쑤습니까? 어릴 때.}

10802 @ 아~이모 요즘도 조쑤니다. 고: 경험담 함쑤 들려주이소. 윤노리예. {아니면 요즘

도 좋습니다. 그 경험담 한 번 좀 들려 주십시오.}

10802 # 윤노리며 노리라 캐바야 그저머 장난사마 노능거. {웃놀이 뭐 놀이라고 해 봐야 그저 뭐 장난삼아 노는 거.}

10802 # 머 우리가 놀:때는 음 머 참 어불리가주고 명저리나 추서기나 이래가언자. {뭐 우리가 놀 때는 음 뭐 참 어울려 가지고 명절이나 추석이나 이리 이제.}

10802 # 참 머 딸네들하고 이래 어불리가주고 이래 놀:때는. {참 뭐 딸네들하고 이리 어울려 가지고 이리 놀 때는.}

10802 # 그 머 벨 흥분도업써 이래노란꼬. {그 뭐 별 흥분도 없이 이리 놀았고.}

10802 # 요즈른 오:새 노는데 가만보른 머 이 일전도 도~이라꼬 대:노코 노능거하고. {요즘은 요새 노는 데 가만 보면 뭐 이 일전도 돈이라고 대 놓고 노는 거 하고.}

10802 # 그저 기양 노능거하고 그차이도 마~이나고 이런데, 음. {그저 그냥 노는 거하고 그 차이도 많이 나고 이런데, 음.}

10802 # 머 노능기 머 별땅기 이썸니까? {뭐 노는 게 뭐 별 다른 게 있습니까?}

10802 # 그머 주로언자 이기고 지:고 하는데 거게언자 성부~이 달랏:찌. {그 뭐 주로 인제 이기고 지고 하는 데 거기에 인제 성분이(승부가) 달렸지.}

10802 # 머 도늘 가주고 성부늘가져 하는건또 아~이고. {뭐 돈을 가지고 성분을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10802 # 그래인자 놀다가보른 우예가 아페가는 마리 머 죽찌도 안하지 시퍼도다:에 노는 사라미 우예 잘노라 가문 모하고 또하고 개하고 이래가주고 잠는수가 마~이 이꺼등네. {그래 인제 놀다가 보면 어찌해서 앞에 가는 말이 뭐 죽지도 안하지 싶어도 뒤에 노는 사람이 어찌 잘 놀아 가면 모하고 도하고 개하고 이래 가지고 잡는 수가 많이 있거든요.}

10802 # 그래이까네 거게언자 용기가 서로가 이길라고 용기를 내고 언자 이래사타가 보른. {그러니깐 거기 이제 용기가 서로가 이기려고 용기를 내고 이제 이리해 썰다가 보면.}

10802 # 참 머: 원시개도 데고 장난도 데고, 그러케 마~이노련서요, 머. {참 뭐 우스개도 되고 장난도 되고, 그렇게 많이 놀았어요, 뭐.}

10802 @ 그 상대방하고 윤노리해 가지고 기어기 어떻습니까? {그 상대방하고 웃놀이 해 가지고 기억이 어떻습니까?}

10802 @ 이길 기어기 만습니까 아~이며는 징 기어기 만습니까, 어떠습니까? {이길 기억이 많습니까 아니면은 진 기억이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10802 # 머 이길 그이 하로만 놀고 마는건또 아~이고. {뭐 이길 그제 하루만 놀고 마는 것도 아니고.}

10802 # 그건또 머 서:레거트먼 머 한녀를석 놀거등네. {그것도 뭐 설에 같으면 뭐 한 열흘씩 놀거든요.}

10802 # 그저 머 여를또 놀때도 익꼬 그 머 대소가, 지반사암뜰 어불리아 놀:때는. {그저 뭐 열흘도 놀 때도 있고 그 뭐 대소가 집안 사람들 어울려서 놀 때는.}

10802 # 마한대엿새까지는 참머채가온사람친정온사람이리어불리놀든. {뭐 한 대엿새까지는 참 뭐 처가 온 사람 친정 온 사람 이리 어울려 놀면.}

10802 # 머 이길때도 익꼬 질때도 익꼬 머머 만날글:치요. {뭐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고 뭐뭐 만날 그렇지요.}

10802 # 그래가주고 머 늘: 위:꼬 목꼬 이래 ** 지넵니다. {그래 가지고 뭐 늘 웃고 먹고 이리 ** 지넵니다.}

10802 @ 윤판은 어디에 우째 그런썸니까? 윤판. {윗판은 어디에 어떻게 그렸습니까? 윗판.}

10802 # 아 윤 노는데 말꾸영 실:라꼬 판늘. {아 윗 노는 데 말구멍 쓰려고 판을.}

10802 @ 예. 판이 동그란. # 예. @ 기리나야 텔꺼 아임니까? # 예. {예. 판이 동그란. # 예.}

10802 @ 그려 놓아야 될 거 아닙니까?

10802 @ 종이에 기림니까, 아~이면 덕씨기에 기림니까? {종이에 그림니까, 아니면 명석에 그림니까?}

10802 # 주로언자 장난사마언자 친척기 어불리가 놀몬. {주로 이제 장난삼아 이제 친척이 어울려서 놀면.}

10802 # 큰 조~이에다가 창호지조~이에다가 언자 말꾸영을 기리노코. {큰 종이에다가 창호지 종이에다가 이제 말구멍을 그려 놓고.}

10802 # 방아네 이리 놀고 그라이몬 나리나 좀 따시고 이래 놀라크몬 마다~에 덕시기에다가. {방 안에 이리 놀고 그게 아니면 날이 좀 따뜻하고 이리 놀려고 하면 마당에 명석에다가.}

10802 # 언자 말꾸영을 기리노코 이래 놀고 그래 마~이 놀지요. {이제 말을 그려 놓고 이리 놀고 그리 많이 놀지요.}

10802 @ 그람:자 덕시기에다가 그리물 그리노코 판늘 그리노코 놀때는. {그럼 이제 명석에다가 그림을 그려 놓고 판을 그려 놓고 놀 때는.}

10802 @ 그라몬언자 유까치 이걸 가따가 소네들고 던집니까, 아~이머는 종지에 너어가지고 요래요래 가꼬 우째 던집니까? {그러면 이제 윗가락 이걸 갖다가 손에 들고 던집니까, 아니면은 종지에 넣어 가지고 요래요래 해서 어떻게 던집니까?}

10802 # 그 방아네서 언자 친척끼리 노능거는. {그 방 안에서 이제 친척끼리 노는 거는.}

10802 # 오새 지다:쿠만 무신 유청고 지 진 유치고. {오새 기다란 뭘 윗인가, 긴 윗이고.}

10802 # 언자 배거테: 덕시기에서 노:능거는 밤:유치라고 해가주고. {인제 바깥에 명석에서 노는 거는 밤윗이라고 해 가지고.}

10802 # 저 종바리에 다머가언자 놀고. {저 종지에 담아서 인제 놀고.}

10802 # 주로언자 바~아네서 노능거는 그이 언자 징:거는 채유치라크능거거등네, 채웁. {주로 이제 방 안에서 노는 거는 그게 이제 긴 거는 채윗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채윗.}

10802 # 채웁 그거는 소느로 거머쥐고 내편지고 일으키함:더. {채윗 그거는 손으로 검어쥐고 내던지고 이렇게 합니다.}

10802 @ 그 덕시기 놀때에 덕시기 바께 나가몬 머 나기다 그래가지고 거:는 죽꼬 하는 이렇건 업썸습니까? {그 명석 놀 때에 명석 밖에 나가면 뭘 낙이다 그래 가지고 그거는 죽고 하는 이런 건 없었습니까?}

10802 # 왜 옼나레는 덕시기 배꺼테 나가몬 한까치라도나가몬 참 나기 대:뿌리고. {왜 옛날에는 덕석 바깥에 나가면 한 가락이라도 나가면 참 낙이 되어 버리고.}

10802 # 요즈몬 머 한두가치 나아가는 나기 안데고. {요즘은 뭘 한두 가락 나가서는 낙이 안 되고.}

10802 # 언자참 그 대충 그 덕시기에라도 그기 낙정도로 기리노응거 너메만 가뿌리몬 나기 안데고. {이제 참 그 대충 그 명석에라도 그게 낙 정도로 그려 놓은 그 넘어만 가 버리면 낙이 안 되고.}

10802 # 옼나레 우리 놀때는 한가치만 덕석 바께 나가몬 나기 데고 이리대:썸요. {옛날에 우리 놀 때는 한 가락만 명석 밖에 나가면 낙이 되고 이리 되었어요.}

10802 @ 예:, 그 어르신 팽이치기도 해보셔썸니까? {예, 그 어르신 팽이치기도 해 보셨습니까?}

10802 # 꽤~이도 거진들 처받쥬. {팽이도 거의들 처 봤쥬.}

10802 # 꽤~이 그거는 (기침) 그 저네 우리 따다머가이 이래 친는데. {팽이 그거는 (기침) 그 전에 우리 다듬어서 이래 친는데.}

10802 # 주로 그:는언자 우리는 판데는 어터케 하능가 몰라, 소나무로가 마~이 따다머는 데. {주로 그거는 이제 우리는 판 데는 어떻게 하는가 몰라, 소나무를 가지고 주로 많이 다듬었는데.}

10802 # 소나무 빨거지로 가주고 따다머 머그래가 그런지 머 우예가 그런지 모르겜쩌마는. {소나무 뿌리를 가지고 다듬으면 뭐 그래서 그런지 뭐 어찌 그런지 모르겠지만.}

10802 # 소나무 빨거지 보든 속까지라커능기 부터일따고예. {소나무 뿌리 보든 속까지라고 하는 게 붙어 있다고요.}

10802 # '그 속까지 팽배~이는 마이 운다.' {'그 속까지 팽이는 많이 운다.'}

10802 # 이래가주고 우리가 그: 우리클때마 해도 오새보단 치부가 참마넌꺼마느요. {이래 가지고 우리가 그 우리 클 때만 해도 요새보단 추위가 많았구만요.}

10802 # 마내가주고 그래 저 연모세 저런데 가가주고. {많아 가지고 그래 저 연못에 저런 데 가 가지고.}

10802 # 머 마다~에 이런데 치다가 마 연모세 마~이 चु꼬 이라든 으름도 두껍게 여럿썸 머 연모세 가 꽤~이 치든 마~이 잘 구부거등네. {뭐 마당에 이런 데 치다가 뭐 연못에 많이 चु고 이러면 얼음도 두껍게 얼었으면 뭐 연못에 가 팽이치면 많이 잘 돌아가거든요.}

10802 # 그래가주고 그: 가가주고 쳐보든 우예 마~이 이래 대기 시게 때리노며 '웅::' 커는 수가 이서예. {그래 가지고 거기 가 가지고 쳐 보든 어찌 많이 이리 되게 세게 때려 놓으면 '웅' 하는 수가 있어요.}

10802 # 그리~이 나는 팽배~이로 술까지로가 따다머끼 따무네 마~이 운다. {그러니 '나는 팽이를 속까지로 다듬었기 때문에 많이 운다.'}

10802 # '나는 속까지로 안따다머끼 따무네 덜 운다.' {'너는 속까지로 안 다듬었기 때문에 덜 운다.'}

10802 # 이런 소리도 하고 머: 사시든 그렁가 양그렁가 그진 잘 모리게서요. {이런 소리도 하고 뭐 사실은 그렁가 안 그렁가 그진 잘 모르겠어요.}

10802 # 그래가주고 마다~에서도 놀다가 연모세 가가:도 놀다가 그래 마~이 노라서요. {그래 가지고 마당에서도 놀다가 연못에 가서 놀다가 그래 많이 놀았어요.}

10802 @ 아까 저 소나무 빨거지르 가지고 어 팽배~이를 마~이 만든다, 그런 말씀하셧는데. # 예. @ 그라든 속까지는 또 뭘니까, 그라든? {아까 저 소나무 '빨거지'를 가지고 어 팽이를 많이 만든다, 그런 말씀 하셨는데. # 예. @ 그러면 '속까지'는 또 뭘니까, 그러면?}

10802 # 속까지라커능기 머라크노? {'속까지'라고 하는 게 뭐라고 하니?}

10802 # 그 소나무가 늘그든 관:술커능기 텐다꼬예. {그 소나무가 늙으면 관술이라고 하는 게 된다고요.}

10802 # 오새 그 예린 소나무는 관소리 업꼬. {요새 그 어린 소나무는 관술이 업고.}

10802 # 그 나무가 좀 크:고 뭇썸년텅거는. {그 나무가 좀 크고 뭇 십 년 된 거는.}

10802 # 뿌리나 중가~에나 그 퀘~이자테 이리 끄너보든 관:소리 배기가 이서예. 그:를인자 관:소까지라카거등네. {뿌리나 중간에나 그 웅이 곁에 이리 꿰어 보면 관술이 박혀 있어요. 그거를 이제 관술가지라고 하거든요.}

10802 @ 예. 그라문언자 고거는 채로 가꼬 치능거 아릅니꺼이? # 예. {예. 그러면 이제 그거는 채를 가지고 치는 거 아릅니꺼이? # 예.}

10802 @ 그거 말고 줄로 가마가지 하능거 이렇겐 업썸썸니까? 팽이 중에서도. {그거 말고 줄을 감아서 하는 거 이런 건 없었습니까? 팽이 중에서도.}

10802 # 고거는: 우리가 만드러가:는 고렇게 업썸썸. {그거는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는 그런 게 없었고.}

10802 # 요 우리가 만드러 할때는 그렇기 업썸는데. {요 우리가 만들어 할 때는 그런 게 없었는데.}

10802 # 요 디:에 우리가 꽤~이를 안칠 그 당시에는 참 머: 사가왈따커모시너 고 가마가지 고마 땡기든지 밀든지 하~이칸 도러가고 이런사시리 인능거는 우리는 받서요. {요 뒤에 우리가 팽이를 안 칠 그 당시에는 참 뭐 사서 왔다고 하면서 그거 감아 가지고 뭐 당기든지 밀든지 하니깐 돌아간 이런 사실이 있는 거는 우리는 봤어요.}

10802 # 보고 우리가 땡그능건또 꽤~이치는 주리익꼬 꼬재~이 일따아임니까? {보고 우리가 만드는 것도 팽이 치는 줄이 있고 꼬챙이도 있잖습니까?}

10802 # 꼬재~에다가 줄로 매:가주고 이리언자 하는데. {꼬챙이에다가 줄을 매어 가지고 이리 인제 하는데.}

10802 # 우리가 할때는 그르키 안하고 주:레 매:는 그르네끼에다가 팽배~이에 가마가주고 이리 땡지른 이리 탁 치른 도러가고 그리땡:서요. 예. {우리가 할 때는 그렇게 안 하고 줄에 매 놓은 그 끈에다가 팽이에 감아 가지고 이리 던지면 이리 탁 치면 돌아가고 그리 되었어요. 예.}

10802 # 요즈믄 머 이래 채도 업썸 이래가주고 삭: 돌리믄 테는수가 일때요. {요즘은 뭐 이리 채도 없이 이래 가지고 삭 돌리면 되는 수가 있데요.}

10802 @ 예. 그리고 옴나레 흑씨 이동네에서는 고싸움카능거능 안햐썸니까? 고싸움. {예. 그리고 옛날에 흑씨 이 동네에서는 고싸움이라고 하는 거는 안 했습니까?}

10802 @ 고로 부치가지고 서로 이래 하는 이렇거. {고를 붙여 가지고 서로 이래 하는 이런 거.}

10802 # 그렇거 몬받서예. @ 예. {그런 거 못 봤어요. @ 예.}

10802 @ 널뛰기는 주로 인자 여자드리 하지마는데. {널뛰기는 주로 인제 여자들이 하지마는요.}

10802 @ 그 주위에서 널뛰능거는 어르신도 마~이 보썸썸꺼 아릅니꺼? # 예. {그 주위에서 널뛰는 거는 어르신도 많이 보썸썸 것 아릅니까? # 예.}

10802 @ 널뛰기하능 그 어릴때 그 모스블함 번 아라드를수 인또록 저히드리 좀 말썸해 주이소. {널뛰기 하는 그 어릴 때 그 모습을 한 번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말썸해 주십시오.}

10802 @ 널로 펄라캄 일판 구덩이를 썸파고 썸썸 도둑하~이 해야 텔꺼 아릅니까? # 예. {널을 뛰려고 하면 일단 구덩이를 썸 파고 조금 도둑하게 해야 될 거 아릅니까? # 예.}

10802 @ 예 고:부터 해가지고 말쓰믄 썸 해주이소. {예 거기부터 해 가지고 말쓰믄 썸 해주십시오.}

10802 # 그언자 널:파늘 채릴라커믄. {그 이제 널판을 차리려고 하면.}

10802 # 인자참 금시 말썸마:파나 양썸근 썸 지퍼야데고 복파~이 썸 도터야 이 널파~이 이자 꺾들꺾들 캐야 데거등뇨. {이제 참 금시 말썸마파나 양썸은 썸 깊어야 되고 복판이 썸

돌아야 이 널판이 이제 건들건들해야 되거든요.}

10802 # 그 그 널파이~라커능거는 꾀들:꾀들:캐야 언자그 반동시메 사라미 올라가고 내려 오고 언자이리대거등네. {그 널판이라고 하는 거는 건들건들해야 이제 그 반동 힘에 사람이 올라가고 내려오고 이제 이리 되거든요.}

10802 # 그러~이언자 구디기도 널판캉 탁: 만또록 구디야 파야 데지. {그러니 인제 구덩이도 널판과 탁 맞도록 구덩이(를) 파야 되지.}

10802 # 그이 머 도리나 널판 미테 도리나 하나 낀따꼬하든지 그 이 미틸끼 안바리다고 할꺼거트른. {그게 뭐 돌이나 널판 밑으로 돌이나 하나 끼었다고 하든지 그 이 밑에 게 안바르다고 할 거 같으면.}

10802 # 널파~이 탁 바로 안내려오고 삐క్క삐꼬등 이리 내려오믄 그이 아까 애치키로가 풀 비믄 떨:드시 떨그등네. {널판이 탁 바로 안 내려오고 삐걱삐거덩 이리 내려오면 그게 아까 예초기를 가지고 풀 베면 떨듯이 떨거든요.}

10802 # 그러키 따무네 고:미테 에 바침도 탁 골러야 데고. {그렇기 때문에 그 밑에 에 받침도 탁 골라야 되고.}

10802 # 또 복판네 널판 그 머 비게라커나 복판네 그건또 탁 영판 발라야 데고. {또 복판에 널판 그 뭐 베개라고 하나 복판에 그것도 탁 아주 발라야 되고.}

10802 # 이래 해 언자 그 참머. {이래 해 인제 그 참 뭐.}

10802 # 그 당시에 우리 장난도 좀 더러 천서요, 널 뛰는데. {그 당시에 우리 장난도 좀 더러 쳤어요, 널 뛰는 데}

10802 # 그러~이 땡:탕 다리~이 널뛰는데 지는 떨쭈또 모리능기 심술재~이맨치로 복판네 올라가자주고. {그러니 땡탕 다른 이 널뛰는 데 자기는 떨 줄도 모르는 게 심술쟁이처럼 복판에 올라가 가지고.}

10802 # 나:가 잘한다 내:가 잘한다커면 널복판네 올라서가 이래해사면. {네가 잘 한다 내가 잘 한다고 하면서 널 복판에 올라서서 이렇게 해 쌓으면.}

10802 # 또 그쪽:서는 머라커능가커믄 '와 널 복판 여: 서가 이시믄 너금매 그 적꼭찌 물러진대이.' (웃음) {또 그쪽에서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왜 널 복판 여기 서서 있으면 너희 엄마 젓꼭지 물러진다.' (웃음)}

10802 # 이런 이약또 한다꼬요. {이런 이야기도 한다꼬요.}

10802 # 자꾸언자 심술장나늘 자꾸 해 사니까네. {자꾸 이제 심술 장난을 자꾸 해 쌓으니깐.}

10802 # 그러~이 널띠고 이래 싸으믄 머 니가 잘한다 내가 잘한다 캐사믄 올라간사람 머 뽕뽕고 몬올러가구로도 하고. {그러니 널 뛰고 이리 해 쌓으면 뭐 네가 잘 한다 내가 잘 한다고 해 쌓으면 올라간 사람 뭐 붙들고 못 올라가게도 하고.}

10802 # 이런 장난도 마~이 하고 예, 그래 재밌게 잘노란서예. @ 예. {이런 장난도 많이 하고 예, 그래 재밌게 잘 놀았어요. @ 예.}

10802 @ 그 머 투호라 그래 가지고 이런 그 옹기그를 병가통거 이거 옹기그를 나:날코저:멀리서 이러케 편지고 꾀피능거. {그 뭐 투호라 그래 가지고 이런 그 옹기 그릇 병 같은 거 이거 옹기 그릇 놓아 놓고 저 멀리서 이렇게 던지고 쫓히는 거.}

10802 @ 그렇거는 안했습니까? # 안해서요. @ 예. {그런 거는 안 했습니까? # 안 했어요. @ 예.}

10802 @ 그라믄 인자 정월대보름되믄는 달집그 하능게 안큔니까, 그지예? # 예. {그러면 이제 정월 대보름되면 달집 그 하는 게 크잖습니까, 그렇지요? # 예.}

10802 @ 어 그:는 어제그제도 그 말씀 쫘 하셔씀니다마는. {어 그거는 어제 그제도 그 말씀 쫘 하셨습니다만은.}

10802 @ 달집지을때 고 풍경들 고 함번더 말씀 더 해주이쇼. {달집 지을 때 그 풍경들, 그거 한 번 더 말씀 더 해 주십시오.}

10802 # 주로 머 달집 지을때는 주로언자 참머. {주로 뭐 달집 지을 때는 주로 인제 참 뭐.}

10802 # 우리클때 한참 클때는 머 다 우리가 일꾸~이고 그언자 주로 일꾼드리 마~이언자 그래하는데. {우리 클 때 한참 클 때는 뭐 다 우리가 일꾼이고 그 인제 주로 일꾼들이 많이 인제 그래 하는데.}

10802 # 참 머 밥 아홉끄를 목꼬 나무 아홉점 하라커고. {참 뭐 밥 아홉 그릇 먹고 나무 아홉 짐 하라고 하고.}

10802 # 이래가언자 참 머 처으메 언자 우리가 나무로 속까불 언자 해가와야 데거등네. {이래서 이제 참 뭐 처음에 이제 우리가 나무를 술가지를 이제 해서 와야 되거든요.}

10802 # 해가 와가 간따노코 언자또 지불언자. {해 와서 갖다 놓고 인제 또 짚을 인제.}

10802 # 그 당시에마 해도 거르미 업기 따무네 비료도 업꼬 해가주고 지불 참 중하게 여긴거등네. {그 당시에만 해도 거름이 없기 때문에 비료도 없고 해 가지고 짚을 참 중하게 여겼거든요.}

10802 # 그언자 지불 가주고 주로 소미기고 그람 머 일해**기 따무네. {그 이제 짚을 가지고 주로 소 먹이고 그람 뭐 일해야 하기 때문에.}

10802 # 그 머: 너무 지불 한차메 한집 한짐도 몽까오고. {그 뭐 남의 짚을 한참에 한 짚 한 짐도 못 가져 오고.}

10802 # 집찌비 이지베으건또 한 땀:땀 저지베 건도 한땀:땀 이래가언자 거다:가주고 그래가 와가:. {집집이 이 집에 것도 한 땀단 저 집에 것도 한 땀단 이래서 인제 거뒀 가지고 그래 가지고 와서.}

10802 # 새끼도 꾸고 참 영기도 역꼬 이래 난:따가 지 속깎 다:해가 와가주고. {새끼도 꾸고 참 이영도 엮고 이리 놓았다가 자기 술가지 다 해서 와 가지고.}

10802 # 언자 대나 머 나무나 가주고 짹뚜꺼리로 떡: 해노으믄. {인제 대나 뭐 나무나 가지고 작두거리를 떡 해 놓으믄.}

10802 # 거:다 언자 속까불 꼬바가주고. {거기다 이제 술가지를 쫓아 가지고.}

10802 # 이래가: 달찌블 떡 언자 웅가글 찌아노으믄. {이래서 달집을 떡 이제 움막을 쫓아 놓으믄.}

10802 # 그 우에다가 언자 영기 여끈거로 가주고 돌리가주고 그래가 새끼로가언자 무까:가. {그 위에다가 인제 이영 엮은 거를 가지고 둘러 가지고 그래서 새끼로 이제 묶어서.}

10802 # 그래언자 난:따가언자 달뜨도록언자 시간대도록 기다린 태기지. {그래 인제 왔다가 인제 달 뜨도록 인제 시간 되도록 기다린 셈이지.}

10802 # 그래 기달레가언자 달 땀파시프믄 언자 짐부물 올리고 언자 거:다가 불로 찌르는데. {그래 기다려서 이제 달 떴다 싶으면 이제 징을(?) 올리고 이제 거기다가 불을 지르는데.}

10802 # 언자 그날 불찌른 사람 재쭈일따 이래가주고 그 누라도 불 머~이 찌는 사라믄 총각가툼:장개간다 이래가주고. {인제 그날 불 지른 사람 재수 있다 이래 가지고 그 누구라도 불 먼저 지르는 사람은 총각 같으면 장가 간다 이래 가지고.}

10802 # 그래 장난해가주고 그래 '너 아무꺼시금 찢러라. 금: 장개가구로 찢러라.' 이래가 언자 양보를 해주가 찢리믄. {그래 장난해 가지고 그래 '너 아무개 (불을) 질러라. 그럼 장

가 가게 질러라.' 이래서 이제 양보를 해 줘서 지르면.}

10802 # 어 장개는 다:에 갈끼고 그래그. {어 장가는 뒤에 갈 거고 그래 그.}

10802 # 참 다리~이 동네서 정신드리 지아농:거를 참 지가 불로 머~여 찢릴씨~이까네.
{참 다른 이가 동네서 정신들여 지어 놓은 거를 참 자기가 불을 먼저 질렀으니깐.}

10802 # 참: 술또 함말 내고 글:때 술함말 멍태 한때커른 그기: 체:고 큼기그등네. {참 술도 한 말 내고 그럴 때 술 한 말 멍태 한 채 하면 그게 최고 큰 거 거든요.}

10802 # 여: 우리 마시레 보른 엔나레 여: 우에 똥네 여: 동사~인네. {여기 우리 마을에 보면 옛날에 여기 윗동네 여기 동산인데.}

10802 # 아린똥네 술함말하고 멍태한태하고 주고 사늘 한 뉘 백평을 쉼:꺼등네. {아랫동네 술 한 말하고 멍태 한 채 하고 주고 산을 한 몇 백 평을 췌거든요.}

10802 # 그러트시로 그 당시에는 술함말하고 어 저 멍태한때하른 여내 멍태한때가 스무바리 아십니까? {그렇듯이 그 당시에는 술 한 말하고 어 저 멍태 한 채 하면 역시 멍태 한 채가 스무 마리잖습니까?}

10802 # 그래하른 그게 참:큰 그 그기라가주고 그래 참. {그리하면 그게 참 큰 그 그거라가지고 그래 참.}

10802 # 술또 함말내고 멍태한때 내고 이래 다묵꼬 그런 장난 다:해서예. {술도 한 말 내고 멍태 한 채 내고 이리 다 먹고 그런 장난 다 했어요.}

10802 @ 예. 아까 말씀 도중에예, 짹뚜꺼리라고 카션는데 짹뚜꺼리가 뭇니까? {예. 아까 말씀 도중에요, '짹뚜두거리'라고 하셨는데 '짹두거리'가 뭇니까?}

10802 # 짹뚜꺼리라커능거는. {'짹뚜거리'라고 하는 거는.}

10802 # 머 무진 소나무기나 대나무기나. {뭇 무슨 소나무이거나 대나무이거나.}

10802 # 세나치나 네나치나 이래: 무까가: 댁:벌린 그이 짹뚜꺼리라캄:다. {세 개나 네 개나 이리 묶어서 댁 벌린 그게 '짹뚜거리'라고 합니다.}

10802 @ 그라른 주로 대나무로가 핵겐네예. #예, 여:는 대가 마~이 익끼 따무네 대나무로가 마~이 헐쪼요. {그러면 주로 대나무로 했겠네요. #예, 여기는 대가 많이 있기 때문에 대나무로 많이 했쪼요.}

10802 @ 그러고 영개가꼬 둘리노코 불 그냥 다 타뿌모는 재미업썰게 물도 쫌뿌리고 이리 안헐쪼니까? {그러고 이영 가지고 둘리 놓고 불 그냥 다 타 버리면 재미 없으니까 물도 쫌뿌리고 이리 안 했습니까?}

10802 # 퍼:뚝 안탐니다. 안타능기 여:는 주로 생소까부를 해오거등뇨. {퍼뚝 안 탐니다. 안 타는 게 여기는 주로 생솔가지를 해 오거든요.}

10802 # 마린 소깨부도 아~이고 처으메언자 부터라꼬는 고: 지불 쫌 마~이 여코. {마른 솔가지도 아니고 처음에 이제 불으라고는 거기 짚을 쫌 많이 넣고.}

10802 # 그 우에는 다 점:부 생소까비기 따무네 머 빨리 태우저부도 모태 그러~이까네 그 부를 그 이튼날 아치메 가도 아이 그자리에 부리 인따고예. {그 위에는 다 전부 생솔가지기 때문에 뭇 빨리 태우고 싶어도 못 해. 그러니깐 그 불을 그 이튼날 아침에 가도 아직 그 자리에 불이 있다고요.}

10802 @ 예. 그러른 그거 달짹 그인자 달뜰때 안태웁니까? # 예. {예. 그러면 그거 달짹 그 이제 달 뜰 때 태우잖습니까? # 예.}

10802 @ 그그 줄땡기기는 운제 합니까,그라머는? 보통가치 안합니까, 그거? {그그 즐다리기는 언제 합니까, 그러면은. 보통 같이 하잖습니까, 그거?}

10802 # 우리 마시레는 머 주른 짜다라 마~이 땡긴 사실또 업꼬. {우리 마을에는 뭐 줄은 별스레 많이 다린 사실도 없고.}

10802 # 또 그 달찌비라커른 근:머 어느들 복판도 아~이고. {또 그 달집이라고 하면 그건 뭐 어느 들 복판도 아니고.}

10802 # 집 그 근처도 몬하고 그 당시에는 불랄까바도, 전시~이 초가지비기 따무네. {집 그 근처도 못하고 그 당시에는 불 날까 봐(서)도, 전신이 초가지집이기 때문에.}

10802 # 그러~이 조:꿈 마실하고 떠러진데 가가: 요래하기 따무네 그 머. {그러니 조금 마을하고 떨어진 데 가서 이리 하기 때문에 그 뭐.}

10802 # 학교거통기: 가차분데 이따고 할그툼 줄또 땡기고 머 하지마는. {학교 같은 게 가까운 데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줄도 다리고 뭐 하지만.}

10802 # 여:는 그털 형퍼~이 안데기 따무네 줄:그통거능 잘 안헐서요. {여기는 그털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줄 같은 거는 잘 안 했어요.}

10802 @ 예. 간혹 그 씨름도 그 헐파고 말씀하셧는데예. {예. 간혹 그 씨름도 그 했다고 말씀하셧는데요.}

10802 @ 씨름파네 기영나능거 어떻게 이썸니까? {씨름판에 기억나는 거 어떤 게 있습니까?}

10802 # 씨 역시 요지납시에 얘기하다시피 씨르미라 크능거느. {씨(름) 역시 요전 앞시에 얘기하다시피 씨름이라고 하는 거는.}

10802 # 머 각 부라게서 하능겅또 아~이고 그 멀래몬 멀래 이래 하몬. {뭐 각 부락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먼 내면 먼 내 이리 하면.}

10802 # 각 부라게서는 참 그 부라게서 내가 이만하몬 줌 힘도 제법시:다 어테가도 다 아러줄만하다. {각 부락에서는 참 그 부락에서 내가 이만하면 줌 힘도 제법 세다 어디 가도 다 알아줄 만하다.}

10802 # 이런 사라프는 그 시름파네 함번 나가거등네. {이런 사람은 그 씨름판에 한 번 나가거든요.}

10802 # 나아가주고 운수 이씨몬 흑씨나 머 이삼등이나 할랑가 이래가 가가언자 추참도 곁고. {나가 가지고 운수 있으면 흑씨나 뭐 이삼등이나 하려나 이래서 가서 이제 추참도 곁고.}

10802 # 추자물 곁므 추자메 곁린 사라몬 수:근도 한장 주고. {추참을 곁면 추참에 곁린 사람은 수건도 한 장 주고.}

10802 # 이름도 거게 언자 기로기 대:야 내이리라도. {이름도 거기에 인제 기록이 되어 내 일이라도.}

10802 # 언자: 추참곁린 사암:들 나와 나와가주고 예션해시몬여기또또 곁리몬 또저 삼선 올라가고 자꾸 이래야 데거등네예. {인제 추참 곁린 사람들 나와 가지고 예션했으면 여기 또또 곁리면 또 저 삼선 올라가고 자꾸 이래야 되거든요.}

10802 # 그러기 따무네 그저 머 우리 부라게 곁리가 인는 사람 이씨몬 내애라도 우리가 또 나:가바야 데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저 뭐 우리 부락에 곁려서 있는 사람 있으면 내일이라도 우리가 또 나가 봐야 되고.}

10802 # 우리 부라게 추자메 다 떠러저뿌:시몬 그 머 그저 기영하러 가몬 가고 말망: 이런 데. {우리 부락에 추참에 다 떨어져 버리고 없으면 그 뭐 그저 구경하러 가몬 가고 말만 (그뿐이고) 이런데.}

10802 # 곁리가 이씨몬 언지나 머 맨매치라도 그 사라미 떠러질 따:는 가야 땡니다. {곁려

서 있으면 언제나 뭐 몇몇이라도 그 사람이 떨어질 동안은 가야 됩니다.}

10802 # 그래가: 우리가 우리 부라게도 그 당시에 사등꺼지한 사라마 이썬따고예. {그래서 우리가 우리 부라게도 그 당시에 사등까지 한 사람이 있었다고요.}

10802 # 사등꺼징한 사라마 이썬는데 사등도 할라커므 마치는 그날까지 가야 데거등네. {사등까지 한 사람이 있었는데 사등도 하려고 하면 마치는 그 날까지 가야 되거든요.}

10802 # 가치 마치는 그날까지 가고 이라는데 그리대른 머 경비도 좀 마~이 납니다, 부라게서. {같이 마치는 그 날까지 가고 이러는데 그리 되면 뭐 경비도 좀 많이 납니다, 부라게서.}

10802 # 머 오:새도 그러치마는 오:새도 무진 머 공찬다든지 머로 한다든지 이리하믄. {뭐 요새도 그렇지만은 요새도 무슨 뭐 공찬다든지 뭐를 한다든지 이리하면.}

10802 # 그 떠러질 따:나까지 다: 가야 데기 따무네. {그 떨어질 동안까진 다 가야 되기 때문에.}

10802 # 그: 머: 처으:메 추자메 떠러저 뿌리믄: 머 별 쟁비 안지치마는. {그 뭐 처음에 추첨에 떨어져 버리면 뭐 별 쟁비 안 지지만은(안 들지만은).}

10802 # 머 이승까지 올라간다커른 자꾸 쟁비가 자꾸 나거등뇨, 그러트시로. {뭐 이승까지 올라간다고 하면 자꾸 쟁비가 자꾸 나거든요, 그렇듯이.}

10802 # 엠:나레도 씨름판네도 역시 오새: 공차능기나 시름파이~나 머 비스타지요, 머. {옛날에도 씨름판에도 역시 요새 공차는 거나 씨름판이나 뭐 비슷하지요, 뭐.}

10802 @ 예:.. 추자메 떠러진다는 마른 그: 내나 표에서 언자 진다 이 마립니까? 대기 부터 가지고. # 아~이 두 인자. {예. 추잠에 떨어진다는 말은 그 역시 표에서 이제 진다 이 말입니까? 대개 붙어가지고. # 아니 두 이제.}

10802 # 추잠으는 언자 둘:석둘:석 이리부터가 하는데. @ 예. {추잠은 이제 둘씩둘씩 이리 붙어서 하는데. @ 예.}

10802 # 추자미라커른 생너네언자 씨름도: 아내본 사라마고. {'추잠'이라고 하면 생전에 이제 씨름도 안 해 본 사람이고.}

10802 # 예:저네 올라가믄: 저사라마 씨르믄 어떠케 가라기 어떻가라글 가지인따 커능거를 알쭈 인찌마는 추자믄 생 처:미기 따무네. {예선에 올라가면 저 사람이 씨름을 어떻게 가락이 어떤 가락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를 알 수 있지만은 추첨은 생 처음이기 때문에.}

10802 # 그저: 머 지쭈 실력때로 해가주고 함분 딱 쥘뿌리믄 그그는 떠러저 뿌리고. @ 그 추참하는 거는 서로 제비뽑기하능기네예? # 예. @ 예. {그저 뭐 각자 실력대로 해 가지고 한 번 딱 쥘 버리면 그거는 떨어져 버리고. @ 그 '추참'하는 거는 서로 제비뽑기하는 거네요? # 예. @ 예.}

10802 # 그러~이 머 항끼 구불치문 지는 마 추자메 걸리능기고. 머 그럴심더. {그러니 뭐 함께 넘어뜨리면 자기는 뭐 추첨에 걸리는 거고. 뭐 그렇습니다.}

10802 @ 그 어르신 그 소싸움 항겔또 함번 구경하신 저기 이썬니까? {그 어르신 그 소싸움 한 것도 한 번 구경하신 적이 있습니까?}

10802 # 소 싸우믄 가본 사시른 업서예. {소싸움은 가 본 사실은 없어요.}

10802 # 텔레비만 그저 구경헐찌, 가본 사시른 업서요. {텔레비전만 그저 구경했지, 가 본 사실은 없어요.}

10802 @ 예. 그 봄 대믄예, 나무에 언자 무리 안올라옵니까? {예. 그 봄 되면요, 나무에 이제 물이 올라오잖습니까?}

10802 @ 그라믄 그런 어떤 나무 버들나무가통거는 이거 틀모는 아네서 그 가지가 쭉 빠지

나옴 꺾때기만 안남습니까? {그러면 그런 어떤 나무 버들나무 같은 거는 이거 틀면은 안에서 그 가지가 쪽 빠져 나오면서 꺾때기만 남잖습니까?}

10802 @ 고: 잘라가 불문 소리가나능거. # 예. {그거 잘라서 불면 소리가 나는 거. # 예.}

10802 @ 그:를 머라 캅니까? {그거를 뭐라고 합니까?}

10802 @ 머 피리분다 캅니까, 호드기 빈 분다캅니까, 그렇거 안이씀니까? 그런경험 이씀니까? {뭐 피리 분다고 합니까, 호드기 분다고 합니까, 그런 거 있잖습니까?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10802 @ 그러믄 봄나래 그 나무 그 췌때기 췌씀니까? # 췌때기. @ 예. {그러면 봄날에 그 나무 그 '췌때기'라고 했습니까? # 췌때기. @ 예.}

10802 @ 해뜨기 그 우째해가 부런는지예, 그거 애기쫄 해주이소. {호드기 그 어떻게 해서 불었는지요, 그거 애기 쫄 해 주십시오.}

10802 # 허참 금시 애기마랏파나 췌때기라 커능거는 버들 나문데요, 버들라무. {허 참 금시 애기 말마파나 호드기라고 하는 거는 버드나무인데요, 버드나무.}

10802 # 버들라무언자 무로틸때 고:를언자 살살 소느로가 요리 틀믄. {버드나무 인제 물을 때 그거를 인제 살살 손으로 이리 틀면.}

10802 # 고기: 무리 올라가주고 나무는 나무대로 꺾떠기는 꺾떠기대로 약간 싹쌀탈린다고 예. {그게 물이 올라 가지고 나무는 나무대로 꺾때기는 꺾때기대로 약간 싹쌀(하고) 틀린다고요.}

10802 # 탈리믄 고거를언자 요래 타라가주고 언자. {틀리면 그거를 이제 이리 틀어 가지고 인제.}

10802 # 어는 선까지 대:파 시프믄 고언자 뽀러뿌리고 땡기믄. {어느 선까지 되었다 싶으면 그거 인제 부러트려 버리고 당기면.}

10802 # 고기 꺾떠:는 꺾떠:대로 알매~애는 알매~애대로 요래 나오믄. {그게 꺾때기는 꺾때기대로 알맹이는 알맹이대로 이리 나오면.}

10802 # 그:를언자 칼로가 잘라가주고, 인자. {그거를 인제 칼로 잘라 가지고, 인제.}

10802 # 거꺾떠이는 배끼뿌리고 속꺾떠이가 또익꺼등네. {겉 꺾때기는 벗겨 버리고 속 꺾때기가 또 있거든요.}

10802 # 속꺾떠이 그거로 요리불믄언자 췌떠이가 불립니다, 불리고. {속 꺾때기 그거를 이리 불면 이제 호드기가 불립니다, 불리고.}

10802 # 그 피 아까 피리라 크능그는 풀리불가 부능기 피리고. {그 피 아까 피리라고 하는 거는 풀잎으로 부는 게 피리고.}

10802 # 인자 참 아까 트러가 빼:가 버들로가 땡그러가: 부능거는 췌때이고. {인제 참 아까 틀어서 빼서 버들로 만들어서 부는 거는 호드기고.}

10802 # 머 종뉴는언자. @ 그람 풀리븐 어떻거:를 해야 소리가 남니까? {뭐 종류는 이제.}

10802 @ 그럼 풀잎은 어떤 거를 해야 소리가 남니까?)

10802 # 아 피리라커능거는 잘 부는 사라므는 마 머:시라도 이베가따 대:믄 마 다 소리가 난답니다. {아 피리라고 하는 거는 잘 부는 사람은 뭐 무엇이랴도 입에 갖다 대면 뭐 다 소리가 난답니다.}

10802 # 몬뿌는 사라므는 그: 피리 통수는 공부통수요. {못 부는 사람은 그 피리 통소는 공부 통수요.}

10802 # 피리는 팔짜 팔짜일따 커능기라. {피리는 팔자 팔자 있다고 하는 거야.}

10802 # 팔자가 잘부리라 커능 팔자가 익끼 따무네 머 풀리비라도 그사라든 갠따대:든 소리가 나요. 무진 푸리비라도. {팔자가 잘 붙어라고 하는 팔자가 있기 때문에 뭐 풀잎이라도 그 사람은 갖다 대면 소리가 나요. 무슨 풀잎이라도.}

10802 # 통수는 공부를 마~이해야 데고. {통소는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10802 @ 저 어르신그 어릴때 밀가통거 이렇거 밀서리 거통거 쯔 해보셨습디까? {저 어르신 그 어릴 때 밀 같은 거 이런 거 밀서리 같은 거 쯔 해 보셨습디까?}

10802 # (웃음) @ (웃음) # 예 밀싸리도 해무:박꼬. {(웃음) @ (웃음) # 예, 밀서리도 해 먹어 봤고.}

10802 @ 밀싸리그 쯔 우째 헐는지에 하고나몬 시커머~이 묵꼬 안이람니까? {밀서리는 그 쯔 어찌 했는지요, 하고 나면 시커멓게 묻고 이러잖습니까?}

10802 @ 그 어릴때 추억 한번 추억담 한번 들려주이소. {그 어릴 때 추억 한 번 추억담 한 번 들려주십시오.}

10802 # 그 옐나레 머 밀사리커능그는 그 들파네서 지훈차 해몽능기: 아이~고 여러키해 해무~이까네 장나~이고. {그 옛날에 뭐 밀서리라고 하는 거는 그 들판에서 자기 혼자 해 먹는 게 아니고 여럿이 해서 해 먹으니깐 장난이고.}

10802 # 머 혼차 해무든 도둥놈 데지마는. {뭐 혼자 해 먹으면 도둑놈 되지만은.}

10802 # 그래언자 우리가 그저네 모숭기 직전쯔 대므 그 대풀빈다커능기 이썸:다. 대풀. {그래 이제 우리가 그 전에 모심기 직전쯔 되면 그 대풀 벤다고 하는 게 있습니다. 대풀.}

10802 # 모숭기 할라꼬 언자 노네 거름하능기 대푸리거등네. {모심기 하려고 이제 논에 거름하는 게 대풀이거든요.}

10802 # 사네가 대풀비:가 오몬 언자 보리도 누룽무리하고. {산에 가 대풀 베어 오면 이제 보리도 누루무리하고.}

10802 # 인자 밀또 언자 누루무리하고 일:때언자 소에 한발 시러다가 더: 언자 부라노코. {이제 밀도 이제 누루무리하고 이럴 때 이제 소에 한 바리 실어다가 더 이제 부러 놓고.}

10802 # 그든 니 미리기나 내 미리기나 마 이리 비다가. {그러면 네 밀이거나 내 밀이거나 뭐 이리 베다가.}

10802 # 그러~이 풀비:다 노능기 마룽기 이썸든 그거로가주고 마 불로 찢러가주고 꼬실러 가주고언자 비비묵꺼등네. {그러니 풀 베어다 놓은 게 마른 게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마 불을 질러 가지고 그을려 가지고 이제 비벼 먹거든요.}

10802 # 비비무든 이자 참 금시 애크마랴나나 딱 쉼:미 낭거맨치로 이비 시:커머~이 이래, 지입 지가 모리고. {비벼 먹으면 이제 참 금시 애크 말마따나 뭐 꼭 수염이 난 것처럼 입이 시커멓게 이래, 자기 입 자기가 모르고.}

10802 # 너무 이븐 보무 마 쉼:미 낭거맨치로 이러커등. {남의 입은 보면 마 수염이 난 것처럼 이렇거든.}

10802 # 그래가 완저~이 어른덴:네 커고 이래사:모 서로 보고 어른덴:네 캐산타가. {그래서 완전히 어른 됐네라고 하고 이렇게 해 대면 서로 보고 어른 되었네 해 썰다가.}

10802 # 그 우리 이래하모 안덴다 이거 쯔 썩짜커고 그래 씨끄든. {그 우리 이리하면 안 된다 이거 쯔 썰자고 하고 그래 썰으면.}

10802 # 머 그 밀문: 포도 안나고, 그래가 그런 사실또 마~이 이서서요. {뭐 그 밀 먹은 표도 안 나고, 그래 가지고 그런 사실도 많이 있었어요.}

10802 @ 그러든 밀사리도 또 사리는 밀사리말고 또 어떻게 이썸썸니까? {그러면 밀서리도

또 서리는 밀서리 말고 또 어떤 게 있었습니까?}

10802 # 콩싸리 밀싸리. {콩서리 밀서리.}

10802 @ 콩싸리도 그라든 콩싸리는 가르레 할꺼 아입니까? # 콩싸리는 가르레 해. {콩서리도 그러면 콩서리는 가을에 할 거 아입니까?}

10802 @ 겉또 방빠른 비스탐니까? {그것도 방법은 비슷합니까?}

10802 # 콩사리라커능거느 까가 묵찌 비벼묵능기 아이거등예. {콩서리라고 하는 거는 까서 먹지 비벼 먹는 게 아니거든요.}

10802 # 콩으는 하나씩하나씩 까가묵꼬. {콩은 하나씩 하나씩 까서 먹고.}

10802 # 그그는 여간 머 그래바야 밀싸리맨치로 머 이비 시커머코 글친 안하고, 그러심:더. {그거는 여간 뭐 그래봐야 밀서리처럼 뭐 입이 시커멓고 뭐 그렇진 았고, 그렇습니다.}

10802 @ 그 겨우레 여름얼면네 아까 모세 어르미 어런따고 말씀하셧는데예. {그 겨울에 얼음 얼면요 아까 못에 여름이 얼었다고 말씀하셧는데요.}

10802 @ 그 타능거 아닌썸니까? 머 탄다캅니까? # 수깁또 탄다하~이. {그 타는 거 있썸니까? 뭐 탄다고 합니까? # 썰매 탄다고 하지.}

10802 @ 감: 수깁또 만드러야 델꺼 아이입니까? # 예. {그럼 썰매 만들어야 될 거 아입니까? # 예.}

10802 @ 수깁또 만드러가지고 우째 탄는지 어릴때 어르신하싱거 고거썸 말씀썸 해주이소. {썰매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탔는지 어릴 때 어르신 하신 거 그거 썸 말씀 썸 해 주십시오.}

10802 # 수깁또를 월래 망근 만들라커른 그 합과늘. {썰매를 원래 만들 만들려고 하면 그 합판을.}

=1 유기농법과 논농사

=1 @ 어르신 저: 동네오봉께네예:, 그: 농가에 지블하나 자고망 지:노코 아네 오리가 인능 간는데.{어르신 저 동네 와 보니까요, 그 농가에 집을 하나 자그마한 것 지어 놓고 안에 오리가 있는 것 같은데.}

=1 @ 그: 참:그 특벼라게 보이거든네, 웨지에서온사람드란데는.{그것 참 특별하게 보이거든요, 외지에서 온 사람들한테는.}

=1 @ 그래 그게 우째: 저러케 만드러저가꼬 헨는지 이렇거 대해서 함번 쭈욱 말쓰매주시머 고맙게썸니다.{그래 그게 어떻게 저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함번 쭈욱 말씀해 주시면 고맙썸니다.}

=1 # 예, 내 나름대로 말씀 드리게썸니다.{예, 내 나름대로 말씀 드리썸니다.}

=1 # 저:, 유기농빠비락꼬 해:가주고.{저, 유기농법이라고 해 가지고.}

=1 # 무공애 에 이래가주고 오새:.{무공해 이래 가지고, 요새.}

=1 # 농초네: 머: 재:배가 마~이 데에가주고 살:가통기 소모처가억꺼등네.{농촌에 뭐 재배가 많이 되어 가지고 쌀 같은 게 소모처가 없거든요.}

=1 # 그래가 농:혀베서 소모처르 위해 가주고.{그래서 농협에서 소모처를 위해 가지고.}

=1 # 유기농빠비라고 해:가주고 무공애 사리다 이래가주고 이 농사를 지야노으면.{유기농법

이라고 해가 지고 무궁해 쌀이다 이렇게 해서 농사를 지어 놓으면.}

=1 # 농:혀베서 전:부 수매르 해가요.{농협에서 전부 수매를 해 가요.}

=1 # 수매르 해: 가가주고 농:혀베서도 으: 농미를 살리고.{수매를 해 가 가지고 농협에서도 농민을 살리고.}

=1 # 농:혀베서도 별 손내 양가게끔 머 이리케찌요, 머 지름들제 머 옹가꺼 다 이***.{농협에서도 별 손해 안 가게끔 이렇겠지요, 뭐 기름 들지, 뭐 온갖 것 다 있으니까.}

=1 # 그러~이 농:여베선 주로 으: 상부면: 그 조하버늘 살리기~ 위애가주고 그러케 마~이 노려글하고 이꺼등네.{그러니 농협에서는 주로 상북면 조합원을 살리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많이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1 # 그 언자 오:리라 크능그는 다르미아니고.{그 인제 오리라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1 # 우리가 비:료는 약간 치는데 그저 보:통 농사진은 사라른 저 풀랴글 치거등네.{우리가 비료는 약간 치는데, 그저 보통 농사 짓는 사람은 풀약을 치거든요.}

=1 # 그런자 우리는 풀랴글 안치니까네 무궁애 사리다.{그래 인제 우리는 풀약을 안 치니까 무궁해 쌀이다.}

=1 # 이래가주고 푸른 제그를 오:리드리 다하고 이써예.{이래 가지고 풀은 제거를 오리들이 다 하고 있어요.}

=1 # 이게 마 그러타캐가, 뜨더묵기도 뜨더묵찌마는.{이게 뭐 그렇다고 해서, 뜯어 먹기도 뜯어 먹지만은.}

=1 # 오:리 바리 너끼따무네 사저네 언자 자꾸 푸롤로지저네 발버면 푸리 올라오지 모타더로 방지르 하능기랴요.{오리 발이 넓기 때문에 사전에 자꾸 풀 올라오기 전에 밟으면 풀이 올라오지 못하도록 방지를 하는 거예요.}

=1 # 그래서 인자 오리를 어: 처으메부텀 시자게가주고, 가주온 날짜로 여:키는 언제 연:능고하든.{그래서 인제 오리를 처음에부터 시작해 가지고, 가져 온 날짜로 넣기는 언제 넣는가 하면.}

=1 # 유월 초: 하룻날 유월 초순게~이 여초:.{유월 초 하룻날 유월 초순경에 넣지요.}

=1 # 그리 여어 가주고 두달로 키아가주고.{그렇게 넣어서 두 달을 키워 가지고.}

=1 # 그람 치릴 말 래지 어: 파릴 초에 고로케나감니다.{그러면 칠월 말 내지 팔월 초에 그렇게 나갑니다.}

=1 # 예, 고래 나가는데, 언자 점:부 으: 조하베서 무:료로 인자 자기네드리 인자 오리는 사여주고.{예, 그래 나가는데, 인제 전부 조합에서 무료로 인제 자기네들이 오리는 사 넣어 주고.}

=1 # 우리는 그 도:늘 하날또 안 내고 조하베서 전:부 여팔로 다하고.{우리는 그 돈을 하날도 안 내고 조합에서 전부 역할을 다 하고.}

=1 # 널:때는 우리가 인자 각짜 마 소모처를 각짜가 하고.{널 때는 우리가 인제 각자 뭐 소모처를 각자가 하고.}

=1 # 단체저그로 할쭈도 이께찌만 단체저그로 한차메 그리 마~:이 몽까가거등네.{단체적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단체적으로 한번에 그렇게 많이 못 가져 가거든요.}

=1 # 한 보로꾸라카먼 고 육백평이거등네.{한 블록이라고 하면 육백 평이거든요.}

=1 # 육백평에 맵빠리를 여어주능가하모, 오:십빠리를 여어주는 겁니다.{육백 평에 몇 마리를 넣어주는가 하면, 오십 마리를 넣어주는 겁니다.}

=1 # 그러~이 오:십빠리든 두락수가 한 만:두락 테면 바리쭈가 상당히 망:커등네.{그러니

오십 마리면 두락 수가 한 만 두락 되면 마리 수가 상당히 많거든요.}

=1 # 그르~이까네 이거를 각 각:짜가 처분할 해야데지 단체 처분 하기가 조금 힘들니다. {그러니까는 이것을 각자 처분을 해야 되지 단체 처분을 하기가 조금 힘들니다.}

=1 # 고래가주고 우리가 무공해에 농사를 지:꼬. {그래 가지고 우리가 무공해에 농사를 짓고.}

=1 # 인자. {인제.}

=1 # 참, 팔로광계는 개이니 에 낼:쭈도 익꼬. {참, 판로 관계는 개인이 낼 수도 있고.}

=1 # 그 조하베서 마 백프로 점부다 가아갑니다, 조하베서. {조합에서 백프로 전부 다 가져 갑니다, 조합에서.}

=1 # 그리 가아 가도 우야다보른 장년거튼 데는 마~:이 나마썩쇼, 풍녀니 저:가주고. {그렇게 가져 가도 어찌하다 보면 작년 같은 때는 많이 남았어요. 풍년이 저 가지고.}

=1 # 그리가 인자 개이니 인자 참 팔로도 하고 이래 데 데고. {그래서 인제 개인이 인제 참 판로도 하고 이렇게 되 되고.}

=1 # 이래 먼 여 이 명촌뿌라게는 무공해라가능기 이래인자 하고 이썩쇼. {이리 여기 명촌 부락에는 무공해라 하는 것이 이리 하고 있지요.}

=1 # (웃음) 하고 인는데. {(웃음) 하고 있는데.}

=1 # 원체 엔:나레는 살롱사를 지올라크모. {원체 옛날에는 쌀농사를 지을라고 하면.}

=1 # 으~으. {음.}

=1 # 이 참:. {이 참.}

=1 # 저 갱:자리로 캐: 가주고, 모럴 발버: 가주고. {저 갱자리를 캐(?) 가지고 모를 밟아 가지고.}

=1 # 이르케 애:길 저저 이:를 하지마노. {이렇게 얘기를 저저 일을 하지만은.}

=1 # 요즈:문 언자 머 갱자리고 뭐:시고 다: 하도 아나고. {요즘은 인제 갱자리고 뭐고 다 하지도 않고.}

=1 # 인자 참 머 비:료드근지 모:든 머 오썩: 소로 마~:이 미기니까네. {인제 참 뭐 비료든 지 모든 뭐 요새는 소를 많이 먹이니깐.}

=1 # 머 갱자리니 푸리니 머 비:료거튼거뚜 벨: 피로가 억꺼등네. {뭐 갱자리니 풀이니 비료 같은 것도 별 필요가 없거든요.}

=1 # 소 미기능 그르물 가주고 이리 마이 하기 따무네. {소 먹이는 거름을 가지고 이리 많이 하기 때문에.}

=1 # 그러고 오새:는 어늬: 가정업씨 다: 소는 다: 이꺼등네. {그리고 요새는 어느 가정 없이 소는 다 있거든요.}

=1 # 우리거튼 경우에는: 언자 늘: 소르 미기다가 마구도 다: 비:가 이썩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인제 늘 소를 먹이다가 마구도 다 비어 있어요.}

=1 # 언자 나느 마네가주고 일:릉률또 억꼬 이래가 마구도 다: 비아뿌리고 그래가언자 이래 생활하고. {인제 나이는 많아 가지고 일 능률도 없고 이래 가지고 마구도 다 비워 버리고 그래서 인제 이렇게 생활하고.}

=1 # 머 생활비는 참 아:드리 대:주고. {뭐 생활비는 참 아이들이 대 주고.}

=1 # 그래 농사 조금 지야가 양도할만:침 요래마 하고 이꺼등네. {그래 농사 조금 지어서 양식할(?) 만큼 이렇게만 하고 있거든요.}

=1 # 예. {예.}

=1 @ 예, 어르신 저기 아까 그 육백퐁에 오십빠리라 그러셔썩예? {어르신 저기 아까 그 육

백 평에 오십 마리라 그러셨지요?}

=1 # 예.{예.}

=1 @ 그리고 두락쭈라라구 구랜는데, 그 두락쭈 두라근 멀: 두라기라 캄니까?{그리고 두락 수라고 그랬는데, 그 두락 수 두락은 무엇을 두락이라 합니까?}

=1 # 음.{음.}

=1 @ 한 두락 두 두락하능거.{한 두락 두 두락하는 거.}

=1 # 예, 어, 저.{예, 어, 저.}

=1 # 그 한 삼백평, 고기: 한 두라깁니다.{그 한 삼백 평, 그게 한 두락입니다.}

=1 # 예, 육백페~이 육백페~이.{예, 육백 평이 육백 평이.}

=1 @ 육백평이 한두라깁니까?{육백 평이 한 두락입니까?}

=1 # 예:예:.{예예.}

=1 @ 그리고 아까 또 말씀 도중에예, 갱자리라 말쓰물하셧는데예, 갱자리는 뭇니까?{그리고 아까 또 말씀 도중예요, '갱자리'라 말쓰을 하셧는데요, 갱자리는 뭇니까?}

=1 # 갱자리라커능기, 그 요즘: 어: 칭 절문 사람드느: 너 갱자리를 잘 모를겘니다.{갱자리라 하는 건, 그 요즘 젊은 사람들은 갱자리를 잘 모를 겘니다.}

=1 # 그래도 우리느 엔:날버터 어른드리 갱자리갱자리 켜끼때무에 갱자리, 어떤거슬 갱자리라커능건 그거는 잘 모르겘지마넌.{그래도 우리는 옛날부터 어른들이 갱자리 갱자리 했기 때문에 갱자리, 어떤 것을 갱자리라고 하는 건 그거는 잘 모르겘지만은.}

=1 # 사네 가가 보:드라운 푸를 비:가주고.{산에 가서 보드라운 풀을 베어 가지고.}

=1 # 모깡에 여어가주고 모를 받는거슬 갱자리라캅따다.{못자리에 넣어서 모를 받는 것을 갱자리라고 합디다.}

=1 # 그래서 우리느 어른드리인데 물러바튼 애:기지.{그래서 우리는 어른들한테서 물러받은 애기지.}

=1 # 머: 갱자리가 오새:거치 머 무러머 갱:자리라커능기 뜨시 머어꼬 이리 무르며 답뻔할 쭈느 업써예.{뭇 갱자리가 요새같이 뭇 물으면, 갱라지라고 하는 게 뜻이 뭇고 이렇게 물으면 답변할 순 없어요.}

=1 # 그래 한다커능거만 알:고이찌.{그리 한다고 하는 것만 알고 있지.}

=1 @ 저 오리가꼬 그 유기농뽕 무공해 쌀, 그: 쌀 만드는 그게 지금부터 언:제분 언제전부터 언:제부터 저걸 해쭈니까?{저 오리 가지고 그 유기농뽕 무공해 쌀 그 쌀 만드는 그게 언제부터 언제부터 저걸 했습니까?}

=1 # 산:년 딱 산:년채 납니다, 금년제.{사 년 딱 사 년채 납니다, 금년에.}

=1 @ 그러고 아까 어르신 말쓰미 인자 쌀 인자 조하베서 수매를 하는데.{그리고 아까 어르신 말씀이 인제 쌀을 조합에서 수매를 하는데.}

=1 @ 그래도 다: 수매 안테메는 개인저그로 판다 이런 말씀 하셔찌예?{그래도 다 수매 안 되면 개인적으로 판다 이런 말씀을 하셧지요?}

=1 @ 그러면 지끔 저 오리키아는 저 사어베 이 동네 어른들 다: 참너를 하십니까 어떠쭈니까? 고고 한 말씀 해주이소.{그러면 지금 저 오리 키우는 저 사업에 이 동네 어른들 다 참여를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그거 한 말씀 해 주십시오.}

=1 # 아: 그제 농사에 해당테는 사람.{아 그것이 농사에 해당되는 사람.}

=1 # 이기 온 멩촌마으레 한 삼백 한 오십뚜락데는데.{이게 온 멩촌 마을에 한 삼백 한 오십 두락 되는데.}

=1 # 삼:백 오:십뚜라기 다: 오리가 안드가 이꺼등네.{삼백오십 두락이 다 오리가 안 들어가 있거든요.}

=1 # 그러~이 한 삼:백뚜락 정도 언자 오리가 드가인는데.{그러니 한 삼백 두락 정도 오리가 들어가 있는데.}

=1 # 거게: 농사가 고 단:지 아네 인는 지븐 머.{그곳에 농사가 그 단지 안에 있는 집은 뭐.}

=1 # 열뚜락도 데고 한두락도 데고 이르키타무네 동미~이 점:부 해당데능기 아이거등네. {열 두락도 되고 한 두락도 되고 이렇게 때문에 동민이 전부 해당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1 # 고 단:지 내에 고 드러간 사람만 해당데는 기지요.{그 단지 내에 들어간 사람만 해당되는 거지요.}

=1 @ 그라모 언자 농사를 다 직꼬나모, 저 오리가 인자 피료업쓸 때 오리는 그럼 우찌합니까?{그러면 인제 농사를 다 짓고 나면, 오리가 인제 필요 없을 때 오리는 그럼 어찌 합니까?}

=1 # 오:리는 그케 아까도 얘기애찌마는 여:줄 때는 농혀베서 여:주고.{오리는 그렇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넣어 줄 때는 농협에서 넣어 주고.}

=1 # 팔로에는 인자 우리를 인자 개인팔로러 하락카거등네.{판로에는 인제 우리를 인제 개인 팔로를 하라고 하거든요.}

=1 # 그르키 따무네 참 금년거튼해 나는 함바리에 처년석 바다서예.{그렇게 때문에 참 금년 같은 해 나는 한 마리에 천 원씩 받았어요.}

=1 # 처년석 바단는데 머 천:오배권 받는 사람도 익꼬, 이처년 받는 사람도 익꼬.{천 원씩 받았는데 뭐 천오백 원 받는 사람도 있고, 이천 원 받는 사람도 있고.}

=1 # 그건 지쭈머 수:다~이라크까, 아라~이라크까, 그건 공편진 가겨기 아이거등네.{그것은 각자 뭐 수단이랄까, 아량이랄까, 그것은 공평한 가격이 아니거든요.}

=1 # 또 그리고 오:리를 바들 때는 한 두라게 오:십빨석 바단는데.{또 그리고 오리를 받을 때는 한 두락에 오십 마리씩 받았는데.}

=1 # 이 키우다보므~ 중는수가 만커드, 예:리가주고 와가주고.{이 키우다보면 죽는 수가 많거든, 어려 가지고 와 가지고.}

=1 # 그래가 머 사십빠리도 데고 한두라게 널:때 보머 삼십빠리도 데고.{그래서 뭐 사십 마리도 되고 한 두락에 널 때 보면, 삼십 마리도 되고.}

=1 # 거 미기다가보믄 또 무인 짐승이 와:가주고.{그 먹이다가 보면 또 무슨 짐승이 와서.}

=1 # 머 닥짜바묵뜨시로 그 머 들과네 이씨니까네 오:리거통거 머 자아 무꺼등네.{뭐 닭 잡아 먹듯이 들판에 있으니까 오리 같은 것 잡아 먹거든요.}

=1 # 그래가 마:이 업써지는 수도 만:코.{그래서 많이 없어지는 수도 많고.}

=1 # 내가 또 오리를 다: 내고 여덜빠리를 노네다가 나아 도:꺼등네.{내가 또 오리를 다 내고 여덟 마리를 논에다가 놔 뒀거든요.}

=1 # 나아 돈:는데, 그 아:들 손자들 오므 자바가주고 가치무글라헨.{놔 뒀는데, 그 아이들 손자들 오면 잡아가지고 같이 먹으려 했(는데).}

=1 # 그래 천날 내:놀:때는 마:이 들과네 이쉴 때는 관계 업썬는데.{그래 첫날에 농을 때는, 많이 들판에 있을 때는 관계 없었는데.}

=1 # 다: 내뿌고 내꺼만 여덜빠리가 이씨꺼등네.{다 내 버리고 내 것만 여덟 마리가 있었거든요.}

=1 # 그래가 천날 딱 내: 노~이니까 오리가 가두로 가니까네.{그래 가지고 첫날 딱 내 놓으니까 오리를 가두러 가니까.}

=1 # 아리 가더로 간다카지요, 가~이까 여덜 빠리가 다: 인떠라꼬.{아래 가두리 간다고 하
지요, 가니까 여덜 마리가 다 있더라고.}

=1 # 고 뒤엔나른 땡 내:노~이까네.{그 뒷날은 땡 내어 놓으니깐.}

=1 # 하, 가~이까네 함마리가 주거이꼬, 함마리가 사란떠라고.{하, 가니까 한 마리가 죽어
있고, 한 마리가 살았더라고.}

=1 # 그러~이 여서빠리는 다: 자아무:뿐.{그러니 여섯 마리는 다 잡아먹어버(렸지).}

=1 # 그러~이 그런 수도 마네:요.{그러니 그런 수도 많아요.}

=1 @ 그러믄 그 자바명:거는 짐승이 그래쓸까예?{그러면 그 잡아먹은 것은 짐승이 그랬을
까요?}

=1 # 그러~이 그거는 쪽찌비 알지예?{그러니 그것은 족제비 알지요?} @ 예.

=1 # 쪽찌비가 그랜는지 너구리가 그랜는지, 고거는 아이 두: 나틀 우리가 안 그랜느냐
짐장만하지, 보지를 모태서.{족제비가 그랜는지 너구리가 그랜는지, 그것은 아니 두 날(두
짐승)을 우리가 안 그랜느냐 짐작만 하지, 보지를 못했어.}

=1 @ 그러믄 저기 아까 농:여베서 오리로 언자 여: 준다 안그러서씀니꺼?{그러면 아까 농
협에서 오리로 인제 넣어 준다 그러셨잖습니까?} # 예.{예.}

=1 @ 그러믄 농:여베서는 글 우째:가주고 오리를 사가옵니까? 사가오는지 카:오는지 모르
게씀니다마는.{그러면 농협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해서 오리를 사서 가져옵니까? 사오는지
키워오는지 모르겠습니까만은.}

=1 # 사가오지요.{사서 가져 오지요.} @ 농:여베서도 다른데서 사가주옵니까?{농협에서도
다른 데서 사서 가져옵니까?}

=1 # 그러믄 이 지방에서 그 저 부하를 하능기 아이고.{그러면 이 지방에서 그 저 부하를
하는 것이 아니고.}

=1 # 아마 저 충청도 지방 저쪼글 가믄 아마 부화장이 인는 모애~이쥬?{아마 저 충청도
지방 저쪽을 가면 아마 부화장이 있는 모양이쥬?}

=1 # 머 저 빠가리 부화장이다든지 그릉:기 아마 저 충청도 저 어데서 아마 내가 알기는
구이블 해가 오능거테요.{뭘 저 병아리 부화장이라든지 그런 게 아마 저 충청도 저 어디서
아마 내가 알기는 구입을 해 오는 것 같아요.}

=1 # 그래~이 사:저네 우리 으 마으레 무고~애 오:리 농:빠비다 이래가주고.{그러니 사전
에 우리 마을에 무공해 오리 농법이 다 이래 가지고.}

=1 # 그부러: 한 사년 데에씨~이까네, 그 찜:마 거래로 하게되믄 계:속 인자 인자 열라기
데거등네.{그 후로 한 사 년 되었으니깐, 그 처음만 거래를 하게 되면 계속 인제 인제 연락
이 되거든요.}

=1 # 그래서 아마 거:서 올겁니다.{그래서 아마 거기서 올 겁니다.}

=1 @ 그라모: 어르신 경우는 인자 장년에 그 쌀로 그러믄 농:여베서 다: 사가주 강김:니까,
아니며는 개별쪼그로 파서씀니까?{그러면 어르신 경우는 인제 작년에 그 쌀로 그러면 농협
에서 다 사 가지고 간 것입니까, 아니면 개별적으로 파셨습니까?}

=1 # 나는 농:혀베 점부 수매를 다: 해쪼요.{나는 농협에(서) 전부 수매를 다 했지요.}

=1 @ 수매까는 갠:찬습니까?{수매가는 팬참습니까?}

=1 # 수매값슨 마:이 줍니다, 마:이 주고.{수매값은 많이 줍니다, 많이 주고.}

=1 # 보:통 일반 오리 농뺨 아~이고 일반 농사를 지을 때보다는.{보통 일반 오리 농법 아
니고 일반 농사를 지을 때보다는.}

=1 # 아마도 사리 한 푸대라크른 여 팔씩키로가 한푸대그등네.{아마도 쌀이 한 푸대라고 하면 여기 팔십 킬로가 한 푸대거든요.}

=1 # 팔씩키로 한 푸대:서는 한 두라게 적끼 나요.{팔십 킬로 한 푸대에서는 한 두라게 적끼 나요.}

=1 # 글:타고 해가주고 조하베서 수매를 하는데는.{그렇다고 해 가지고 조합에서 수매를 하는 데는.}

=1 # 일반나락보다는 오리농뽕 나라그로 가져글 쫘 마~:이 주지요.{일반 나락보다는 오리농뽕 벼로 가격을 좀 많이 주지요.}

=1 @ 예, 그는 머 가져글 마:이 주:야 데겐네예.{예, 그것은 뭐 가격을 많이 줘야 되겠네요}

=1 # 예:.{예.} @ 예.{예.}

=1 # 그래도 안할라합니다, 여:서.{그래도 안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1 # 귀찬치럴, 살: 적끼 나:지럴, 그러니까네.{귀찮지, 쌀 적게 나지, 그러니까.}

=1 # 이거 한 두:달 키우능꺼또 하리 두번씩 가야데거등네.{이거 한 두 달 키우는 것도 하루에 두 번씩 가야 되거든요.}

=1 # 아치메 가가 내애 노코 지너게 가가 가다야 데고.{아침에 가서 내어 놓고 저녁에 가서 가뒤편에 데고.}

=1 # 이러키파무네 냄새도 마:이 나요.{이렇게 때문에 냄새도 많이 나요.}

=1 # 그따무네 오:리지베가는 오시 별또로 익꼬, 냄새가 나사:가주고.{그 때문에 오리 집에 가는 옷이 별도로 있고, 냄새가 나 쌓아 가지고.}

=1 # 머: 또 보통 뎡기는 오시 따로 익꼬 이러커등네, 노네 뎡:기도.{뭐 보통 다니는 옷이 따로 있고 이런거거든요, 눈에 다녀도.}

=1 @ 그러믄 쪼끔저네 어르신 다녀오싱 거는 오리 때무니 아이고 다른거 때무네 다녀오싱 겁니까?{그러면 조금 전에 어르신 다녀오신 것은 오리 때문이 아니고 다른 것 때문에 다녀오신 겁니까?}

=1 # 음:, 노네는: 농촌사라미 노네는 자주 갑니다.{음, 논에는 농촌 사람이 논에는 자주 갑니다.}

=1 # 가는 워니니 명:고하므, 흑씨나 노니나 말란능가.{가는 원인이 무엇인가 하면, 흑씨나 논이나 말랐는가.}

=1 # 그라~이며 머 무리 만:능가.{그렇지 않으면 물이 많은가.}

=1 # 그: 머 글:타캐서 벨 도우문 데지아나지만 내 생각 생가기니까네.{그렇다고 해서 별도움은 되지 않지만 내 생각이니까.}

=1 # 그리 가가주고 무리 좀 만:타시프문 무를 나차야 데고.{그렇게 가 가지고 물이 좀 많다 싶으면 물을 낮춰야 되고.}

=1 # 무리 적:꼬 넘 말라파시품: 무를 대애 줘야 데고.{물이 적고 너무 말랐다 싶으면 물을 대 줘야 되고.}

=1 # 그러기파무네 간는데, 나는 인자 오늘 가따온 거슨 다르미 아니고.{그렇기 때문에 갔는데, 나는 오늘 갔다 온 것은 다름이 아니고.}

=1 # 으: 나라기 오새 음사~에 마:이 커가주고.{벼가 요새 음상에 많이 커 가지고.}

=1 # 그 나라기 쫘 강해야 데는데 물러요.{그 벼가 좀 강해야 되는데 물러요.}

=1 # 그래가주고 나는 오늘 무를 빼고 와서예.{그래 가지고 나는 오늘 물을 빼고 왔어요.}

=1 # 지꾸물 봐서는 물 뺄 이 시기가 아인테.{지금을 봐서는 물뺄 이 시기가 아닌데.}

=1 # 지꾸문: 대도~에라카른 나라기 가라글 자블뜯말뜯, 인자.{지금은 대동에라고(?) 하면
벼가 가락을 잡을 듯 말 듯, 인제.}

=1 # 아:네 그 인자 나라기 인자 매저가주고.{안에 그 인제 벼가 인제 맺어 가지고.}

=1 # 저: 사:람 가트른 어리내: 인자 생산하드시로 그래가주고 인자 인자 그리트시로 나락
또.{저 사람 같으면 어리내 생산하듯이 그래 가지고 그렇듯이 벼도.}

=1 # 그:서 그래가 인자 자:꾸 아:네서 굴거지른 인자 불룩:해저가 피이 서거등예.{거기에서
그래 가지고 인제 자꾸 안에서 굽어지면 인제 불룩해져서 패어 서거든요.}

=1 # 그거 시긴데, 하:도 금녕게 머 날씨가 이래가주고.{그거 시기인데, 하도 지금 금년에
날씨가 이래 가지고.}

=1 # 어: 내가 물 뺄 시기가 아이래도 물로 빼 노코 와서요.{어 내가 물 뺄 시기가 아니라
도 물을 빼 놓고 왔어요.}

=1 # 또 낼: 모래 또 비도 온닥커고.{또 내일 모래 또 비도 온다고 하고.}

=1 @ 그 아까 말씀하신 도중에예, '음상'이라꼬 말씀하셧는데예.{그 아까 말씀하시는 도중
에 '음상'이라고 말씀하셧는데.}

=1 # 예.{예.}

=1 @음상이라면 머 지금 나리 쫘?(음상이라면 뭐 지금 날이 쫘?)

=1 # 으 저 구루미 마:이 끼이따 이런뜨심. 네.{으 저 구름이 많이 끼었다 이런 뜻입니다.
네.}

=1 # 그르~이 그르~이 그르~이까네: 저 오새: 절:문 분들하고, 엔나레 우리 말하고는 완
저~이 틀리지요?{그러니 그러니 그러니까 저 요새 젊은 분들하고, 옛날에 우리 말하고는
완전히 틀리지요?}

=1 @ 그래서 그렇게 참 중요합니다.{그래서 그런 것이 참 중요합니다.}

=1 # 중요해요?{중요해요?}

=1 @ 그리고 지금 어르신 보시기로 지금 인자 양녀그로 파릴 촌:테예.{그리고 지금 어르신
보시기로 지금 인제 양력으로 팔월 초인데요.}

=1 @ 음녀그로 윤다리 드러가꼬 유월 중순대:꼬예, 오늘 유월 보르미네, 그랑께네예.{음력
으로 윤달이 들어 가지고 유월 중순 되었고요, 오늘 유월 보름이네, 그러니까요.}

=1 # 예, 오늘 보름.{예, 오늘 보름.}

=1 @ 이날 대:머는 날씨가 지금 제가 볼때는 쫘 기오니 다른때보다 나껴든네.{이 날 되면
날씨가 지금 제가 볼 때는 쫘 기온이 다른 때보다 낮거든요.}

=1 # 네, 나찌요.{네, 낮지요.}

=1 @ 그러면 이 기오니 나즈모: 이게 나락한테는 어떤 피해가 이썸니꺼?{그러면 이 기온
이 낮으면 이게 벼한테는 어떤 피해가 있습니까?}

=1 @ 지금 쫘 더 뜨시야 텔꺼 가튼데.{지금 쫘 더 뜨거워야 될 것 같은데.}

=1 # 더버:야 나라게 자캉이 조아지고 이런데.{더워야 벼의 작황이 좋아지고 이런데.}

=1 # 날씨가 이래:가주고 역시 내: 금시에 물 빼고 와파커능 그 워닌도.{날씨가 이래 가지
고 역시 내가 금시에 물 빼고 왔다고 하는 그 원인도.}

=1 # 날씨가 이래:가주고 내가 무를 빼고 와서요.{날씨가 이래 가지고 내가 물을 빼고 왔어요.}

=1 # 나라기 아주 더:버야 나라기 강해지는데.{벼가 아주 더워야 벼가 강해지는데.}

=1 # 날씨가 이그 음상~이 대애가주고 나리 물러저가주고.{날씨가 이거 음상이 되어 가지
고 날이 물러져 가지고.}

=1 # 마~:야게 무린 나라기 피이 써가주고 태풍이 오문 너머질 우려가 망:커등네.{만약에 무른 벼가 패어 서 가지고 태풍이 오면 넘어질 우려가 많거든요.}

=1 # 나라기 여무려야 강해야 그 태풍도 이기내고 이럴진데.{벼가 여물어야 강해야 그 태풍도 이겨내고 이럴 건데.}

=1 @ 예, 그러든 인자 오리로 나라글 키아능거트모, 체소한도 그 풀 매능건 업겐네예.{예, 그러면 인제 오리로 벼를 키우는 것 같으면, 최소한도 그 풀 매는 건 없겠네요.}

=1 # 푸른 안 맵니다.{풀은 안 맵니다.}

=1 @ 예.{예.} # 푸를 안:매고 인자 야글 풀락 안 치고.{풀을 안 매고, 인제 약을, 풀약 안 치고.}

=1 # 항금해: 비료만 쪼:끔시 주지요.{기껏해야 비료만 조금씩 주지요.}

=1 @ 예, 그러든 저 저거 아까 유월 초에 그 오리를 연다캐 카셔찌예? 오 아까 제가 까머 건나?{예, 그러면 저 아까 유월 초에 오리를 넣는다고 하셨지요? 아 아까 제가 까먹었나?}

=1 # 유월 초가 아~이고.{유월 초가 아니고.}

=1 @ 오리 참: 연는 거.{오리 처음 넣는 것.}

=1 # 어 처음 연는 기:{어 처음 넣는 것이.}

=1 # 유:월 삼시빌 쫘, 삼시빌.{유월 삼십일 쫘, 삼십일.}

=1 @ 그러모 유월 삼시비리고 치럴 마른 한.{그러면 유월 삼십일이고 칠월 말은 한.}

=1 # 으~으 파럴 초.{아니, 팔월 초}

=1 # 그러니 두:다리지. 파럴 초.{그러니 두 달이지. 팔월 초.}

=1 @ 그라모: 일판 저 먼저 모로 먼저 승거야 델꺼 아임니까?{그러면 일단 먼저 모를 먼저 심어야 될 것 아닙니까?}

=1 # 예.{예.}

=1 @ 그럼 모승구능거는 요 다: 기계로 승굽니까, 요즘 사람소느로 승굽니까?{그럼 모 심는 것은 다 기계로 심습니까, 요즘 사람 손으로 심습니까?}

=1 # 주로: 기계로, 이양기로 심찌, 이양기.{주로 기계로, 이양기로 심지, 이양기.}

=1 @ 그라든 어제 아 저 그 어제 아레 말쓰마싱거느 제가 옰날 논 못짜리를 우찌 인자 하는가 그 여쭈 봉기고예.{그러면 어제 아 저 그 어제 아레 말씀하신 것은 제가 옛날 논 못자리를 어떻게 하는가 그거 여쭈본 것이고요.}

=1 # 예.{예.}

=1 @ 그래든 인자 기계로 각꼬, 기계모 이건 우찌 키아가꼬 우찌 모내기를 하는지 그거 말씀 쫘 해주이소.{그러면 인제 기계를 가지고, 기계면 이것은 어떻게 켜서 어떻게 모내기를 하는지 그거 말씀 쫘 해 주십시오.}

=1 # 그 아레: 얘:기마:파나.{그 아레 얘기마파나.}

=1 # 목깡으느 저 노~이고, 목 파:느느 저 기계 시물라꼬 인자 고 파:네다가.{못자리는 저 논이고, 모 모판은 저 기계 심으려고 인제 그 판에다가.}

=1 # 호글 여어가주고 거어다가 인자 썸나라그로 처가주고.{흙을 넣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인제 벼씨로 처 가지고.}

=1 # 요래 인자 흐처가주고 고래가 한 사밀 이따가 내:몬.{이리 인제 흘쳐 가지고 그렇게 해서 한 삼 일 있다가 내면.}

=1 # 음:, 사십:오일 인자 모깡에 내거등네, 모파늘.{음, 사십오일 인제 못자리에 내거든요, 모판을.}

=1 # 사:십오일쯤 대문 고기 인자 모시물 씨기가 딱 대:서요.{사십오일쯤 되면 그게 인제 모 심을 시기가 딱 되었어요.}

=1 # 그래가 인자 엔:날거트른 머 지게로 저다가 베레 노네 가가야 데는데.{그래서 인제 옛날 같으면 뭐 지게로 저다가 ?? 논에 가져 가야 되는데.}

=1 # 요즈:른 겨웅기가 이끼따무네 겨웅끼인:데 시:꼬 노네 가가주고 당가나:따가.{요즘은 경운기가 있기 때문에, 경운기에 싣고 논에 가 가지고 담가 났다가.}

=1 # 한 이사밑 후에 논 논도 인자 뚜디리 노으른.{한 이삼일 후에 논, 논도 인제 씨려 놓으면.}

=1 # 한 사오이리 이씨야 고오시 좀 내리 안지가 단다무리해지지요.{한 사오일이 있어야 그것이 좀 내려 앉아서 단단해지지요.}

=1 # 너무 무리면 모를 시므문 모가 구부러집니다.{너무 무르면 모를 심으면 모가 구부러집니다.}

=1 # 그러~이 한 서:리가주고 한 사오이리 이따가 시물라꼬 모를 인자 미리 썬다가 노네 갈따 대비해 노커등네.{그러니 한 씨려 가지고 한 사오일 있다가 심으려고 모를 인제 미리 썬다가 논에 갔다 대비해 놓거든요.}

=1 # 그래가주고 한 사이리나 오이리나 테머 무를 빼뿌리고.{그래 가지고 한 사일이나 오일이나 되면 물을 빼 버리고.}

=1 # 그:다가 인자 무를 빼뿌리고.{거기애다가 인제 물을 빼 버리고.}

=1 # 오새: 모시무는 기계가 이양기라카거등네, 이양기.{요새 모 심는 기계가 이양기라고 하거든요, 이양기.}

=1 # 그:다가 인자 참 언저가주고 이러케 시무면 잘: 텨니다.{거기다가 인제 참 얹어 가지고 이렇게 심으면 잘 됩니다.}

=1 @ 아까 그 말씀 도중에예 노를 뚜디리논는다 이런 말쓰를 하신는데 뚜디리논는다는거는.{아까 그 말씀 도중예요 논을 두드려 놓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두드려 놓는다는 것은.}

=1 # 인자 기계로 말:하면 씨어리 논는다 이기지.{인제 기계로 말하면 씨려 놓는다 이것이지.}

=1 @ 그라든 지그든 언자 뚜디리는 거또 뚜디리논는거또 기계라꼬 뚜디리꺼 아십니까?{그러면 지금은 두드리는 것도 두드려 놓는 것도 기계를 가지고 두드릴 것 아닙니까?} # 예.{예.}

=1 @ 엔날 가트문 언자.{옛날 같으면 인제.}

소로가.{소를 가지고.}

=1 @ 소로가꼬 가라가꼬.{소를 가지고 갈아서.}

올치, 예.{옳지, 예.}

=1 @ 뿌리가지고 언자.{그것을 가지고 인제.}

=1 @ 씨:리가주고.{씨려 가지고.}

=1 # 올지올지, 예.{옳지, 옳지, 예.}

=1 @ 그가지예? 고게 두드려 논는 거지예?{그것이지요? 그게 두드려 놓는 것이지요?}

=1 # 예예.{예예.}

=1 @ 인자 그라모.{인제 그러면.}

=1 # 그 엔:날 가트트 서:린다카지마느, 오새:는 인자 기계로 하니까 뚜디린다카거든예.{그 옛날 같으면 씨린다고 하지만 요새는 인제 기계로 하니까 '두드린다'고 하거든요.}

=1 # 엔:나렌 서:린다커고.{옛날엔 씨린다고 하고.}

=1 @ 그러믄 어르신 저: 그러면 인제 다 뚜드려가주고 모를 송구는거또 인자 기계가 송굴 꺼 아입니까?{그러면 어르신 저, 그러면 이제 다 썬러 가지고 모를 심는 것도 이제 기계가 심을 것이잖습니까?} # 예.{예.}

=1 @ 우째 송굽니까? 기계가:꼬 송구는 방버블 잘 모룽께: 말씀 좀 해주이소.{어째 심습니까? 기계 가지고 심는 방법을 잘 모르니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1 # 아~이, 그거는 여:서 안자가 애:기 해가는 납뜨기 잘 안 갈킨데.{아니, 그것은 여기서 앉아서 애기 해서는 납득이 잘 안 갈 건데.}

=1 # 양쭈: 그 언자 이양기에다 언저가주고 네:파늘 언지면 네:주리 나오그등네.{양쪽에 그 인제 이양기에다 얹어 가지고 네 판을 얹으면 네 줄이 나오거든요.}

=1 # 네 주리 나오는 거를, 참 머: 점부 그: 지르므로가 하기따무네.{네 줄이 나오는 것을, 전부 그 기름으로 하기 때문에.}

=1 # 그 히발료로 그 기계에다 여:노코 인자 돌리믄 기계가 아프로 가게 대:인능기라요.{그 휘발유로 그 기계에다 넣어 놓고 이제 돌리면 기계가 앞으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1 # 아프로 가면 그:다인자 작똥, 인자 그 시마:지드르 또 땡그러야 대거등네.{앞으로 가면 거기에다 인제 작동, 인제 그 심어지도록 또 만들어야 되거든요.}

=1 # 고래가주고 인제 사:살: 가고 이래합니다.{그렇게 해 가지고 이제 살살 가고 이리 합니다.}

=1 @ 그러믄 인자 나라기 어느 정도 커야 그러믄 인자 그 오리가 드러감니까?{그러면 벼가 어느 정도 커야 그러면 그 오리가 들어감니까?}

=1 # 모를 시마:노코 한 시빌, 시빌 대믄 크능게 아~이고.{모를 심어 놓고 한 십일, 십일 되면 크는 게 아니고.}

=1 # 모라커능거는 기 저저 땅에다가 이래 시므믄.{모라고 하는 것은 그 저 땅에다가 이렇게 심으면.}

=1 # 땅 냄새를 마꼬 인자 사라미라크능기 이꺼등네, 사람.{땅 냄새를 맡고, 인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사람.}

=1 # 사라미라크능거는 땅게 아니고.{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1 # 목짱에 인턴 그 색까리가 인자 까마지니까네.{못자리에 있던 그 색깔이 이제 까매지니깐.}

=1 # 고고르언자 사람한다 이라지, 사람.{그것을 인제 '사람한다' 이러지, 사람.}

=1 # 그러~이.{그러니.}

=1 @ 아:, 모짱에 그러믄 새까리 논 새까릅니까, 물새까릅니까? 까마지능게.{아, 못자리에 그러면 색깔이 논 색깔입니까, 물 색깔입니까? 까매지는 게.}

=1 # 까마지능기 그거는 영판 잘 모르젠는데, 모짱에 이쓸 때는 누런 빠치 나고.{까매지는 거 그거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못자리에 있을 때는 누런 빛이 나고.}

=1 @ 아 모가 그런탄 마리지예? 예:예.{아 모가 그렇다는 말이지요? 예예.}

=1 # 예예.{예예.}

=1 # 모짱에 이쓸 때는 누른 빠치나고.{못자리에 있을 때는 누런 빛이 나고.}

=1 # 저: 가가 사라미라커문 까문비치나는 태기지, 청 청새기 난 택까?{저 그것이 사람이라고 하면 까만 빛이 나는 셈이지, 청 청새기 난 셈이니?}

=1 @ 땅 냄새마꼬.{땅 냄새 맡고.}

=1 # 예, 땅 생도 마꼬.{예, 땅 냄새도 맡고.}

=1 # 그 청새글.{그 청색을.}

=1 @ 그거를 사람한다갑니까?{그것을 사람한다고 합니까?}

=1 # 예, 사:람한다.{예, 사람한다.}

=1 @ 인자, 그러믄 언자 오리도 드리까꼬, 지끄믄 인자 저 나라기 인자 알로 안 배엿습니까?
 {인제 그러면 이제 오리도 들어갔고, 지금은 인제 저 벼가 저 인제 알을 배엿잖습니까?}

=1 @ 쪼금이썸 나라기 필:꺼 아입니까? 짐: 필:썸니까?{조금 있으면 벼가 필 것 아닙니까?
 지금 피었습니까?}

=1 # 아~이 나라기 완저~이 아를, 아를 가진따커능기 아직 분벼를 몬하지요.{아직 벼가 완
 전히 알을, 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이 아직 분별을 못하지요.}

=1 # 인지 한 시비리나 시보일 이썸은 이~자 불룩불룩 해지지요, 시보일썸 이썸야.{인제
 한 십일이나 십오일 있으면 이제 불룩불룩해지지요. 십오일썸 있어야.}

=1 @ 그라먼자: 나라기 인자 클꺼 아입니까? 언자.{그러면 인제 벼가 인제 클 것 아닙니
 까? 인제.}

=1 @ 필꺼 아입니까? 피고 나믄 그저 쪽빠로 올라따가 나중예 대믄 그제 인자 쪽 무귀지
 고 이라모.{필 것 아닙니까? 패고 나면 그저 똑바로 올랐다가 나중예 되면 그것이 인제 쪽
 무거워지고 이러면.}

=1 @ 그러고 인자 누르게 될꺼 아입니까?{그러면 인제 누르게 될 것 아닙니까?} # 예.{예.}

=1 @ 고 과정예 대해서 함 번 말쓰매 주이소.{그 과정예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 @ 그 나라기 피:가꼬 그 다메 쪽: 올라가꼬 아네 인자 아리차고 무거우무~ 속: 수기질
 꺼 아입니까?{그 벼가 꽤 가지고 그 다음예 쪽 올라 가지고 안에 인제 알이 차고 무거우면
 쪽 숙여질 것 아닙니까?} # 예.{예.}

=1 @ 인자 누르게되믄 언자 빌:꺼 아입니까?{인제 누렇게 되면 인제 벨 것 아닙니까?}
 # 예.{예.} @ 인자 그거: 대해서 말씀 좀 해주이소.{그것예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1 # 아, 나라기 인자 저 처으메 인자 하나씩 올라오능거 만니새기라카고.{아, 벼가 인제
 저 처음예 인제 하나씩 올라오는 것, 만이삭(?)이라고 하고.}

=1 @ 머라고예?{뭐라고요?}

=1 # 만니새기{만이삭이(?).}

=1 # 머, 태기마라믄 천니새기겐저, 만니새기커능기.{뭐, 말하자면 첫 이삭이겠지, 만이삭이
 라고 하는 게.}

=1 # 마니새기라카고.{만이삭이라고 하고.}

=1 # 그래 인자 마니새기가 아 피:무로서 한 시빌만 이썸면 인자 다 피거등네.{그래 인제
 만이삭이 팜으로써 한 십일만 있으면 이제 다 피거든요.}

=1 # 인자 다 피:고 이라면.{인제 다 패고 이러면.}

=1 # 마니새기 본 한 달마니믄 가실로 아이 할똥말똥 요리케대:, 누른빠치 날똥말똥 이리
 데거등네.{만이삭 본 한 달 만이면 추수를 아니 할똥말똥 이렇게 돼(요), 누른 빛이 날똥말
 똥 이렇게 되거든요.}

=1 # 그러~이 머 곡수기라커능거느 이그머 이글쭈록 고개를 수긴다.{그러니 뭐 곡식이라고
 하는 것은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1 # 그러~이 사:람도 마~이 알:면 알:쭈록 고개를 쯤 수기능거치.{그러니 사람도 많이 알
 면 알수록 고개를 쯤 숙이는 것 같이.}

=1 # 사:라믄 상대로 할라크믄 쯤 잘 해야텐다 이런 뜨또 아~이:이썸니까?{사람을 상대로

할라고 하면 좀 잘해야 된다 이런 뜻도 있잖습니까?}

=1 # 마~이 아능기 마리지 곡스근 이그모 고개를 수기는데 마~이 아능기 와그리 뻘뻘하노 이런 말거치.{많이 아는 것이 말이지, 곡식은 익으면 고개를 숙이는데, 많이 아는 것이 왜 그리 뻘뻘하노 이런 말같이.}

=1 # 야, 그래가주고.{예, 그래 가지고.}

=1 # 으 한 달 한 보름데머 야 참 가실로 시자글 합니다, 예.{음, 한 달 한 보름되면, 야 참 추수를 시작을 합니다.}

=1 @ 그라른 엔날가트문 언자 나틀가꼬 비:가꼬 타자글 할 꺼 아입니까?{그러면 옛날 같 으면 인제 낫을 갖고 베 가지고 타작을 할 것 아닙니까?} # 예.{예.}

=1 @ 엔날가트모.{옛날 같으면.} # 예.{예.} @ 지끄른 역시 기계를 가지고 싸악 가몬 비: 즈가지고 머 타작까지 다 데데예.{지금은 역시 기계를 가지고 싹 가면 베어져 가지고 타작 까지 다 되대요.} # 예, 그런 수도 이찌요.{예, 그런 수도 있지요.}

=1 @ 고거 어찌대능 긴지 말쑼 줌.{그거 어찌되는 긴지 말쑼 줌.}

=1 # 그러~이.{그러니.}

=1 # 저: 농사 마:이 작:꼬 오새 절문사람드느: 참 금시 이 이래가주고 비:문 타재기텐다 이 라지만.{저 농사 많이 짓고 요새 젊은 사람들은 이래 가지고 베면 타작이 된다 이리지만.}

=1 # 농:사 적:끼 진는 사라른 여: 바인다라카는 기계: 이써가주고.{농사 적게 짓는 사람은 여기 바인더라고 하는 기계가 있어 가지고.}

=1 # 바인다도 큼기: 익꼬 저금기 이꺼든예.{바인더도 큰 것이 있고, 작은 것이 있거든요.}

=1 # 바로 타 비:가 타작대는 거는 큰 바인다고.{바로 타 베어 가지고 타작되는 것은 큰 바 인더이고.}

=1 # 인자 쪼매는거는 바로 비:가주고 누피가주고 말랴:가주고 동개:가주고 타자글하고, 요 래 데고.{인제 조그마한 것은 바로 베어 가지고 눅혀 가지고 말려 가지고 포개 가지고 타작 을 하고, 이렇게 되고.}

=1 # 그런 가져~에는 머 다 가튼 바인다라도 크고 저근데 차이가 익꼬.{그런 과정에는 뭐 다 같은 바인더라도 크고 작은 데 차이가 있고.}

=1 # 그 타:작하는 기계는 탈:고끼라커고, 탈:고끼.{그 타작하는 기계는 탈곡기라고 하고, 탈곡기.}

=1 # 자근 바인다러가 비능거는: 탈고글 해야 데는데, 탈고끼에다가 사:람 손수로 이래 두 림: 둘:대로 미기:가주고 타자글 해야 데고.{작은 바인더를 가지고 베는 것은 탈곡을 해야 되는데, 탈곡기에다가 사람 손으로 이렇게 돌이면 둘대로 먹여 가지고 타작을 해야 되고.}

=1 # 바인다, 큼바인다라 커능거는: 기계 우예 올라타고 함부레 뒤에 도라보몬 타:작꺼정 다 해가 나오고 그런심니다.{바인더, 큰 바인더라고 하는 것은 기계 위에 올라타고 애초부 터 뒤에 돌아보면 타작까지 다 해서 나오고 그렇습니다.}

=1 @ 그거를 큰 바인다라 캅니까?{그것을 큰 바인더라고 합니까?}

예, 그 기계가 크~이까네, 예.{예. 그 기계가 크니까네, 예.}

=1 @ 그러모 타작하고나몬 인자 큰 바인다라 해따 침니더이.{그러면 타작하고 나면 인제 큰 바인더라(로) 했다 침니다이.} # 예.{예.}

=1 @ 그러몬 인자 지피 뒤에 주옥 깔릴꺼 아입니까? 그 지븐 인제 우찌 치암니까? 그래 그대로 둥니까, 아이메는 또 소늘 바가지고 우찌 다르케 처리를 다르케 합니까?{그러면 인 제 짚이 뒤에 주옥 깔릴 것 아닙니까? 그 짚은 인제 어찌 치웁니까? 그렇게 그대로 둥니까,

아니면 또 손을 봐가지고 어찌 다르게 처리를 합니까?)

=1 # 아:, 인자 소를 마:이 미기고 이런 사라문 그 지부를 무까:가주고 소줄라꼬 저장을 하고.{아, 이제 소를 많이 먹이고 이런 사람은 그 짚을 묶어 가지고 소 주려고 저장을 하고.}

=1 # 또 소도 안 미이:고 이런 사라문 타:작할 때 참 머 바로 그게 상그려져가주고 나오도록 고로케 덴 데가 작동이 데:가 이꺼등네.{또 소도 안 먹이고 이런 사람은 타작할 때 참 뭐 바로 그것이 썰려 가지고 나오도록 그렇게 된 데가 작동이 되어 있거든요.}

=1 # 상그려가 나오주브며 상그려져 나오고, 지다쿰하~이 기양 나와줌: 나오고.{썰려져 나오고 싶으면 썰려져 나오고, 기다랗게 그냥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1 # 이리키 따무네 내가 피료한 사라문 지다꾸마~이 나오도록 해가주고 소도 줄 쭈도 익꼬, 가정에 실 쭈도 익꼬, 이래.{이렇게 때문에 내가 필요한 사람은 기다랗게 나오도록 해 가지고 소도 줄 수도 있고, 가정에 쓸 수도 있고, 이래.}

=1 @ 그러문 인제 지다꾸마~이 나와따꼬 생가캄니테이. 그럼 지다코마~이 나온 거를 가따가 인자 지브로 웅길려카문 또 몽끼고 이래야 텔꺼 아임니까?{그러면 이제, 기다랗게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기다랗게 나온 것을 가져다가 인제 집으로 옮기려고 하면 또 묶고 이래야 될 것 아닙니까?} # 예.{예.} @ 아까 무관다 그래씀니까?{아까 묶는다 그랬습니까?}

=1 # 예.{예.}

=1 @ 고거는 또 우찌합니까? 그냥 사람 소느로 해야 텔 꺼 아임니까?{그것은 또 어찌합니까? 그냥 사람 손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1 # 소느로가 무릅니다.{손으로 묶습니다.}

=1 # 소느로가:도 무끄고, 오샌 또 기계화 데:가주고 기계로가:도 무끄는 수도 익꼬.{손으로도 묶고, 요샌 또 기계화돼 가지고 기계로도 묶는 수도 있고.}

=1 @ 아, 그거또 기계로 텨니까?{아, 그것도 기계로 됩니까?} # 예.{예.}

=1 # 기계로가:도 무끄는 수가 익꼬, 인자 소느로가:도 무끄느. 지꾸문 바:서는 아프론 점:부 기계로 무:끌끔니다.{기계로도 묶는 수가 있고, 인제 손으로다가도 묶는. 지금은 봐서는 앞으로는 전부 기계로 묶을 겁니다.}

=1 # 기계화 대: 가주고 소느로가 무끄는 사람 오새에도 좀 드물거등네.{기계화되어 가지고 손으로 묶는 사람 요새도 좀 드물거든요.}

=1 @ 그러문 인자 노네서 인자 무까날썰게네:, 이걸 또 지브로 인자 웅기야 될 꺼 아임니까?{그러면 인제 논에서 인제 묶어 났으니까, 이걸 또 집으로 옮겨야 될 것 아닙니까?}

=1 # 예.{예.}

=1 @ 옼날가트문 지계를 지고 해께찌만 지그문 또 기계로 가주고옵니까?{옼날 같으면 지계를 지고 했겠지만 지금은 또 기계로 가지고 옵니까?}

=1 # 여 지금도예 기계로 가: 옵니다. 기공기라카능기 이꺼등네.{여 지금도요 기계로 가져 옵니다. 경운기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1 # 요요 나도요 지바페 요 한대 데에난는데, 조거를 기공끼라캄니다.{여기 나도요 집 앞에 한 대 대어 났는데, 저것을 경운기라고 합니다.}

=1 # 요요 한 대 대에 난:는거.{여기 한 대 대어 놓은 것.}

=1 # 그.{그.} @ 저 기웅기가 아이고?{저 경운기가 아니고?}

=1 # 겨~웅기에 예 기공끼라카거든예.{경운기요, 예, '기공기'라고 하거든요.}

=1 # 예 그렇끼~이 표점말하고.{예, 그러니까 표준말하고}

=1 # 거:다가 인자 시:꼬 와가 내라 가주고 인자 참빠까리로 가리날:따가.{거기에다가 인제 싣고 와서 내려 가지고 인제 참 벗가리를 가려 났다가.}

=1 # 가리능걸 또 빼가라캅니다, 빼까리.{가리는 걸 또 벗가리라고 합니다, 벗가리.}

=1 # 빼까리로 해날:따가 인자 소를 미기든지 내가 피료할 때 인자 헤시가지고 사용을 하지요.{벗가리를 해 났다가 인제 소를 먹이든지 내가 필요할 때 인제 헤집어 가지고 사용을 하지요.}

=1 @ 그러믄 인자 빼까리도 만들 때 그냥 그냥 만들모 비가 새고 안덜꺼 아입니까?{그러면 인제 벗가리도 만들 때 그냥 그냥 만들면 비가 새고 안 될 것 아입니까?} # 예.{예.}

=1 @ 빼까리는 우째 만드는지 함 번 설명 좀 해주이소.{벗가리는 어떻게 만드는지 한 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1 # 빼까리라카능거는 참 머 머 속갑빠까리도 빼까리고.{벗가리라고 하는 것은 참 뭉 뭉 술가리 벗가리도 벗가리고.}

=1 # 속까캐:도 잘모를끼고마느 나무 빼까리도 빼까리고.{술가리라고 해도 잘 모를 것이건 만은. 나무 벗가리도 벗가리고.}

=1 # 이러~이까네 인자, 차오차오 인자 조피모타리매:치로 딱 요로트로 인자 아 가리야지요.{이러니깐 인제 차곡차곡 인제 두부모처럼 딱 이렇도록 인제 가려야지요.}

=1 # 요리 가리가주고 음: 인자.{이리 가려 가지고 음 인제.}

=1 # 덩는 갑빠가통거 엄는사라므느 그 지푸로가저고 자:꾸 요래 차오차오 동개 올리가주고, 고래가 비 안 드르가도록 그러케 맹글거등네.{덩는 갑바(천막천의 일종) 같은 것 없는 사람은 그 짚을 가지고 자꾸 이리 차곡차곡 동여 올려가지고 그렇게 해서 비 안 들어가도록 그렇게 만들거든요.}

=1 @ 그러믄 언자 아까 나무도 빼까리고.{그러면 인제 아까 나무도 벗가리고.} # 예.{예.}

=1 @ 아까 처음 말쓰믄.{아까 처음 말씀은.} # 집 지 저:도 빼까 가리는 건 다 빼까리야.{집 지 저것도 벗가 가리는 것은 다 벗가리야.}

=1 @ 그래서 언자 우선 집만 각꼬 생각해 봄니더이.{그래서 인제 우선 짚만 갖고 생각해 봅니다.} # 예.{예.}

=1 @ 그러믄 언자 지프로가주고 언자 빼까리 만들 때 젤:미테 머 바다글 우찌 깔고 그다 메 세울 여페 차옥차옥 이래 싸:가야하텔꺼 아입니까?{그러면 인제 짚을 가지고 인제 벗가리 만들 때 제일 밑에 뭉 바닥을 어떻게 깔고, 그 다음에 세울 옆에 인제 차곡차곡 이렇게 쌓아가야 될 것 아입니까?}

=1 @ 조피 모타리맹크로 한다그래쓰니까네, 네모 반뜨타게 한다 그 말씀 아이게씀니까?{두부모처럼 한다 그랬으니깐, 네모 반듯하게 한다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 예예.{예예.}

=1 @ 고거 쪼끔 더 구체저그로 말씀해주이소.{그것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1 # 아이, 그 그거느 언자.{아니, 그 그것은 인제.}

=1 # 미테 논:는 거는 인자 투바~이라카거등네, 투방. 투방을 나:야 땅에 나:도도 그기 안 썩거등네.{밑에 놓는 것은 인제 '투방'이라고 하거든요, 투방. 투방을 놔야 땅에 놔 뒤편도 그게 안 썩거든요.}

=1 # 투방을 대충 인자 빼까리로 어느 정도 가리야 데게따 시품:, 투방을 어느 정도 넓게 노코.{투방을 대충 인제 벗가리로 어느 정도 가려야 되겠다 싶으면, 투방을 어느 정도 넓게 놓고.}

=1 # 쪼끔 지피 적:게따 시프문 투방을 조금 적:게 노코, 그래 인자 그 지베 양:에 따라가

주고 투방을 노읍니다.{조금 짚이 적겠다 싶으면 투방을 조금 적게 놓고, 그래 인제 그 짚의 양에 따라 가지고 투방을 놓읍니다.}

=1 @ 그러든 투방은 지핍니까? 아니메는 다른 머 나무나 이릉김니까?{그러면 투방은 짚입니까? 아니면 다른 뭐 나무나 이런 것입니까?} # 나무예.{나무요.}

=1 @ 주로 어떤 나무로 합니? 통나무니까? 판잡니까?{주로 어떤 나무로 합니(까)? 통나무입니까? 판잡니까?}

=1 # 주로 통나무로 마:이 노:타가 요즈믄 뭐 보~이까 그 머 공장 거튼데 머 저저.{주로 통나무로 많이 놓다가, 요즘은 뭐 보니까 그 뭐 공장 같은 데 뭐 저저.}

=1 # 머 제품거튼거 노을라꼬 조피모타리맨치로 고로케 딱 짜가주고, 그거를 머 이르믄 모라크능고 잘 모르게서요.{뭐 제품 같은 거 놓으려고 두부모처럼 그렇게 딱 짜 가지고, 그것을 뭐 이름을 뭐라 그러는가 그런 것은 잘 모르겠어요.}

=1 # 고:릉거르 언자 고거느 착착착착 가따노:머 건: 사가경하우지브모 사가경하고, 삼가경하고지브모 하고, 고대로 데거등네. 고 고릉길 좀 마:이 노읍니다.{그런 것을 인제 그거는 착착착착 갖다 놓으면 그건 사각형 하고 싶으면 사각형 하고, 삼각형 하고 싶으면 하고, 그대로 되거든요. 그 그런 것을 좀 많이 놓읍니다.}

=1 @ 그러든언자 미테 인자 통나무든지, 공장에서 나온 그렁기등 가네, 인자 투방을 나:노코 모양에 따라서 크기에 따라서.{그러면 인제 밑에 인제 통나무든지, 공장에서 나온 그런 것이든 간에, 인제 투방을 놔 놓고 모양에 따라서 크기에 따라서.}

=1 @ 그러든언자 지폴 인자 니피야 델 꺼 아입니까? 세아가지고 안할끼고예.{그러면 인제 짚을 인제 눅혀야 될 것 아입니까? 세워가지고 안할 것이고요.} # 누피야지요, 예.{눅혀야지요, 예.}

=1 @ 그래가주고 젤: 우게는 또 아까 머 갑빠로덱는다, 그러서찌마는.{그래 가지고 제일 위에는 또 아까 뭐 갑바로 덩는다, 그러셨지만은.}

=1 @ 갑빠 안 덩떠라도 비가 오더라도.{갑빠 안 덩더라도 비가 오더라도.} # 예, 안 새두루 언자 비늘로 다라가주고 인자.{예, 안 새도록 인제 비늘을 달아 가지고 인제.}

=1 @ 비늘 다는 거 그고 한 번 말씀 좀 해주이소.{비늘 다는 거 그것 한 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1 # 처으메:는 인자 빠까리 인자 비안마뚜루 날 내라:가주고 요래 하고.{처음에는 인제 벗가리 비 안 맞도록 낮(게) 내려 가지고 요렇게 하고.}

=1 # 고:서 시자:가: 머 일쎌치서 십쎌치서 자꾸자꾸 다라올리는 그기: 인자 비늘다능기라요.{거기에서 시작해 가서 뭐 일 쎌치씩, 십 쎌치씩 자꾸자꾸 달아 올리는 그것이 인제 비늘 다는 것이예요.}

=1 # 자꾸 인자 땡기 올리야 고게인자 끈티: 올리가가느 췌:빠타지, 자꾸 퍼자: 노:믄 기 복파네 지퍼가주고 안 데거등네.{자꾸 인제 당겨 올려야 그게 인제 끝에 올라가는 뽕족하지, 자꾸 퍼져 놓으면 그 복판에 깊어 가지고 안 되거든요.}

=1 # 고린 시그로 해가주고 인자 덕 덩읍니다.{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인제 덩 덩읍니다.}

=1 @ 그러든 인자 집치모는 지블로치몬 인자 지봉 맹크로?{그러면 인제 집 치면 집으로 치면 인제 지봉처럼?} # 예예.{예예.}

=1 @ 젤: 우에 그게 기수리 피로할꺼 가튼데 어떠썬니까?{제일 위에, 그것이 기술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 그이.{그게.}

=1 # 그건 머 벨 그건 머 벨 기수리 업썬요. 아까 맨 내 애이하드시 자:꾸 비늘로 다라 오

람: 끈티~이 가가:는 저 지 용마루매:치로 요래 소라지니까네.{그건 뭐 별 그건 뭐 별 기술이 없어요. 아까 내 얘기하듯이 자꾸 비늘을 달아 올리면 끝에 가서는 저 집 용마루처럼 이리 술아지니깐.}

=1 # 소라지는데는 마 머 지다콰한 지플가주고 이제 마주 걸치고 마 이래도 비가 안 드깁니다.{술아지는 데는 뭐 기다란 짚을 가지고 인제 마주 걸치고 뭐 이래도 비가 안 들어깁니다.}

=1 @ 예, 그러몬 인자 지베서 인저 소로 칸:다고 생각합니다. 가정합니다.{예, 그러면 인제 집에서 인제 소를 키운다고 생각합니다. 가정합니다.}

=1 @ 그라모 그거또 피라모 그 빼가지고 여물도 썩그러 가주고 소죽또 끼리고 이래야텔꺼 아입니까?{그러면 그것도 필요하면 그 빼 가지고 여물도 썰어 가지고 쇠죽도 끓이고 이래야 될 것 아닙니까?} # 예.{예.}

=1 @ 옌나레 그래 해 보션찌예?{옛날에 그리 해 보셨지요?}

=1 # 마:이 해찌요. {웃음} {많이 했지요. {웃음}} @ 고고 말씀 좀 해주이소.{그것 말씀 좀 해 주십시오.}

=1 # 머 빼: 머 빼능기야 머, 야불때기거 빼면 되능기고.{뭐 빼 뭐 빼는 거야 뭐, 옆엿 것 빼면 되는 거고.}

=1 # 상그능 거는 인자 상그는 기계는 뭐:시라 카능고 하몬 짹뚜라카거등, 짹뚜.{썩는 것은, 인제 썩는 기계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작두라고 하거든, 작두.}

=1 # 짹뚜에다 참 상그러가주고.{작두에다 참 썰어서.}

=1 # 언자: 집 한 소구리 역:코, 상그른 집한소구리 여:코, 상그른 지폰 지비라고 안하고 여무리라카거든, 여물.{인제 짚 한 소구리 넣고, 썩는 집 한 소구리 넣고, 썩 짚은 짚이라고 안 하고 여물이라고 하거든, 여물.}

=1 # 거: 언자 등게 한 바가치 여:코 이래가주고 인자 머 태기 마라자면 지미 사살나모 한 백또썩 안담니까?{그 인제 등겨 한 바가지 넣고 이래 가지고 인제 뭐 말하자면 김이 살살 나면 한 백 도썩 되잖습니까?}

=1 # 그래가주고 나아나:파가 소를 언자 퍼주고 이람:니다.{그래 가지고 놓아 났다가 소를 인제 퍼주고 이룹니다.}

=1 @ 그라모 어르신 말씀대로 하메는 인제 소주근 여무리 마:이 드러가고 등게 드러가고.{그러면 어르신 말씀대로 하면 인제 쇠죽은 여물이 많이 들어가고 등겨 들어가고.}

=1 # 물의 양, 무리야.{물의 양, 물이야.}

=1 @ 무리야 으레 드러가:지.{물이야 으레 들어가:지.}

=1 @ 그라몬 등개는 그게 멈니까? 저: 쌀: 나락꺾떼김니까? 보리꺾떼김니까? 등개라능기.{그러면 등개는 그게 뭐니까? 저 쌀 나락 꺾떼기입니까? 보리 꺾떼기입니까? 등겨라는 게.}

=1 # 그 오새:는 그거를 옌나레 우리는 마 고거를 등게라켄데.{그 요새는 그거를 옛날에 우리는 마 그거를 등개라고 했는데.}

=1 # 오새:는 그거를 살: 보드라운 등개는 히비수라카데예, 히비수.{요새는 그것을 쌀 보드라운 등겨는 '히비수'라고 하데요, 히비수.}

=1 # 그: 히비수라카는 등개는, 저 태기마라자면 옌나레는 당가리똥게라 캐꺼등네, 당가리똥게.{그 히비수라고 하는 등겨는, 저 말하자면 옛날에는 '당가리 등겨'라 했거든요, 당가리 등겨.}

=1 # 그랜는데 오새.{그랬는데 요새.} @ 당가리똥게 이게 보드랑:김니까?{당가리등겨, 이게 보드라운 것입니까?} # 예예.{예예.}

=1 @ 요게 그라몬 사 나라깁니까, 보릅니까? 당가리등게라크능기.{이게 그러면 쌀 베풀니까, 보리입니까? 당가리등겨라고 하는 게.}

=1 # 그: 나라게 등게.{그 벼의 등겨.}

=1 # 오새:느~ 그그를 히비수라카거등뇨, 히비수.{요새는 그것을 히비수라고 하거든요, 히비수.}

=1 @ 히비수른 마를 여: 씹니까?{히비수라는 말을 여기서 씹니까?}

=1 # 어, 옴:나레 당가리라캐찌 오센: 점:부 히비수라 캅니다.{어, 옛날에 당가리라고 했지, 요새는 전부 히비수라고 합니다.}

=1 @ 예:.{예.} # 예, 옴:나레 우리 클 때는 당:가리라케꼬, 오센: 점:부 히비수라커고.{예, 옛날에 우리 클 때는 당가리라고 했고, 요새는 전부 히비수라고 하고.}

=1 @ 예, 그렇게 지금 저: 제가 지금 그 여쭙보능거능네. 이 등게가 언자 그 보다란:거또 익꼬 썩:거또 익꼬 앙 그러릅니까?{예, 그러니까 지금 저 제가 지금 그 여쭙보는 거는요. 이 등겨가 이제 그 보드라운 것도 있고 썩: 것도 있고 그렇잖습니까?} # 예예.{예예.}

=1 @ 그라고 인저 보리똥게, 등게 따로 익꼬, 쌀도 따로 익꼬 아 저 나락.{그리고 인제 보릿등겨, 등겨 따로 있고, 쌀도 따로 있고 아 저 벼.} # 예.{예.} @ 보리 꺾때기, 쌀 저 나락 꺾때기.{보리 꺾때기, 쌀 저 나락 꺾때기.}

=1 @ 그런 구벼를 요새 해 하션는지 어쨌는지?{그런 구별을 요새 하셨는지, 어쨌는지?}

=1 # 그으는 머 다: 등:게지.{그것은 뭐 다 등개지.}

=1 # 저 보리똥, 머 그저 머 보리똥:게다 나락똥:게다 이꼬하지. 거기 머 별 실이 그 분별 데능거는 업:꼬, 다: 등겐 등게고.{저 보릿등, 뭐 보릿등겨다 벗등겨다 있고 하지. 거기 뭐 별스레 그 분별되는 것은 없고, 다 등겨는 등겨고.}

=1 # 인자: 치 인자 보통 그저네 애:기할 때느 당가리등게컬힐때느.{인제 보통 그전에 애기할 때는 '당가리등겨'라고 할 때는.}

=1 # 요고 인자 소: 몬 뭉능기 그거 신:등게라카고, 신:등게.{이것 인제 소 못 먹는 게 그거 신등겨라고 하고, 신등겨.}

=1 # 조: 인자 소: 금시 소죽 끼릴 때 준다카능그느 당가리똥게라케꼬 고로케.{저것 인제 소 금시 쇠죽 끓일 때 준다고 하는 것은 당가리등겨라고 했고 그렇게.}

=1 # 오새:는 머 보문 머 저 히비수라커고.{요새는 뭐 보면 저 히비수라고 하고.}

=1 # 또 머 등게는 또 왕:게라커등가, 왕:게. 오새:는 왕:게라카데.{또 뭐 등겨는 또 왕겨라고 하던가, 왕겨. 요새는 왕겨라고 하데.}

=1 @ 그 왕:게란 마를 옴날부터 여: 씨씹니까?{그 왕겨라는 말을 옛날부터 여기서 씹습니까?} # 안 씨씨예, 예.{안 씹어요, 예.}

=1 @ 그러몬 어르신, 저 저도 옴나레 초네서 그 간혹 그렇 거 반는데, 이 짹뚜를 각:꼬 언자 여물 안 그 지풀가모 썩글모 그 여물 아닙니까?{그러면 어르신, 저 저도 옛날에 촌에서 그 간혹 그런 것 봤는데, 작두를 가지고 인제 여물 그 짹을 가지고 썰면 그 여물 아닙니까?} # 예.{예.}

=1 @ 그 잘모나다가 보므 이 손까라기 막 날라가고 이래꺼등네.{그 잘못하다 보면 이 손가락이 막 날라가고 이랬거든요.} # 그런 수가 마:이 이서찌요.{그런 수가 많이 있었지요.}

@ 예.{예.}

=1 @ 그래서 그런 그 혹시 머, 동네서 그런 그 혹시 손가락 찢리가주고 하능, 이런 사고를 함 보신 그런 기어기 이쓰십니까?{그래서 그런 그 혹시 뭐, 동네에서 그런 그 혹시 손가락

이 찢리고 하는, 이런 사고를 한 번 보신 그런 기억이 있으십니까?)

=1 # (웃음) 나는 그렇기어근 봉 게 업:스예.{(웃음) 나는 그런 기억은 본 게 없어요.}

=1 @ 그 참 겁나데예.{그 참 겁나데요.} # 예.{예.}

=1 # 그: 짹뚜에마~ 상글리는게 아니고 오새: 보무 그 저저.{그 작두에만 썰리는 것이 아니고, 요새 보면 그 저저.}

=1 # 그 머라카노, 오새 기계에다가 바로 집 꼬통거 여어가주고 상그러가 나오는 거로.{그 뭐라고 하니, 요새 기계에다가 바로 쥔 같은 거 넣어서 썰려서 나오는 거로.}

=1 # 배특끼라카등가? 오새: 말로 배특기. 저: 여물 상그러:나오는 거를.{배특기라고 하던가? 요새 말로 배특기. 저 여물 썰려 나오는 것을.}

=1 # 그르 그거에도 소늘 마:이 다치는 수가 이썬예. 거기 지블 여타가 그런데.{그르 그거에도 손을 많이 다치는 수가 있어요. 거기 쥔을 넣다가 그런데.}

=1 @ 그러몬 인자 결국 그 소주글 끼리능거는 주로 겨울 아임니까? 겨울처레.{그러면 인제 결국 그 소죽을 끓이는 것은 주로 겨울이잖습니까? 겨울철에.}

=1 # 그러치요, 예.{그렇지요, 예.} @ 여르메도 소주글 가늑 끼립니까?{그러면 여름에도 소죽을 간혹 끓입니까?}

=1 # 여르멘 잘 양끼립니다. 여르메는 지븐 집때로 주고 언자 푸를 비:다가 새:찌블주고. {여름에는 잘 안 끓입니다. 여름에는 쥔은 쥔대로 주고, 이제 풀을 베다가 사이쥔을 주고.}

=1 # 푸리라카능거는 소에대애가쥔: 벨 영양가는 업:는데.{풀이라고 하는 것은 소에 대해서는 별 영양가는 없는데.}

=1 # 그: 언자 소아시기는데 조타꼬해가주고 푸를 마:이 줍니다.{그 소화시키는 데 좋다고 해서 풀을 많이 줍니다}

=1 @ 그러몬 언자 여름가트며는 그람 소를 저 마우까:네도 머 날:쭈도 이찌마느 바께도 막 안 듭니까? 바께예. 썬언향께네.{그러면 인제 여름 같으면, 그러면 소를 저 마곳간에도 넣을 수도 있지만 밖에도 막 안 듭니까? 바께요. 시원하니까.}

=1 @ 그럼 그 때 마 풀도 비:가꼬 가치 소 무:라고 비:가꼬 그거를 머라릅니까? 속꼬리라 캅니까, 머라캅니까?{그럼, 그때 뭐 풀도 베 가지고 같이 소 먹으라고 베어 가지고 그것을 뭐라고 그럼니까? 소풀이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1 # 예, 참 머 내가 알기 저네 마~:이 아네요.{예, 참 내가 알기 전에 많이 아네요.}

=1 # 소꼬리라캅다, 소꼬리라커고.{소풀이라고 합니다. 소풀이라고 하고}

=1 # 여름철대몬 주로 오새: 인자 마구를 잘 찌아가주고 여 가다: 노코 미기지마는.{여름철 되면 주로 요새 인제 마구를 잘 채워가지고 여기 가둬 놓고 먹이지만.}

=1 # 우리 클 때마해도 소를 여름철 데면 저: 사네 올리나:요.{우리 클 때만 해도 소를 여름철 되면 저 산에 올려 놔요.}

=1 # 사네 올리 나아따가 지꿔쭈 대몬 인자 소 몰러 가지요.{산에 올려 났다가 지꿔쭈 되면 인제 소 몰러 가지요.}

=1 # 가고 이래해찌마 머 오새:는 점부.{가고 이래 했지만 요새는 전부.}

=1 # 머 마구 잘 찌아가 지베서 이래 키우고 이라니까네 참 함빠디이석 주능기 소풀 소풀 주는.{뭐 마구 잘 지어서 집에서 이렇게 키우고 이러니까 참 한 바리씩(가득하게) 주는 것이 소풀. 소풀 주는.}

=1 @ 소풀도 인자 비:로 가야텔꺼 아임니까?{소풀도 인제 베러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예.{예.}

=1 # 그 우리 클 때는, 오새:는 머 기계화 대:가주고 머 겨~웅끼: 식:꼬 오머테지마느.{우리 클 때는, 요새는 뭐 기계화되어 가지고 경운기에 싣고 오면 되지만은.}

=1 # 우리 클 때만 해도 소:꼬를 비러갈라카른.{우리 클 때만 해도 소꼴을 베러 가려고 하면.}

=1 # 지게로 지고 저: 논 두게나 그 머: 거랑뚜게나 가가주고, 이래 한짐씩 해가 와가 함빨 띠기석 주능거시 소꼴.{지게를 지고 저 논 독에나 그 뭐 도랑독에나 가 가지고 이리 한 짐씩 해서 가져와 한 바리씩(가득하게) 주는 것이 소꼴.}

=1 @ 그 사네도, 사네 가서도 언자 소꼴 비:고 그다:메 또 거랑뚜기라 캐씀니까?{그 산에도, 산에 가서도 인제 소꼴 베고 그 다음에 또 도랑독이라고 했습니까?} # 예, 거랑뚝{예, 도랑독.}

=1 @ 거랑, 거랑은 물래러가는?{도랑, 도랑은 물 내려가는?} # 예예, 그 독.{예예, 그 독.}

=1 @ 그걸 거랑이라 캐씀니까?{그것을 '거랑'이라고 했습니까?} # 예.{예.}

=1 @ 그럼 거랑은 보통 크기: 어느 정도 뎀니까?{그럼 '거랑'은 보통 크기가 어느 정도 됩니까?}

=1 # 거랑이라 카는 거는 머 그저, 요: 머 폴짝폴짝 다리빨 한: 나 노코 건널정도 데능기: 도랑이지요.{'거랑'이라고 하는 것은 뭐 그저, 요 뭐 폴짝폴짝 다릿발 하나 놔 놓고 건널 정도 되는 게 도랑이지요.}

=1 @ 그러면저 소를 아까 또 사네 올리 논는다고 말씀하셧는데예.{그러면 인제 소를 아까도 산에 올려 논는다고 말씀하셧는데요.}

=1 @ 그라모 거게:는 소 요거느 모라캄 머 꼬뽕이라캄니까, 이까리라캄니까? 소.{그러면 거기에는 소 이것을 뭐라고 함(니까), 뭐 '꼬뽕'이라고 함니까, '이까리'라고 함니까? 소.}

=1 # 소 이까리.{소 이까리(고삐).}

=1 @ 그람: 이까리로.{그럼 이까리로.} # 인자 소를 올리 놀:때느.{인제 소를 올려 놓을 때는.}

=1 # 소 이까리로 뿌레 가마가주고, 뿌레다가 가머가주고 이래 나: 논능거시.{소 고삐를 뿔에 감아 가지고 뿔에다가 감아 가지고 이렇게 놓아 놓는 것이.}

=1 # 나: 논는다꼬 안 하고, 올리 논:는다 이커지. 인자 사네 올리 논는다.{놔 놓는다고 안 하고, 올려 놓는다고 이렇게 하지. 인제 산에 올려 놓는다고.}

=1 # 그래, 올리 노을 때는 뿌레 이까리를 가마야 대거등네.{그래, 올려 놓을 때는 뿔에 고삐를 감아야 되거든요.}

=1 # 그라이몬 걸린:다고, 예.{그게 아니면 걸린다고, 예.}

=1 @ 그레가꼬 그라몬 사네 올리 노으모 인제 그 사네는 곡수근 업써야 텔 꺼 아임니까? 그 여페 바치 이따든지 논바치 이쓰모 안 텔 꺼 아임니까, 소가 뜨더몽께네.{그래 가지고 그러면 산에 올려 놓으면 인제 그 산에는 곡식은 없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옆에 밭이 있다든지 논밭이 있으면 안 될 것 아닙니까, 소가 뜯어 먹으니까.}

=1 # 와요, 그 뜨더 멍는 수도 만치요.{왜요, 그 뜯어 먹는 수도 많지요.}

=1 # 그 저네 우리 애:릴 때만 해도, 저: 산 기스기라칼까, 산 자테.{그 전에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저 산기슭이라고 할까, 산 옆에.}

=1 # 그 보무 노니 이써가주고 소라카능기 머 참 가마 향군자리에 인는 거또 아이고.{그 보면 논이 있어 가지고 소라고 하는 것이 뭐 참 가만히 한군데에 있는 것도 아니고.}

=1 # 너무 노네 드러가가주고 나라글뜨더 목꼬. 그레, 나락또 다: 무러줄라커고. 이래 무러준 사실도 다: 이서요.{남의 눈에 들어가 가지고 벼를 뜯어 먹고. 그레, 벼도 다 물어주라고

하고. 이래 물어준 사실도 다 있어요.}

=1 # 안 무리주든 소도 안 주고. 그 머 갑짜기 무리줄 쏘는 업:지마느, 그러니 그 약썰글 하지요.{안 물어주면 소도 안 주고. 그 뭐 갑짜기 물어줄 수는 없지만, 그러니 그 약속을 하지요.}

=1 # 그든 가시리든 곡스글 가따 주게따 이래가 소로 몰고오는 수도 익꼬. 그런 수가 마:이 이찌요.{그러면 가을이면 곡식을 갖다 주겠다 이렇게 해서 소를 몰고 오는 수도 있고. 그런 수가 많이 있지요.}

=1 @ 그: 겔국언자 그: 농사 진는 그: 그글 제가 언자 여쭙보다가 소 미이능거까지 인자 완는데예.{그 결국 인제 그 농사 짓는 그 그걸 제가 인제 여쭙보다가 소 먹이는 것까지 왔는데요.}

=1 @ 그라몬 그: 아까 인제 지핌니데이.{그러면 그 아까 짚입니다.} # 예.{예.}

=1 @ 집 그거를 가따가언자 개리가꼬 소 여물도 하고.{집 그거를 갖다가 인제 가려 가지고 소 여물도 하고.}

=1 @ 마냐게 여물로 안하고 개리노:머는 엔나레 그걸 뿔까므로도 썬스니까? 군불로 연는 다든지.{만약에 여물로 안 하고 가려놓으면 옛날에 그걸 뿔감으로도 썬스니까? 군불로 넣는 다든지.}

=1 # 지풀 때진 아내서요. 소 먹꼬 남는 거는 주로 거르메 드:가지요.{짚을 때진 았았어요. 소 먹고 남는 것은 주로 거름에 들어가지요.}

=1 # 그러~이 소를 함마리썬 미길꺼 가트면. 저 아까 내: 함보로꾸캐찌요?{그러니 소를 한 마리썬 먹일 것 같으면. 저 아까 내 한 블록이라고 했지요?}

=1 # 그 오새:는 보로꾸지만 엔나레는 그게 에 마지기루가 얘기해꺼든요.{그 요새는 블록이지만, 옛날에는 그게 마지기로 얘기했거든요.}

=1 # 소 함마리 미길:라카면 한 단마지기?{소 한 마리 먹이려고 하면 한 다섯 마지기?}

=1 # 단마지기도 고기 함보루꾸에 한 백평빠집니다.{다섯 마지기면 그것이 한 블록에 한 백 평 빠집니다.}

=1 #그래~이 고 고:를 가지고 인자 미기는데는 소를 미기능기 위주가 아니고 엔나레는. 그름 하능게 위주거든예, 그름.{그러니 그 그것을 가지고 인제 먹이는 데는 소를 먹이는 것이 위주가 아니고 옛날에는. 거름 하는 것이 위주거든요, 거름.}

=1 # 그거 오새가치 비로가 이썬니까? 주로 그르믈 해야 데기 때무네.{그것 요새같이 비로가 있습니까? 주로 거름을 해야 되기 때문에.}

=1 # 소가 한 단 무:을꺼트문 한 석판썬 조:뿌능기라.{소가 한 단 먹을 것 같으면, 한 석판썬 줘 버리는 거야.}

=1 # 조:뿌리면 그거를 한 단 묵꼬 남치기는 발버 가주고 인자 오쭈똥을 가치 발버가주고. {줘 버리면 그거를 한 단 먹고 남는 것은 밭아 가지고 인제 오쭈똥을 같이 밭아 가지고.}

=1 # 그거를언자 처 동개:노으며 언자 썬거가주고 그르미 데거든예.{그것을 인제 썬아 놓으면 인제 썬어 가지고 거름이 되거든요.}

=1 # 그런 시그로 해가주고 농사를 지야서요.{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농사를 지었어요.}

=1 @ 그라몬 여르메 언자 그 소꼴 비:가주고 그거또 인자 소가 무:머는 **드러갈끼고.{그러면 여름에 인제 그 소 꼴 베 가지고 그것도 인제 소가 먹으면 **들어갈 것이고.}

=1 @ 빠대모 거르미 데고.{밟으면 거름이 되고.} # 그름 데고.{거름 되고.}

=1 @ 그라먼자 소꼬리라든지, 게우린거트문 인자 지피라든지 이릉기 점부 다 그름데는 거

지요?{그러면 인제 소꼴이라든지, 겨울인 것 같으면 인제 짚이라든지 이런 게 전부 다 거름 되는 것이지요?} # 그림 데지요.{거름 되지요.}

=1 @ 고거 말고 또 그림데는 거 또 이릅니까? 풀, 집 말고.{그것 말고 또 거름 되는 거 또 있습니까? 풀, 짚 말고.}

=1 @ 똥오주믈 퍼: 제긴다든지 이런 건 업습니까?{똥오줌을 퍼 제긴다든지, 이런 건 없습니까?}

=1 # 그 머 똥오주믈라 카능거는 주로 바테 가지, 노넨 안 가고.{그 똥오줌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밭에 가지, 논엔 안 가고.}

=1 # 그 머 여유가 이씨믄, 여내 그 그르믈 인자 밭분거를 모두:능거를 인자 한테 처 모아 가주고 처 모은다카거등네예.{그 여유가 있으면, 바로 그(?) 그 거름을 인제 밭은 것을 모두 넣은 것을 인제 한 군데 처 모아 가지고, 처 모은다고 하거든요.}

=1 # 저 밭분 거를 처 모아가주고.{저 밭은 것을 처 모아 가지고.}

=1 # 언자: 그 머 똥물또 피료이십, 머 피료 엄시문 거:다가 언자 가치 머 퍼: 분는 수도 익꼬.{인제 똥물도 필요 있으면, 똥 필요 없으면 거기에다가 인제 같이 퍼 붓는 수도 있고.}

=1 # 또 그림하능거는 그 말고는 인자 사네 가가주고 푸를 비:가와가주고 인자 노네 연능 거시 그르미지.{또 거름 하는 것은 그것 말고는 이제 산에 가서 풀을 베어 와 가지고 논에 넣는 것이 거름이지.}

=1 # 그 외에는 소로가 밭버가주고 주로 마 그 그르미 제일 조:은 거지요.{그 외에는 소로 밭아서 주로 그 거름이 제일 좋은 거지요.}

=1 @ 예.{예.}

=1 @ 옌나레 거이 머 지금도 그러케씀니다만 집찌비 소는 다 이씨지예?{옛날에 거의 뭐 지금도 그렇겠습니다만, 집집이 소는 다 있었지요?}

=1 # 집찌비 다 업씨쓰예.{집집이 다 없었어요.}

=1 # 집찌비 다: 업꼬, 그래도 머 제부 그부라게서 잘 산다커머 머 한 두:바리 한마리 요리 이씨꼬, 그 외는 소 업서서예.{집집이 다 없고, 그래도 똥 제법 그 부락에서 잘 산다고 하면 똥 한 두 마리 한 마리 이리 있었고, 그 외에는 소 없었어요.}

=1 @ 그 그래 어르신, 저 오늘 그 오리가:꼬 인자 나락 키아능거 그거 오늘 제가 궁금했는데, 잘: 드러씀니다.{그 그래 어르신, 저 오늘 그 오리 가지고 인제 벼 키우는 것 그거 오늘 제가 궁금했는데, 잘 들었습니다.}

제2편 어휘

2.1. 농경

2.1.1. 경작

20101	벼	나'라긴데
20102	이삭	이새'기라
20103	볍씨	썸'나라기라
20104	못자리	모'짱 (+ 구)
20104	못자리	모자'리 (+ 신)
20105	모판	*
20106	쟁기	쟁'기고
20107	보습	쟁'기썰
20108	벼	배띠'~이 (+ 벼를 통해 넘어가는 흙)
20108-0-1	-이	*
20109	극쟁이	홀썸'~이고
20110	씨레	썸'리
20111	번지	*
20112	모내기	모내'기
20113	흙덩어리	질:땅' (+ 안 깨어지는 흙이 있는 땅)
20113	흙덩어리	흑땡거'리
20113	흙덩어리	홀땡거'리
20113	흙덩어리	봄'모'래 (+ 잘 깨어지는 흙이 있는 땅)
20114	고무래	밑:개'
20114-1	고무래(곡식용도)	밑개'라깼썸
20114-2	고무래(재 용도)	밑개'
20114-3	고무래(흙 용도)	밑개'
20114-4	고무래(미는 데 사용)	밑개'
20114-5	고무래(당기는 데 사용)	밑개'
20115	쇠스랑	소스래'~이는 (+ 주로 두 발, 간혹 세 발도 있음)
20116	곡괭이	모'괭'이
20117	괭이	괭'~이'
20118	삽	삽
20118	삽	사'비'라
20119	호미	호매'~이
20120	농기구	농'사연장'
20121	김	지'시미다

20122	김매다	지'심맨'다'
20123	애벌 매다	초'불맨'다'
20123-1	두벌 매다	두':불'맨'다'
20123-2	마지막(세벌) 김매기	망'씨바지'(맨'다')
20124	논두둑	논뚝'
20124	논두둑	논뚜'기라 (칸'다')
20124-1	논두렁	논뚜'름'(한'다')
20125	밭둑	바뚜'기라 (커'고')
20126	밭두둑	받두'덩이라 (칸'다')
20127	밭고랑	받고리'라 (칸'다')
20128	밭이랑	*
20128-1	(밭이랑을) 타다/갈다/째다/파다	받고:를' 탄'다'
20128-2	이랑밟기	보리받'밭끼'
20129	보리	보리'
20129-1	가을보리	보리'라
20129-2	봄보리	봄뿐'리
20130	보리쌀	보리살'
20131	가을갈이	가을가'리
20132	감부기	감비'기
20133	두엄	테비'고 (+ 썩히는 것)
20134	거름	거르미'고 (+ 썩은 것)

2.1.2. 타작

20201	추수하다	추수한'다'
20202	벧단	나락'따'이~지
20202-1	벧단(한 줌정도)	*
20202-2	벧단(타작할 정도)	깁'판
20202-3	벧단(한 아름정도)	무'댕':기
20203	가리(積)	산'치기가익꼬 (+ '산치기'는 장작더미)
20203	가리(積)	모대'기라쿠고 (+ 곡식)
20204	가리다(積)	가'린다 (+ 곡식, 장작 모두에 해당)
20205	벧가리	빼까'리
20206	날가리	나락모대기'
20207	타작	(하'능'기:) 타:작'
20208	벼훑이	훑':깨
20208-1	그네	썰훑'깨
20209	개상	달개타작판'
20209-1	자리개	달개타작하는 줄'
20209-2	자리개질	달개타작'(한'다')

20210	도리깨	도리'깨
20210-1	도리깃장부	도리깨자로':
20210-2	도리깃열	도리깨열':
20210-3	도리깨꼭지	도리깨비네' (+ 보조)
20211	벗짚	나'락집
20211-0-1	-을	나락지'프'로
20211-0-2	-에	나락지'페
20212	새 께기	훼애'기
20213	쭈정이	쭈띠'기
20214	티	티':
20215	까끄라기	꺼끄래'기
20216	풍구	풍개'
20216	풍구	풍개'라 (커'지')
20217	원두막	원두'막
20218	허수아비	허재':비
20219	흥년	송년'
20220	머슴	머슴'
20221	놉	노'비'라 (칸'다)
20221-0-1	-을	노'블' 해'야'
20222	품앗이	품마'시한다
20223	품삿	품'똥'
20223-0-1	-으로	품'또'느로

2.1.3. 방아 찧기

20301	방아	방아'
20302	디딜방아	디'딜방아
20303	방앗공이	방아고'
20304	방아확	호박'
20305	물레방아	물방'아'
20306	연자방아	연자방아'
20307	절구	도구'통
20308	절구통	도구'통이고
20309	절굿공이	도군때'
20310	절구질	*
20311	겨	꺾띠'기
20312	보릿겨	당가리^ (+ 보드라운 것)
20313	왕겨	*
20314	등겨	히'비'수 (+ 요즘 말)
20315	검불	*
20316	꺾질	꺾'지를

20316	껍질	껍'지
-------	----	-----

2.1.4. 곡물

20401	곡식	곡'시기라
20402	잡쌀	잡살'
20403	맷쌀	맷'살
20404	쌀보리	살보'리
20405	조	서'수'기'라'
20406	차조	차서수'기'라
20407	메조	메서:수'
20407	메조	메서'수'기'라'
20408	좁쌀	서'숙'살'
20409	잘다	잘'다
20410	조이삭	서'수'이삭'
20411	수수	쭈시'
20411-1	붉은색 수수	쭈시'
20411-2	장목수수	*
20411-3	찰수수	*
20411-4	메수수	*
20412	수수깡	*
20413	옥수수	강내'~이
20413-1	찰옥수수	찰:강내'~이
20413-2	메옥수수	메강내'~이
20414	귀리	귀보리'
20415	메밀	메:물'
20416	콩	콩
20417	콩깍지	콩껍'지
20418	메주	메'주
20419	매달다	매':단'다'
20420	떡우다	떠'운다
20421	곰팡이	메(뽕'따')
20422	강낭콩	양:대'
20423	콩기름	콩지'름
20424	깨	깨':
20424-1	참깨	창'깨'
20424-2	들깨	들'깨
20425	고소하다	고시'다

2.1.5. 채소

20501	채소	채수'
20502	나물	나무'리라
20502-1	'나물(밭 재료)'	*
20502-2	'나물(밭 반찬)'	반나물'
20502-3	'나물(들 재료)'	*
20502-4	'나물(들 반찬)'	들라물'
20502-5	'나물(산 재료)'	*
20502-6	'나물(산 반찬)'	산나물'
20503	푸성귀	*
20504	다듬다	갈린'다
20505	반찬	반'차~이 (만네')
20506	무	무시'
20507	썰다	쌍근'다
20508	무청	무시이파'리
20509	시래기	씨래'기
20510	무말랭이	무시오'가리
20510	무말랭이	호박오'가리 (+ 호박말랭이)
20511	장다리무	짱다'리
20512	배추	뽕:차'
20513	고깡이	알'배'기
20514	오이	무'레
20515	오이지	무'레지:
20516	오이소박이	무'레집'치
20517	가지(茄子)	가지'
20518	호박	호박'
20519	고구마	고:구마'
20520	감자	감:자'
20521	우영	우봉'
20522	파	파
20523	고추	고치'
20524	시금치	씨금'추
20525	미나리	미나'리
20526	부추	정구'지
20527	상추	상'추
20528	마늘	마'늘
20529	생강	쌩:강'
20530	냉이	냉:
20531	달래	달랭'이
20532	도라지	돌가'지
20533	더덕	더'덕

2.2. 음식

2.2.1. 주식과 부식

20601	쌀밥	살'밥'
20602	찬밥	씨'근밥
20602-1	더운밥	뜨신'밥
20603	조밥	서'숙'밥
20604	누룽지	누룽':밥
20605	눌은밥	누룽':지
20606	승냥	승'녕
20607	뜨물	뜨물'
20608	김(蒸氣)	지:미' (+ 단독형 : '짐')
20609	갱죽(羹粥)	갱:죽'
20610	싱겁다	싱겁'다
20611	국수	국'시
20612	칼국수	*
20612-1	기계국수/틀국수	*
20613	건더기	건디'기
20613-1	국물	궁'물
20614	고명	*
20615	꾸미	끼미' (+ '고명'도 '끼미'라 함.)
20616	미역	미'역
20617	김(海苔)	짐:
20617	김(海苔)	짐:
20618	수제비	밀짱꾸'기라
20619	끼니	끼'(를' 건땀'따')
20620	미음	암:죽'(+ 아기용)
20620	미음	미염'
20620-1	(미음을)	끼'린다
	끓이다/쭈다/삶다	
20621	엿기름	질굼'
20622	식혜(食醴)	단술'
20623	식해(食?)	시'캐'
20624	달다(甘)	달'다'
20625	가루	가로'
20625-0-1	-에	가로'에
20625-0-2	-을	가로'로
20625-0-3	-도	가로'도
20626	밀가루	밀까로'

20627	밀기울	밀꺄'지
20628	미숫가루	미'수가리

2.2.2. 반찬과 별식

20701	간장	기렁'
20702	된장	빠점'장 (+ 간장을 빼지 않은 장)
20702	된장	덴장'
20703	고춧가루	고치까리'
20704	고추장	고치'장
20705	소금	소곰'
20706	김치	짐'치
20707	김장	짐장'
20708	깍두기	깍데'기 짐치'
20709	나박김치	궁'물 짐치 (+ 맹'물 짐치: 무가 통째로 들어간 경우)
20710	담그다	담'는'다
20710-0-1	-고	담'고'
20710-0-2	-어라	(사'기') 다'머'라
20711	양념	양'념'
20712	버무리다	버무'린다
20713	버섯	버'섯
20713-0-1	-이	버'서지라
20714	콩나물(재료)	콩지'름'
20714-1	콩나물(반찬)	콩나물'
20714-2	숙주(나물)	녹띠콩지'름'
20715	두부	조:피'
20716	비지	비'지
20716-1	비지떡	비'지떡
20717	달걀	게'랄
20718	가래떡	골'미(+ 꾸븐'떡: 구워서 만듦.)
20719	시루떡	시리'떡
20720	송편	쎡'핀
20721	빻다	만든'다
20722	흰떡	백'찜 (+ 의심스러움)
20723	고물	고'물
20724	팔죽	폰'쭈(+ 신)
20725	새알심	수지'비
20726	백설기	백'찜
20727	튀밥	판쭈(+ 구)
20727	튀밥	박'상 (+ 할머니)
20728	술	술

20729	막걸리	막걸'리
20730	소주	곡'쭈'(+ 고와서 만듦.)
20730	소주	소'주 (+ 화학재료)
20731	부침개	끼짐'

2.2.3. 부엌과 그릇

20801	부뚜막	부뚜마'기라
20802	가마솥	당구소'치라(+ 쇠죽솥)
20802	가마솥	당구소'트는
20802	가마솥	서말'찌솥(+ 밥솥)
20802-0-1	-을	서말찌소'틀
20802-0-2	-에	서말찌소'테
20803	아궁이	부어'키라
20803-0-1	-이	부'어키
20804	그을음	끄지러'미 (마~이 낄':따)
20805	불쏘시개	부살'기
20806	연기	영'기
20806-1	내(煙氣)	*
20807	그을리다	끄실리'^서
20808	부지깥이	부적개'~이
20809	부삽	불가'래
20810	넙다	따'갑'따
20811	넙비	넙비'
20812	그릇	그'르기라고
20812-0-1	-을	그'르글
20813	뚜껑	뚜껑'
20814	주발 뚜껑	개뚜배'~이
20815	사발 뚜껑	사기뚜껑'
20816	술뚜껑	소두배'~이
20817	밥주걱	주개'
20818	숟가락	수까'라기라
20819	젓가락	제까'치라
20820	종지	종바'리
20821	보시기	짐치쫑바'리
20822	뚝배기	툑수바'리
20823	접시	접'시
20824	조리	조:레'
20825	이남박	나무바가'치
20826	바가지	박'바'가치
20827	행주	행'주

20828	행구다	행'군다
20829	설거지	설거'지한다
20830	개숫물	기땀'물
20831	찌꺼기	찌꺼리'지
20832	화로	화:리'
20833	화롯불	화:리'뿔'
20834	부젓가락	불찌'깨
20834-0-1	-이	불찌'깨가
20834-1	불순가락	불'손'
20835	다리쇠	다리'쉐
20836	석쇠	적'쉐'
20837	도시락	초배'기(+ 대로 만들.) (+ 도시락 : 벤또의 의미)
20838	바구니	바구'니
20839	뒤주	두지'
20840	찬합	차:나'비'라'
20841	강판	강'판 (+ 보조)
20842	개다리소반	개다리파'~이라

2.3. 가옥

2.3.1. 방과 가구

20901	안방	큰바'~이라
20902	벽	베'기'라
20903	다락	다라'기라
20904	벽장	장빠'~이'라 (+ 단독형: 장땡')
20905	감추다	감춘'다
20905	감추다	숨'킨다
20906	흙	흐미'
20907	돌쩌귀	돌'짜'구'라
20907-1	암짜	암':너'미라
20907-2	수짜	쑹':너'미라
20908	미닫이	미:다'지'라
20909	여닫이	마따'지라
20910	덧문	들짱'이라 (들짱' : 들어올리는 것)
20911	열다	연:다'
20912	문고리	몽꼬'리
20913	자물쇠	쇠'토'~이라 (단독형 : 쇠'통')
20914	간히다	가칠^따

20915	열쇠	썰'때'라
20916	잠그다	장군'다
20917	구멍	구영'
20917	구멍	몽꾸영'
20917-1	취구멍	취구무'
20918	찢다	쨌'다'
20919	구들	방꾸'들'
20919	구들	구들'
20920	흙받기	흙'손
20921	흙손	※'흙칼'로 대응함.
20922	흙칼	흙'칼'
20922-1	흙칼(나무로 만든 것)	나무'흙'칼
20922-2	흙칼(쇠로 만든 것)	쇠'흙'칼
20923	바르다	바린'다
20924	장판	장'파'늘
20925	종이	조'~오(구)
20925	종이	종'이(신)
20926	도배	데비'한다
20927	구석	구저'기라 (+ 단독형 : 구적')
20928	굽도리	서두'라 (+ 단도경 : 서두')
20929	깨끗하다	깨끗하'다
20930	문지방	문찌바'이라
20930-0-1	-에	문찌바'게
20931	틈	트'메
20932	가장자리	가:
20933	가운데	복'판'
20934	시렁	썰'건
20934	시렁	썰'거'~이라
20935	살강	살가'~이라
20936	선반	선'반
20937	서랍	빼'다'미라(+ 단독형 : 빼'담')
20938	경대	경'대'
20939	거울	밍:게~이라 (+ 구, + 단독형 : 밍:깁')
20939	거울	거'우리라 (+ 신)
20940	걸다	건:다'
20941	호룽	호룽' (+ 호룽'때 : 호룽을 올려 놓는 대)

2.3.2. 건물

21001	지붕	지붕'
21001-0-1	-에	지붕'케

21002	기와	개와'
21003	기와집	개와지'비라
21003	기와집	개와집'
21004	수키와	쭈'개'와
21005	암키와	암'끼'아
21006	대들보	대들뽀'
21007	서까래	연'모기라 (+ 단독형 : 연'목)
21008	추녀	추혀'~이라 (+ 단독형 : 추현')
21009	처마	첨'마
21010	오두막	오두'막'
21011	초가집	초'가'짚
21012	이영	영'개
21012-0-1	-에서	영'개^서
21013	용마름	용바람'(초가집)
21014	기스락	새끌'
21015	낙숫물	새끌'물
21015-1	기스락물	새끌'무리라
21016	사닥다리	사다'리'
21017	용마루	용마'루'(+ 기와집)
21018	토방	축땀'(+ 마루가 놓이는 안쪽 부분)
21019	댓돌	*
21019-1	섬돌	축땀'돌(+ 1.마루가 없는 데 씀. 2.마루가 있는 데도 같음.)
21020	마루	청
21020-0-1	-에	청'에
21021	뒷마루	*
21022	기둥	지동'
21023	주춧돌	주춧'돌'
21023-0-1	-을	주춧'돌'로
21024	굴뚝	꿀'떡'
21024	굴뚝	꿀'떠'기라

2.3.3. 마당

21101	뜰	*
21102	마당	마당'
21103	넓다	너리'다
21103-0-1	-어서	널'러서
21104	넓히다	널'피야
21105	곳간	창'꼬
21106	외양간	소'#마구'

21107	마구간	*
21108	광	창'꼬
21109	헛간	허까'~이라고 (+ 단독형 : 허칸')
21109	헛간	채까'~이라고도 (+ 단독형 : 채칸')
21110	쓰레기	쓰레'기
21111	장독대	장뚜카'~이라
21112	장독 뚜껑	떠꺼'리
21113	변소	정낭'
21113-1	똥장군	똥짱구'~이 (+ 단도경 : 똥짱군')
21114	울타리	울따'리라
21115	담	다'미'라고
21115	담	담부라'기라고도
21115-0-1	-에	담부라'게
21115-0-2	-도	담부락'또
21115-0-2	-도	담'도'
21116	사립문	삼짜'
21116	사립문	삼짜'기라
21117	뒤꼐	딘:마'다'이라
21117-0-1	-에	딘:마'당'에서
21118	바깥	배거'테
21118	바깥	베거'치
21118-0-1	-에	배거'테
21119	모퉁이	모'티'~이로
21120	모서리	귀'티'~이

2.3.4. 마을과 가게

21201	마을	마을'
21202	윗마을	운마으'리고
21203	이웃	이'우제
21203	이웃	이'부제라
21203-0-1	-이	이'우시
21203-0-2	-에	이'우제
21204	마을가다	마실간'다'
21205	우물	새:미'
21206	두레박	다루'박
21206	두레박	다루'바기라
21207	샘(泉)	새미'라 칸'다'
21208	가(邊)	가:
21208-0-1	-을	가:로'
21208-0-2	-에	가:예'

21209	물지게	물찌'게
21210	가게	점:뺑'
21211	싸다	혈'타'
21212	비싸다	비'싸다
21213	홍정	홍정'
21214	중매인(거간꾼)	소개'꾼
21215	잔돈	잔'돈
21216	에누리	까'까두'가(= 깎아 다오)
21217	거스름돈	*
21218	거스르다	*
21219	꾸다(借)	채안'다
21219	꾸다(借)	빌'린다
21219	꾸다(借)	꾼'다'
21219-0-1	-어야	체':야
21219-0-1	-어야	뀌':야
21219-0-1	-어야	빌'리야
21220	구두쇠	구두'쇄
21221	말기다	매'끼 날^따
21222	나머지	나머'지는
21223	덤	*
21224	몫	(내) 목'시다
21224-0-1	-을	(내) 목'시를
21225	빚	비'들
21225-0-1	-을	비'들
21225-0-2	-에	비'데
21226	이자(利子)	이:시'글
21226	이자(利子)	이식'
21227	심부름	심바'라'물
21228	두름	두름'
21228-1	축	축'
21228-2	꽤	떼'
21228-3	접	접'
21228-4	쌈	삼'
21228-5	두름	두름'(뒤에 녹음 됨.)
21228-5	두름	다부'리
21228-6	단/몫(작은 묶음)	*
21228-7	단/몫(서너 개 묶음)	단
21228-8	툇	축'
21228-9	모숨	모숨'
21229	컬레	커'리
21230	마지기	마'지'기

21230-1	한 마지기의 넓이	논 : 이백'평'
21230-1	한 마지기의 넓이	밭 : 백'평'
21231	꾸러미	두름'
21232	그루	구루'
21233	포기	포'기
21234	저울	정'울
21235	자루(包袋)	푸대'
21235	자루(包袋)	자리':
21235-0-1	-을	자리'로
21235-0-2	-에	자리'예
21236	하나	하나'
21236	하나	하나'가
21236-1	한-개	항'개
21236-2	한-되	한'테
21236-3	한-말	함'말
21237	둘	둘:
21237	둘	두'리'가
21237-1	두-개	두(:)개'
21237-2	두-되	두'테
21237-3	두-말	두'말'
21238	셋	서'이'
21238	셋	서'이'가'
21238-1	세-개	세(:)개'
21238-2	세-되	서:테'
21238-3	세-말	서'말'
21239	넷	너'이'가'
21239	넷	너'이'
21239-1	네-개	네(:)개'
21239-2	네-되	너:테'
21239-3	네-말	너'말'
21240	다섯	다'서
21240	다섯	다'서'지가
21240-1	다섯-개	다:석'께
21240-2	다섯-되	달'떼
21240-3	다섯-말	담'말'
21241	여섯	여'서
21241	여섯	여'서'지가
21241-1	여섯-개	여:석'께
21241-2	여섯-되	열'떼
21241-3	여섯-말	여'선말
21242	일곱	일'고

21242	일곱	일'고비가
21242-1	일곱-개	일:꼭'께
21242-2	일곱-되	일'곱떼
21242-3	일곱-말	염말'
21242-3	일곱-말	일'곱말
21243	여덟	여'덜
21243	여덟	여'덜비가
21243-1	여덟-개	여'덜께
21243-2	여덟-되	여'덜떼
21243-3	여덟-말	여'덜말
21244	아홉	아'호비가
21244-1	아홉-개	아'혹께
21244-2	아홉-되	아'홉떼
21244-3	아홉-말	아'홉말
21245	열	열:
21245	열	열:
21245-1	열-개	열'께'
21245-2	열-되	열'뻬'
21245-3	열-말	열':말'
21246	스물	수'물'
21246-1	스무-개	수'무'개
21246-2	스무-되	수'무'뻬
21246-3	스무-말	수'무'말
21247	서른	서'른
21247-1	서른-개	서'룽개
21247-2	서른-되	서'른떼
21247-3	서른-말	서'른말
21248	마흔	마'흔
21248-1	마흔-개	마'흥개
21248-2	마흔-되	마'흔떼
21248-3	마흔-말	마'흔말
21249	쉰	쉰':
21249-1	쉰-개	쉰:개'
21249-2	쉰-되	쉰'테'
21249-3	쉰-말	쉰:말'
21250	예순	육'십'
21250-1	예순-개	육'식'개
21250-2	예순-되	육'십'떼
21250-3	예순-말	육'십'말
21251	일흔	칠'십'
21251-1	일흔-개	칠'식'개

21251-2	일흔-되	칠'십'때
21251-3	일흔-말	칠'십'말
21252	여든	팔'십'
21252-1	여든-개	팔'십'개
21252-2	여든-되	팔'십'때
21252-3	여든-말	팔'십'말
21253	아흔	구'십'
21253-1	아흔-개	구'십'개
21253-2	아흔-되	구'십'때
21253-3	아흔-말	구'십'말
21254	백	백
21254-1	백-개	백'개'
21254-2	백-되	백'때
21254-3	백-말	백'말'
21255	이백	이백'
21256	한'둘	한'둘
21256-1	한두-개	한'두개
21256-2	한두-되	한'두데
21256-3	한두-말	한'두말
21257	두'셋	두'셋'
21257-1	두세-개	두세'개'
21257-2	두세-되	두세'데'
21257-3	두세-말	두세'말'
21258	두'서'넋	두:서'넋'
21258-1	두서너-개	두:서'너'개
21258-2	두서너-되	두:서'너'데
21258-3	두서너-말	두:서'너'말
21259	서'넋	서'넋'
21259-1	서너-개	서'너'개
21259-2	서너-되	서'너'데
21259-3	서너-말	서'너'말
21260	네'댓	네'댓'
21260-1	네댓-개	네'댓'개
21260-2	네댓-되	네'댓'때
21260-3	네댓-말	네'댓'말
21261	대'여'섯	대:여'섯'
21261-1	대여섯-개	대:여'섯'개
21261-2	대여섯-되	대:여'섯'때
21261-3	대여섯-말	대:여'섯'말
21262	연'일'곱	연'일'곱
21262-1	연일곱-개	연:일'곱'개

21262-2	예닐곱-되	여일'곱떼
21262-3	예닐곱-말	여:일'곱말
21263	일여덟	일곱여'덜
21263-1	일여덟-개	일'고#여'덜개
21263-2	일여덟-되	일곱여'덜떼
21263-3	일여덟-말	일곱여'덜말
21264	여덟아홉	여덜아'홉
21264-1	여덟아홉-개	여더라'홉개
21264-2	여덟아홉-되	여더라'홉떼
21264-3	여덟아홉-말	여더라'홉말
21265	여남은	여남^
21265-1	여남은-개	여남^개
21265-2	여남은-되	여남^떼
21265-3	여남은-말	여남^말

2.4. 의복

2.4.1. 복식과 장식

21301	치마	치메'
21302	길이	기장'
21303	저고리	저구'리
21304	색동저고리	새똥저구'리
21305	두령이	*
21306	무늬	문채'
21307	고쟁이	꼬재'~이
21308	바지	바'지(+ 신)
21308	바지	주~우'(+ 구)
21309	두루마기	두루매'기
21310	의복	이'복(+ 존대, + 요즘)
21310	의복	오'시'라고도
21311	구겨지다	꾸개^진다
21312	옷고름	옥꼬'름
21313	단추	단초'
21314	동정	동'정
21315	겉	겉
21315-0-1	-에	거'테
21315-0-2	-을	거'틀
21316	홀옷	호꺄띠'기

21317	겹옷	저'본'
21318	잠방이	밤바'지(?)
21319	누더기	두데'기
21320	거지	걸배'~이
21321	구걸	동정'
21322	조끼	쫓'깨
21323	내의	내복'
21324	껴입다	더께임는'다
21325	소매	소'매'
21326	주머니	주무'~이
21326	주머니	쭈'치
21327	호주머니	개아쭈'치(+ 특히, 바지에 있는 것)
21328	허리띠	허리'끈
21329	댕기	댕'기
21330	도포	도:복'
21330	도포	도보기'라'
21331	삿갓	삭'깔
21331-0-1	-에	삭'까세
21332	고깔	꼭'깔
21333	사모	사모'
21334	유건	유건'
21335	대님	가불때'~이
21336	감발	*
21337	짚신	짚'썬'
21338	미투리	미'트'리
21338-1	(짚신을)	삼'는'다
	삼다/만들다/트다/곁다	
21339	나막신	나막'신(+ 유식)
21339	나막신	나무'신(+ 일반)
21340	설피	*

2.4.2. 바느질과 세탁

21401	명주	멩:지'
21401-1	명주실	멩:지'실
21402	목화	모'카'
21402	목화	미염'
21402-1	목화다래	다'래'
21403	무명	미영'베
21403-1	무명실	미영'실
21404	씨아	췌'기

21405	자새	자새'(+ 1. 실감는 것, 2. 연 날리는 것)
21406	물레	물레'
21407	베	베'를 짠다
21407	베	배'가'(腹)
21407	베	베'가'(綿)
21407	베	배'가'(船)
21407	베	배'가'(梨)
21408	길쌈	길'쌈'
21409	골무	골'미'
21410	반진고리	반땅시'기
21411	가위	가시'개
21411-0-1	-을	가시'개로
21411-0-2	-에	가시개'애
21412	마르다(裁)	짜른'다
21412-0-1	-고	짜리'고
21412-0-2	-어라	짤'라라
21413	형겉	형:겉'
21413-0-1	-을	형':거'플
21413-0-2	-에	형':거'페
21414	바늘	바'늘
21415	궤다	뀨':다'
21415-0-1	-고	뀨':고'
21415-0-2	-어라	뀨'^라
21416	바느질	바느'질한다
21417	재봉틀	자'방'틀(+ 1. 발로: 발'틀', 2. 앉아서: 손'틀')
21418	끈	끄내'끼
21419	노끈	삼#노내'끼
21420	참바	참'바
21421	매듭	매듭'
21421	매듭	매드'미라
21421-1	(매듭을)	맨'다
	맷다/짚다/엮다/묶다	
21422	보자기	보재'기
21423	이불	이'불
21424	솜	소'개'
21425	포근하다	폭딱하'다
21426	흙이불	혼니'불
21427	겹이불	점'니'불
21427-1	솜이불	한'니'불
21428	누비이불	니빈이'불
21429	베개	비':개'

21430	베갯잇	비'갠'넙'
21430-0-1	-에	비'갠'니'폐
21431	목침	목'치'미로
21432	퇴침	테'치'미로
21433	방석	방시'기
21434	담요	담:뇨'
21435	빨래하다	빨래'한'다'
21436	빨랫방망이	물'빨'마'치
21437	빨래터	빨래'터
21438	빨랫줄	빨래'줄
21439	다리미	다래'비
21439-1	다림질	다'린다('다림질'은 없음)
21440	인두	운'디'
21441	다듬잇방망이	방'마'치
21442	다듬잇돌	따'디'미'톨
21443	다듬이질	따'듬'질로 한다

2.5. 민속

2.5.1. 세시 풍속

21501	설날	설':랄'
21502	설	설':로'원^다
21503	선달 그믐날	선:딸그'뭉'날
21504	묵은세배	*
21505	올해	올'해
21505-0-1	-는	올'해는
21505-1	작년	장':년'
21505-2	재작년	재'장'년'
21505-3	내년	맹'년'
21505-4	후년	내'맹'년'
21505-5	내후년	내'내'맹'년'
21506	작은설	자'근'설
21507	윷	유'까'치
21507-0-1	-을	유'까'치를
21507-0-2	-에	유'까'치'에
21507-1	윷놀이	윷'노'리
21508	윷가락	유'까'치
21508-1	도	또

21508-2	개	개
21508-3	걸	걸:
21508-4	웃	웃
21508-5	모	모:
21509	단동	단동'(?)
21509-1	외동무니	단동'
21509-2	두동무니	두동'
21509-3	석동무니	석똥'
21509-4	넉동무니	넉똥'
21509-5	막동	막똥'
21509-6	단동무니	단동'불참'
21510	보름	보'름
21510-1	삭망	상'망'
21511	추석	추'석
21512	망월	달'짬'노리
21513	취불놀이	*
21514	자치기	돔바'래'
21514-1	작은막대	돔바래꼬재'~이
21514-2	긴막대	돔바'래'
21515	수수께끼	수수께'끼'
21516	호미씻이	※기억 못 함.
21517	팽과리	깡'깨'미
21518	장구	장'귀
21519	결두리	새^참
21520	무당	무':당'
21520-1	박수	화래'~이
21521	고수레	고'시레
21521-1	고수레!	(예'이') 고'시레!
21522	점쟁이	점재'~이
21523	상여(喪輿)	행상'
21523	상여(喪輿)	새~이'
21524	굴건	굴'관'
21525	제사	제사'
21526	제기	제:기'
21527	귀신	구신'
21528	도깨비	허재'비

2.5.2. 농경용품

21601	고삐	이까'리
21602	굴레	굴'리

21603	명애	모'애
21604	길마	질:매'
21605	부리망	호~오'리
21606	구유	구'이
21607	작두	작'뚜바'탕(+ 밀의 나무)
21607	작두	작'뚜
21608	꿀	꿀:
21609	여물	여물'
21610	쇠죽	여물' (+ 여물을 넣어 끓인 것)
21610	쇠죽	소'죽 (+ 등겨로 끓임)
21611	쇠죽바가지	나무바가'치
21612	수레	구루'마
21613	끝다	끄'은다
21613-0-1	-고	끄'으고
21614	바퀴	동테'
21615	새끼(繩)	새'끼'
21615-1	새끼(짐승의)	새'끼
21616	망태기	망태'기 (+ 망'태 : 개똥 줍는 것)
21617	떡등구미	봉태'기
21618	거적	꺼적때'기
21619	가마니	가마'~이
21619-1	가마니틀	가'마~이틀'
21620	돛자리	골':짜'리
21621	자리틀	골':짜'리틀'
21621-1	(자리틀)	짚'다'
	짜다/치다/만들다/결다	
21622	왕골	왕'골 (+ '띠'로도 한다)
21622	왕골	띠'
21623	삼태기	*
21623-1	짚 삼태기	집소구'리
21623-2	싸리 삼태기	대소구'리 (+ 대로 만든 것)
21623-2	싸리 삼태기	사리소구'리 (+ 싸리로 만든 것)
21624	명석	덕시'기
21625	어레미	얼기'미
21625-1	고운체	고분'체'
21625-2	굵은체	엉'근체'
21626	대장장이	펜수재'~이
21626	대장장이	가지'야(+ 요즘)
21627	대장간	승냥'간'
21628	풀무	불메'
21629	모루	*

21630	모루채	매'
21631	갈퀴	까꾸'리
21632	집게	쩍'깨
21633	장도리	장:돌'
21633-1	노루발	*
21634	툽	툽
21634-0-1	-에	토'베
21635	도끼	도끼'
21636	자루(柄)	자리'
21636-0-1	-을	자리'로
21636-0-2	-에	자리'에
21637	갈고리	까꾸래'~이
21638	썰기	보'죽 (+ '꼴'도 가능)
21639	송곳	송:곧'
21639-0-1	-에	송:고'테'
21640	뽀죽하다	썰뽀하'다
21641	숫돌	숫틀'
21641-0-1	-에	수트'레
21642	맷돌	맷'똥'
21642-1	수쇠	쑹'넙'
21642-2	암쇠	암'넙'
21643	지게	지'개
21644	발채	바:지'개'
21645	지게 작대기	작때'기
21646	막대기	막때'기
21647	몽둥이	몽디'~이

2.5.3. 생활용품

21701	빗자루	빈짜'리
21702	광주리	사리쑤구'리
21703	소쿠리	대쑤구'리
21704	함지	함'지
21705	폴비	폴뻘짜'리
21705-1	귀얄	*
21706	독	독
21706-0-1	-에	도'게
21707	물독	물똥'
21708	항아리	*
21709	단지	단'지'
21710	물동이	물또'~오

21711	따리	따배'~이
21712	옹기	옹기'
21713	표주박	쫑그래'기
21714	키(箕)	채'~이
21715	떡살	* (기억 못함)
21716	다식판	단'자판'
21717	시루	시리'
21717-0-1	-을	시리'로
21717-0-2	-에	시리'예
21718	시룻밑	*
21718-0-1	-에	*
21719	시룻번	시리:뿐'
21720	부싯돌	부싯'돌
21720-0-1	-을	부싯'돌로
21721	부시	부'쉐'
21722	부싯깃	집'개'
21723	담배	담배'
21724	담뱃대	담배'때
21725	담배설대	설'때
21726	담배통	담배꼭따'리
21727	물부리	무쭈'기
21728	담배쌈지	담배쌈'지 (+가족으로 만든 좋은 것. 담배가 축축 상태로 있음.)
21728	담배쌈지	담배쭈꾸'~이 (+형겉으로 만든 것. 담배가 건조해 있음.)
21729	부채	부'채
21730	토시	토시'
21731	벼루	베'루
21732	가락지	까락'찌
21733	비녀	비내'
21734	참빗	참'빔
21734-0-1	-을	참'비슬
21734-0-2	-에	참'비세
21735	얼레빗	얼금'빔
21736	세숫대야	세숫'때^
21737	비누	비'누(+신)
21737	비누	샤'분'+구)
21738	도투마리	도투마'리
21739	활대	썸'나'무
21740	잉앗대	잉'~아때
21741	부티	부:태'
21742	도롱이	우'장'

2.6. 인 체

2.6.1. 얼굴과 머리

21801	이마	이'망
21802	이마빼기	이망:빼'기
21803	눈자위	
21804	검은자위	꺼'믄창
21805	흰자위	힌'창'
21806	눈꺼풀	눔꺼'불
21807	거적눈	꺼정'눈
21808	눈썹	눈썹'
21808-0-1	-이	눈서'피
21809	속눈썹	
21809-0-1	-이	쑹:눈서'피
21809-0-1	-이	쑹':눈'썹
21810	눈두덩	눈뚜부'리
21811	안경	앵:경'
21812	안경집	앵:경집'
21813	돋보기	돋뽀'기
21814	주름살	쭈그럭사'리
21814-0-1	-이	쭈그럭사'리가
21815	엷되다	※절'머 보인다
21816	수염	수'염'(+ 신)
21816	수염	쉐':미'(+ 구)
21817	구레나룻	꾸'리쉐:미
21817-0-1	-을	꾸'리쉐:미를
21818	코	코
21818-0-1	-이	코'가'
21819	콧수염	코미쉐엤'
21819	콧수염	코'털'(+ 코 안에서 자란 털)
21820	코딱지	코따까'리
21821	콧구멍	코꾸'영'
21821-0-1	-을	코꾸영'을
21821-0-2	-에	코꾸여^~서
21822	콧물	코'물'
21823	입술	운입서버'리 (+ 윗입술)
21823	입술	아랜입서버'리 (+ 아랫입술)
21823	입술	입서버'리
21823-0-1	-에	입서버'리예

21824	다물다	다문'다
21825	어금니	어금'니
21825	어금니	아'금니(+ 어금니 안쪽의 이빨)
21826	덜니	덜'니'
21827	휘파람	히'빠'람
21828	침	추'무'리 (단독형 : 추'물')
21828	침	춤'
21829	삼키다	생'킨다
21830	가래(痰)	가'래'
21831	빨다	바'터야 텐다
21832	혀	췌^
21833	헛바늘	췌빠'늘
21834	긋볼	귀'뻘'
21835	귀고리	귀고'리
21835-1	귀걸이	귀마'개
21836	귀지	귀'챙'
21837	귀이개	귀히'비
21838	소리	소'리
21839	엮들다	야뜩'꼬
21840	귀청	귀'창'
21841	귀밑	귀'밑'
21841-0-1	-을	귀'미'테
21842	관자놀이	관'지뻘(+ 관자뻘)
21843	기미	지'미
21844	주근깨	깜둥사마'기
21845	턱	턱^
21846	턱수염	턱췌':미
21847	뺨	뺨
21847-1	볼	뺨(+ '볼'과 '뺨'의 구분이 없음)
21848	가름하다	*
21849	보조개	*
21850	머리카락	머리카'락
21851	비듬	지'기'미
21852	기계총	기'계'또기
21853	정수리	숭':꾸'영
21854	대머리	땀머'리
21855	고수머리	고시'메'
21856	가르마	가래'미
21856-1	가르마	탄'다'
	타다/가르다/하다	
21857	가마	가'매

21857-1	가마(鼎)	가매'
21857-2	가마(轎)	가매'
21857-3	가마(질그릇)	가'매
21857-4	가마(가마니)	가'마~이
21858	뒤통수	뒤꼭'지
21859	뒷덜미	목쭈'기(?)
21860	목	모가'지(+ 상스러움)
21860	목	목
21861	먹살	목'살

2.6.2. 상체

21901	어깨	어'깨
21902	밀치다	친'다'
21903	겨드랑	자트래'~이
21904	등	등더'리
21905	가슴	가'슴
21906	결리다	절린'다
21907	갈비뼈	갈'비뼈
21908	허파	허'패'
21909	쓸개	썰'개'
21910	콩팔	콩'팔
21910-0-1	-에	콩'파테
21910-0-2	-을	콩'파틀
21911	팔	팔
21912	팔꿈치	팔꾸마'리
21913	팔짱끼다	팔'짱'다'
21914	손톱	손'텃'
21915	오른손	오'른'손
21916	왼손	웬'손'
21917	다르다	다르'게
21917-0-1	-아서	달'라서
21917-1	틀리다	틀릴'^따
21918	왼손잡이	웬'손'재'비
21919	엄지손가락	엄지송까'락
21920	집게손가락	둘채송까'락
21921	가운뎃손가락	복판송까'락
21922	약손가락	*
21923	새끼손가락	새끼송까'락
21924	생인손	새~이송까'락
21925	사마귀	사마'구

21926	손아귀	손아'구
21927	손목	팔목'
21928	뺨	뺨
21928	뺨	함'뺨 (+ 한 뺨)
21929	허리	허'리
21930	지팡이	짹'지
21931	옆구리	야꾸'리
21932	간지럽다	재근'다
21932	간지럽다	재그랍'따
21933	간지럼	재그러'물
21934	잔허리	*
21935	근육	그:늑'
21936	배꼽	배꾸영'
21937	목물	등'물친다
21937	목물	등'물
22001	복사뺨	복성'씨
22002	발가락	발까'락
22003	발바닥	발빠'닥
22004	발톱	발톱'
22005	냄새	냄:새'를
22005	냄새	냄:새'
22006	고린내	꾸렁'내
22007	굳은살	구등살'키'
22008	정강이	초'때'뺨(+ 정강이뺨)
22008	정강이	장'개~이
22009	종아리	종아'리(+ 신)
22009	종아리	아리뚜'리(+ 구)
22010	장딴지	장딴'지'
22011	회초리	훼차'리
22012	무릎	장'강(+ 구)
22012	무릎	무'릅(+ 신)
22012-0-1	-을	장'강을
22012-0-2	-에	장'강에
22013	오금	오금재'기
22014	엉덩이	엉디'~이'
22015	궁둥이	궁디'~이'
22016	불기	방디'~이' ※방디'~이'르 친'다(+ 일반적), 엉디'~이'르 친'다(+ 가능), 궁디'~이'르 친'다 (+ 불가능)
22017	멍	멍'이' 든다
22018	멍울	몽아'리

22019	가랑이	가래'~이
22020	사이	새^
22021	살	사타'리
22021-0-1	-이	사타'리가
22021-0-2	-을	사타'리를
22022	사타구니	*
22023	가래툫	가리토'시
22023-0-1	-을	가리토'시를
22024	허벅다리	*
22025	넓적다리	허'북'다리
22026	가부좌(跏趺坐)	펑'발
22026-1	가부좌(跏趺坐)	친'다'
	치다/앉다/트다/꼬다/하다	
22101	감기	고'뿔'(+ 구)
22101	감기	감:기'(+ 신)
22102	기침	지'침
22103	재채기	개죤때가'리(+ 재채기가 나는 감기일 때)
22103	재채기	재'침
22104	사례	*
22104-1	(사례)	*
	들리다/만나다/걸리다	
22105	딸꾹질	까딱'쩔
22106	트림	트'러'를 헐따
22106	트림	트'러'미 난다
22107	곰보	얼금배'기
22108	천연두	뜨'레
22109	여드름	이'드름
22110	학질	학'찔'
22110-1	하루거리	하로'거린'다
22110-2	이틀거리	이'틀거린'다
22110-3	매일 앓는 학질	*
22111	홍역	홍'진'
22112	불거리	뿔'치'기
22113	땀띠	땀'때기
22114	두드러기	두트레'기
22115	버짐	버'섬
22115-1	마른버짐	마린버'섬
22115-2	진버짐	진버'섬
22115-3	도장 버짐	소버'션
22116	문둥이	문'디'~이
22116-1	문둥병	문'디'~이뻥

22117	부스럼	부시'럼'
22117-1	종기	종:
22118	고름	고'름'
22119	곰기다	곰'긴다
22120	난쟁이	난재'~이'
22121	사팔뜨기	사파'리'
22122	언청이	췌'보'
22123	소경	봉:사'
22123-1	당달봉사	뜸'봉':사
22124	애꾸	*
22125	눈곱	눈초재'비
22126	다래끼	다래'끼
22126-1	다래끼(눈 위쪽)	온따래'끼
22126-2	다래끼(눈 아래쪽)	아릴따래'끼
22127	절름발이	절룽배'기
22128	곱사등이	곱새'
22129	귀머거리	덕'뽀'
22130	말더듬이	세짜래'기
22131	병어리	버'버리
22132	잠꾸러기	잠취'~이'
22133	줄리다	자부럼'따
22134	하품	하'품
22135	줄음	자부러'미
22135	줄음	자부럼'
22135-0-1	-을	자부러'믈
22135-0-2	-에	자부러'메
22136	잠꼬대	허소'리
22201	입덧	입'또'시르한다
22201-0-1	-을	입'또'시를
22202	갓난아이	가널라^
22203	어린아이	얼라^
22204	경기(驚氣)하다	정'끼한다
22205	눅히다	누뀐'다
22206	계집아이	기지배^
22207	예쁘다	이':뿌'다'
22208	사내아이	머시매^
22209	아우 타다	아시탄'다
22209-1	아우보다	아시본'다'
22210	야위다	애'비따
22211	쌍둥이	쌍디'~이'
22212	오줌	오죤'

22213	똥	기지'기
22213	똥	똥
22214	기저귀	
22215	뉘다(排便)	뉘'인다
22216	방귀	방:구'
22216-1	뀌다	뀐'다'
22217	구린내	꾸렁'내
22218	구리다	꾸렁'내난'다'
22219	포대기	두디'기
22220	기지개	지'지'개
22220-1	기지개를	쓴'다
	켜다/하다/쓰다/펴다	
22221	거짓말	거지'말'
22222	남부끄럽다	넘'부'끄럽따
22223	겹쟁이	겹'쟁'~이
22224	불쌍하다	불'쌍'타
22225	죄암죄암	쪼막'쪼막'
22226	곤지곤지	징'징'
22227	따로따로	섬'바섬'바
22228	도리도리	도래':도래':
22229	짹짹	짹'짹'
22230	부라부라	*
22231	걸음마	거름'바'
22232	아장아장	아장'아장'
22233	넘어지다	어'퍼진다
22234	곤두박질	꺼꿀'썰'비
22235	안기다	앵'긴'다
22236	바람개비	팔랑'개'비
22237	호드기	훼':때'기
22238	숨바꼭질	뿌'꿈'노리
22239	소꿉놀이	동'덕'개'미
22240	사금파리	새'금'파'리
22241	연	연
22241-1	방패연	구'무'연'
22241-2	가오리연	가'부'리'연
22242	걸리다	걸'릴'^따
22243	고누	꼰
22244	땅뺨기	땅'따'무'끼
22245	팽이	팽'배'~이
22246	딱지치기	때'기'
22247	구슬	다'마'

22248	그네	군데'
22248-1	그네를	탄'다'
	뛰다/타다/구르다	
22249	밑신개	발'판'
22250	굴렁쇠	동테'
22251	굴리다	둘'린다
22251-0-1	-고	둘'리고
22251-0-2	-어야	몽'치야
22252	자전거	자'잉'구 (+ 구)
22252	자전거	자'정'거 (+ 신)
22253	목말	몽'말'(+ 목에)
22253	목말	홍'말'(+ 등에, + 깍지 낀)
22254	말타기	말':타'기'
22255	달음박질	다름박'쩔
22256	썰매	수께'또
22256-1	얼음을(썰매를)	탄'다'
	지치다/타다	
22256-2	송곳	송'곧'
22257	엄살	엄'살
22257-1	(엄살)	지'긴다
	부리다/피우다/떨다/하다	
22258	부아	부애'가' 난'다' (+ 보통의 화가 나는 것)
22258	부아	우레'가' 친'다' (+ 더 강한 화. 속에서 남.)
22301	아버지	아부'지
22301-1	아버지(호칭)	아부'지요 (+ 존경, + 일반적)
22301-1	아버지(호칭)	아부'지 (+ 보통)
22302	어머니	어'무'~이
22302-1	어머니(호칭)	어'무'~이 (+ 보통)
22302-1	어머니(호칭)	어'무'~이요 (+ 존경, + 일반적)
22303	할아버지	하'라'부지
22303-1	할아버지(호칭)	하'라'부지요 (+ 존경)
22303-1	할아버지(호칭)	하'라'부지 (+ 보통)
22304	할머니	할'무'니
22304-1	할머니(호칭)	할'무'~이요 (+ 존경)
22304-1	할머니(호칭)	할'무'~이 (+ 보통)
22305	남편	영감' (+ 나이 들었을 때, + 상스러움)
22305	남편	남'편 (+ 젊었을 때)
22305	남편	받'쭈인 (+ 나이 들었을 때, + 점잖음)
22305-1	남편(호칭)	여'보'
22306	아내	안'사'람 (+ 젊었을 때, + 나이 들었을 때)
22306	아내	안'식'꾸 (+ 젊었을 때, + 나이 들었을 때)

22306-1	아내(호칭)	여'보' (+ 젊었을 때, + 나이 들었을 때)
22307	형	헤'~이 (+ 젊었을 때)
22307	형	형'님 (+ 나이 들었을 때)
22307-1	형(호칭)	헤'~이 (+ 젊었을 때, + 보통)
22307-1	형(호칭)	헤'~이요 (+ 젊었을 때, + 존경)
22307-1	형(호칭)	형'님노 (+ 나이 들었을 때, + 존경)
22307-1	형(호칭)	형'님 (+ 나이 들었을 때, + 보통)
22308	아우	아우' (+ 나이 들었을 때)
22308	아우	동생' (+ 젊었을 때)
22308-1	아우(호칭)	이사람 아무꺼시(이름) 보'래이
22308-1	아우(호칭)	동생' (+ 젊었을 때)
22309	누나	눈'님 (+ 나이 들었을 때)
22309	누나	누'나 (+ 젊었을 때)
22309-1	누나(호칭)	눈'님노 (+ 존대)
22309-1	누나(호칭)	누'나
22309-1	누나(호칭)	눈'님 (+ 보통)
22310	누이	예'동'생
22310-1	누이(호칭)	이름을 부름.
22310-1	누이(호칭)	김서방'네'
22311	자식	자'석'
22312	만아들	크'나'들
22313	만딸	큰'딸'
22314	막내	망내'~이
22315	오빠	오'빠
22315-1	오빠(호칭)	오'빠요! (젊었을 때, 나이들었을 때 모두)
22315-1	오빠(호칭)	오'빠
22316	언니	어'니 (+ 젊었을 때)
22316	언니	어'니 (+ 나이 들었을 때)
22316	언니	헤'~이 (+ 젊었을 때)
22316-1	언니(호칭)	어'니요 (+ 나이 들었을 때)
22316-1	언니(호칭)	어'니 (+ 젊었을 때)
22317	아비	아^ (+ 아이가 있을 때)
22317	아비	손자/녀 이름+ 아'빠 (+ 아이가 없을 때)
22317-1	아비(호칭)	야':야' (+ 아이가 있을 때)
22317-1	아비(호칭)	손자/녀 이름+ 애'비야 (+ 아이가 없을 때)
22318	어미	메'느리 (+ 아이가 있을 때)
22318	어미	손자/녀+ 저그'메 (+ 아이가 없을 때)
22318-1	어미(호칭)	야':야' (+ 아이가 있을 때)
22318-1	어미(호칭)	손자/녀+ 애'미'야 (+ 아이가 없을 때)
22319	손자	손'자
22320	손녀	술'려

22321	사위	사'우
22321-1	사위(호칭)	성+ 서방'
22322	외손자	웨:손'자
22323	외손녀	웨:술'려
22324	꾸짖다	꾸'진다
22324-0-1	-고	
22324-1	나무라다	나'무랜다
22325	총각	총'각'
22326	처녀	처녀'
22327	혼인	결'혼'
22327-1	혼인식	결'혼'식
22328	혼인 잔치	결'혼'잔'치'
22329	장가가다	장:개'간'다'
22329-1	시집가다	시'지'간다
22330	혼숫감	혼수감'
22331	함	함:
22332	겹사돈	겹'사'돈
22333	새색시	새'각'시
22333-1	새색시(호칭)	새'택'
22334	시아버지	씨'아'버님
22334-1	시아버지(호칭)	아'버님뇨
22335	시아머니	씨'어'머님
22335-1	시아머니(호칭)	어'머'님뇨
22336	비위	비유'
22337	아주버니	씨':숙'
22337-1	아주버니(호칭)	아주버'니
22338	서방님	씨'동'생
22338-1	서방님(호칭)	서방'님
22339	도련님	대'림
22339-1	도련님(호칭)	대'림뇨
22340	형님	소'누'동서
22340-1	형님(호칭)	형'님뇨
22341	시누이	시매' (+ 시누이의 남편)
22341	시누이	씨'너'부 (+ 누나, 여동생 남편 모두에 해당)
22341-1	시누이(호칭)	형'님뇨 (+ 손위)
22341-1	시누이(호칭)	김서방'네 (+ 손아래)
22341-1	시누이(호칭)	씨'너'부
22341-2	아가씨	
22341-3	아가씨(호칭)	아가'씨
22342	올케	동사'~아댁
22342-1	올케(호칭)	월'깨'

22343	매형	자영'
22343-1	매형(호칭)	자영'뇨
22344	매제	매'부
22344-1	매제(호칭)	김서방'
22345	큰아버지	백'부' (+ 존대)
22345	큰아버지	크'나'부지 (+ 보통)
22345-1	큰아버지(호칭)	크'나'부지요 (+ 보통)
22345-1	큰아버지(호칭)	백'분'님뇨 (+ 존대)
22345-2	(아버지의 둘째 형)	중부'님'뇨
22345-3	(아버지의 셋째 형)	세채삼'촌님뇨
22346	큰어머니	크'너'메
22346	큰어머니	뱅'모'
22346-1	큰어머니(호칭)	크'너'먼님뇨 (+ 존대)
22346-1	큰어머니(호칭)	뱅'모'님뇨 (+ 존대)
22346-1	큰어머니(호칭)	크'너'메 (+ 보통)
22346-2	(아버지의 둘째 형의 아내)	승'모'님
22346-2	(아버지의 둘째 형의 아내)	승'모'님뇨
22346-3	(아버지의 셋째 형의 아내)	승'모'님뇨
22346-3	(아버지의 셋째 형의 아내)	승'모'님 (+ 백부/백모 외에는 손위라도 모두 '숙모')
22347	큰집	큰'집'
22348	작은아버지	자근아부'지
22348-1	작은아버지(호칭)	자근아부'지요
22348-1	작은아버지(호칭)	삼'촌
22349	작은어머니	승'모'
22349	작은어머니	자근엄'매
22349-1	작은어머니(호칭)	승'모'님뇨
22350	삼촌	삼'촌
22350-1	삼촌(호칭)	삼'촌뇨
22350-1	삼촌(호칭)	삼'촌
22351	아저씨	당'숙
22351-1	아저씨(호칭)	당'승님뇨
22352	아주머니	당'승'모
22352-1	아주머니(호칭)	당'승'모님뇨
22352-1	아주머니(호칭)	당'승'모님
22353	조카	생'질' (여형제)
22353	조카	조'카' (형제)
22354	조카딸	생'질'려 (여형제)
22354	조카딸	질'려' (형제)
22355	고모	고'모
22355-1	고모(호칭)	고'모님
22356	고모부	고'모부

22356-1	고모부(호칭)	고'모부님뇨
22357	고종	고'종사촌
22358	이모	이'모
22358-1	이모(호칭)	이'모님뇨
22359	이모부	이'모부
22359-1	이모부(호칭)	이'모부님뇨
22360	이중	이'중사촌
22361	외삼촌	웨삼'촌
22361-1	외삼촌(호칭)	웨삼'촌님뇨
22362	외숙모	웨송'모'
22362-1	외숙모(호칭)	웨송'모'님뇨
22363	외종	웨사'촌'
22364	외할아버지	웨조'부' (+ 존대)
22364	외할아버지	웨하'라'부지 (+ 보통)
22364-1	외할아버지(호칭)	웨하'루분님뇨 (+ 보통)
22364-1	외할아버지(호칭)	웨조'분'님뇨 (+ 존대)
22365	외할머니	웨조'모'
22365	외할머니	웨할'머'니
22365-1	외할머니(호칭)	웨할'머'님뇨 (+ 보통)
22365-1	외할머니(호칭)	웨조'모'님뇨 (+ 존대)
22366	장인	자인'
22366-1	장인(호칭)	자인어른'뇨'
22367	장모	장:모'
22367-1	장모(호칭)	장몬님뇨'
22368	처남	처남'
22368-1	처남(호칭)	큰'처'남 (+ 손위)
22368-1	처남(호칭)	처남' (+ 손아래)
22369	처남댁	처나'무댁
22369-1	처남댁(호칭)	처나'무댁뇨
22370	홀아비	호부래'비
22371	홀어미	과:부'
22372	계모	계모'
22372-1	계부	계부'
22373	아저씨	아자'씨 (+ 아재' : 일족(친척)에 한하여 씀)
22373-1	아저씨(호칭)	아자'씨
22374	아주머니	아'지매 (+ 친척일 때도 '아지매')
22374-1	아주머니(호칭)	아'지매
22375	사나이	*
22376	영감	여'보'
22376-1	할망구	할망'구
22377	나이	나'

22377-0-1	-를	나'로'
22378	환갑	항:갑'
22378-1	환갑 잔치	항:갑잔'치'
22379	사투리	사:투'리'
22401	물고기	물'꼬'기
22402	민물고기	맹'물 꼬기
22403	피라미	피래':미
22404	지느러미	날감'지
22405	아가미	고'기비'시'라(고'기'빚')
22405	아가미	아감'지
22406	창자	창'지'
22407	송사리	*
22408	혜엄	혜'미'질
22409	메기	미그'지
22410	자라	자래'
22411	거북	거'북
22412	미꾸라지	미꾸래'~이
22413	개구리	깨구'리
22414	올챙이	올채'~이
22415	두꺼비	뚜끼'비
22416	거머리	거:머'리'
22417	다슬기	사리고디'~이
22418	우렁이	농'꼬'동
22419	고둥	고둥'
22420	달팽이	하마고둥'
22421	새우	썰'비'
22421-1	새우(민물 대)	썰'비'
22421-2	새우(민물 소)	썰'비'
22421-3	새우(바다 대)	징기'미
22421-4	새우(바다 소)	*
22422	새우젓	썰'비'전
22422-0-1	-이	썰'비'저'시'
22423	가재	까':재'
22424	갈치	칼치'
22425	고등어	고등'어
22426	가오리	가'부리
22427	가자미	까지매'기
22428	멸치	메르'치
22429	명태	맹'태
22429-1	동태	동:태'
22429-2	황태	황'태

22429-3	노가리	*
22429-4	복어	마린멧'태
22429-5	생태	물'멧'태
22430	조기	조'구
22431	도미	돔~
22432	뱀장어	궁자':
22433	낙시	낙'수'
22434	미끼	고'기밥'
22434	미끼	미'깎(+ 낙시 주위에 던져 놓는 먹이)
22435	낙숫대	낙'쏟'때
22436	얼레	자새'
22437	조개	조개'
22438	소라	소라고동'
22501	벌레	벌거'지
22502	날벌레	날벌거'지
22503	파리	파래'~이
22503-1	쉬파리	똥'파리
22504	쉬슬다	쉬'썸'다
22505	가시	티' (이'런따)
22506	진딧물	뜨물'
22506-1	(진딧물이)	생'기따
	끼다/얹다/생기다	
22507	잠자리	철':배'~이
22507	잠자리	매무'철'배'~이(+ 고추잠자리)
22507	잠자리	왕'철배~이(+ 왕잠자리)
22508	방아깨비	황걸래'비
22508-1	암컷	황걸래'비
22508-2	수컷	땡'때'
22509	메뚜기	멘떼'기
22510	여치	연~치'
22511	사마귀	영까'시
22512	벌	버리'
22512	벌	버리'가' 날'라온다
22512-1	(벌을)	키'운다
	치다/기르다/키우다	
22513	땅벌	굶'버리
22513	땅벌	땡'뻘(+ 보통 크기의 벌, + 땅 위에 집 지음)
22513	땅벌	대추'버리(+ 말벌, + 제일 큼)
22513	땅벌	구무'버리
22514	나비	나'부
22514	나비	나'비

22515	하루살이	하로사'리
22516	풍덩이	소똥벌거'지
22517	모기	머개'~이
22518	장구벌레	*
22519	매미	매래'~이
22520	개똥벌레	개똥벌거'지
22521	반딧불	개똥벌거'지불'
22522	거미	거'무
22523	굼벵이	굼비'~이'
22524	구더기	구더'리'
22525	노래기	*
22526	그리마	노내'기
22527	지네	지네'
22528	개미	개:미'
22529	바구미	바그'미
22530	진드기	부던'지
22531	벼룩	배래'기
22532	이	이'
22532-1	서캐	쌌가'리
22532-2	빈대	빈대'
22533	송충이	송치'~이
22534	귀뚜라미	기뚜라'미
22535	누에	누'이
22536	고치	꼰'치
22537	번데기	뿐디'기
22538	지렁이	지리'~이
22539	회충(蛔蟲)	꺼'꾸'~이
22539	회충(蛔蟲)	냉(+ 촌충)
22540	소금쟁이	소곰재'~이
22541	방개	물'까'지
22601	가축	짐승'
22601	가축	김승'
22602	암소	암'소'
22603	송아지	소안'치
22604	송아지 부르는 소리	*
22605	황소	황'소'
22606	길들이다	질'띠'린다
22606-1	소 모는 소리 (앞으로 가라)	이라':
22606-2	소 모는 소리 (그 자리에 서라)	워:워':

22606-3	소 모는 소리 (오른쪽으로 돌라)	이라'로:
22606-4	소 모는 소리 (왼쪽으로 돌라)	워'디워'디:
22606-5	소 모는 소리 (뒤로 물러나라)	물러':
22607	쇠고기	소'고'기
22608	고기(肉)	고'기
22609	둘치	부리'기
22610	꼬리	꼬랑대'기
22611	망아지	망아'지
22612	당나귀	당나'구
22613	갈기	*
22614	돼지	대'지'
22614-1	멧돼지	산때'지'
22615	주둥이	주디'~이
22616	돼지 머리	대'지'머'리(+ 돼지의 머리, + 고사용)
22616	돼지 머리	대'지'대가'리(+ 돼지의 머리)
22617	돼지우리	대'지'우'리 (+ 산돼지가 산에 스스로 만든 집 모양의 것)
22617	돼지우리	대'지'마구'
22617	돼지우리	대'지'막'사'(+ 집단적으로 사육하는 경우)
22617-1	오래오래	꿀'꿀'꿀':
22618	개(犬)	개:
22618-1	수캐	쑥'깨'
22618-2	암캐	앙'깨'
22619	강아지	개새'끼
22620	염소	염':소'
22621	고양이	깨'내'기
22621-1	수고양이	쑥'쟁'내기
22621-2	암고양이	앙'깨'내기
22622	토끼	토까'~이
22623	거위(鵞)	기'우
22624	암탉	암'딸'
22625	병아리	삐가'리
22626	모으다	모'온다
22627	수탉	장딸'
22627-0-1	-이	장따'리
22628	벼슬(鷄冠)	베'실
22629	부리	주디'~이
22630	모이	모'시

22630-0-1	-을	모'시를
22630-1	모이다	모인'다
22631	닭털	달:터래'기
22632	닭똥	달:똥'
22633	어리	달:개가'리
22634	닭장	달개'통
22635	등우리	부'동'
22636	날개	날':개'
22637	깃	달:꼬랑대'기
22637	깃	꼬랑대'기털
22637-0-1	-을	꼬랑대'기털'로
22701	호랑이	범:
22702	살행이	썰개'~이
22703	여우	영우'
22704	원숭이	원시'~이
22705	사슴	사'섬
22706	노루	놀개'~이
22706-0-1	-이	놀개'~이가
22706-0-2	-를	놀개'~이르
22707	고슴도치	고'슴도치
22708	두더지	띠지'기
22709	족제비	쪽찌'비
22710	뱀	배'미'
22711	도마뱀	도'~오배미
22712	구렁이	구리'
22713	살모사	살'무'새^
22714	생쥐	새양'지
22715	박쥐	박'쥐'
22716	거꾸로	까'꾸로
22717	다람쥐	다람'쥐
22718	새(鳥)	새:
22719	꿩지	꼬랑대'기
22720	술개	까막뚝'서리
22721	독수리	독수'리
22722	제비(燕)	제비'
22723	두루미	두리'미
22724	소쩍새	소쪽'새
22725	꿩	꿩
22726	장끼	쭉'꿩'
22727	까투리	암'꿩'
22727-1	꺼병이	꿩새'끼

22728	종달새	종:달'새
22729	빼꾸기	뿌'꿈새
22730	기러기	기'러'기
22731	뜸부기	뜸북'새
22732	올빼미	오'빼미
22733	까치	간'채'~이
22734	딱따구리	딱따구'리
22735	덧	틀
22735-0-1	-을	트'를
22736	올가미	몽매'
22801	진달래꽃	창꼴'
22802	철쭉꽃	연:달'래'꼴
22803	민들레	민들'레
22804	맨드라미	민드라'미
22805	봉선화	봉':숭'아
22806	파리	뚜'깥
22807	해바라기	해바래'기
22808	꽃봉오리	꼰몽아'리
22809	시들다	시든'다
22810	질경이	*
22810-1	질경이(식물이름)	*
22810-2	질경이(식용이름)	*
22811	빨기	피'기'
22812	비름	비름'
22813	쇠비름	췌비름'
22814	쑤바귀	췌'내'~이(+ 진이 있음)
22814	쑤바귀	나랑내'~이(+ 진이 없음)
22815	고들빼기	*
22815-1	고들빼기(식물이름)	*
22815-2	고들빼기(식용이름)	*
22816	고사리	꼬사'리
22817	고비	*
22818	도깨비바늘	뚜끼'비찰밥
22819	도꼬마리	도꾸마'리
22820	억새	췌^
22821	갈대	갈'때'
22822	이끼	익'깨
22823	아주까리	아주까'리
22824	담쟁이	담'재'~이
22824	담쟁이	담'재'~이
22825	수세미	췌세'미

22826	덩굴	덩'꿀
22827	덤불	덤'풀'
22827-1	가시덤불	까'시덤'꿀'
22828	잔디	꽤'
22901	소나무	솔라'무'
22902	솔방울	솔'빵'구
22903	관솔	관':솔'
22904	솔가리	갈'비
22905	그러모으다	끄'러'모'온다
22906	뽕나무	뽕나'무'
22907	오디	호두'
22908	도토리	속쭈'리'꿀'뽕(+ 길쭉한 것)
22908	도토리	꿀'뽕(+ 둥근 것, 길쭉한 것 다 포함)
22909	떡갈나무	떠'갈라무
22910	상수리	동'구'리'꿀'뽕(+ 둥근 것)
22911	옷	온
22911-0-1	-으로	오'트로
22912	버드나무	쭈'양'버들
22913	느티나무	느티나'무'
22914	거름자	거름'자
22914-1	그늘	거늘'
22915	숲	습
22915-0-1	-을	수'꿀'
22915-0-2	-에	수'꽤
22916	시원하다	씨원하'다
22917	절레	절레'
22918	철	철'기'
22918-0-1	-에	철'기'예
22919	가지(枝)	가'지'
22920	끝	끈티'~이
22920-0-1	-이	끈티'~이가
22920-0-2	-을	끈티'~이르
22920-0-3	-에	끈티'~이에
22921	삭정이	삭따'리
22921-1	삭정이를	삭따'리 한'다'
	따다/꺾다/하다	
22922	나무	나무'
22922-0-1	-을	나무'를
22922-0-1	-을	냥'글:
22922-0-2	-에	나무'예
22922-0-2	-에	냥'계:

22923	나무하다	나무':한'다'
22924	그루터기	결따'기
22924-1	그루터기 (베어내고 남은 부분)	결타'기
22925	등걸	*
22926	장작	장'작
22927	꽤다	꽤'다
22928	부스러기	뿌시래'기
22929	숯	순
22929-0-1	-이	수'치
22929-0-2	-을	수'틀
22929-0-3	-에	수'테
22930	불잉걸	불땡'이
22931	씩	삭
22932	잇	입'
22932-0-1	-을	이'폴'
22932-1	잇사귀	입사'구
22933	가랑잇	가랑'넙
22934	뿌리	뿌러'지
23001	능금	능금'
23002	돌배	돌':배'
23003	복숭아	복성'
23004	곶감	꼬'깁'
23005	홍시	홍'시
23006	고욤	꽤'양'
23006	고욤	깨'양'
23007	살구	살구:'
23008	앵두	앵두':
23009	자두	자두'
23010	오얏	*
23010-0-1	-을	*
23011	석류	성':노'
23012	모과	모:개'
23013	과일	과일'
23014	꼭지	꼭'찌
23015	밤	밤:
23015-1	밤송이	밤시'~이
23015-2	팻밤	푸'뽕':
23015-3	알밤	알'밤'
23015-4	쌍동밤	작'밤'
23016	보늬	밤뽕'내'

23017	호두	호두'
23018	가래(楸子)	*
23019	개암	깨곰'
23020	머루	멀구'
23021	다래	다'래'
23022	청미래덩굴	망:개:나무'
23022	청미래덩굴	망개'
23023	으름	어'름
23024	참외	웨:
23025	딸기	딸:
23025-1	'딸기(밭 재배)'	딸기'
23025-2	'딸기(밭 야생)'	*
23025-3	'딸기(들 재배)'	*
23025-4	'딸기(들 야생)'	딸:
23025-5	'딸기(산 재배)'	*
23025-6	'딸기(산 야생)'	딸:
23026	뱀딸기	개^미 딸
23027	마름(菱)	말'밤
23101	산꼭대기	상꼭때'기
23101	산꼭대기	산만대'~이
23102	기슭	치거'리
23102	기슭	산':치거'리
23102-0-1	-에	산':치거'리에
23103	골짜기	꼴째'기
23104	메아리	산':울리'미
23105	고함	구'암
23105-1	(고함)	지린'다
	치다/지르다/하다	
23106	묘	묘~
23107	뿔자리	묘~터'
23107-1	광중	청'곽'
23108	구덩이	구디'기
23109	비탈	비'탈
23110	가파르다	까빠리'다
23111	언덕	언'덕
23112	낭떠러지	낭떠'러지기
23113	들(野)	들~
23113-0-1	-에	드~레'
23114	별	별:관'
23115	갈림길	가름'길
23116	헤어지다	갈'러진다

23117	바위	방'구
23117-0-1	-을	방'구를
23117-0-2	-에	방'구에
23118	돌(石)	돌˘
23118-0-1	-을	돌˘로'
23118-0-2	-에	도˘레'
23119	자갈	자갈'
23120	모래	모'래
23120-0-1	-를	모'래로
23121	진흙	진흙'
23121-1	찰흙	찰'찐'흙
23201	물	물':
23202	거품	거'품
23203	개운하다	깨반하'다
23204	도랑	도랑'
23204-1	봇도랑	본도'랑'
23205	독	뚝'
23206	잠기다	쟁긴'다
23207	개울	거랑'
23208	내(川)	도랑', 거랑'
23209	미역 감다	모'욕'한다
23209	미역 감다	목'깎'는다
23210	발가숭이	알'몸'
23211	목욕하다	모'욕'한다
23212	수채	수'채'
23213	개골창	도랑'(?)
23214	시궁창	*
23215	웅덩이	웅'디:
23216	수렁	시북'
23217	늪	*
23217-0-1	-에	*
23218	배(船)	배
23219	나루터	나룬'터
23220	돛	돛'때(+ 돛과 돛대를 아우르는 말)
23220-0-1	-에	돛'때^
23221	돛대	돛'때
23222	돛배	돛'배
23223	돛줄	돛'줄
23224	돛줄	*
23225	거루	구'이배(+ 구이(구유)처럼 생겼다는 뜻에서)
23226	상앗대	*

23227	개(펼)	깎'펼'
23228	물	*
23228-0-1	-으로	*
23229	밀물	*
23230	썰물	*
23231	가라앉다	까'란':는다
23232	그물	그'물'
23233	해녀	보'지기
23233	해녀	헨'녀'
23301	새벽	새복'
23302	새벽밥	새복'밥
23303	아침	아침'
23303	아침	아적'
23304	아침밥	아적'
23304	아침밥	아적'밥
23304	아침밥	아침'
23305	점심	정:심'
23305	점심	정:심'밥'
23306	저녁	지녁'
23307	설빔하다	*
23308	노을	복'살
23308-0-1	-을	복'살로
23309	불그레하다	불구리하'다
23310	해거름	해거름'
23311	땅거미	땅'끄'미진다
23311	땅거미	땅'꿈'
23312	봄	봄
23313	여름	여'름
23314	더위	더'우
23315	추위	추'우'
23316	가을	가을'
23316-0-1	-에	가으'레
23317	겨울	게'울
23317-0-1	-에	게'우레
23318	얼음	어'름
23319	오늘	오'늘
23320	내일	내'일
23321	모레	모'레'
23322	글피	내'모레
23322	글피	그'모레
23323	그글피	그내'모레

23324	어제	어'제
23325	그저께	아:래'
23326	그그저께	그어^제
23327	훗날	훈:날'
23328	하룻날	초하'리'
23329	이튿날	초이'틀
23330	사흘날	초사'을
23331	나흘날	초나'알
23332	닷셋날	초단'새
23333	엿셋날	초여'새
23334	이렛날	초이'레
23335	여드렛날	초여'드레
23336	아흐렛날	초아'흐레
23337	열흘날	초여'를
23338	하루	하로'
23339	이틀	이'틀
23340	사흘	사'할
23340	사흘	사'알
23341	나흘	나'알
23342	닷새	다'쇄
23343	엿새	여'쇄
23344	이레	이'레
23345	여드레	여'드레
23346	아흐레	아'흐레
23347	열흘	여'를
23348	한나절	반나'잘'(+ 한나'잘과 같은 말)
23348	한나절	한나'잘(+ 반나'잘과 같은 말)
23348-1	반나절	반나'잘', 한나'잘
23349	그믐	그'믐'
23349-1	그믐께	그'믐'정께^
23350	지금	지'꿈'
23351	아직	안'주
23352	이제	언자'
23353	이미	이'미
23354	요즈음	오새^
23355	금방	금시'
23401	별	뵐
23401-0-1	-이	베'치
23401-0-2	-을	베'틀
23402	따스하다	따시'다
23403	아지랑이	아르래'~이

23404	응달	음달'
23405	양달	양'달
23406	비(雨)	비'
23407	가랑비	이슬'비(+ 가랑'비와 같은 말)
23407	가랑비	가랑'비(+ 이슬'비와 같은 말)
23408	이슬비	?
23409	안개	양:개'
23410	눈개	*
23411	무지개	무'지'개
23412	소나기	송'나'구
23413	갑자기	갑'짜'기
23414	홍수	홍'수
23415	번개	병':개'
23416	천둥	천'둥'
23417	벼락	베'락'
23418	무섭다	무'섭'다
23419	함박눈	함'뽕'눈
23420	싸락눈	싸'래'기'눈
23421	발자국	발'짜'죽'
23422	진눈깨비	*
23423	우박	우'박'
23424	고드름	고'더'름
23425	햇무리	해'문'
23426	달무리	달'문'
23427	둥글다	둥'그'다
23428	은하수	은'하'수
23429	금성	썸'뽕'(+ 저녁별과 아침별을 구별하지 않음)
23430	가뭄	가'뭄'
23431	마르다	마'린'다
23431-0-1	-어서	*
23432	위	우^
23433	아래	아'래
23434	왼쪽	왼'쪽
23435	오른쪽	오'른'쪽
23436	결	저'트로
23436-0-1	-에	저'테
23437	회오리바람	호':더'래'기
23438	북풍	북'풍'
23439	남풍	남'풍'
23440	동풍	동'풍'
23440	동풍	썸'빠'람'(+ 추위를 동반하는 바람)
23441	서풍	서'풍'

제3편 음운

31001-0-1	태(輪)-이/가	태'가 (굶:따')
31001-0-2	태(輪)-보다	태카'마 (둥'궁기 머:꼬')
31002-0-1	태(胎)-이/가	태'가: (시'라'다)
31002-0-2	태(胎)-보다	태카'마
31003-0-1	떼(群)-이/가	떼'가': (만:타')
31003-0-2	떼(群)-보다	떼'카'마 (마닝'기' 머:꼬')
31004-0-1	때(時)-이/가	때'가': (텔^따)
31004-0-2	때(時)-보다	때'카'마 (주항'기' 머고')
31005-0-1	틀(機)-이/가	트'리': (이'따)
31005-0-2	틀(機)-보다	틀'카'마 (주항'기' 머고')
31006-0-1	털(毛)-이/가	트'리 (만타')
31006-0-2	털(毛)-보다	틀카'마 (꼬'몽기 머고')
31007-0-1	글(文)-이/가	그'리: (인'따)
31007-0-2	글(文)-보다	글'카'마 (중항'기' 머고')
31008-0-1	걸(옷)-이/가	그'리: (나왈'따')
31008-0-2	걸(옷)-보다	글'카'마 (노풍'기' 머고')
31009-0-1	기(旗)-이/가	기'가: (펼럭거'린다)
31009-0-2	기(旗)-보다	기카'마 (노풍'기' 머고')
31010-0-1	귀(耳)-이/가	기'가': (인'따)
31010-0-2	귀(耳)-보다	귀'카'마
31011-0-1	시(生時)-이/가	시'가 (죤타')
31011-0-2	시(生時)-보다	시카'마
31012-0-1	쉬(蠅卵)-이/가	쥬'가': (시'릴따)
31012-0-2	쉬(蠅卵)-보다	쥬'카'마 (드르봉'기' 머고')
31013-0-1	쇠(鐵)-이/가	췌'가': (인'따)
31013-0-2	쇠(鐵)-보다	췌'카'마 (단다냥'기' 머고')
31014-0-1	외:국(外國)-이/가	웨구'기 (만타')
31014-0-2	외:국(外國)-보다	웨국카'마
31015-0-1	왜국(倭國)-이/가	웨'노미 (인'따)
31015-0-2	왜국(倭國)-보다	웨'넌카마 (나똥'기' 머:꼬')
31016	쉬:다(休)-더라	?
31017	쇠:다(설을~)-더라	?
31018-0-1	베(布)-이/가	배'가': (인'따)
31018-0-2	베(布)-보다	배'카'마 (중항'기' 머고')
31019-0-1	배(船)-이/가	배'가': (인'따)
31019-0-2	배(船)-보다	배'카'마 (중항'기' 머고')

31020-0-1	배(腹)-이/가	배'가': (부르다)
31020-0-2	배(腹)-보다	배'카'마 (주항'기' 머고')
31021-0-1	(떡)메-이/가	메'가': (인'따)
31021-0-2	(떡)메-보다	메'카'마 (무구'웅기 머고')
31022-0-1	매(鞭)-이/가	매'가': (인'따)
31022-0-2	매(鞭)-보다	매'카'마 (무'서웅기 머고')
31023-0-1	메:다(擔)-더라	미고' (인'따)
31023-0-2	메:다(擔)-어서	미:더'라'
31024-0-1	매:다(繫)-더라	(시를') 매'고 (인'따)
31024-0-2	매:다(繫)-어서	매더'라
31025-0-1	떼:다(分離)-더라	떠'고' (인'따)
31025-0-2	떼:다(分離)-어서	떠'더'라
31026-0-1	때:다(炊)-더라	때'고' (인'따)
31026-0-2	때:다(炊)-어서	때'더'라
31027-0-1	베:다(切斷)-더라	비고' (인'따)
31027-0-2	베:다(切斷)-어서	(푸'를') 비더'라'
31028-0-1	배:다(孕胎)-더라	배^:고 (인'따)
31028-0-2	배:다(孕胎)-어서	(잘) 배^더'라
31029-0-1	세:다(算)-더라	시'아'리'고 (인'따)
31029-0-2	세:다(算)-어서	(잘) 시'아'리'더'라
31030-0-1	새:다(漏泄)-더라	(무'리') 세'고' (인'따)
31030-0-2	새:다(漏泄)-어서	(무'리') 세'더'라
31031-0-1	뒤(後)-이/가	디:가' (너리'다)
31031-0-2	뒤(後)-보다	디:카'마 (안보'인'테가 머고')
31032-0-1	되(升)-이/가	도베'이가 (인'따)
31032-0-2	되(升)-보다	도베'기카마
31033-0-1	게:(蟹)-이/가	기:가' (만타')
31033-0-2	게:(蟹)-보다	기'카'마 (빠룽기^ 머고')
31034-0-1	개:(犬)-이/가	개:가' (만타')
31034-0-2	개:(犬)-보다	캐카'마' (잘찢닝기' 머고')
31035-0-1	여럿(多)-이/가	(샤:라미) 여'러시
31035-0-2	여럿(多)-보다	*
31035-0-3	여럿(多)-을/를	*
31036-0-1	물결(波)-이/가	물라부'리가
31036-0-2	물결(波)-보다	물라부'리카마 (무'서봉기 머고')
31036-0-3	물결(波)-을/를	물라부'리로 (반'나')
31037-0-1	예:의(禮儀)-이/가	예'이'가 (바리'다)
31037-0-2	예:의(禮儀)-보다	예이카'마 (중항'기' 머고')
31037-0-3	예:의(禮儀)-을/를	예'이'를 (모리'나')
31038-0-1	계:획(計劃)-이/가	계회'기'
31038-0-2	계:획(計劃)-보다	계획카'마 (중항'기' 머고')

31038-0-3	계:획(計劃)-을/를	계회'글'
31039-0-1	규칙(規則)-이/가	구'처기
31039-0-2	규칙(規則)-보다	구'척카'마 (주항'기' 머꼬')
31039-0-3	규칙(規則)-을/를	구'처글 (아나')
31040-0-1	휴일(休日)-이/가	수'이리 (조타')
31040-0-1	휴일(休日)-이/가	휴'이리 (조타')
31040-0-2	휴일(休日)-보다	휴'일카마 (조웅'기' 머꼬')
31040-0-3	휴일(休日)-을/를	휴'이를 (잘 신^나)
31041-0-1	교통(交通)-이/가	거'토~이 (조타')
31041-0-1	교통(交通)-이/가	교'토~이 (조타')
31041-0-2	교통(交通)-보다	교'통카마 (중항'기' 머꼬')
31041-0-3	교통(交通)-을/를	교'통을 (잘 지'키야 텐'다)
31042-0-1	효:자(孝子)-이/가	효자'가' (남'따')
31042-0-2	효:자(孝子)-보다	효자카'마 (주항'기' 머꼬')
31042-0-3	효:자(孝子)-을/를	효자'로' (만'넌따)
31043-0-1	웬일(何事)-이/가	우'얌'이리고
31043-0-2	웬일(何事)-보다	*
31043-0-3	웬일(何事)-을/를	*
31044-0-1	궤:(좌)(櫃)-이/가	궤:가' (인'따)
31044-0-1	궤:(좌)(櫃)-이/가	궤:가' (인'따)
31044-0-2	궤:(좌)(櫃)-보다	궤~:카'마 (무'서붕기 머꼬')
31044-0-3	궤:(좌)(櫃)-을/를	궤로' (반:나')
31045-0-1	왜란(倭亂)-이/가	왜'나니 (이'러난'따')
31045-0-2	왜란(倭亂)-보다	왜'난카'마 (무'서윙기 머꼬')
31045-0-3	왜란(倭亂)-을/를	왜'나늘 (반:나')
31046-0-1	헛대(鷄架)-이/가	해'때'가 (노푸'다)
31046-0-2	헛대(鷄架)-보다	해때카'마 (노퐁'기' 머꼬')
31046-0-3	헛대(鷄架)-을/를	해'때'로 (만드'러반:나')
31047-0-1	원망(怨望)-이/가	원~:망'이' (마느'머 안조타')
31047-0-2	원망(怨望)-보다	원망카'마 (무'서붕기 머꼬')
31047-0-3	원망(怨望)-을/를	원망'을' (해반:나')
31048-0-1	권:투(拳鬪)-이/가	콘'투'가 (재미이'따)
31048-0-2	권:투(拳鬪)-보다	콘'투'카'마 (재미인능기' 머꼬')
31048-0-3	권:투(拳鬪)-을/를	콘'투'를 (조아하'나')
31049-0-1	의논(議論)-이/가	이노'니^: (조타')
31049-0-2	의논(議論)-보다	이논카'마 (주항'기' 머꼬')
31049-0-3	의논(議論)-을/를	이노'늘 (해반:나)
31050-0-1	무늬(紋)-이/가	문채'가 (조타')
31050-0-2	무늬(紋)-보다	문채카'마 (조웅'기' 머꼬')
31050-0-3	무늬(紋)-을/를	문채'를 (조아하'나')
31051-0-1	왕(王)-이/가	왕'이: (무'섭따)

31051-0-2	왕(王)-보다	왕카'마 (무'서영기 머꼬')
31051-0-3	왕(王)-을/를	왕'을 (조아하'나')
31052-0-1	과자(菓子)-이/가	과'자가 (마싯'따)
31052-0-2	과자(菓子)-보다	과'자카마 (마싯'닝'기' 머꼬')
31052-0-3	과자(菓子)-을/를	과'자를 (조아하'나')
31053-0-1	일(一)-이/가	이'리': (젤: 크'다)
31053-0-2	일(一)-보다	일'카'마 (쿵'기' 머꼬')
31054-0-1	일:(事)-이/가	이리': (만타')
31054-0-2	일:(事)-보다	일카'마' (주항'기' 머꼬')
31055-0-1	매(鞭)-이/가	매'가' (무'섭따)
31055-0-2	매(鞭)-보다	매'카'마 (머'서병기 머꼬')
31056-0-1	매:(鷲)-이/가	매'가' (무'섭따)
31056-0-2	매:(鷲)-보다	매'카'마 (무'서용기 머꼬')
31057-0-1	밤(夜)-이/가	바'미': (덴^:따)
31057-0-2	밤(夜)-보다	방'카'마 (캉캉'항'기' 머꼬')
31058-0-1	밤:(栗)-이/가	바:미': (마싯'따)
31058-0-2	밤:(栗)-보다	방'카'마 (마싯'닝'기' 머꼬')
31059-0-1	눈(眼)-이/가	누'니': (발'따)
31059-0-2	눈(眼)-보다	눈'카'마 (발'궁기 머꼬')
31060-0-1	눈:(雪)-이/가	누'니': (와'따')
31060-0-2	눈:(雪)-보다	눈'카'마 (헝'기^ 머꼬')
31061-0-1	말(馬)-이/가	마'리: (빠르'다)
31061-0-2	말(馬)-보다	말카'마 (빠'룽'기' 머꼬')
31062-0-1	말(斗)-이/가	마'리': (인'따)
31062-0-2	말(斗)-보다	말'카'마 (더 쿵'기' 인'나)
31063-0-1	말:(言)-이/가	마리^ (만타')
31063-0-2	말:(言)-보다	말카'마 (무'서용기 머꼬')
31064-0-1	손(客)-이/가	소'니 (차'자'왈따)
31064-0-2	손(客)-보다	송카'마 (주항'기' 머꼬')
31065-0-1	손(手)-이/가	소'니': (크'다)
31065-0-2	손(手)-보다	송'카'마 (쿵'기' 머꼬')
31066-0-1	손:(孫)-이/가	소'니 (만타')
31066-0-2	손:(孫)-보다	송카'마 (주항'기' 머꼬')
31067-0-1	배(梨)-이/가	배'가 (크'다)
31067-0-2	배(梨)-보다	배카'마 (쿵'기' 머꼬')
31068-0-1	배:(倍)-이/가	배:가' (느'런'따)
31068-0-2	배:(倍)-보다	배:카'마 (주항'기' 머꼬')
31069-0-1	벌(罰)-이/가	버'리' (무'섭따)
31069-0-2	벌(罰)-보다	벌'카'마 (무'서봉기 머꼬')
31070-0-1	벌:(蜂)-이/가	버:리' (무'섭따)
31070-0-2	벌:(蜂)-보다	벌카'마 (무'서봉기 머꼬')

31071-0-1	술(松)-이/가	소'리' (푸'르다)
31071-0-2	술(松)-보다	술'카'마 (푸'룽기 머꼬')
31072-0-1	술:(刷)-이/가	소:리' (크'다')
31072-0-2	술:(刷)-보다	술:카'마 (쿵'기' 머꼬')
31073-0-1	줄(鉉)-이/가	주'리': (길다')
31073-0-2	줄(鉉)-보다	줄'카'마 (강기' 머고')
31074-0-1	줄:(연장)-이/가	주'리': (인'따')
31074-0-2	줄:(연장)-보다	줄'카'마 (싱기' 머고')
31075-0-1	돌:(石)-이/가	도:리' (만타')
31075-0-2	돌:(石)-보다	돌:카'마
31076-0-1	담(牆)-이/가	다'미': (노푸'다)
31076-0-2	담(牆)-보다	담'카'마 (노퐁'기' 머고')
31077-0-1	담:(膽)-이/가	다:미' (꿀'겨 오른'다)
31077-0-2	담:(膽)-보다	담:카'마 (무'서웅기 머꼬')
31078-0-1	들:(野)-이/가	드:리' (너리'다)
31078-0-2	들:(野)-보다	들:카'마 (너링기' 머고')
31079-0-1	달-(懸)-고	달':고' (이'따)
31079-0-1	달-(懸)-더라	달':고' (이'따)
31080-0-1	달-(甘)-더라	달'고
31080-0-1	달-(甘)-고	달'고
31081-0-1	달:-(熱)-고	(방'이) 달:고' (이'따)
31081-0-1	달:-(熱)-더라	(방'이) 달:고' (이'따)
31082-0-1	갈-(換)-더라	(기주'기를) 갈'고 (이'따)
31082-0-1	갈-(換)-고	(기주'기를) 갈'고 (이'따)
31083-0-1	갈:-(磨)-고	갈':고' (이'따)
31083-0-1	갈:-(磨)-더라	갈':고' (이'따)
31084-0-1	갈:-(耕)-더라	갈:고' (이'따)
31084-0-1	갈:-(耕)-고	갈:고' (이'따)
31085-0-1	걷-(收)-고	(빨래'를) 격'꼬 (이'따)
31085-0-1	걷-(收)-더라	(빨래'를) 격'꼬 (이'따)
31086-0-1	걷:-(步)-더라	격'꼬 (가'더'라)
31086-0-1	걷:-(步)-고	격'꼬 (가'더'라)
31087-0-1	적-(書)-고	(그'를') 적'꼬 (인'따)
31087-0-1	적-(書)-더라	(그'를') 적'꼬 (인'따)
31088-0-1	적:-(小)-더라	적'꼬'
31088-0-1	적:-(小)-고	적'꼬'
32001-0-1	막-(防)[ㄱ]-지	막'제' (마'러'라)
32001-0-2	막-(防)[ㄱ]-고	막'꼬 (인'따)
32001-0-3	막-(防)[ㄱ]-더라	막'떠'라
32001-0-4	막-(防)[ㄱ]-으니까	마'그~이'까 (데'더'라)

32001-0-5	막-(防)[ㄱ]-지 -아/어(왔/었다)	마'길따
32002-0-1	흐르-(流)[ㅡ]-지	흐르'지 (안느'다)
32002-0-2	흐르-(流)[ㅡ]-고	흐르'고 (이'따)
32002-0-3	흐르-(流)[ㅡ]-더라	흐르'더'라
32002-0-4	흐르-(流)[ㅡ]-으니까	흐르'~이까
32002-0-5	흐르-(流)[ㅡ] -아/어(왔/었다)	홀'꺾따
32003-0-1	오-(來)[ㅓ]-지	오'지' (마'러라)
32003-0-2	오-(來)[ㅓ]-고	오'고 (임'따)
32003-0-3	오-(來)[ㅓ]-더라	오'더'라
32003-0-4	오-(來)[ㅓ]-으니까	오'~이까
32003-0-5	오-(來)[ㅓ] -아/어(왔/었다)	완'따'
32004-0-1	듣-(聞)[ㄷ변]-지	듣'찌' (마'러라)
32004-0-2	듣-(聞)[ㄷ변]-고	(소무'늘') 득'꼬 (임'따)
32004-0-3	듣-(聞)[ㄷ변]-더라	(잘:) 듣'떠'라
32004-0-4	듣-(聞)[ㄷ변]-으니까	드'르~이까
32004-0-5	듣-(聞)[ㄷ변] -아/어(왔/었다)	드'꺾따
32005-0-1	많:- (多)[ㅗ]-지	만:치' (안'타)
32005-0-2	많:- (多)[ㅗ]-고	망:코'
32005-0-3	많:- (多)[ㅗ]-더라	(우리지'벤 소'니) 만:터'라'
32005-0-4	많:- (多)[ㅗ]-으니까	(소'니) 마느'~이까
32005-0-5	많:- (多)[ㅗ] -아/어(왔/었다)	마넨'따'
32006-0-1	말-(任)[ㅌ]-지	마치' (마'러라)
32006-0-2	말-(任)[ㅌ]-고	(채'기'물) 막'꼬 (임'따)
32006-0-3	말-(任)[ㅌ]-더라	(채'기'물) 만'떠'라
32006-0-4	말-(任)[ㅌ]-으니까	마트'~이까
32006-0-5	말-(任)[ㅌ] -아/어(왔/었다)	마'탈따
32006-0-5	말-(任)[ㅌ] -아/어(왔/었다)	마'털다
32007-0-1	알:- (知)[ㄹ]-지	알:지' (모턴'다')
32007-0-2	알:- (知)[ㄹ]-고	알:고' (임'따)
32007-0-3	알:- (知)[ㄹ]-더라	알:터'라'
32007-0-4	알:- (知)[ㄹ]-으니까	아~이'까'
32007-0-5	알:- (知)[ㄹ] -아/어(왔/었다)	아'꺾따
32008-0-1	감:- (閉眼)[ㅁ]-지	깜':지' (마'러라)

32008-0-2	감:- (閉眼)[口]-고	감:'고' (이'따)
32008-0-3	감:- (閉眼)[口]-더라	감:'더'라
32008-0-4	감:- (閉眼)[口] -으니까	까'므'~이까
32008-0-5	감:- (閉眼)[口] -아/어(왔/었다)	까'멤'따
32009-0-1	벗-(脫)[ㅅ]-지	버찌' (마'라')
32009-0-2	벗-(脫)[ㅅ]-고	벅'꼬 (인'따)
32009-0-3	벗-(脫)[ㅅ]-더라	벗떠'라
32009-0-4	벗-(脫)[ㅅ]-으니까	버스'~이까
32009-0-5	벗-(脫)[ㅅ] -아/어(왔/었다)	버'절따
32009-0-5	벗-(脫)[ㅅ] -아/어(왔/었다)	버'섰따
32010-0-1	옴-(可)[ㅍ]-지	옴'치' (안'타)
32010-0-2	옴-(可)[ㅍ]-고	옴'코'
32010-0-3	옴-(可)[ㅍ]-더라	옴'터'라
32010-0-4	옴-(可)[ㅍ]-으니까	오'르'~이까
32010-0-5	옴-(可)[ㅍ] -아/어(왔/었다)	오'랜'따
32011-0-1	입-(着衣)[ㅂ]-지	입찌' (마'라')
32011-0-2	입-(着衣)[ㅂ]-고	입'꼬 (인'따)
32011-0-3	입-(着衣)[ㅂ]-더라	입떠'라
32011-0-4	입-(着衣)[ㅂ]-으니까	이'브'~이까
32011-0-5	입-(着衣)[ㅂ] -아/어(왔/었다)	이'별따
32012-0-1	바꾸-(換)[ㅌ]-지	바꾸'지' (마'라')
32012-0-2	바꾸-(換)[ㅌ]-고	바꾸'고 (인'따)
32012-0-3	바꾸-(換)[ㅌ]-더라	바꾸터'라
32012-0-4	바꾸-(換)[ㅌ]-으니까	바꾸'~이까
32012-0-5	바꾸-(換)[ㅌ] -아/어(왔/었다)	바깥^따
32013-0-1	덮-(覆)[ㅍ]-지	덮찌' (마'라')
32013-0-2	덮-(覆)[ㅍ]-고	덕'꼬 (인'따)
32013-0-3	덮-(覆)[ㅍ]-더라	덮떠'라
32013-0-4	덮-(覆)[ㅍ]-으니까	더푸'~이까
32013-0-5	덮-(覆)[ㅍ] -아/어(왔/었다)	더'펼따
32014-0-1	묻:- (問)[ㄷ 변]-지	묻:찌' (마'라')
32014-0-2	묻:- (問)[ㄷ 변]-고	묵'꼬' (인'따)
32014-0-3	묻:- (問)[ㄷ 변]-더라	묻떠'라'

32014-0-4	문:- (問)[ㄷ 변] -으니까	무'르~이까
32014-0-5	문:- (問)[ㄷ 변] -아/어(왔/였다)	무'럴따
32015-0-1	낫:- (癒)[ㅅ 변]-지	낫'찌' (안는'다)
32015-0-2	낫:- (癒)[ㅅ 변]-고	낫'꼬' (일'따)
32015-0-3	낫:- (癒)[ㅅ 변]-더라	낫'떠'라'
32015-0-4	낫:- (癒)[ㅅ 변]-으니까	나'스~이까
32015-0-5	낫:- (癒)[ㅅ 변] -아/어(왔/였다)	나'설따
32016-0-1	닫:- (閉)[ㄷ]-지	닫'찌' (마':라')
32016-0-2	닫:- (閉)[ㄷ]-고	닫'꼬' (일'따)
32016-0-3	닫:- (閉)[ㄷ]-더라	닫'떠'라
32016-0-4	닫:- (閉)[ㄷ]-으니까	다드'~이까
32016-0-5	닫:- (閉)[ㄷ] -아/어(왔/였다)	다'털따
32017-0-1	쫓:- (追)[ㅈ]-지	쫓'찌' (마'라')
32017-0-2	쫓:- (追)[ㅈ]-고	쫓'꼬' (일'따)
32017-0-3	쫓:- (追)[ㅈ]-더라	쫓'떠'라
32017-0-4	쫓:- (追)[ㅈ]-으니까	쫓즈'~이까
32017-0-5	쫓:- (追)[ㅈ] -아/어(왔/였다)	쫓'철따
32018-0-1	베:- (枕)[베]-지	비':지' (마'라')
32018-0-2	베:- (枕)[베]-고	비'고' (일'따)
32018-0-3	베:- (枕)[베]-더라	비':더'라
32018-0-4	베:- (枕)[베]-으니까	비':잉'께
32018-0-5	베:- (枕)[베] -아/어(왔/였다)	비':일따
32019-0-1	깨:- (破)[깨]-지	깨'지' (마'라')
32019-0-2	깨:- (破)[깨]-고	깨'고' (일'따)
32019-0-3	깨:- (破)[깨]-더라	깨'더'라
32019-0-4	깨:- (破)[깨]-으니까	깨'~잉까
32019-0-5	깨:- (破)[깨] -아/어(왔/였다)	깼^따
32020-0-1	펴:- (伸)[ㅍ]-지	폐'지' (마'라')
32020-0-2	펴:- (伸)[ㅍ]-고	폐'고' (일'따)
32020-0-3	펴:- (伸)[ㅍ]-더라	폐'더'라
32020-0-4	펴:- (伸)[ㅍ]-으니까	폐'~잉까
32020-0-5	펴:- (伸)[ㅍ] -아/어(왔/였다)	펼^따
32021-0-1	밝:- (明)[?]-지	발'찌' (안'타)

32021-0-2	밝-(明)[?]-고	발'꼬 (인'따)
32021-0-3	밝-(明)[?]-더라	발'떠'라
32021-0-4	밝-(明)[?]-으니까	발'그~이까
32021-0-5	밝-(明)[?] -아/어(았/었다)	발'건따
32022-0-1	삶:- (烹)[?]-지	삼:지'
32022-0-2	삶:- (烹)[?]-고	삼:고'
32022-0-3	삶:- (烹)[?]-더라	삼'더'라
32022-0-4	삶:- (烹)[?]-으니까	살'므~이까
32022-0-5	삶:- (烹)[?] -아/어(았/었다)	살'면따
32023-0-1	을-(吟)[ㄷ]-지	을치' (마'라')
32023-0-2	을-(吟)[ㄷ]-고	을'코 (인'따)
32023-0-3	을-(吟)[ㄷ]-더라	을터'라
32023-0-4	을-(吟)[ㄷ]-으니까	을'그~이까
32023-0-5	을-(吟)[ㄷ] -아/어(았/었다)	을'건따
32024-0-1	밟:- (踏)[?]-지	발:찌' (마'라')
32024-0-2	밟:- (踏)[?]-고	발:꼬' (인'따)
32024-0-3	밟:- (踏)[?]-더라	발:떠'라'
32024-0-4	밟:- (踏)[?]-으니까	발'브~이까
32024-0-5	밟:- (踏)[?] -아/어(았/었다)	발'면따
32025-0-1	하-(爲)[ㅏ 변]-지	하지' (마'라')
32025-0-2	하-(爲)[ㅏ 변]-고	하'고 (인'따)
32025-0-3	하-(爲)[ㅏ 변]-더라	하'더'라
32025-0-4	하-(爲)[ㅏ 변]-으니까	하'~이까
32025-0-5	하-(爲)[ㅏ 변] -아/어(았/었다)	훤:따'
32026-0-1	맺-(結)[ㅈ]-지	맷찌' (마'라')
32026-0-2	맺-(結)[ㅈ]-고	맷'꼬 (인'따)
32026-0-3	맺-(結)[ㅈ]-더라	맷'떠'라
32026-0-4	맺-(結)[ㅈ]-으니까	매즈'~이까
32026-0-5	맺-(結)[ㅈ] -아/어(았/었다)	매'절따
32027-0-1	없:- (無)[?]-지	읍:찌' (안'타)
32027-0-2	없:- (無)[?]-고	(살리'미) 억:꼬'
32027-0-3	없:- (無)[?]-더라	(살리'미) 읍:떠'라'
32027-0-4	없:- (無)[?]-으니까	업스'~이까
32027-0-5	없:- (無)[?] -아/어(았/었다)	업'설'따'

32028-0-1	앉-(坐)[ㅅ]-지	안찌' (마라')
32028-0-2	앉-(坐)[ㅅ]-고	앙'꼬 (인'따)
32028-0-3	앉-(坐)[ㅅ]-더라	안떠'라
32028-0-4	앉-(坐)[ㅅ]-으니까	안즈'~이까
32028-0-5	앉-(坐)[ㅅ] -아/어(왔/었다)	안'잘따
32029-0-1	비비-(刮)[ㅂ]-지	비비'지' (마라')
32029-0-2	비비-(刮)[ㅂ]-고	비비'고 (이'따)
32029-0-3	비비-(刮)[ㅂ]-더라	비비더'라
32029-0-4	비비-(刮)[ㅂ]-으니까	비비'~이까
32029-0-5	비비-(刮)[ㅂ] -아/어(왔/었다)	비빔^따
32030-0-1	끄-(消)[ㅡ]-지	끄지' (마라')
32030-0-2	끄-(消)[ㅡ]-고	끄'고' (인'따)
32030-0-3	끄-(消)[ㅡ]-더라	끄'더'라
32030-0-4	끄-(消)[ㅡ]-으니까	끄'~이'까
32030-0-5	끄-(消)[ㅡ] -아/어(왔/었다)	꼴':따'
32031-0-1	꺾-(折)[ㄱ]-지	꺾치' (마라')
32031-0-2	꺾-(折)[ㄱ]-고	꺾'코 (인'따)
32031-0-3	꺾-(折)[ㄱ]-더라	꺾터'라
32031-0-4	꺾-(折)[ㄱ]-으니까	꺾느'~이'까
32031-0-5	꺾-(折)[ㄱ] -아/어(왔/었다)	꺾'넌다
32032-0-1	신:- (履)[ㄴ]-지	신':지' (마라)
32032-0-2	신:- (履)[ㄴ]-고	싱':고' (이'따)
32032-0-3	신:- (履)[ㄴ]-더라	신':더'라
32032-0-4	신:- (履)[ㄴ]-으니까	시'느~이'까
32032-0-5	신:- (履)[ㄴ] -아/어(왔/었다)	시'넌따
32033-0-1	보-(視)[ㅇ]-지	보지' (마라')
32033-0-2	보-(視)[ㅇ]-고	보'고 (이'따)
32033-0-3	보-(視)[ㅇ]-더라	보'더'라
32033-0-4	보-(視)[ㅇ]-으니까	보'~이'까
32033-0-5	보-(視)[ㅇ] -아/어(왔/었다)	봔':따
32034-0-1	추-(舞)[ㅈ]-지	추지' (마라')
32034-0-2	추-(舞)[ㅈ]-고	추'고' (인'따)
32034-0-3	추-(舞)[ㅈ]-더라	추'더'라
32034-0-4	추-(舞)[ㅈ]-으니까	추'~이'까

32034-0-5	추-(舞)[ㅈ]	추'어'따
	-아/어(왔/왔다)	
32035-0-1	피우-(吸煙)[ㅈ]-지	피'우지
32035-0-2	피우-(吸煙)[ㅈ]-고	피'우고
32035-0-3	피우-(吸煙)[ㅈ]-더라	피'우더라
32035-0-4	피우-(吸煙)[ㅈ]-으니까	피'우~이까
32035-0-5	피우-(吸煙)[ㅈ]	피'알따
	-아/어(왔/왔다)	
32036-0-1	서-(立)[ㄱ]-지	서'지'
32036-0-2	서-(立)[ㄱ]-고	서'고
32036-0-3	서-(立)[ㄱ]-더라	서'더'라
32036-0-4	서-(立)[ㄱ]-으니까	서'~이까
32036-0-5	서-(立)[ㄱ]	서'':따'
	-아/어(왔/왔다)	
32037-0-1	기-(匍腹)[ㅣ]-지	기'지'
32037-0-2	기-(匍腹)[ㅣ]-고	기'고'
32037-0-3	기-(匍腹)[ㅣ]-더라	기'더'라
32037-0-4	기-(匍腹)[ㅣ]-으니까	기'~이'까
32037-0-5	기-(匍腹)[ㅣ]	기'':따'
	-아/어(왔/왔다)	
32038-0-1	이-(戴)[ㅣ]-지	이'지'
32038-0-2	이-(戴)[ㅣ]-고	이'고
32038-0-3	이-(戴)[ㅣ]-더라	이'더'라
32038-0-4	이-(戴)[ㅣ]-으니까	이'~이'까
32038-0-5	이-(戴)[ㅣ]	이'':따'
	-아/어(왔/왔다)	
32039-0-1	아니-(否)[ㅣ]-지	아~이'지
32039-0-2	아니-(否)[ㅣ]-고	아~이'고
32039-0-3	아니-(否)[ㅣ]-더라	아~이'더'라
32039-0-4	아니-(否)[ㅣ]-으니까	아~이'이'까
32039-0-5	아니-(否)[ㅣ]	아~이'열'따
	-아/어(왔/왔다)	
32040-0-1	되-(升)[ㅂ]-지	되'지'
32040-0-2	되-(升)[ㅂ]-고	되'고'
32040-0-3	되-(升)[ㅂ]-더라	되'더'라
32040-0-4	되-(升)[ㅂ]-으니까	되'~이'까
32040-0-5	되-(升)[ㅂ]	되'':따'
	-아/어(왔/왔다)	
32041-0-1	있-(有)[ㅅ]-지	있'찌
32041-0-2	있-(有)[ㅅ]-고	있'꼬
32041-0-3	있-(有)[ㅅ]-더라	있'떠'라

32041-0-4	있-(有)[ㅅ]-으니까	이스'~이까
32041-0-5	있-(有)[ㅅ]	이'설따
	-아/어(왔/었다)	
32042-0-1	놓-(放)[ㅎ]-지	노치'
32042-0-2	놓-(放)[ㅎ]-고	노'코
32042-0-3	놓-(放)[ㅎ]-더라	노터'라
32042-0-4	놓-(放)[ㅎ]-으니까	노~으'이까
32042-0-5	놓-(放)[ㅎ]	노'알따
	-아/어(왔/었다)	
32043-0-1	훑-(扱)[ㅈ]-지	홀찌'
32043-0-2	훑-(扱)[ㅈ]-고	홀'꼬
32043-0-3	훑-(扱)[ㅈ]-더라	홀떠'라
32043-0-4	훑-(扱)[ㅈ]-으니까	홀트'~이까
32043-0-5	훑-(扱)[ㅈ]	홀'털따
	-아/어(왔/었다)	
32044-0-1	굽:-(麗)[ㅂ변]-지	굽:찌'
32044-0-2	굽:-(麗)[ㅂ변]-고	굽'꼬
32044-0-3	굽:-(麗)[ㅂ변]-더라	굽떠'라'
32044-0-4	굽:-(麗)[ㅂ변]-으니까	고브'~이까
32044-0-5	굽:-(麗)[ㅂ변]	고뵈'따'
	-아/어(왔/었다)	
32045-0-1	쥐:-(握)[ㄱ]-지	지:지'
32045-0-2	쥐:-(握)[ㄱ]-고	지고'
32045-0-3	쥐:-(握)[ㄱ]-더라	지더'라'
32045-0-4	쥐:-(握)[ㄱ]-으니까	지~이'까'
32045-0-5	쥐:-(握)[ㄱ]	쥬^따
	-아/어(왔/었다)	
32046-0-1	가-(去)[ㄱ]-지	가지'
32046-0-2	가-(去)[ㄱ]-고	가'고
32046-0-3	가-(去)[ㄱ]-더라	가'더'라
32046-0-4	가-(去)[ㄱ]-으니까	가'~이까
32046-0-5	가-(去)[ㄱ]	갈'따'
	-아/어(왔/었다)	
32047-0-1	'먹-(食)-지	묵찌'
	-고 -더라'	
32047-0-2	'먹-(食)-아/어도	무'얼따
	-아/어서 -왔/었다'	
32048-0-1	'뜯-(摘)-지	뜯'찌'
	-고 -더라'	
32048-0-2	'뜯-(摘)-아/어도	뜨'뜯'따
	-아/어서 -왔/었다'	

32049-0-1	'갈-(如)-지 -고 -더라'	갈'찌'
32049-0-2	'갈-(如)-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가'탈'따
32050-0-1	'얕-(淺)-지 -고 -더라'	야푸'지
32050-0-2	'얕-(淺)-아/어도 - 아/어서 -왔/었다'	야'펼따
32051-0-1	'흩-(散)-지 -고 -더라'	흐'찌'
32051-0-2	'흩-(散)-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흐'펼따
32052-0-1	'날:-(飛)-지 -고 -더라'	나'지
32052-0-2	'날:-(飛)-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나'펼따
32053-0-1	'울:-(泣)-지 -고 -더라'	우'지'
32053-0-2	'울:-(泣)-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우'펼따
32054-0-1	'일:-(洵)-지 -고 -더라'	이지'
32054-0-2	'일:-(洵)-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이'펼따
32055-0-1	'얼:-(凍)-지 -고 -더라'	얼:지'
32055-0-2	'얼:-(凍)-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어'펼따
32056-0-1	'넘:-(越)-지 -고 -더라'	넘지'
32056-0-2	'넘:-(越)-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너'펼따
32057-0-1	'숨:-(隱)-지 -고 -더라'	숨'지'
32057-0-2	'숨:-(隱)-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수'펼'따
32058-0-1	'쉽:-(易)-지 -고 -더라'	쉽:찌'
32058-0-2	'쉽:-(易)-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수'벌'따'

32059-0-1	'늑:-(馱)-지 -고 -더라'	늑'찌'
32059-0-2	'늑:-(馱)-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누'별따
32060-0-1	'깁:-(縫)-지 -고 -더라'	깁'찌'
32060-0-2	'깁:-(縫)-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지'별따
32061-0-1	'밍:-(憎)-지 -고 -더라'	밍'찌'
32061-0-2	'밍:-(憎)-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미'별따
32062-0-1	'높:-(高)-지 -고 -더라'	노푸'지'
32062-0-2	'높:-(高)-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노'별따
32063-0-1	'짓:-(作)-지 -고 -더라'	질:찌'
32063-0-2	'짓:-(作)-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지'알따
32064-0-1	'붓:-(腫)-지 -고 -더라'	분:찌'
32064-0-2	'붓:-(腫)-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부'설따
32065-0-1	'웃:-(笑)-지 -고 -더라'	운:찌'
32065-0-2	'웃:-(笑)-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우'설따
32066-0-1	'짓:-(吠)-지 -고 -더라'	질:찌'
32066-0-2	'짓:-(吠)-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지'설따
32067-0-1	'꽂:-(插)-지 -고 -더라'	꽂'찌'
32067-0-2	'꽂:-(插)-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꼬'받따
32068-0-1	'낱:-(産)-지 -고 -더라'	노'치'
32068-0-2	'낱:-(産)-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나'알따

32069-0-1	'땅:-(?)-지 -고 -더라'	땅'치'
32069-0-2	'땅:-(?)-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땅'알따
32070-0-1	'끓-(切)-지 -고 -더라'	끓'치'
32070-0-2	'끓-(切)-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끓'곶따
32071-0-1	'괜찮-(無妨)-지 -고 -더라'	개안'치
32071-0-2	'괜찮-(無妨)-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개아'넛따
32072-0-1	'읽-(讀)-지 -고 -더라'	이르'지
32072-0-2	'읽-(讀)-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이'곶따
32073-0-1	'떨:-(漉)-지 -고 -더라'	떨:찌'
32073-0-2	'떨:-(漉)-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떨:번'따'
32074-0-1	'옮:-(遷)-지 -고 -더라'	옹'기치
32074-0-2	'옮:-(遷)-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옹'곶따
32075-0-1	'뚫:-(貫)-지 -고 -더라'	뚫:찌'
32075-0-2	'뚫:-(貫)-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뚫'번따
32076-0-1	'끓-(?)-지 -고 -더라'	끓'지'
32076-0-2	'끓-(?)-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꾸'곶'따
32077-0-1	'닿:-(? 연필 심이)-지 -고 -더라'	닿'치
32077-0-2	'닿:-(? 연필 심이)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닿'곶따
32078-0-1	'닿:-(煎 술에서 장이) -지 -고 -더라'	닿'치
32078-0-2	'닿:-(煎 술에서 장이)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닿'곶따

32079-0-1	'짜-(鹽)-지 -고 -더라'	짹'찌'
32079-0-2	'짜-(鹽)-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짜'받'따
32080-0-1	'말-(捲)-지 -고 -더라'	말'지'
32080-0-2	'말-(捲)-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마'ړ따
32081-0-1	'쓰-(書)-지 -고 -더라'	시'고'
32081-0-2	'쓰-(書)-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션'따'
32082-0-1	'오르-(登)-지 -고 -더라'	오르'지'
32082-0-2	'오르-(登)-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올'ړ따
32083-0-1	'바쁘-(忙)-지 -고 -더라'	바뿌'지'
32083-0-2	'바쁘-(忙)-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바'뵤따
32084-0-1	'고프-(餓)-지 -고 -더라'	고푸'지'
32084-0-2	'고프-(餓)-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고'판따
32085-0-1	'쏘-(射)-지 -고 -더라'	쭈'지'
32085-0-2	'쏘-(射)-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쭈'얼'따
32086-0-1	'꾸-(夢)-지 -고 -더라'	꾸'지'
32086-0-2	'꾸-(夢)-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꾸'얼'따
32087-0-1	'머무르-(留)-지 -고 -더라'	머'무지'
32087-0-2	'머무르-(留)-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머'루ړ따
32088-0-1	'다듬-(整)-지 -고 -더라'	따듬'지'
32088-0-2	'다듬-(整)-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따드믈'따
32089-0-1	'견디-(忍)-지 -고 -더라'	전'지지'
32089-0-2	'견디-(忍)-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전'질따
32090-0-1	'말리-(裁)-지 -고 -더라'	

32090-0-2	'말리-(裁)-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091-0-1	'끼-(烟鎖 안개가)-지 -고 -더라'	끼^지
32091-0-2	'끼-(烟鎖 안개가)-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끼^따
32092-0-1	'마시-(飮)-지 -고 -더라'	마'시지
32092-0-2	'마시-(飮)-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마'싯따
32093-0-1	'세:-(強)-지 -고 -더라'	시지'
32093-0-2	'세:-(強)-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시^따
32094-0-1	'포개-(重疊)-지 -고 -더라'	동개'지'
32094-0-2	'포개-(重疊)-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동개^따
32095-0-1	'두드리-(敲)-지 -고 -더라'	뚜디'리지
32095-0-2	'두드리-(敲)-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뚜달'렵따
32096-0-1	'켜-(點燈)-지 -고 -더라'	서지'
32096-0-2	'켜-(點燈)-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섰'따'
32097-0-1	'췌:-(바람을)-지 -고 -더라'	씨^지
32097-0-2	'췌:-(바람을)-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싯^따
32098-0-1	'쇠-(老)-지 -고 -더라'	췌^지
32098-0-2	'쇠-(老)-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췌^따
32099-0-1	'쉬:-(?) -지 -고 -더라'	쉬:지'
32099-0-1	'쉬:-(?) -지 -고 -더라'	시지'
32099-0-2	'쉬:-(?)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췌^따
32100-0-1	'회-(白)-지 -고 -더라'	히'지'
32100-0-2	'회-(白)-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힐':따
32101-0-1	'볶-(炒)-지 -고 -더라'	뽕췌'

32101-0-2	'볶-(炒)-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뽏'깎따
32102-0-1	'안:-(抱)-지 -고 -더라'	안'지'
32102-0-2	'안:-(抱)-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아'넌따
32103-0-1	'묻-(埋)-지 -고 -더라'	묻'찌'
32103-0-2	'묻-(埋)-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무'덜따
32104-0-1	'불:-(吹)-지 -고 -더라'	부'지'
32104-0-2	'불:-(吹)-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부'ړ넌따
32105-0-1	'빨-(洗濯)-지 -고 -더라'	빠'지'
32105-0-2	'빨-(洗濯)-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빠'ړ넌'따
32106-0-1	'죽-(死)-지 -고 -더라'	죽'찌'
32106-0-2	'죽-(死)-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주'걸따
32107-0-1	'걸:-(步)-지 -고 -더라'	걸'찌'
32107-0-2	'걸:-(步)-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거'ړ넌따'
32108-0-1	'가물-(旱)-지 -고 -더라'	가'무'지
32108-0-2	'가물-(旱)-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가'무'ړ넌따
32109-0-1	'졸:-(睡)-지 -고 -더라'	자부'지'
32109-0-2	'졸:-(睡)-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자부'ړ넌따
32110-0-1	'쓸-(掃)-지 -고 -더라'	씨'지'
32110-0-2	'쓸-(掃)-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씨'ړ넌'따
32111-0-1	'감:-(捲)-지 -고 -더라'	깜'지'
32111-0-2	'감:-(捲)-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까'믄'따
32112-0-1	'더듬-(摸)-지 -고 -더라'	더'듬지
32112-0-2	'더듬-(摸)-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더'드믄따
32113-0-1	'끓:-(炙)-지 -고 -더라'	끓'찌'
32113-0-2	'끓:-(炙)-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꾸'벌따
32114-0-1	'무겁-(重)-지 -고 -더라'	무겁'찌'

32114-0-2	'무겁-(重)-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무거'별따
32115-0-1	'잇:-(連)-지 -고 -더라'	이수^지
32115-0-2	'잇:-(連)-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이산^다
32116-0-1	'빗-(梳)-지 -고 -더라'	뽀'찌'
32116-0-2	'빗-(梳)-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뽀'전따
32117-0-1	'까맣-(黑)-지 -고 -더라'	꺼머'치'
32117-0-2	'까맣-(黑)-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꺼'먼따
32118-0-1	'넣-(入)-지 -고 -더라'	여치'
32118-0-2	'넣-(入)-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열^따
32119-0-1	'고:-(煮)-지 -고 -더라'	고치'
32119-0-2	'고:-(煮)-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고'완따
32120-0-1	'얹-(載)-지 -고 -더라'	언찌'
32120-0-2	'얹-(載)-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언'전따
32121-0-1	'귀찮-(?) -지 -고 -더라'	기'찬'치
32121-0-2	'귀찮-(?)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기'차'넌따
32122-0-1	'마르-(剔 생선 뼈를) -지 -고 -더라'	불치'
32122-0-2	'마르-(剔 생선 뼈를)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불'겉따
32123-0-1	'맑-(淸)-지 -고 -더라'	말'찌
32123-0-2	'맑-(淸)-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말'겉따
32124-0-1	'굵:-(膿)-지 -고 -더라'	궁'기치
32124-0-2	'굵:-(膿)-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궁'길따
32125-0-1	'굵:-(太)-지 -고 -더라'	굴찌'
32125-0-2	'굵:-(太)-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굴'겉'따
32126-0-1	'얇:-(薄)-지 -고 -더라'	열찌'
32126-0-2	'얇:-(薄)-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열'별따
32127-0-1	'쉴:-(?) -지 -고 -더라'	실치'

32127-0-2	'쑈-(?)-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썰'건따
32128-0-1	'잃-(失)-지 -고 -더라'	일'치'
32128-0-2	'잃-(失)-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일'건따
32129-0-1	'훤-(?)-지 -고 -더라'	홀'찌'
32129-0-2	'훤-(?)-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홀'탄따
32130-0-1	'짧-(短)-지 -고 -더라'	짜르'지
32130-0-2	'짧-(短)-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짤'런따
32131-0-1	'놀라-(驚)-지 -고 -더라'	놀래'지
32131-0-2	'놀라-(驚)-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놀랜':따
32132-0-1	'자-(宿)-지 -고 -더라'	자'지'
32132-0-2	'자-(宿)-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잠'따'
32133-0-1	'못:하-(不爲)-지 -고 -더라'	몬하'지'
32133-0-2	'못:하-(不爲)-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몬헨'따
32134-0-1	'모르-(不知)-지 -고 -더라'	모리'지'
32134-0-2	'모르-(不知)-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몰란'따'
32135-0-1	'아프-(痛)-지 -고 -더라'	아푸'지
32135-0-2	'아프-(痛)-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아'핀따
32136-0-1	'크-(大)-지 -고 -더라'	크'지'
32136-0-2	'크-(大)-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큰'따'
32137-0-1	'꼬-(索 새끼를)-지 -고 -더라'	꾸'지'
32137-0-2	'꼬-(索 새끼를)-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꾸'왈'따
32138-0-1	'쭈-(造粥)-지 -고 -더라'	수'지'
32138-0-2	'쭈-(造粥)-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쭈'왈'따

32139-0-1	'맞추-(組合)-지 -고 -더라'	맞추^지
32139-0-2	'맞추-(組合)-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마찬^따
32140-0-1	'테우-(?)-지 -고 -더라'	테푸^지
32140-0-2	'테우-(?)-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테판^따
32141-0-1	'이:-(盖 지붕을)-지 -고 -더라'	이^지
32141-0-2	'이:-(盖 지붕을)-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일^따
32142-0-1	'갈기-(打)-지 -고 -더라'	갈기지'
32142-0-2	'갈기-(打)-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갈길따'
32143-0-1	'기다리-(待)-지 -고 -더라'	기다'리지
32143-0-2	'기다리-(待)-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기달'릴따
32144-0-1	'세:-(算)-지 -고 -더라'	시아'리'지
32144-0-2	'세:-(算)-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시알'릴'따
32145-0-1	'빼-(拔)-지 -고 -더라'	빼'지'
32145-0-2	'빼-(拔)-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뺨':따'
32146-0-1	'켜-(톱을)-지 -고 -더라'	깨지'
32146-0-2	'켜-(톱을)-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깼^따
32147-0-1	'되:-(硬)-지 -고 -더라'	뒤'지'
32147-0-2	'되:-(硬)-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뒤^따
32148-0-1	'쉬:-(休)-지 -고 -더라'	쉬지'
32148-0-2	'쉬:-(休)-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쉴^따
32149-0-1	'할퀴-(搔)-지 -고 -더라'	까래'비지
32149-0-2	'할퀴-(搔)-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까래'빌따'
32150-0-1	'눈:-(?)-지 -고 -더라'	눈:찌'
32150-0-2	'눈:-(?)-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누'릴따
32151-0-1	'깨닫-(覺)-지 -고 -더라'	깨다'러지

32151-0-2	'깨달-(覺)-아/어도 - 아/어서 -왔/었다'	깨달'런따
32152-0-1	'마렵-(오줌이)-지 -고 -더라'	내'렵찌
32152-0-2	'마렵-(오줌이)-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내'러뵤따
32153-0-1	'부끄럽-(恥)-지 -고 -더라'	부끄'럽'찌
32153-0-2	'부끄럽-(恥)-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부끄러'뵤따
32154-0-1	'가깝-(近)-지 -고 -더라'	가깝'지
32154-0-2	'가깝-(近)-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가까'뵤따
32155-0-1	'깊-(深)-지 -고 -더라'	지푸'지
32155-0-2	'깊-(深)-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지'뵤다
32156-0-1	'긋:-(劃)-지 -고 -더라'	끄'치'
32156-0-2	'긋:-(劃)-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끝^따
32157-0-1	'씻-(洗)-지 -고 -더라'	식'찌
32157-0-2	'씻-(洗)-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씨'겔따
32158-0-1	'짚-(搗)-지 -고 -더라'	찍'찌'
32158-0-2	'짚-(搗)-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찌'겔따
32159-0-1	'깎-(搔)-지 -고 -더라'	끌'치'
32159-0-2	'깎-(搔)-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끌'겔따
32160-0-1	'굶:-(飢)-지 -고 -더라'	굶:지'
32160-0-2	'굶:-(飢)-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굶'뵤따
32161-0-1	'닮:-(似)-지 -고 -더라'	담:지'
32161-0-2	'닮:-(似)-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달'뵤따
32162-0-1	'싫-(厭)-지 -고 -더라'	싫'치'
32162-0-2	'싫-(厭)-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시'런'따
32163-0-1	'끓-(?) -지 -고 -더라'	끓'치'
32163-0-2	'끓-(?)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고'런'따
32164-0-1	'붓:-(注)-지 -고 -더라'	부'찌'

32164-0-2	'붓:-(注)-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부'알따
32165-0-1	'타-(乘)-지 -고 -더라'	타'지'
32165-0-2	'타-(乘)-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탈'따'
32166-0-1	'마르-(乾)-지 -고 -더라'	마리'지
32166-0-2	'마르-(乾)-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말'랄따
32167-0-1	'쓰-(苦)-지 -고 -더라'	쌈'찌'
32167-0-2	'쓰-(苦)-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씨'벌'따
32168-0-1	'슬프-(哀)-지 -고 -더라'	슬푸'지
32168-0-2	'슬프-(哀)-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슬'필따
32169-0-1	'기쁘-(喜)-지 -고 -더라'	기푸'지
32169-0-2	'기쁘-(喜)-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기'필따
32170-0-1	'쏘-(? 별이)-지 -고 -더라'	쭈'지'
32170-0-2	'쏘-(? 별이)-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쭈'얼'따
32171-0-1	'주-(興)-지 -고 -더라'	주지'
32171-0-2	'주-(興)-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주'율'따
32172-0-1	'키우-(飼育)-지 -고 -더라'	키'우지
32172-0-2	'키우-(飼育)-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키'율따
32172-0-2	'키우-(飼育)-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키'왈따
32173-0-1	'가두-(囚)-지 -고 -더라'	가두'지
32173-0-1	'가두-(囚)-지 -고 -더라'	가두^지
32173-0-2	'가두-(囚)-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가단^따
32174-0-1	'부수-(碎)-지 -고 -더라'	뿌수'지'
32174-0-2	'부수-(碎)-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뿌'왈따
32174-0-2	'부수-(碎)-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뿌산^따
32175-0-1	'나누-(分)-지 -고 -더라'	나누^지

32175-0-2	'나누-(分)-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나날^따
32176-0-1	'속이-(欺)-지 -고 -더라'	쉐'기 지
32176-0-2	'속이-(欺)-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쉐'길 따
32177-0-1	'끼-(插)-지 -고 -더라'	찌'지'
32177-0-2	'끼-(插)-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찢'따'
32178-0-1	'튀-(跳)-지 -고 -더라'	티'지
32178-0-2	'튀-(跳)-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틔^따
32179-0-1	'괴:-(滄)-지 -고 -더라'	고이'지
32179-0-2	'괴:-(滄)-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고인^따
32180-0-1	'여위-(?)-지 -고 -더라'	애'비 지
32180-0-2	'여위-(?)-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애'빌 따
32181-0-1	'맵-(辛)-지 -고 -더라'	맵'찌
32181-0-2	'맵-(辛)-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매'받 따
32182-0-1	'뀌:-(?)-지 -고 -더라'	뀌'지'
32182-0-2	'뀌:-(?)-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꼴^따
32183-0-1	'고치-(改)-지 -고 -더라'	곤'치 지
32183-0-2	'고치-(改)-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곤'칠 따
32184-0-1	'실:-(載)-지 -고 -더라'	시'찌'
32184-0-2	'실:-(載)-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시'ړ 따
32185-0-1	'얻:-(得)-지 -고 -더라'	얻'찌'
32185-0-2	'얻:-(得)-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어'덜' 따
32186-0-1	'뽡-(粉碎)-지 -고 -더라'	뽀'오 지
32186-0-2	'뽡-(粉碎)-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뽀'왈 따
32187-0-1	'파랑-(碧)-지 -고 -더라'	파라'치'
32187-0-2	'파랑-(碧)-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파랴'따'
32188-0-1	'다르-(異)-지 -고 -더라'	다르'지

32188-0-2	'다르-(異)-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달'란따
32189-0-1	'푸-(汲)-지 -고 -더라'	푸'지'
32189-0-2	'푸-(汲)-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핀'따'
32190-0-1	'누-(尿)-지 -고 -더라'	누지'
32190-0-2	'누-(尿)-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누'얼'따
32191-0-1	'더:럽-(汚)-지 -고 -더라'	더럽'찌'
32191-0-2	'더:럽-(汚)-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더러벌'따'
32192-0-1	'거두-(收)-지 -고 -더라'	거두^지
32192-0-2	'거두-(收)-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거달^따
32193-0-1	'끓-(沸)-지 -고 -더라'	끓'치
32193-0-2	'끓-(沸)-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끓'겔따
32194-0-1	'이기-(勝)-지 -고 -더라'	이'기지
32194-0-2	'이기-(勝)-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이'길따
32195-0-1	'부시-(照)-지 -고 -더라'	부시^지
32195-0-2	'부시-(照)-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부싯^따
32196-0-1	'자빠지-(後倒)-지 -고 -더라'	자'빠지'지'
32196-0-2	'자빠지-(後倒)-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자'빠질'따'
32197-0-1	'일으키-(使起)-지 -고 -더라'	일바'치지
32197-0-2	'일으키-(使起)-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일바'칠따
32198-0-1	'당기-(引)-지 -고 -더라'	땡'기'지
32198-0-2	'당기-(引)-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땡'길따
32199-0-1	'버리-(捨)-지 -고 -더라'	버'리지
32199-0-2	'버리-(捨)-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버'릴따
32200-0-1	'훔치-(盜)-지 -고 -더라'	훔'치지

32200-0-2	'훔치-(盜)-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훔'친따
32201-0-1	'지-(負)-지 -고 -더라'	지'지'
32201-0-2	'지-(負)-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쩐'따'
32202-0-1	'외:-(暗誦)-지 -고 -더라'	에'우지
32202-0-2	'외:-(暗誦)-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에'왈따
32203-0-1	'사귀-(交際)-지 -고 -더라'	사게'지'
32203-0-2	'사귀-(交際)-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사꺼^따
32204-0-1	'씩-(腐)-지 -고 -더라'	씩'찌
32204-0-2	'씩-(腐)-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씩'곶따
32205-0-1	'질-(泥)-지 -고 -더라'	지'지
32205-0-2	'질-(泥)-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지'ړ따
32206-0-1	'까불-(箕)-지 -고 -더라'	까부'리지
32206-0-2	'까불-(箕)-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까불'ړ따
32207-0-1	'드물-(稀)-지 -고 -더라'	드'물'지
32207-0-2	'드물-(稀)-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드'무'ړ따
32208-0-1	'줄:-(縮)-지 -고 -더라'	주'지'
32208-0-2	'줄:-(縮)-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주'ړ따
32209-0-1	'심:-(植)-지 -고 -더라'	시무'지'
32209-0-2	'심:-(植)-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시땨^따
32210-0-1	'쓰다듬-(撫)-지 -고 -더라'	씨'담'지
32210-0-2	'쓰다듬-(撫)-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씨'다'땨따
32211-0-1	'사:납-(猛)-지 -고 -더라'	상그랍'찌
32211-0-2	'사:납-(猛)-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상그라'뵈다
32212-0-1	'가볍-(輕)-지 -고 -더라'	개꺼'찌
32212-0-2	'가볍-(輕)-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개거'뵈다

32213-0-1	'젓:-(?)-지 -고 -더라'	젓:찌'
32213-0-2	'젓:-(?)-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저'젓따
32214-0-1	'두껍-(厚)-지 -고 -더라'	뚜껍'지
32214-0-2	'두껍-(厚)-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뚜꺼'별다
32215-0-1	'무르-(軟)-지 -고 -더라'	무르'지
32215-0-2	'무르-(軟)-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물'렵다
32216-0-1	'분지르-(折)-지 -고 -더라'	뿌^지
32216-0-2	'분지르-(折)-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뿌'얼다
32217-0-1	'배우-(學)-지 -고 -더라'	배'우지
32217-0-2	'배우-(學)-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배'알다
32218-0-1	'다리-(?)-지 -고 -더라'	다'리지
32218-0-2	'다리-(?)-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다'릴따
32219-0-1	'후비-(? 귀를)-지 -고 -더라'	휘'비지
32219-0-2	'후비-(? 귀를)-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휘'빈다
32220-0-1	'아리-(痛)-지 -고 -더라'	알리^지
32220-0-2	'아리-(痛)-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알릴^다
32221-0-1	'그리-(畫)-지 -고 -더라'	기'리'지
32221-0-2	'그리-(畫)-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기'릴'다
32222-0-1	'저리-(癱)-지 -고 -더라'	체'립지
32222-0-2	'저리-(癱)-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체'러별다
32223-0-1	'불리-(增)-지 -고 -더라'	부루^지
32223-0-2	'불리-(增)-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부랄^다
32224-0-1	'뜨시-(溫)-지 -고 -더라'	뜨시'지
32224-0-2	'뜨시-(溫)-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뜨실^다
32225-0-1	'끓이-(使沸)-지 -고 -더라'	끼'리지

32225-0-2	'끓이-(使沸)-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끼'릴다
32226-0-1	'누비-(縫)-지 -고 -더라'	뉘'비지
32226-0-2	'누비-(縫)-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니'빈다
32227-0-1	'구기-(皺)-지 -고 -더라'	꾸개'지'
32227-0-2	'구기-(皺)-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꾸꺾^다
32228-0-1	'비:-(空)-지 -고 -더라'	비지'
32228-0-2	'비:-(空)-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빈^다
32229-0-1	'식히-(使冷)-지 -고 -더라'	시쿠^지
32229-0-2	'식히-(使冷)-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시칸^다
32230-0-1	'매-(除草)-지 -고 -더라'	매'지'
32230-0-2	'매-(除草)-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맬:따'
32231-0-1	'매:-(結)-지 -고 -더라'	매지'
32231-0-2	'매:-(結)-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맬^다
32232-0-1	'뛰-(走)-지 -고 -더라'	띠지'
32232-0-2	'뛰-(走)-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띈^다
32233-0-1	'담:-(盛)-지 -고 -더라'	담'지'
32233-0-2	'담:-(盛)-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다'말'다
32234-0-1	'가렵-(?)-지 -고 -더라'	끈지럽'지
32234-0-2	'가렵-(?)-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끈지러'별다
32235-0-1	'때리-(打)-지 -고 -더라'	때'리지
32235-0-2	'때리-(打)-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때'릴다
32236-0-1	'어둡-(暗)-지 -고 -더라'	어둡'지
32236-0-2	'어둡-(暗)-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어더'별다
32237-0-1	'잡-(執)-지 -고 -더라'	잡찌'
32237-0-2	'잡-(執)-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차'받다
32238-0-1	'차-(蹴)-지 -고 -더라'	차'지'

32238-0-2	'차-(蹴)-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찬'다'
32239-0-1	'모자라-(不足)-지 -고 -더라'	모지래'지
32239-0-2	'모자라-(不足)-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모지랴^다
32240-0-1	'부르-(呼)-지 -고 -더라'	부리'지'
32240-0-2	'부르-(呼)-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불'릴다
32241-0-1	'따르-(注)-지 -고 -더라'	따루^지
32241-0-2	'따르-(注)-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따랴^다
32242-0-1	'쪼:- (啄)-지 -고 -더라'	쪼^지
32242-0-2	'쪼:- (啄)-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쪼'알다
32243-0-1	'두-(置)-지 -고 -더라'	두^지
32243-0-2	'두-(置)-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두^얼다
32244-0-1	'시키-(使)-지 -고 -더라'	시'키지
32244-0-2	'시키-(使)-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시'킬다
32245-0-1	'지리-(漏 오줌을)-지 -고 -더라'	짤'기지
32245-0-2	'지리-(漏 오줌을)-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짤'길다
32246-0-1	'던지-(投)-지 -고 -더라'	뎌'지지
32246-0-2	'던지-(投)-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뎌'질다
32247-0-1	'모이-(集)-지 -고 -더라'	모이'지
32247-0-2	'모이-(集)-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모일'다
32248-0-1	'만지-(?) -지 -고 -더라'	만'치지
32248-0-2	'만지-(?)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만'칠다
32249-0-1	'쪼:- (?) -지 -고 -더라'	쪼이'지
32249-0-2	'쪼:- (?)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쪼일'다
32250-0-1	'비틀-(捻)-지 -고 -더라'	비틀'지'
32250-0-2	'비틀-(捻)-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비트'릴'다
32251-0-1	'돕:- (助)-지 -고 -더라'	도'우지

32251-0-2	'돕:-(助)-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도'완다
32252-0-1	'씹-(咀)-지 -고 -더라'	십찌'
32252-0-2	'씹-(咀)-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시'뵤다
32253-0-1	'미끄럽-(滑)-지 -고 -더라'	미끄럽'찌
32253-0-2	'미끄럽-(滑)-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미끄러뵤다
32254-0-1	'닿-(接)-지 -고 -더라'	대이'지
32254-0-2	'닿-(接)-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대인'따
32255-0-1	'누르-(壓)-지 -고 -더라'	눌리'지'
32255-0-2	'누르-(壓)-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눌릴'다'
32256-0-1	'주무르-(?)-지 -고 -더라'	주무리'지
32256-0-1	'주무르-(?)-지 -고 -더라'	주무루'지
32256-0-2	'주무르-(?)-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주물'ړ다
32257-0-1	'메우-(填)-지 -고 -더라'	메쿠'지
32257-0-2	'메우-(填)-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메칸^따
32258-0-1	'꼬시-(香味)-지 -고 -더라'	구시'지
32258-0-2	'꼬시-(香味)-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구싯^따
32259-0-1	'내리-(降)-지 -고 -더라'	내'리지
32259-0-2	'내리-(降)-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내'릴따
32260-0-1	'구르-(轉)-지 -고 -더라'	구부'지
32260-0-2	'구르-(轉)-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구부'ړ다
32261-0-1	'만들-(作)-지 -고 -더라'	맹글지'
32261-0-2	'만들-(作)-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맹그'ړ다
32262-0-1	'늙-(老)-지 -고 -더라'	늙'찌
32262-0-2	'늙-(老)-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늙'곶다
32263-0-1	'앓-(痛)-지 -고 -더라'	알'치

32263-0-2	'앓-(痛)-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알'길다
32264-0-1	'따르-(隨)-지 -고 -더라'	따'러지
32264-0-2	'따르-(隨)-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따'릴다
32265-0-1	'사-(買)-지 -고 -더라'	사'지'
32265-0-2	'사-(買)-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살'다'
32266-0-1	'치우-(除)-지 -고 -더라'	치'우지
32266-0-2	'치우-(除)-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치'알다
32267-0-1	'부러지-(被折)-지 -고 -더라'	뿌'아지지
32267-0-2	'부러지-(被折)-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뿌'아절'다'
32268-0-1	'다치-(傷)-지 -고 -더라'	다'치지
32268-0-2	'다치-(傷)-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다'칠다
32269-0-1	'느리-(緩)-지 -고 -더라'	느'리지
32269-0-2	'느리-(緩)-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느'릴다
32270-0-1	'무치-(和 나물을)-지 -고 -더라'	문'치지
32270-0-2	'무치-(和 나물을)-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문'칠다
32271-0-1	'죄:-(締)-지 -고 -더라'	조루^지
32271-0-2	'죄:-(締)-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조란^다
32272-0-1	'팔-(賣)-지 -고 -더라'	파'지'
32272-0-2	'팔-(賣)-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파'랴'다
32273-0-1	'뽑-(選)-지 -고 -더라'	뽑'지'
32273-0-2	'뽑-(選)-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뽑'받'다
32274-0-1	'뒤지-(索)-지 -고 -더라'	디비'지'
32274-0-2	'뒤지-(索)-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디빔^다
32275-0-1	'마치-(終)-지 -고 -더라'	마'치지
32275-0-2	'마치-(終)-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마'칠다
32276-0-1	'절이-(鹽)-지 -고 -더라'	제'리지

32276-0-2	'절이-(鹽)-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체'릴다
32277-0-1	'휘-(曲)-지 -고 -더라'	휘^지
32277-0-2	'휘-(曲)-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휼^다
32278-0-1	'줍:-(拾)-지 -고 -더라'	조:찌'
32278-0-2	'줍:-(拾)-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조'안다
32279-0-1	'빼앗-(奪)-지 -고 -더라'	빼뜨'지'
32279-0-2	'빼앗-(奪)-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빼뜨'ړ다
32280-0-1	'기울-(傾)-지 -고 -더라'	지'부지
32280-0-2	'기울-(傾)-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지'부ړ다
32280-0-2	'기울-(傾)-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찌'부ړ다
32281-0-1	'아깝-(惜)-지 -고 -더라'	아깝'지
32281-0-2	'아깝-(惜)-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아까'뵈다
32282-0-1	'반갑-(歡)-지 -고 -더라'	방'갑'지
32282-0-2	'반갑-(歡)-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방'가'뵈다
32283-0-1	'찌-(蒸)-지 -고 -더라'	찌'지'
32283-0-2	'찌-(蒸)-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찼'따'
32284-0-1	'노랑-(黃)-지 -고 -더라'	노라'치'
32284-0-2	'노랑-(黃)-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노랜'따
32285-0-1	'푸르-(靑)-지 -고 -더라'	푸'르지
32285-0-2	'푸르-(靑)-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푸'ړ다
32286-0-1	'서두르-(忙)-지 -고 -더라'	서두르'지
32286-0-2	'서두르-(忙)-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서두'ړ다
32287-0-1	'서투르-(不熟)-지 -고 -더라'	서투^지
32287-0-1	'서투르-(不熟)-지 -고 -더라'	서투'치'
32287-0-2	'서투르-(不熟)-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서터'ړ다

32288-0-1	'케으르-(怠)-지 -고 -더라'	깁받'찌
32288-0-2	'케으르-(怠)-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깁바'전다
32289-0-1	'따뜻하-(溫)-지 -고 -더라'	따뜻하'지
32289-0-2	'따뜻하-(溫)-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따뜻헐'따
32290-0-1	'춡-(寒)-지 -고 -더라'	춡'지'
32290-0-2	'춡-(寒)-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춡'뵤'다
32291-0-1	'뜨겁-(極熱)-지 -고 -더라'	뜨'겁'지
32291-0-2	'뜨겁-(極熱)-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뜨'거'뵤다
32292-0-1	'미지근하-(微溫)-지 -고 -더라'	미지근하'지
32292-0-2	'미지근하-(微溫)-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미지근헐'따
32293-0-1	'차갑-(寒)-지 -고 -더라'	차'갑'지
32293-0-2	'차갑-(寒)-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차'거'뵤다
32294-0-1	'부럽-(羨)-지 -고 -더라'	부'럽지
32294-0-2	'부럽-(羨)-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부'러뵤다
32295-0-1	'알뻘-(憎)-지 -고 -더라'	알뻘'지'
32295-0-2	'알뻘-(憎)-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알뻘'뵤'다
32296-0-1	'비슷하-(類似)-지 -고 -더라'	비슷:하'지
32296-0-2	'비슷하-(類似)-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비슷:헐'따'
32297-0-1	'새롭-(新)-지 -고 -더라'	새'롭'지
32297-0-2	'새롭-(新)-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새'러'뵤다
32298-0-1	'서:럽-(悲痛)-지 -고 -더라'	서럽'지'
32298-0-2	'서:럽-(悲痛)-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서러'뵤'다
32299-0-1	'까다롭-(難)-지 -고 -더라'	까'더'럽지

32299-0-2	'까다롭-(難)-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까'더'리뵈다
32300-0-1	'외롭-(孤)-지 -고 -더라'	웨'럽'지
32300-0-2	'외롭-(孤)-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웨'리'뵈다
32301-0-1	'아쉽-(不滿)-지 -고 -더라'	아'쉽지
32301-0-2	'아쉽-(不滿)-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아'서웁다
32302-0-1	'단단하-(固)-지 -고 -더라'	단단하'지
32302-0-2	'단단하-(固)-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단단할':따
32303-0-1	'늦-(晚)-지 -고 -더라'	느'찌'
32303-0-2	'늦-(晚)-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느'절다
32304-0-1	'남:-(餘)-지 -고 -더라'	남'지'
32304-0-2	'남:-(餘)-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나'맡다
32305-0-1	'남기-(使餘)-지 -고 -더라'	냉'기'지
32305-0-2	'남기-(使餘)-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냉'긴다
32306-0-1	'넘어뜨리-(使倒)-지 -고 -더라'	구불추^지
32306-0-2	'넘어뜨리-(使倒)-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구불찬^다
32307-0-1	'쭈그러뜨리-(使凹)-지 -고 -더라'	쭈굴티^지
32307-0-2	'쭈그러뜨리-(使凹)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쭈굴틸^다
32308-0-1	'견주-(比)-지 -고 -더라'	전주^지
32308-0-2	'견주-(比)-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전잔^다
32309-0-1	'외우-(誦)-지 -고 -더라'	웨'우지
32309-0-2	'외우-(誦)-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웨'왁다
32310-0-1	'문지르-(摩)-지 -고 -더라'	문지러'지

32310-0-2	'문지르-(摩)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문질'ړ다
32311-0-1	'가리키-(指)-지 -고 -더라'	가르'치지
32311-0-2	'가리키-(指)-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가르'칠다
32312-0-1	'가르치-(敎)-지 -고 -더라'	가르'치지
32312-0-2	'가르치-(敎)-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가르'칠다
32313-0-1	'겨누-(照準)-지 -고 -더라'	전주^지
32313-0-2	'겨누-(照準)-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전좃^다
32314-0-1	'겨루-(競)-지 -고 -더라'	게루^지
32314-0-2	'겨루-(競)-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게랏^다
32315-0-1	'달래-(慰撫)-지 -고 -더라'	달개'지'
32315-0-2	'달래-(慰撫)-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달깁^다
32316-0-1	'본받-(效)-지 -고 -더라'	뽄받'찌'
32316-0-2	'본받-(效)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뽄바'뜬다
32317-0-1	'어지르-(散)-지 -고 -더라'	어'지'리지
32317-0-2	'어지르-(散)-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어'질'ړ다
32318-0-1	'달리-(走)-지 -고 -더라'	달'리지
32318-0-2	'달리-(走)-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달'ړ다
32319-0-1	'우기-(拗)-지 -고 -더라'	서'우지
32319-0-2	'우기-(拗)-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서'완다
32320-0-1	'중얼거리-(獨言)-지 -고 -더라'	중얼거'리지
32320-0-2	'중얼거리-(獨言)-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중얼거'ړ다
32321-0-1	'지꼴이-(騷)-지 -고 -더라'	지꺼'러지

32321-0-2	'지꺠이-(驛)-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지꺠'ړ다
32322-0-1	'다니-(行)-지 -고 -더라'	댕'기지
32322-0-2	'다니-(行)-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댕'긴다
32323-0-1	'떨어뜨리-(使落)-지 -고 -더라'	떠루^지
32323-0-2	'떨어뜨리-(使落)-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떠랄^다
32324-0-1	'깨-(覺)-지 -고 -더라'	깨'지'
32324-0-2	'깨-(覺)-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꺠^다
32325-0-1	'시-(酸)-지 -고 -더라'	시그ړ'찌
32325-0-2	'시-(酸)-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시그러'벌다
32326-0-1	'숫-(湧)-지 -고 -더라'	솔'찌
32326-0-2	'숫-(湧)-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소'살다
32327-0-1	'중:-(好)-지 -고 -더라'	조치'
32327-0-2	'중:-(好)-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조완'따
32328-0-1	'빨강-(赤)-지 -고 -더라'	빨가'치'
32328-0-2	'빨강-(赤)-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빨꺠'다'
32329-0-1	'꺠:-(曳)-지 -고 -더라'	꺠^지
32329-0-2	'꺠:-(曳)-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꺠^다
32330-0-1	'넓-(廣)-지 -고 -더라'	널'찌
32330-0-2	'넓-(廣)-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널'벌따
32331-0-1	'하얗-(白)-지 -고 -더라'	하야'치'
32331-0-2	'하얗-(白)-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하얏'따
32331-0-2	'하얗-(白)-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하얏'따
32332-0-1	꺠(羹)-이/가	꺠'기
32332-0-2	꺠(羹)-을/를	꺠'꺠
32332-0-3	꺠(羹)-에(서)	꺠'꺠서
32332-0-4	꺠(羹)-으로	꺠'꺠로
32332-0-5	꺠(羹)-도	꺠'또
32333-0-1	논(沓)-이/가	노'니'

32333-0-2	논(沓)-을/를	노'늘'
32333-0-3	논(沓)-에(서)	노'네
32333-0-4	논(沓)-으로	노'느'로
32333-0-5	논(沓)-도	논'도'
32334-0-1	쌀(米)-이/가	싸'리'
32334-0-2	쌀(米)-을/를	살'로'
32334-0-3	쌀(米)-에(서)	싸'레
32334-0-4	쌀(米)-으로	살'로'
32334-0-5	쌀(米)-도	살'또'
32335-0-1	봄(春)-이/가	보'미'
32335-0-2	봄(春)-을/를	보'믈'
32335-0-3	봄(春)-에(서)	보'메
32335-0-4	봄(春)-으로	보'므'로
32335-0-5	봄(春)-도	봄'도'
32336-0-1	집(家)-이/가	지'비
32336-0-2	집(家)-을/를	지'블
32336-0-3	집(家)-에(서)	지'베
32336-0-4	집(家)-으로	지'브로
32336-0-5	집(家)-도	집'또
32337-0-1	옷(衣)-이/가	오'시'
32337-0-2	옷(衣)-을/를	오'슬'
32337-0-3	옷(衣)-에(서)	오'세
32337-0-4	옷(衣)-으로	오'스'로
32337-0-5	옷(衣)-도	온'또'
32338-0-1	방(房)-이/가	방'이
32338-0-2	방(房)-을/를	방'을
32338-0-3	방(房)-에(서)	방'에서
32338-0-4	방(房)-으로	방'으로
32338-0-5	방(房)-도	방'도
32339-0-1	낮(晝)-이/가	나'지'
32339-0-2	낮(晝)-을/를	나'들'
32339-0-2	낮(晝)-을/를	나'즐'
32339-0-3	낮(晝)-에(서)	나'제'
32339-0-4	낮(晝)-으로	나'즈'로는
32339-0-5	낮(晝)-도	날'또'
32340-0-1	낯(顔)-이/가	나'치
32340-0-2	낯(顔)-을/를	나'틀
32340-0-3	낯(顔)-에(서)	나'테
32340-0-4	낯(顔)-으로	나'트로는
32340-0-5	낯(顔)-도	날'또
32341-0-1	부엌(廚)-이/가	정'지'가

32341-0-2	부엌(廚)-을/를	정지'로
32341-0-3	부엌(廚)-에(서)	정지'에서
32341-0-4	부엌(廚)-으로	정지'로
32341-0-5	부엌(廚)-도	정지'도
32342-0-1	밭(田)-이/가	바'치
32342-0-2	밭(田)-을/를	바'틀
32342-0-3	밭(田)-에(서)	바'테서
32342-0-4	밭(田)-으로	바'트로
32342-0-5	밭(田)-도	받'또
32343-0-1	앞(前)-이/가	아'피
32343-0-2	앞(前)-을/를	아'플
32343-0-3	앞(前)-에(서)	아'페
32343-0-4	앞(前)-으로	아'프로
32343-0-5	앞(前)-도	앞'또
32344-0-1	넋(魂)-이/가	넉'시'
32344-0-2	넋(魂)-을/를	넉'슬'
32344-0-3	넋(魂)-에(서)	넉'시'예
32344-0-4	넋(魂)-으로	넉'시'로
32344-0-4	넋(魂)-으로	넉'스'로
32344-0-5	넋(魂)-도	넉'또'
32345-0-1	흙(土)-이/가	흐^기
32345-0-1	흙(土)-이/가	흐'리
32345-0-2	흙(土)-을/를	흙'로
32345-0-3	흙(土)-에(서)	흐'레서
32345-0-4	흙(土)-으로	흙'로
32345-0-5	흙(土)-도	흙'또
32346-0-1	여덟(八)-이/가	여'덜비다
32346-0-1	여덟(八)-이/가	여'더리
32346-0-2	여덟(八)-을/를	여'덜블
32346-0-3	여덟(八)-에(서)	여'덜베서
32346-0-4	여덟(八)-으로	여'덜부로
32346-0-5	여덟(八)-도	여'덜또
32347-0-1	돌(週歲)-이/가	도'리'
32347-0-2	돌(週歲)-을/를	도'를'
32347-0-3	돌(週歲)-에(서)	도'레'
32347-0-4	돌(週歲)-으로	돌'로'
32347-0-5	돌(週歲)-도	돌'또'
32348-0-1	값(價)-이/가	갑'시'
32348-0-2	값(價)-을/를	갑'슬'
32348-0-3	값(價)-에(서)	갑'세'
32348-0-4	값(價)-으로	갑'스'로

32348-0-5	값(價)-도	값'또'
32349-0-1	속:(內)-이/가	쏘'기'
32349-0-2	속:(內)-을/를	쏘'글'
32349-0-3	속:(內)-에(서)	쏘'게'서'
32349-0-4	속:(內)-으로	쏘'그'로
32349-0-5	속:(內)-도	쭙'또'
32350-0-1	돈:(錢)-이/가	도'니'
32350-0-2	돈:(錢)-을/를	도'늘'
32350-0-3	돈:(錢)-에(서)	도'네'
32350-0-4	돈:(錢)-으로	도:'느'로'
32350-0-5	돈:(錢)-도	돈'도'
32351-0-1	발(足)-이/가	바'리'
32351-0-2	발(足)-을/를	발'로'
32351-0-3	발(足)-에(서)	바'레서
32351-0-4	발(足)-으로	발'로'
32351-0-5	발(足)-도	발'또'
32352-0-1	짐(荷物)-이/가	지'미'
32352-0-2	짐(荷物)-을/를	지'물'
32352-0-3	짐(荷物)-에(서)	지'메는
32352-0-4	짐(荷物)-으로	지'므'로
32352-0-5	짐(荷物)-도	짐'도'
32353-0-1	입(口)-이/가	이'비'
32353-0-2	입(口)-을/를	이'블'
32353-0-3	입(口)-에(서)	이'베서
32353-0-4	입(口)-으로	이'브'로
32353-0-5	입(口)-도	입'또'
32354-0-1	낫(鎌)-이/가	나'지'
32354-0-1	낫(鎌)-이/가	나'시'
32354-0-2	낫(鎌)-을/를	나'슬'
32354-0-3	낫(鎌)-에(서)	나'세
32354-0-4	낫(鎌)-으로	나'스'로
32354-0-5	낫(鎌)-도	낫'또'
32355-0-1	강(江)-이/가	강'이'
32355-0-2	강(江)-을/를	강'을'
32355-0-3	강(江)-에(서)	강'에'서
32355-0-4	강(江)-으로	강'으'로
32355-0-5	강(江)-도	강'도'
32356-0-1	젖(乳)-이/가	저'지'
32356-0-2	젖(乳)-을/를	저'들'
32356-0-3	젖(乳)-에(서)	저'데서
32356-0-4	젖(乳)-으로	저'드'로

32356-0-5	젖(乳)-도	젖'또'
32357-0-1	꽃(花)-이/가	꼬'치
32357-0-2	꽃(花)-을/를	꼬'틀
32357-0-3	꽃(花)-에(서)	꼬'테서
32357-0-4	꽃(花)-으로	꼬'트로
32357-0-5	꽃(花)-도	꼰'또
32358-0-1	팥(赤豆)-이/가	판'치'
32358-0-2	팥(赤豆)-을/를	파'틀'
32358-0-3	팥(赤豆)-에(서)	파'테
32358-0-4	팥(赤豆)-으로	파'트'로
32358-0-5	팥(赤豆)-도	판'또'
32359-0-1	옆(側)-이/가	여'피
32359-0-2	옆(側)-을/를	여'플
32359-0-3	옆(側)-에(서)	여'페
32359-0-4	옆(側)-으로	여'프로
32359-0-5	옆(側)-도	엽'또
32360-0-1	샅(賃金)-이/가	사'기'
32360-0-2	샅(賃金)-을/를	사'글'
32360-0-3	샅(賃金)-에(서)	사'게
32360-0-4	샅(賃金)-으로	싸'그로
32360-0-5	샅(賃金)-도	삭'또'
32361-0-1	닭(鷄)-이/가	달'기
32361-0-1	닭(鷄)-이/가	다'리
32361-0-2	닭(鷄)-을/를	달'글
32361-0-2	닭(鷄)-을/를	달'로
32361-0-3	닭(鷄)-에(서)	달'게서
32361-0-3	닭(鷄)-에(서)	다'레서
32361-0-4	닭(鷄)-으로	달'그로
32361-0-4	닭(鷄)-으로	달'로
32361-0-5	닭(鷄)-도	달'또
32362-0-1	밖(外)-이/가	바'끼
32362-0-2	밖(外)-을/를	바'끌
32362-0-3	밖(外)-에(서)	바'께
32362-0-4	밖(外)-으로	바'끄로
32362-0-5	밖(外)-도	박'또

제4편 문법

40101	나	내':
40101-0-1	내-가	내'가'
40101-0-2	내	내' (물'건')
40101-0-3	나-를	나'를'
40101-0-4	나-에게	내인'데
40101-0-5	나-와	내하'고
40101-0-6	나-는	나'는
40101-0-7	나-도	나'도
40102	저/제-가	저
40102-0-1	저-가	저'가
40102-0-2	저-의	저 (물'건')
40102-0-3	저-을/를	저'를
40102-0-4	저-에게	저인'데
40102-0-4	저-에게	저인는'데
40102-0-5	저-와/과	저하'고
40102-0-6	저-는	저'는
40102-0-7	저-도	저'도
40103	우리	우라부'지
40103	우리	우리'(아부'지)
40104	저희	저: (아부'지)
40105	너	너
40105-0-1	-가	니:가'
40105-0-2	-의	니 (채'김'니다)
40105-0-3	-을/를	니'로
40105-0-4	-에게	니인':데
40105-0-5	-와/과	니하'고
40105-0-6	-는	니'는
40105-0-7	-도	니'도
40106	자네	자네'
40107	당신	당시'~이
40107	당신	당신'이
40108	너희	너거'(아부'지)
40109	개	가^(가)
40109-1	애	야':(가')
40109-2	재	자':(가')
40110	자기	지' (말)
40111	당신	자'기' (방)

40112	누구-요/누구십니까	누'고'
40112	누구-요/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40112-0-1	누-가	누'가'
40112-0-2	누구-의	누'(동'고)
40112-0-3	누구-를	누'로'
40112-0-4	누구-에게	누'로'
40112-0-4	누구-에게	누'인'테
40112-0-5	누구-와	누'하'고
40113	무엇-이냐/입니까	뭐'고'
40113	무엇-이냐/입니까	머'상'교'
40113-0-1	무엇-이	머^가
40113-0-1	무엇-이	머:
40113-0-1	무엇-이	머:시'
40113-0-2	무슨	무'진'
40113-0-2	무슨	무'신'
40113-0-3	무엇-을	머:로'
40113-0-3	무엇-을	머:
40113-0-4	무엇-과	머:하'고
40113-0-4	무엇-과	머:창'
40114	어디	어'테'
40115	언제	언'제'
40116	어느	무'진'
40116	어느	무'신'
40116	어느	어'느'
40117	왜	와
40118	얼마나	얼'매'나'
40119	어떻게	우'예'
40120	이것	이'기^
40121	그것	그'기^
40122	저것	저'기^
40123	여기	여'게(로)
40124	거기	고'게
40125	저기	저'게
40126	이리	이':리'
40127	그리	그':리'
40128	저리	저':리'
40201	-이/가	도~'나'
40201	-이/가	가'비'
40202	-이/가	코'가'
40203	-을/를	귀'로'
40204	-을/를	물'로'

40205	-에 게/게	저'사'라물
40205	-에 게/게	저'사'람인데
40206	-보고/더러	누'보'고
40207	-보고/더러	누'보'고
40208	-에	지'배
40209	-에	넌'주'~우'
40210	-에서	큰지'배서
40211	-에서	서울'서'
40212	-에서	여'개서
40213	-으로	살'로'가^
40214	-으로	지'풀'가^
40215	-으로	새'끼'로가^
40216	-으로	어테'로'
40217	-와/과	수박하'고 도마'도하'고 오이하'고
40218	-와/과	내하'고
40219	-보다	형카'마
40220	-처럼	대'지'매'치로
40221	-만큼	니만^침
40222	-만큼	무'굴 만^침
40223	-아/야	봉'나'마
40224	-아/야	봉'남'시
40225	-아/야	영'수야
40226	-아/야	눈'님
40226-1	-예	눈'님뇨:
40227	-아/야	할'버'지
40227	-아/야	할'배^
40227	-아/야	하'라'버지
40227-1	-요	할'배'요
40228	-이랑	술하'고 고기하'고
40229	-커녕	마:너는커'이느
40230	-은/는	수'른 (멍'는데) 담:배는' (안 피'운다)
40231	-만	딸'마'
40232	-도	키'도' (크'고') 얼굴'또 (잘 생'긴다)
40233	-마다	날'마'다
40234	-부터	오'늘버'텨
40235	-까지	내'엘까'지
40235	-까지	내'엘까'중
40236	-조차	물조'차~아
40236	-조차	물조'창
40236-1	-할라	비조'창
40237	-이야/야	마:리'사'

40238	-을랑	
40239	-이라도	부자라'도'
40240	-밖에	니배'끼
40241	-가지고	싸가^
40242	오라-고 한다	오'라칸다
40243	알았어-요	아'라서요
40244	했지-요?	헐':찌요
40301	-아라	안'자라
40302	-게	양'께
40303	-으오	안즈'소
40304	-으십시오	안즈^이소
40305	-세요	안지^이소
40306	-자	가'자
40307	-세	가'세'
40308	-으오	갑'시'다
40309	-십시다	가'입시다
40310	-세요	가'입시다
40311	-니	오'나'
40312	-나	오'능'가
40313	-오	오'요'
40314	-습니까	옴'니'꺼
40315	-나요	옴'니'꺼
40316	-니	가'노'
40317	-나	가'능'고
40318	-시오	가'요
40319	-습니까	가'심'니꺼
40320	-세요	가'심'니꺼
40321	-는다	몽는'다
40322	-네	몽'네
40323	-오	묵'소
40324	-습니다	묵슴'니다
40325	-네요	묵슴'니다
40326	-다	적:다'
40327	-네	정:네'
40328	-소	적:소'
40329	-으십니다	적습니'다'
40330	-으세요	적습니'다'
40331	-아	아푸'나
40332	-지	갈끼'제
40333	-이다	생'이'리다
40334	-이니	생'이'리가

40335	-이네	생'이'리네
40336	-인가	생'이'링가
40337	-이오	생'이'리요
40338	-이오	생'이'리요
40339	-입니다.	생'시'^~입니다
40340	-입니까	생'시'^~입니까
40341	-이시지요	생'시'^~이조
40342	-이시지요	생'시'^~이조
40343	-이냐?	머:꼬'
40344	-인가?	머:잉'고
40345	-이오?	머:싱'교
40345	-이오?	머~요'
40346	-입니까?	멈~니'까
40347	-인가요?	멈~니'까
40348	-이야?	머~꼬'
40349	-이어요?	머~요'
40350	-습니다	만습니'다'
40351	-습디다	만습띠'다'
40352	-는구나/구나	멍능구'나
40353	-는구면/구면	
40354	-일세	오래마'~이네
40355	-으마	가'플꾸마
40356	-음세	가프꾸'마
40357	-을라	다'칠라
40401	-고/-고서	목'꼬
40401	-고/-고서	목'꼬서
40402	-으면서	보'머
40403	-어/-어서	추'버'서
40404	-으니 /-으니까	따뜻하'~이
40405	-관테	일로'
40405	-관테	이'리'길'레
40406	-다가	오'다'가
40407	-거든	만'내'거드
40408	-더라도	스'더'라도
40409	-으려고	물^라꼬
40410	-도록	죽'뚜루
40411	-을수록	노폴'수루
40412	-듯이	(물')씨'드'시
40413	-지	보'지
40501	-셔	온'나
40502	-셨소	해'쌔'니까

40601	웃는다	운는'다
40601	웃는다	원는'다
40602	기어간다	기':간'다
40603	크다	크'다'
40604	생일이다	새'~이'리다
40605	오고 있다	오'고인따
40606	먹었니?/잡수셨습니까?	잡산^닝교
40606	먹었니?/잡수셨습니까?	무'건나
40607	왔었다	왈'따'
40608	먹더라	묵떠'라
40609	먹더냐	묵떠'나
40610	만나는 친구	만'내는
40611	만난 친구	만'넌
40612	만났던 친구	만'내편
40613	만날 친구	만'넬
40614	큰 아이	크'나'이
40615	크던 아이	크'던'
40616	켰던 아이	컨'편'
40617	마시지 않겠다	양켄'다
40618	비가 오겠다	오겐'따
40701	안 먹었어/먹지 않았어	암 무'건따
40701	안 먹었어/먹지 않았어	묵'찌 아넌'따
40702	안 좋다/좋지 않다	조치' 안'타
40702	안 좋다/좋지 않다	안조'타'
40703	안 깨끗하다/깨끗하지 않다	양깨끝'타
	/깨끗 안 하다	
40703	안 깨끗하다/깨끗하지 않다	깨끄'치 안'타
	/깨끗 안 하다	
40703	안 깨끗하다/깨끗하지 않다	깨끝 안하'다
	/깨끗 안 하다	
40704	장가 안 갔다	장개 양갈'다
	/장가가지 않았따	
40704	장가 안 갔다	장개가'지 아넌다
	/장가가지 않았따	
40705	만나 보지 않았따/	만내 안받'따'
	안 만나 보았다/만나 안 보았다	
40705	만나 보지 않았따/	만'내보'지 아넌'다
	안 만나 보았다/만나 안 보았다	
40705	만나 보지 않았따	안만내 받':따'
	/안 만나 보았다/만나 안 보았다	
40706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묵찌도 안하'고

40706-1	먹도 않고	묵또 안하'고
40707	못 마신다/마시지 못한다	마'시지 몬한'다'
40707	못 마신다/마시지 못한다	몬마'신'다
40708	맞잖소?/안 맞소?	맞'찌 안'쏘
40708	맞잖소?/안 맞소?	안맞'쏘
40801	살리다	살'릴다
40802	늘리다	부랄^다
40802	늘리다	느랄^따
40803	말리다1	말륌^다
40804	말리다2	말'긴다
40804	말리다2	말'린다
40805	열리다	어랄^다
40806	녹이다	노칸^다
40807	신기다	싱긴^다
40808	보이다	보인'따
40809	알리다	알'릴따
40810	입히다	이핀^따
40811	앉히다	안찬^따
40812	벗기다	베깁^따
40813	웃기다	웁'깁따
40814	씩히다	서칸^다
40815	숨기다	숨'킨따
40816	끓기다	궁깁^다
40817	깨우다	깨깁^다
40818	돌우다	도달^따
40819	잡히다	재핀^따
40820	깎이다	깨깁^따
40821	끼이다	짱깁^다
40822	떼이다	떠^따
40823	채이다	채인^다
40824	닫히다	대깁^따
40825	들리다	들린^다
40826	엮히다	어핀^따
40827	바뀌다	배깁^따
40828	썩히다	씨핀^다
40829	엮히다	언촨^다
40830	찍히다	쪼깁^다
40831	눌리다	누줄릴^다
40832	실리다	실리^서
40833	끓기다	꿍깁^다
40834	끓히다	끓깁^다

40901	싫다	
40902	싫다	(잘: 목땡') 거떠'니:
40903	보다	(이'버) 보'이'소
40904	버리다	(무'거)뽀'네'
40905	대다	(우'러) 산는'다
40906	-나/는가 보다	(비'가') 올랑갑'다'
40907	-나/는가 보다	자'능'갑다
40908	-나/는가 보다	추'붕'갑다
41001	실컷	실컨'
41002	많이	마~이'
41003	너무	너무'
41004	조금	쪼매':마'
41005	자주	자'주
41006	빨리	짜'기'
41007	얼른	얼룽'
41008	기어코	겨'이'
41009	가끔	가끔'
41010	먼저	먼저'
41011	나중에	난중'에'
41012	가득	가득'
41013	몽땅	몽땅'
41014	모조리	삭
41014	모조리	말끔':
41014	모조리	모조'리
41014	모조리	몽땅'
41014	모조리	점':부'
41015	혼자	내혼'차
41016	항상	늘:
41016	항상	항상'
41017	똑똑히	똑또'키
41018	겨우	궁그'~이
41019	늘	늘~
41020	저절로	지절'로
41021	자꾸	자꼬'
41022	설마	설'마'드라
41023	하마터면	까딱해'시모
41024	함께	항'께
41025	결핍하면	빠'떡'카머
41026	공연히	꽤:니'
41027	그냥	그'냥
41028	매우	매'우

41029	곧장	사'기'
41029	곧장	바'리'
41030	별써	별'썰'
41031	가장	가'장
41032	가만히	가'마':
41033	미리	미'리
41034	이따금	하문'석
41101	여보	여'보'
41101	여보	여'보'
41102	여보세요	보'소'
41103	들어가세요	드러가'이'소
41104	수고하세요	수고하'이'소
41105	오랜만에 만난	방'갑'다
	친구 사이의 인사말	
41106	아침 출근길에 마주친	아'적' 잡'산'^능'교
	동네 어른에게 하는 인사말	
41107	오랜만에 찾아 뵈는 어른에게	잘 게'시'슴'니'까
	큰절을 올리면서 하는 말	
41108	여기 있습니다	여'이'심':더'
41109	예	예:
41109	예	으'~으'
41110	아니	아'임'니'더'
41110	아니	응~으'
41111	아무렇지도 않다	아'무'치'도 아'나'다
41112	내버려 뒀	내'배'리 도'라'
41113	'개나 소나 개나 소나	쥐'나' 개'나'
	차를 몰고 다닌다'	
41114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밑'빠'진 독'이'에 물'북'끼'다
41115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	구'무' 도'더'기 소'도'둑 덴'다
41116	아니 땀 굴뚝에 연기 나랴	안 땀' 꿀'떼'게 영'기가 나'나

<Abstract>

A Report on Research of a Regional Dialect in Gyeongsangnam-do in 2009

This is a report on the research of a regional dialect in Gyeongsangnam-do, which was performed at the area of Myeongchon-ri, Sangbuk-myeon, Greater Ulsan in 2009. A main informant is an old man named Kim, Ilgyeong born in 1931, whose ancestors are said to have lived for 450 years. As he is nearly a man of ideal informant who has necessary requirements, the present researcher collected a lot of high-quality data through him.

The main contents lie in the last chapter of this report, although it is divided into three chapters; 1st research procedures, 2nd transcribing principles, and 3rd transcribed data. The last chapter is in turn sub-divided into four smaller parts; 1st oral utterance, 2nd lexical entries, 3rd phonemes, and 4th grammar. The first has 5 subjects such as general introduction of the village, rice farming by organic system, seasonal customs, dry-field farming, and traditional folk games. They are mostly the data which were surveyed according to the research items gathered in the 1st part of oral utterance in 『Questionnaires of Regional Dialect』, but the 2nd of rice farming by organic system was surveyed by free style oral utterance.

The rest of lexical entries, phonemes, and grammar were collected and transcribed according to the research items in 『Questionnaires of Regional Dialect』 and by their. Lexical entries are the ones related to farming, food, housing, clothing, folk customs, human body, baby care, kinship, animal, plant, and nature. Phonemes are the ones related to phoneme inventory and phonological processes. Grammar is the ones related to pronouns, case markers, sentential-final endings, connective endings, subject-honorific elements, tense, negation, causativization and passivization, auxiliary verbals, adverbs, and idiomatic expressions.

Key words : regional dialect in Gyeongsangnam-do, surveying procedure, transcribing principles, transcribed data, oral utterance, lexical entries, grammar

국립국어원 지역어 조사 추진 위원회

- | | |
|-------|---------------|
| ◆ 위원장 | 이기갑 (목포대학교) |
| ◆ 위 원 | 강영봉 (제주대학교) |
| ◆ 위 원 | 김무식 (경성대학교) |
| ◆ 위 원 | 김봉국 (부산교육대학교) |
| ◆ 위 원 | 김정대 (경남대학교) |
| ◆ 위 원 | 박경래 (세명대학교) |
| ◆ 위 원 | 소강춘 (전주대학교) |
| ◆ 위 원 | 최명옥 (서울대학교) |
| ◆ 위 원 | 한영목 (충남대학교) |
| ◆ 위 원 | 홍윤표 (전 연세대학교) |

